

2020 알고 싶은 건강생활 정보

Healthy lifestyle information



발 간 사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일상생활마저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요즘, 우리 국민들이 보여주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신속하고 철저한 코로나 대응 체계는 세계인들로부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일상의 생활로 되돌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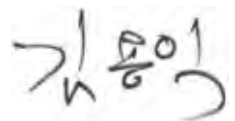
「2020 알고 싶은 건강생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국민들의 질병 및 급여 정보, 건강검진 정보와 그 외 국내외 사회지표 등의 자료를 총 4개의 테마로 구성하여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는 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발간하였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질병정보에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사망원인 질환에 대한 진료현황과 예방법, 건강검진 정보는 만성질환의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일반건강검진 결과와 문진내용 분석,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지표에서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각종 급여서비스와 현황 등을 담았습니다. 그 밖에도 국내·외 지표로서 기초 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통계와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저출산 및 고령화 지표, 우리나라의 국제적 보건의료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OECD 건강 지표 등이 수록되었습니다.

이 책자가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통계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관심 질병

I 약성신생물(사망원인 1위)

1. 폐암	4
2. 간암	6
3. 대장암	8
4. 위암	10
5. 췌장암	12
6. 유방암	14
7. 전립선암	16
8. 혈액암	18
9. 식도암	20
10. 방광암	22
11. 뇌(신경)암	24
12. 자궁경부암	26

II 순환계통 질환(사망원인 2위)

13. 뇌혈관질환	30
14. 심혈관 질환(허혈성 및 기타 심장질환)	32
15. 고혈압	34

III 호흡계통 질환(사망원인 3위)

16. 폐렴	38
17. 호흡기 결핵	40
18. 만성폐색성 폐질환	42
19. 기흉	44
20. 인플루엔자	46

IV 정신 및 행동장애

21. 과다활동성주의력결핍장애(ADHD)	50
22. 우울증	52
23. 수면장애(불면증)	54
24. 공황장애	56
25. 조현병(정신분열증)	58
26. 치매	60
27. 정신지체	62
28. 틱장애	64
29. 뇌전증(간질)	66
30. 파킨슨병	68

V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31. 당뇨병	72
32. 성조숙증	74

VI 소화계통의 질환

33. 간 질환	78
34. 위 및 십이지장 궤양	80
35. 치질	82
36. 치은염 및 치주질환	84

VII 비뇨, 생식기계 질환

37. 신부전	88
38. 요실금	90
39. 방광염	92
40. 요로결석증	94

VIII 회귀난치성 질환

41. 선천성 대사이상	98
42. 선천성 기형	100
43. 염색체 이상	102

IX 환경성 질환

44. 아토피 피부염	106
45. 알레르기성 비염	108
46. 대상포진	110

X 기타질환

47. 백내장	114
48. 관절염	116
49. 손상 및 화상	118
50. 중독	120
51. 류마티스 관절염	122

테마 2

건강검진

I 검진결과

52. 건강검진 수검률	126
53. 신장	128
54. 체중	129
55. 허리둘레	130
56. 비만율(체질량 지수 활용)	131
57. 공복혈당	132
58. 총콜레스테롤	133
59. 혈색소	134
60. 혈압	135

II 문진

61. 월간음주율	138
62. 흡연실태 및 흡연량	139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I 건강보험 적용

- 63. 의료보장 적용인구..... 142
- 64.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적용인구 ... 143

II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65. 건강보험 보장률..... 146
- 66.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147
- 67. 중증질환 산정특례..... 148
- 68. 본인부담금 상한제..... 151
- 69. 재난적 의료비 지원 155
- 70.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157
- 71. 노인 틀니, 임플란트 및 치석제거 건강보험
적용 158

III 건강보험 의료이용

- 72. 건강보험 총 진료비 162
- 73. 의약부분별 진료비(요양기관 종별, 의과 입원/
외래별)..... 163
- 74. 질병별 다빈도 상병 164

IV 건강보험 급여

- 75. 건강보험료 대비 급여비 166
- 76. 현물 및 현금 급여 167
- 77.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168
- 78. 장애인보장구 170
- 79. 요양비 172

V 의료 인프라

- 80. 요양기관 현황 174
- 81. 의료 인력, 시설 장비 현황 176

VI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및 인프라

- 82. 인정 신청 및 인정 180
- 83. 인정자 주요 질병 181
- 84. 인정자의 주 수발자 182
- 85.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실적 183
- 86. 전문인력 및 기관 184

국내외 사회지표

I 인구·사회

87. 장래인구 추계	186
88. 기초생활 수급자	187
89. 등록 장애인	188
90. 사망원인별 사망률	189

III OECD Health Data

97. OECD 건강상태 관련 주요지표	204
98. OECD 국민의료비 지출	205
99. OECD 보건의료 자원	206
100. OECD 보건의료 이용	207

II 저출산 및 고령화

91. 저출산·고령화 주요현황	192
92. 총 혼인건수	194
93. 고령임신 및 불임환자	195
94. 어린이집 수 및 아동수	197
95. 노인의 영양병원 진료 현황	198
96. 노인진료비 및 다빈도 상병	199

1. 관심질병 요약	210
2. 2020년 건강검진 안내문	218

일러두기



- ① 각 통계장표는 해당기준의 잠정치로, 추후 발간될 통계연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② 단위 미만의 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한 것이므로 항목 간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③ 용어정의
 - 요양기관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에 의거, 환자를(에게) 진료(투약)하는 기관으로서, 병·의원, 보건소, 약국 등을 통칭함. 약국을 제외한 요양기관을 '의료기관'이라 함.
 - 진료비(요양급여비용) : 요양기관에서 환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험자부담금(공단부담금, 급여비)과 환자 본인 부담금의 합한 금액이며(비급여 제외). 요양기관이 청구한 비용 중 심사 결정된 금액
 - 급여비(공단부담금, 보험자부담금) : 진료비 중 보험자(국민건강보험)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금액
 - 입내원일수 : 환자가 실제 요양기관에 방문 또는 입원한 일수
 - 급여일수(진료일수) : 내원일수에 의료기관 내(원내) 투약일수를 포함하여 계산한 일수로 내원과 투약 중복 시 1일로 산정. 약국 처방건의 요양일수는 투약일수를 의미함.
 - 진료실인원 : 건강보험 가입자중 1년간 실제 진료 받은 환자 수로 통계표상 분류기준 내 중복인원을 제외하여 연간 총 실인원 산정
- ④ 테마별 구성
 - 관심질병
 - 진료현황은 진료일 기준이며 한의 제외, 약국 제외, 비급여 및 의료급여 제외함.
 - 2020년 6월 청구 분까지 반영하였으며, 미청구분이 있을 수 있음.
 - 질병통계는 가입자가 해당 질병이 의심되어 진료받은 1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요양기관이 청구한 내역의 주상병 기준으로 정의하여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음.
 - 2019년 자료는 잠정치로서 추후 발간될 통계연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질병정보'등의 안내는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등 다양한 출처 인용(그 외 출처 기재)
 - 법적인계에 대한 고지 : 본 정보는 건강정보에 대한 국민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이며, 개별환자의 증상과 질병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의사의 진료가 반드시 필요함.
 - 건강검진: 자료공개 시점 등에 따라 통계연도나 기간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본부 각 실별 제공자료 및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빅데이터실에서 취합한 데이터로서 자료공개 시점 등 내부사정에 따라 통계연도나 기간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국내·외 사회지표: 통계청, 보건복지부, OECD 등 외부기관에서 발표한 인구사회지표를 취합한 데이터의 경우 통계 연도나 기간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테마1 |
관심질병

I. 악성신생물(사망원인 1위)

1. 폐암	4
2. 간암	6
3. 대장암	8
4. 위암	10
5. 췌장암	12
6. 유방암	14
7. 전립선암	16
8. 혈액암	18
9. 식도암	20
10. 방광암.....	22
11. 뇌(신경)암	24
12. 자궁경부암.....	26

01 폐암



정의

- ◆ 질병코드: C33(기관의 악성 신생물), C34(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 ◆ 「폐암」이란 폐에 생긴 악성 종양을 말하며, 폐를 구성하는 조직 자체에서 암세포가 생겨난 원발성(原發性) 폐암과, 암세포가 다른 기관에서 생긴 뒤 혈관이나 림프관을 타고 폐로 옮겨 와서 증식하는 전이성(轉移性) 폐암으로 나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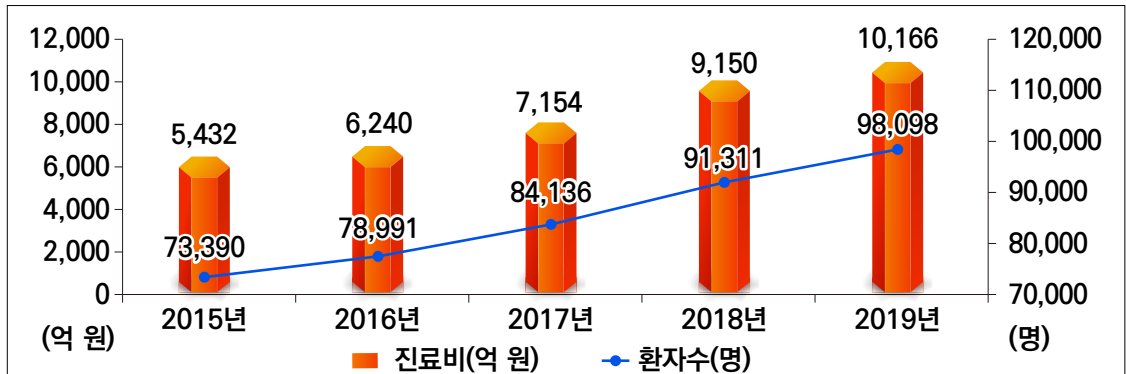
(출처: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주요현황

- ◆ 폐암 환자수는 2015년 73,390명에서 2019년 98,098명으로 24,708명 증가하였고, 진료비는 2015년 5,432억 원에서 2019년 1조 166억 원으로 4,734억 원 증가하였다.
- ◆ 2019년 기준 폐암 환자수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1.67배 이상 많았고, 전체 연령 중에서 70대, 60대, 80대 순으로 환자수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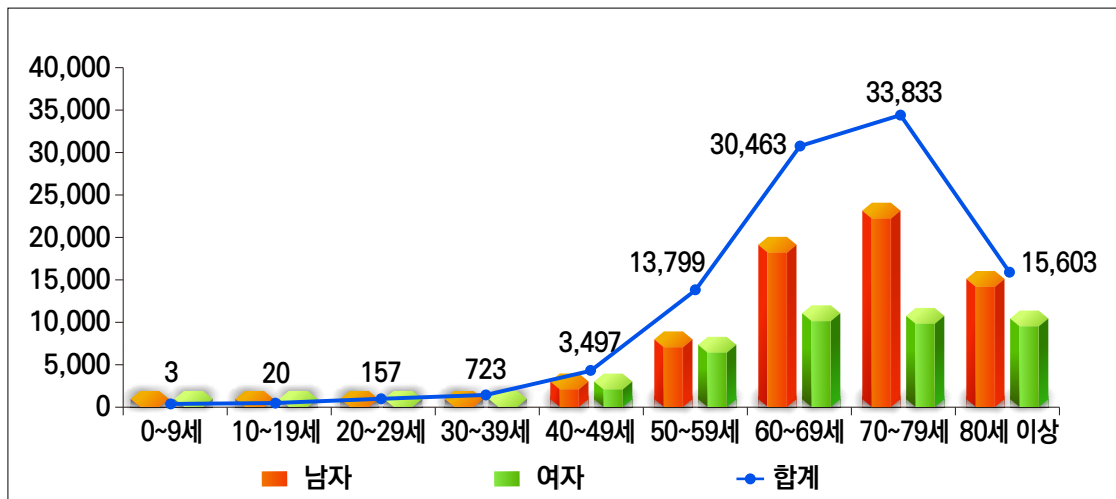
[연도별 폐암 환자수 및 진료비(2015-2019)]



(단위: 명, 억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환자수	합계	73,390	78,991	84,136	91,311	98,098
	남자	48,045	51,111	53,815	57,660	61,381
	여자	25,345	27,880	30,321	33,651	36,717
진료비	합계	5,432	6,240	7,154	9,150	10,166
	남자	3,594	4,101	4,707	5,853	6,459
	여자	1,838	2,139	2,447	3,298	3,707

[연령별 폐암 환자수(2019)]



(단위: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합계	3	20	157	723	3,497	13,799	30,463	33,833	15,603
남자	3	6	89	340	1,661	7,302	18,889	23,090	10,001
여자	0	14	68	383	1,836	6,497	11,574	10,743	5,602



질병정보

- ◆ 한국인 사망원인 중 1위를 차지하는 암이다. 조직학적으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편평세포암과 소세포암이라는 조직유형이 70% 이상을 차지하며, 이 두 가지 유형의 폐암은 흡연이 가장 중요한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에 걸릴 위험이 50배 정도 높다고 한다.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여성과 청소년의 흡연율이 높아져서 폐암 발생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다. 결핵형 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도 유해한 폐암유발 요인이다.
- ◆ 흡연 이외에 과거에 건축재료로 많이 사용되었던 석면도 폐암의 중요한 원인이며, 대기오염도 폐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 ◆ 폐암의 **예방**을 위해서는 금연이 필수적이며, 장기간 흡연한 사람은 금연을 시작한 이후에도 10년 이상 지나야 폐암 발생 위험이 비흡연자 수준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건강검진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도 중요할 것이다.

02 간 암



정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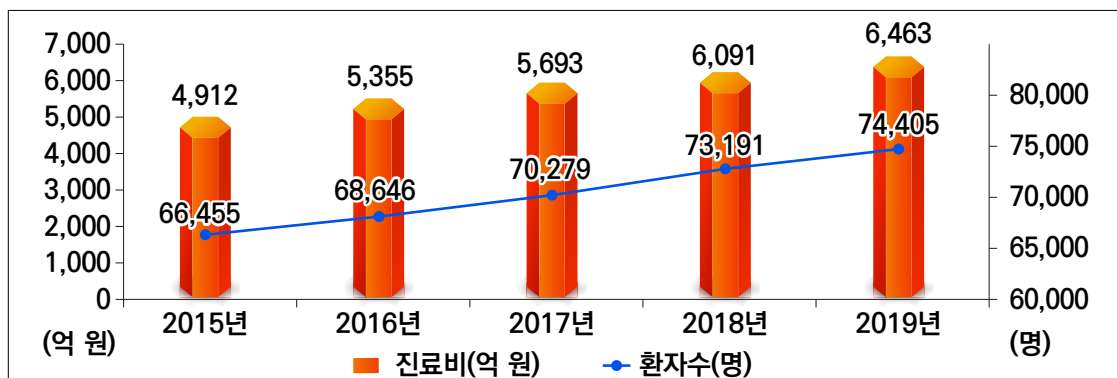
- ◆ 질병코드: C22(간 및 간 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 ◆ 「간암」이란 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간세포에서 기원하는 악성종양을 말함



주요현황

- ◆ 간암 환자수는 2015년 66,455명에서 2019년 74,405명으로 7,950명 증가하였고, 진료비는 2015년 4,912억 원에서 2019년 6,463억 원으로 1,551억 원 증가하였다.
- ◆ 2019년 기준 간암 환자수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2.9배 이상 많았고, 전체 연령 중에서 60대, 70대, 50대 순으로 환자수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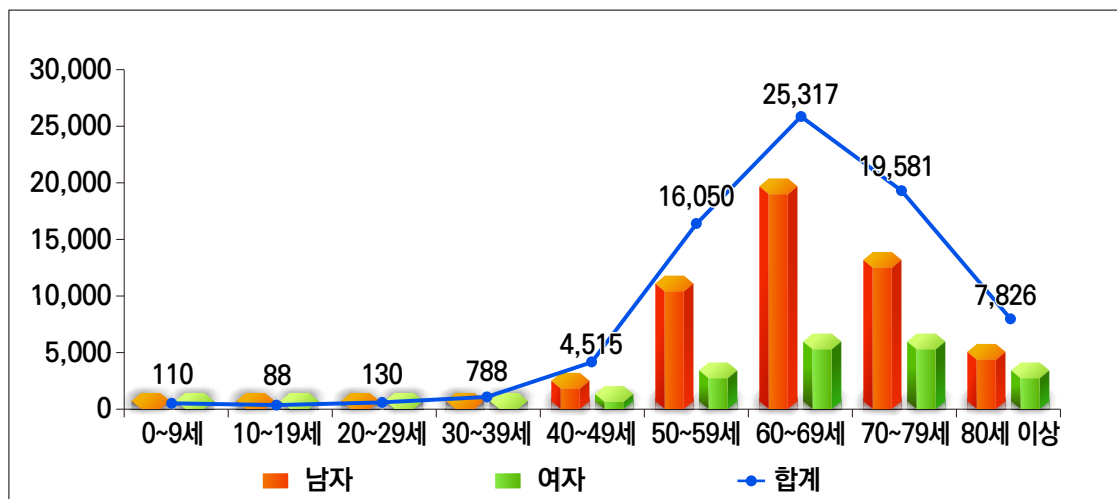
[연도별 간암 환자수 및 진료비(2015-2019)]



(단위: 명, 억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환자수	합계	66,455	68,646	70,279	73,191	74,405
	남자	49,446	51,093	52,487	54,282	55,452
	여자	17,009	17,553	17,792	18,909	18,953
진료비	합계	4,912	5,355	5,693	6,091	6,463
	남자	3,806	4,126	4,404	4,710	5,003
	여자	1,106	1,229	1,289	1,380	1,459

[연령별 간암 환자수(2019)]



(단위: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합계	110	88	130	788	4,515	16,050	25,317	19,581	7,826
남자	58	52	75	528	3,534	12,942	19,715	13,838	4,710
여자	52	36	55	260	981	3,108	5,602	5,743	3,116



질병정보

- ◆ 간암의 **원인**으로는 간염바이러스(B형과 C형) 감염, 만성간질환 및 간경화증 등이 지목된다. 바이러스성 만성간염이 간경화증으로 진행하고 간암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 과도한 음주로 알코올성간경화증이 발병한 후 간암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 ◆ 그러므로 간암 **예방**에는 과도한 음주 피하기와 B형간염 및 C형간염 예방 등이 중요하다. 과거 한 때 간염 바이러스 전파 경로로 거론되었던 술잔돌리기나 가벼운 키스 등은 간염바이러스를 옮기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 간초음파, 복부CT 등의 영상의학적 검사와 혈액검사로 조기발견이 가능하므로 정기적 **검진**이 필요하다.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암검진 대상질병으로 부록2, 2020년 건강검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3 대장암



정 의

- ◆ 질병코드: C18(결장의 악성신생물), C19(직장구불결장 이행부의 악성신생물), C20(직장의 악성신생물)
- ◆ 「결장암」이란 결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암)을 결장암이라고 함.
「직장암」이란 직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직장암이라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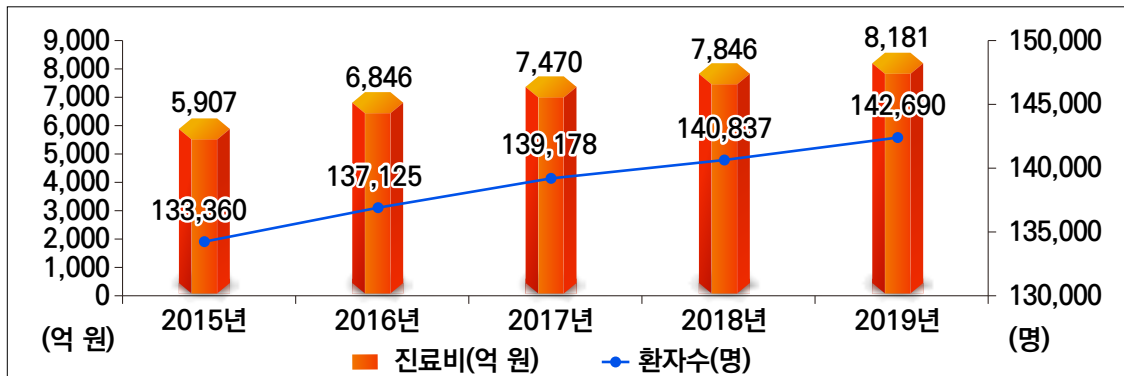
(출처: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주요현황

- ◆ 대장암 환자수는 2015년 133,360명에서 2019년 142,690명으로 9,330명 증가하였고, 진료비는 2015년 5,907억 원에서 2019년 8,181억 원으로 2,274억 원 증가하였다.
- ◆ 2019년 기준 대장암 환자수는 남자가 여자보다 1.46배 이상 많았고, 전체 연령 중에서 60대, 70대, 50대 순으로 환자수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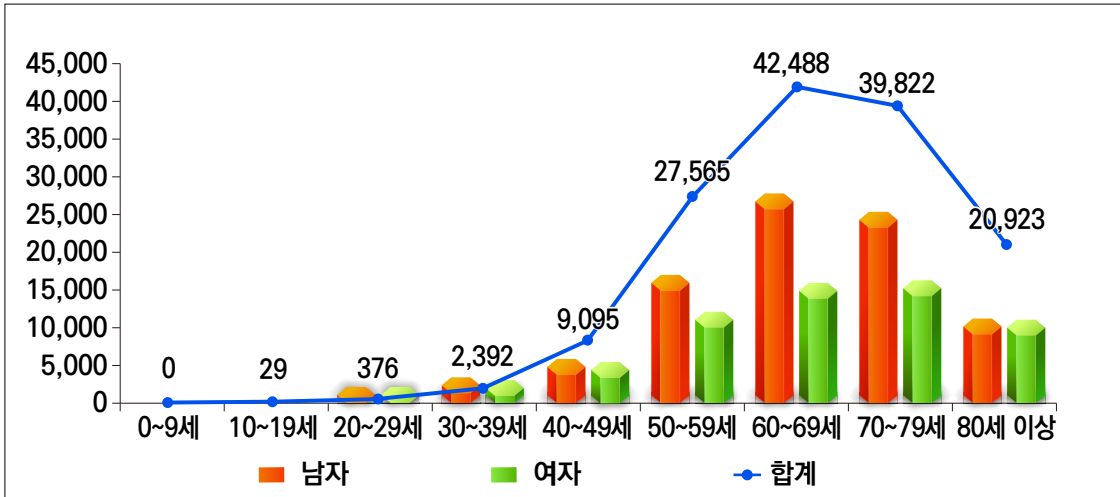
[연도별 대장암 환자수 및 진료비(2015-2019)]



(단위: 명, 억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환자수	합계	133,360	137,125	139,178	140,837	142,690
	남자	80,171	82,220	83,198	84,019	84,803
	여자	53,189	54,905	55,980	56,818	57,887
진료비	합계	5,907	6,846	7,470	7,846	8,181
	남자	3,573	4,136	4,536	4,743	4,905
	여자	2,334	2,710	2,934	3,103	3,276

[연령별 대장암 환자수(2019)]



(단위: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합계	0	29	376	2,392	9,095	27,565	42,488	39,822	20,923
남자	0	20	204	1,329	4,970	16,213	27,270	24,276	10,521
여자	0	9	172	1,063	4,125	11,352	15,218	15,546	10,402



질병정보

- ◆ 대장은 소장에서 이어지는 결장에 생기는 결장암과 항문에 연결되는 직장암에 생기는 직장암을 일컫는다.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대장암 발생이 크게 증가하여 모든 암 중에 3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 되었다.
- ◆ 이렇게 대장암이 늘어난 데는 신체활동이 줄어들고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났으며 식단도 육류 중심으로 짜여 지는 등, 국민들의 생활양식이 서구식으로 변한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특히, 육류나 담배의 타르를 태울 때 나오는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은 대장암의 중요한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 ◆ 그러므로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체활동 및 야채과일 섭취를 늘리며, 금연하고, 탄 음식을 피해야 한다.
- ◆ 대장암 **발견**은 분변잠혈검사, 대장이중조영검사, 대장내시경 검사로 가능하며 혈액검사도 도움이 된다.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암검진 대상질병으로 부록2, 2020년 건강검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4 위 암



정 의

- ◆ 질병코드: C16(위의 악성 신생물)
- ◆ 「위암」이란 위에 생기는 암을 두루 이르는 말이다. 위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선암(胃腺癌)은 위점막의 선세포(샘세포)에서 발생한 것이며 현미경에서 관찰되는 모양에 따라 다시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음. 샘조직 고유의 형태를 많이 유지하는 경우 분화도가 좋다고 하며 조직의 형태와 세포모양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분화도가 나쁘다고 함. 일반적으로 분화도가 좋은 위암은 림프절 전이가 적고 예후가 좋으며, 분화도가 나쁜 위암은 림프절 전이가 있을 확률이 높고, 진행이 빨라 예후가 좋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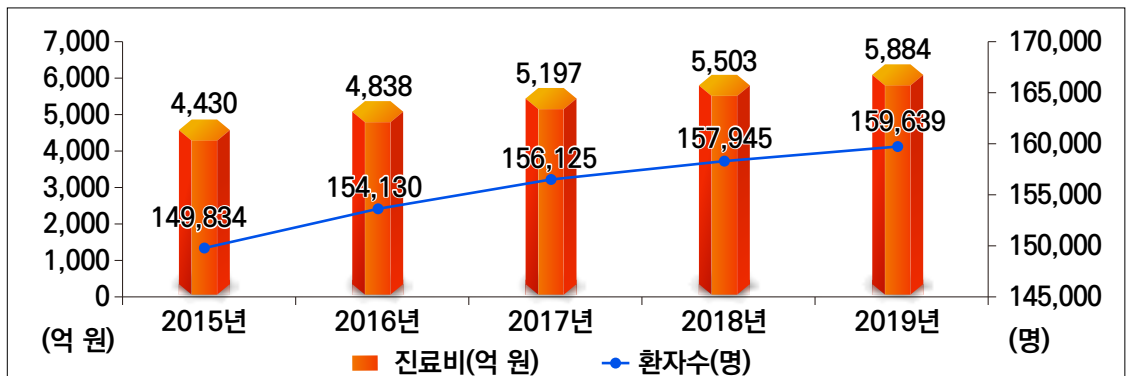
(출처: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주요현황

- ◆ 위암 환자수는 2015년 149,834명에서 2019년 159,639명으로 9,805명 증가하였고, 진료비는 2015년 4,430억 원에서 2019년 5,884억 원으로 1,454억 원 증가하였다.
- ◆ 2019년 기준 위암 환자수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전체 연령 중에서 60대, 70대, 50대 순으로 환자수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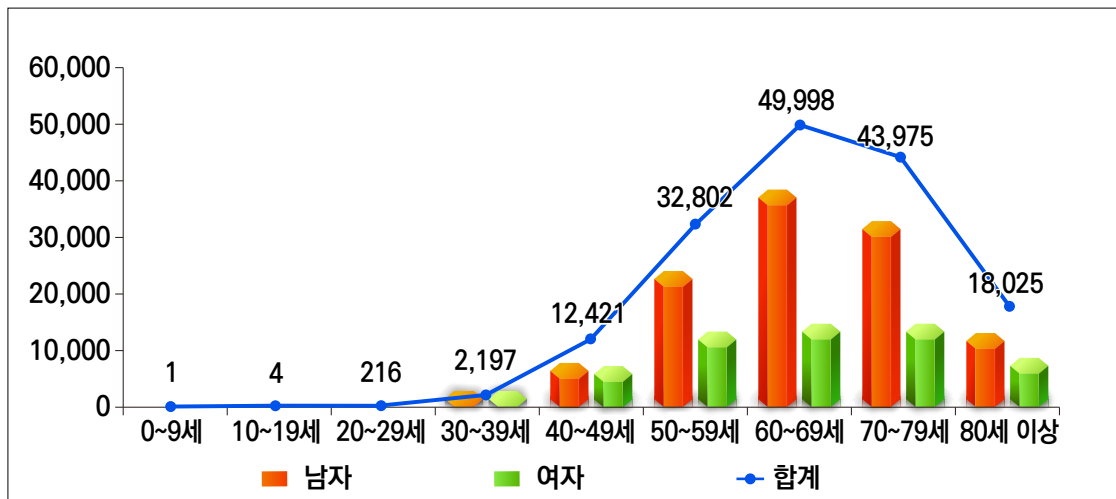
[연도별 위암 환자수 및 진료비(2015-2019)]



(단위: 명, 억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환자수	합계	149,834	154,130	156,125	157,945	159,639
	남자	100,580	103,690	104,940	106,302	107,268
	여자	49,254	50,440	51,185	51,643	52,371
진료비	합계	4,430	4,838	5,197	5,503	5,884
	남자	2,949	3,242	3,477	3,686	3,920
	여자	1,481	1,596	1,720	1,817	1,964

[연령별 위암 환자수(2019)]



(단위: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합계	1	4	216	2,197	12,421	32,802	49,998	43,975	18,025
남자	0	3	92	891	6,587	21,803	36,266	30,692	10,934
여자	1	1	124	1,306	5,834	10,999	13,732	13,283	7,091



질병정보

- ◆ 위암은 조기발견으로 생존율을 크게 높인 대표적인 암이다. 현재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큰 수술 없이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 ◆ 위암의 **원인**으로는 짜고 매운 음식을 즐기는 식습관, 흡연, 그리고 유전적 요인 등이 거론되고 있다.
- ◆ 그러므로 위암의 **예방**을 위해서는 과일야채 중심의 식생활과 금연, 그리고 정기검진 등이 중요하다.
- ◆ 위암의 **진단**은 위장조영검사, 내시경으로 가능하다.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암검진 대상질병으로 부록2, 2020년 건강검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5 | 췌장암



정 의

- ◆ 질병코드: C25(췌장의 악성신생물)
- ◆ 「췌장암」이란 췌장에 생긴 암세포로 이루어진 종괴(종양덩어리)임. 췌장암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췌관세포에서 발생한 췌관 선암종이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췌장암이라고 하면 췌관 선암종을 말함, 그 외에 낭종성암(낭선암), 내분비종양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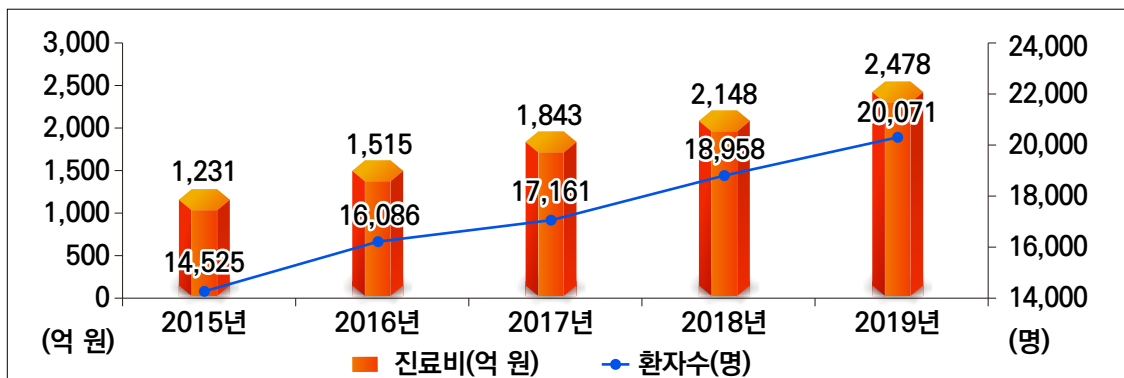
(출처: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주요현황

- ◆ 췌장암 환자수는 2015년 14,525명에서 2019년 20,071명으로 5,546명 증가하였고, 진료비는 2015년 1,231억 원에서 2019년 2,478억 원으로 1,247억 원 증가하였다.
- ◆ 2019년 기준 췌장암 전체 연령 중에서 70대, 60대, 50대 순으로 환자수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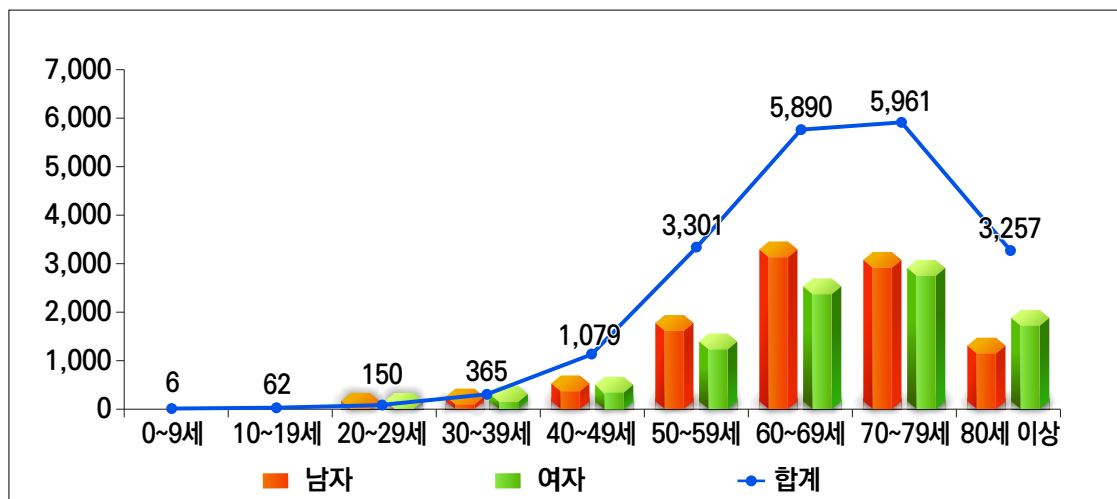
[연도별 췌장암 환자수 및 진료비(2015-2019)]



(단위: 명, 억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환자수	합계	14,525	16,086	17,161	18,958	20,071
	남자	7,752	8,264	8,954	9,898	10,329
	여자	6,773	7,822	8,207	9,060	9,742
진료비	합계	1,231	1,515	1,843	2,148	2,478
	남자	681	823	1,018	1,182	1,340
	여자	550	692	825	966	1,138

[연령별 췌장암 환자수(2019)]



(단위: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합계	6	62	150	365	1,079	3,301	5,890	5,961	3,257
남자	4	11	32	168	576	1,861	3,263	3,063	1,351
여자	2	51	118	197	503	1,440	2,627	2,898	1,906



질병정보

- ◆ 췌장암은 조기 발견과 치료가 비교적 어려운 암 중의 하나다.
- ◆ 아직 확실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들은 없지만, 흡연이나 육류중심의 식단, 당뇨병과 같은 기저질환, 그리고 유전적 요인 등이 위험요소들로 거론된다.
- ◆ 그러므로 야채와 과일 중심의 식생활과 금연, 당뇨병과 체중관리 등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 **진단**은 초음파나 CT 등의 영상의학적 검사를 이용하며, 혈액검사도 진단에 도움이 된다.



06 유방암



정 의

- ◆ 질병코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
- ◆ 「유방암」이란 유방 안에 머무는 양성 종양과 달리 유방 밖으로 퍼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악성 종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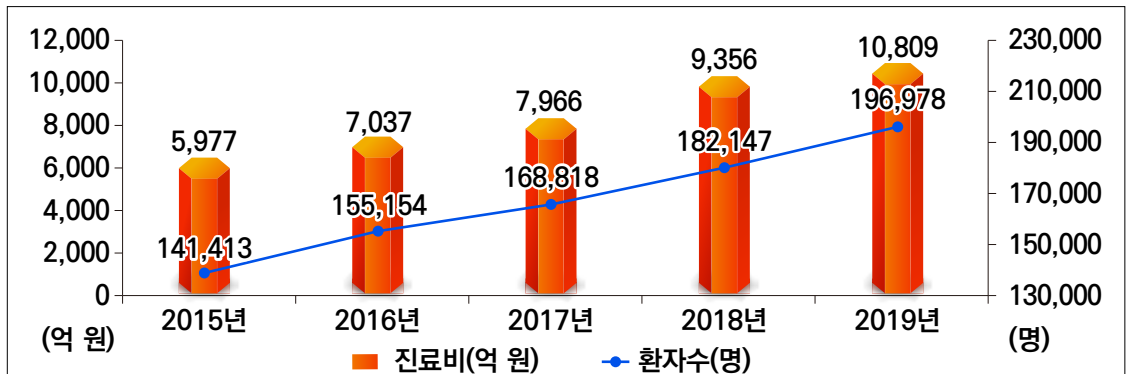
(출처: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주요현황

- ◆ 유방암 환자수는 2015년 141,413명에서 2019년 196,978명으로 55,565명 증가하였고, 진료비는 2015년 5,977억 원에서 2019년 10,809억 원으로 4,832억 원 증가하였다.
- ◆ 2019년 기준 유방암 전체 연령 중에서 50대, 60대, 40대 순으로 환자수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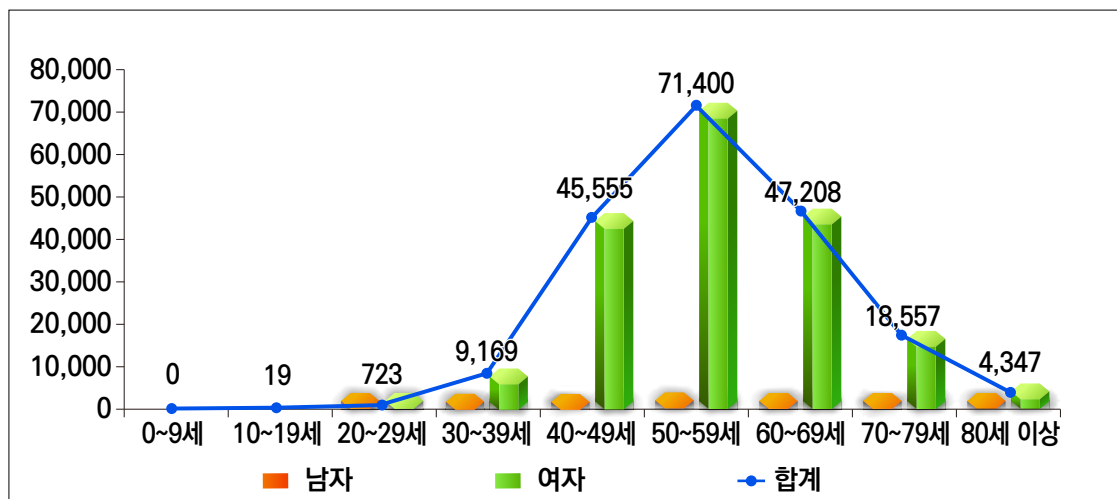
[연도별 유방암 환자수 및 진료비(2015-2019)]



(단위: 명, 억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환자수	합계	141,413	155,154	168,818	182,147	196,978
	남자	505	523	590	629	662
	여자	140,908	154,631	168,228	181,518	196,316
진료비	합계	5,977	7,037	7,966	9,356	10,809
	남자	17	20	23	27	39
	여자	5,961	7,017	7,943	9,330	10,771

[연령별 유방암 환자수(2019)]



(단위: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합계	0	19	723	9,169	45,555	71,400	47,208	18,557	4,347
남자	0	0	2	16	51	136	203	179	75
여자	0	19	721	9,153	45,504	71,264	47,005	18,378	4,272



질병정보

- ◆ 현재 유방암의 **원인**으로 알려진 분명한 요인은 없으며, 유전, 호르몬, 방사선노출, 환경호르몬, 식습관 등이 위험요소로 거론되고 있다.
- ◆ 유방암은 치료성적이 좋은 암 중의 하나로 암이 많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는 생존율이 90%를 넘는다. 그러므로 유방암에는 무엇보다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하다. 유방암의 **진단**은 유방진찰과 유방조영술이나 초음파 등의 영상의학적 검사가 이용된다.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암검진 대상질병으로 부록2, 2020년 건강검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7 전립선암



정 의

- ◆ 질병코드: 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
- ◆ 「전립선암」이란 비뇨기계 구성 기관 중 전립선에 발생한 암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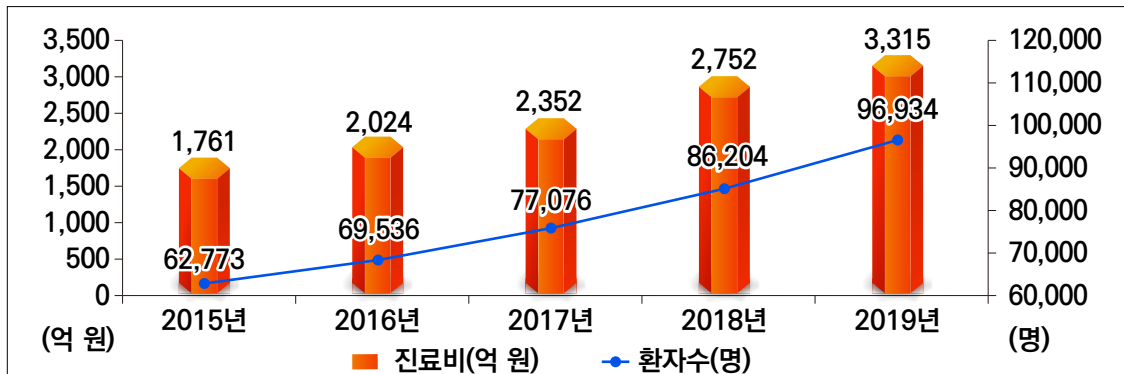
(출처: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주요현황

- ◆ 전립선암 환자수는 2015년 62,773명에서 2019년 96,934명으로 34,161명 증가하였고, 진료비는 2015년 1,761억 원에서 2019년 3,315억 원으로 1,554억 원 증가하였다.
- ◆ 2019년 기준 전립선암 전체 연령 중에서 70대, 60대, 80대 순으로 환자수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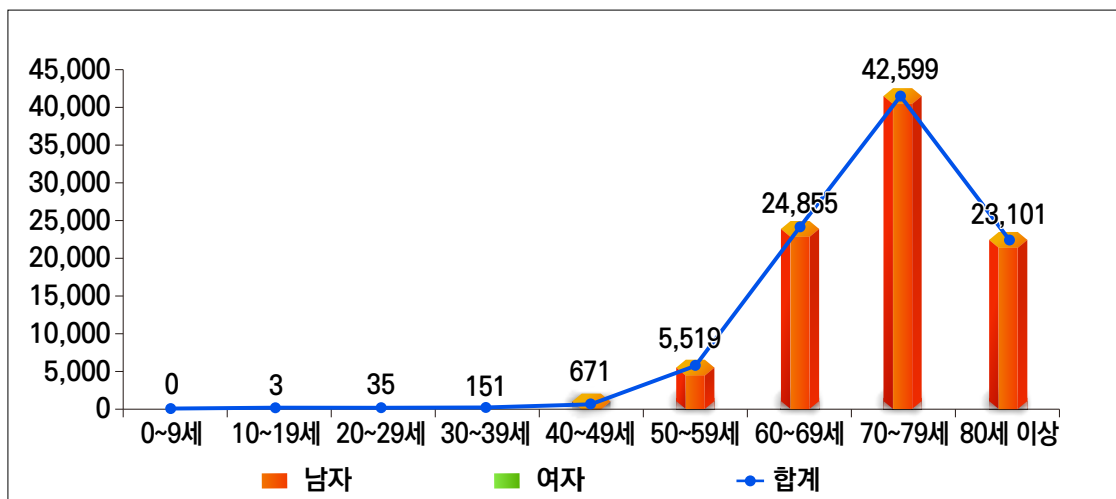
[연도별 전립선암 환자수 및 진료비(2015-2019)]



(단위: 명, 억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환자수	합계	62,773	69,536	77,076	86,204	96,934
	남자	62,773	69,536	77,076	86,204	96,934
	여자	0	0	0	0	0
진료비	합계	1,761	2,024	2,352	2,752	3,315
	남자	1,761	2,024	2,352	2,752	3,315
	여자	0	0	0	0	0

[연령별 전립선암 환자수(2019)]



(단위: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합계	0	3	35	151	671	5,519	24,855	42,599	23,101
남자	0	3	35	151	671	5,519	24,855	42,599	23,101
여자	0	0	0	0	0	0	0	0	0



질병정보

- ◆ 전립선암은 중년 이상의 남성에서 근래에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암이다. 하지만 실제로 전립선암의 발생이 많아진 것인지 아니면 검사를 많이 하여 발견이 늘어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 ◆ 아직 전립선암의 분명한 **원인**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서양식의 식습관이나 유전적 요인 등이 위험요인으로 거론된다. 따라서 육류 중심의 식생활보다는 야채와 과일 중심의 식생활이 도움이 될 수 있다.
- ◆ 전립선암의 **진단**은 혈액검사에서 PSA라는 항목의 수치 및 의사가 손가락으로 직접 만져보는 검사와 초음파검사 등으로 발견할 수 있다.
- ◆ 그러므로 혈중 PSA 수치의 변화를 보고 필요하면 추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중년 이상의 남성은 한 군데 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08 혈액암



정 의

- ◆ 질병코드: C81-C96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 ◆ 「혈액암」이란 혈액 세포나 조혈 기관, 골수, 림프 등에 생기는 암으로 백혈병,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등의 종류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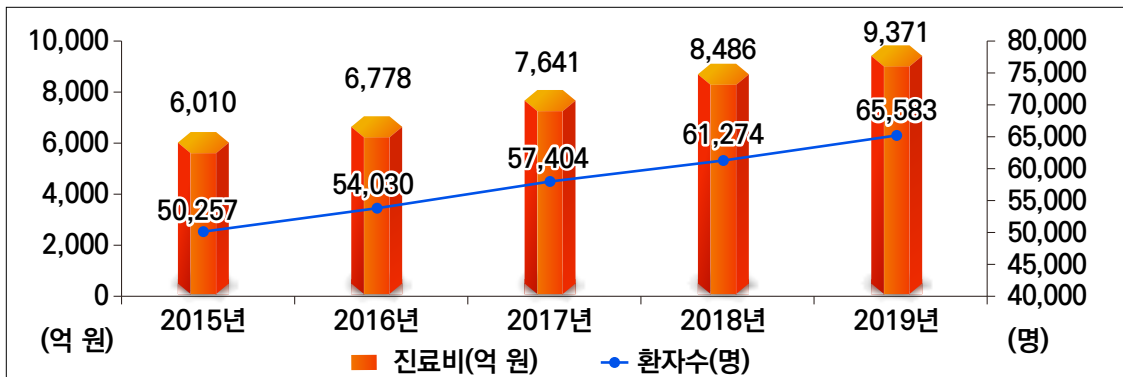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주요현황

- ◆ 혈액암 환자수는 2015년 50,257명에서 2019년 65,583명으로 15,326명 증가하였고, 진료비는 2015년 6,010억 원에서 2019년 9,371억 원으로 3,361억 원 증가하였다.
- ◆ 2019년 기준 혈액암 환자수는 남자가 여자보다 1.2배 이상 많았고, 전체 연령 중에서 60대, 50대, 70대 순으로 환자수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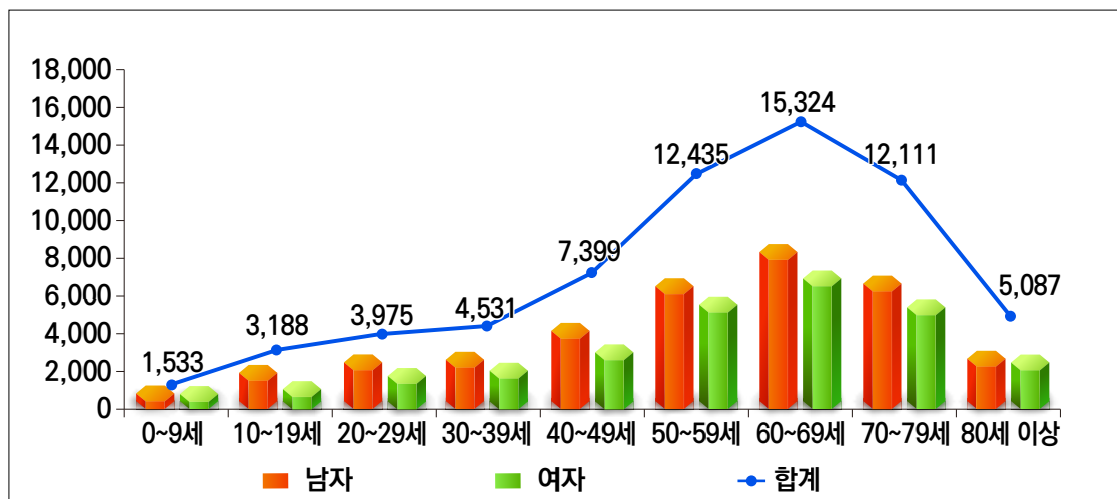
[연도별 혈액암 환자수 및 진료비(2015-2019)]



(단위: 명, 억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환자수	합계	50,257	54,030	57,404	61,274	65,583
	남자	27,899	30,095	31,877	33,971	36,279
	여자	22,358	23,935	25,527	27,303	29,304
진료비	합계	6,010	6,778	7,641	8,486	9,371
	남자	3,477	3,908	4,381	4,927	5,361
	여자	2,533	2,869	3,260	3,559	4,011

[연령별 혈액암 환자수(2019)]



(단위: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합계	1,533	3,188	3,975	4,531	7,399	12,435	15,324	12,111	5,087
남자	889	1,970	2,445	2,541	4,153	6,644	8,320	6,715	2,602
여자	644	1,218	1,530	1,990	3,246	5,791	7,004	5,396	2,485



질병정보

- ◆ 혈액암은 혈액이나 혈액을 만드는 기관, 림프절(임파선) 등에 생기는 암으로, 백혈병, 악성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재생불량성빈혈 등을 일컫는 말이다. 혈액암 중에서는 백혈병이 가장 흔하다.
- ◆ 백혈병은 혈액 중에 비정상적인 세포(대부분의 경우는 백혈구)가 과도하게 증식하여 정상적인 혈액세포(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병이다. 따라서 백혈구 이상으로 인한 감염, 혈소판 이상으로 인한 잦은 출혈, 빈혈증상 등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다.
- ◆ 백혈병의 **원인**으로 유전적 요인과 식생활 등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지만 방사선에 과도한 노출은 확실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 ◆ 백혈병의 **진단**은 혈액검사로 가능하며, 원인미상의 열의 지속, 코피를 자주 흘리거나 관절부위에 멍이 자주 들고 심한 빈혈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찾아 혈액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09 식도암



정 의

- ◆ 질병코드: C15 (식도의 악성신생물)
- ◆ 식도암이란 식도에 생긴 암으로 위치에 따라서 경부식도암, 흉부식도암, 위-식도 연결부위 암으로 나눌 수 있으며, 암의 조직형에 따라 편평상피세포암, 선암, 평활근 육종, 횡문근 육종, 림프종, 흑색종 등으로 나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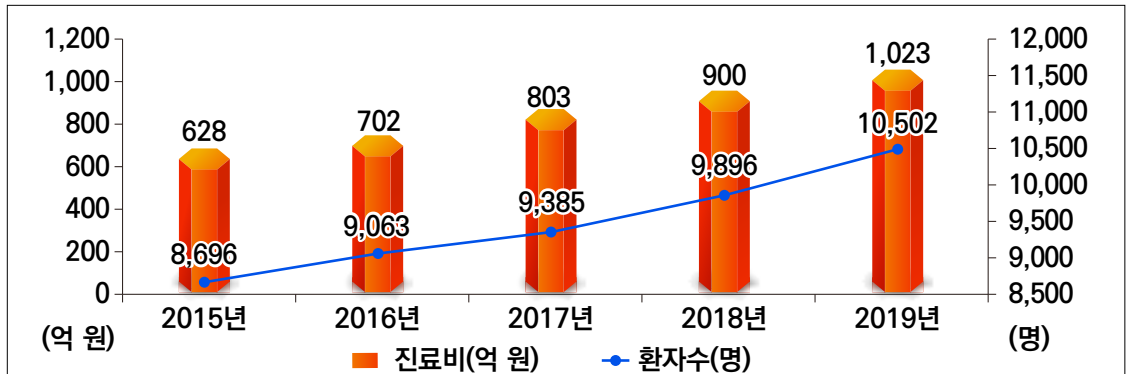
(출처: 국가암정보센터)



주요현황

- ◆ 식도암 환자수는 2015년 8,696명에서 2019년 10,502명으로 1,806명 증가하였고, 진료비는 2015년 628억 원에서 2019년 1,023억 원으로 395억 원 증가하였다.
- ◆ 2019년 기준 식도암 환자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9.1배 이상 많았고, 전체 연령 중에서 60대, 70대, 50대 순으로 환자수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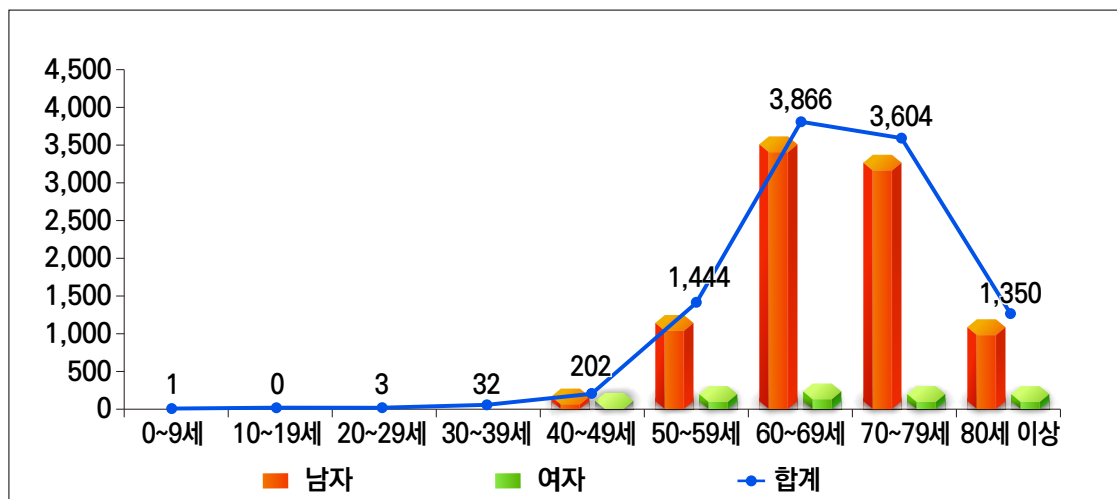
[연도별 식도암 환자수 및 진료비(2015-2019)]



(단위: 명, 억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환자수	합계	8,696	9,063	9,385	9,896	10,502
	남자	7,865	8,175	8,457	8,911	9,465
	여자	831	888	928	985	1,037
진료비	합계	628	702	803	900	1,023
	남자	585	644	729	821	928
	여자	43	58	73	79	95

[연령별 식도암 환자수(2019)]



(단위: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합계	1	0	3	32	202	1,444	3,866	3,604	1,350
남자	0	0	2	11	133	1,228	3,566	3,346	1,179
여자	1	0	1	21	69	216	300	258	171



질병정보

- ◆ 식도는 목구멍에서 위장까지 이어지는 음식물 통로다. 식도는 위장에 연결된 해부학적 구조이지만 주로 발생하는 암의 조직학적 유형은 위암의 유형과는 크게 달라서 편평상피암이 가장 흔한데, 흡연 및 음주와 밀접히 관련되는 유형의 암이다.
- ◆ 따라서 흡연과 과도한 음주를 피하는 것이 식도암의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
- ◆ 식도암의 **진단**은 식도조영술이나 CT 등의 영상의학적 검사와 내시경검사가 이용된다.



10 방광암



정 의

- ◆ 질병코드: C67 (방광의 악성신생물)
- ◆ 방광암이란 방광에 생기는 악성종양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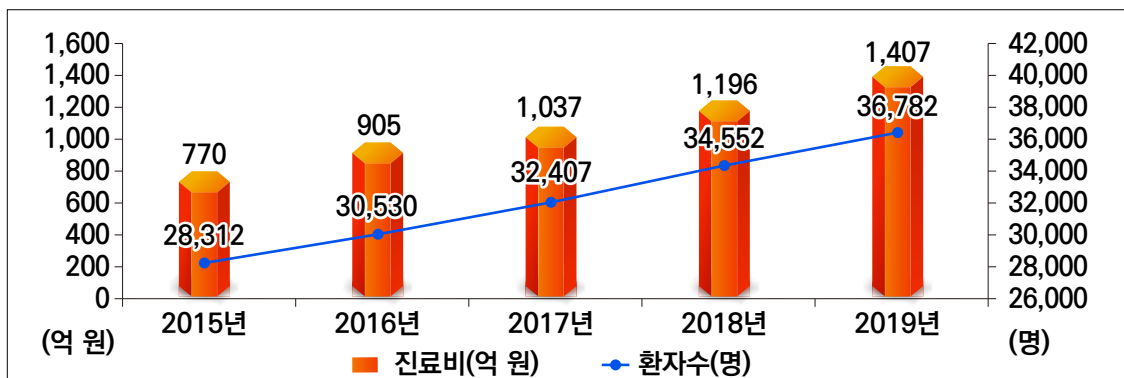
(출처: 국가암정보센터)



주요현황

- ◆ 방광암 환자수는 2015년 28,312명에서 2019년 36,782명으로 8,470명 증가하였고, 진료비는 2015년 770억 원에서 2019년 1,407억 원으로 637억 원 증가하였다.
- ◆ 2019년 기준 방광암 환자는 남자가 여자보다 4.2배 이상 많았고, 전체 연령 중에서 70대, 60대, 80대 순으로 환자수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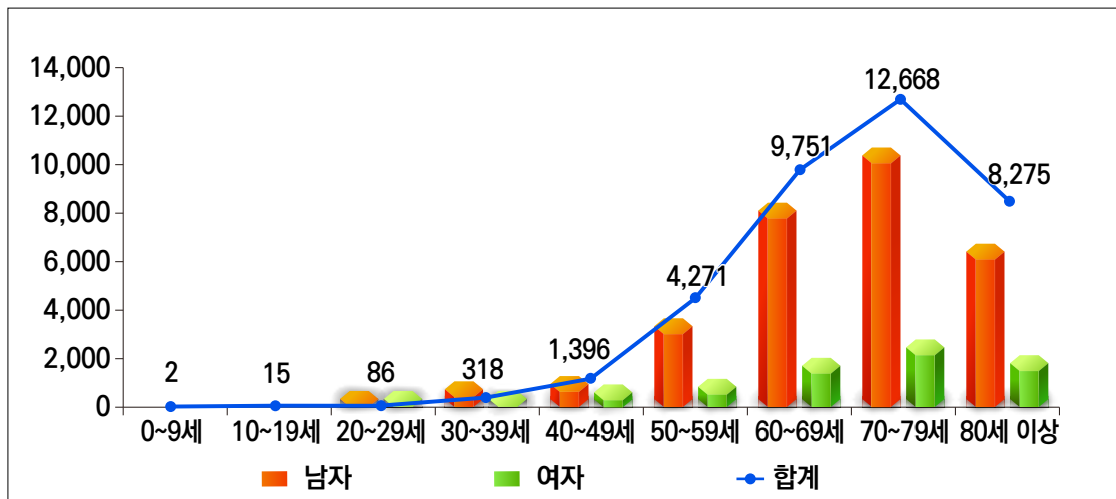
[연도별 방광암 환자수 및 진료비(2015-2019)]



(단위: 명, 억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환자수	합계	28,312	30,530	32,407	34,552	36,782
	남자	23,059	24,852	26,317	27,930	29,741
	여자	5,253	5,678	6,090	6,622	7,041
진료비	합계	770	905	1,037	1,196	1,407
	남자	625	729	842	974	1,149
	여자	145	176	194	223	258

[연령별 방광암 환자수(2019)]



(단위: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합계	2	15	86	318	1,396	4,271	9,751	12,668	8,275
남자	1	10	53	205	1,065	3,364	8,044	10,491	6,508
여자	1	5	33	113	331	907	1,707	2,177	1,767



질병정보

- ◆ 방광은 소변을 저장하고 배설하는 기관으로, 여기에 생기는 방광암은 60세 이상 고령자에서 주로 발생하며 남성이 여성보다 발생률이 높다.
- ◆ 확실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흡연, 직업상 화학물질 노출, 일부 약물, 그리고 방광결석 및 염증 등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 ◆ 방광암의 **예방**을 위해서는 직접 및 간접흡연을 피하고,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광암에 대해 정기검진을 받도록 한다. 또한 혈뇨가 있을 경우 병원에서 소변검사가 필요하다.
- ◆ 방광암 **검사**는 소변검사와 혈액검사, 방광경검사가 주로 이용되며, 요로조영술과 복부초음파, CT 등의 영상의학적 검사도 시행된다.



11 뇌(신경)암



정 의

- ◆ 질병코드: C70-72 (수막, 뇌,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악성 신생물)
- ◆ 뇌(신경)암은 뇌에서 자라는 불필요한 세포덩어리를 지칭하는 말로서 뇌 및 뇌 주변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양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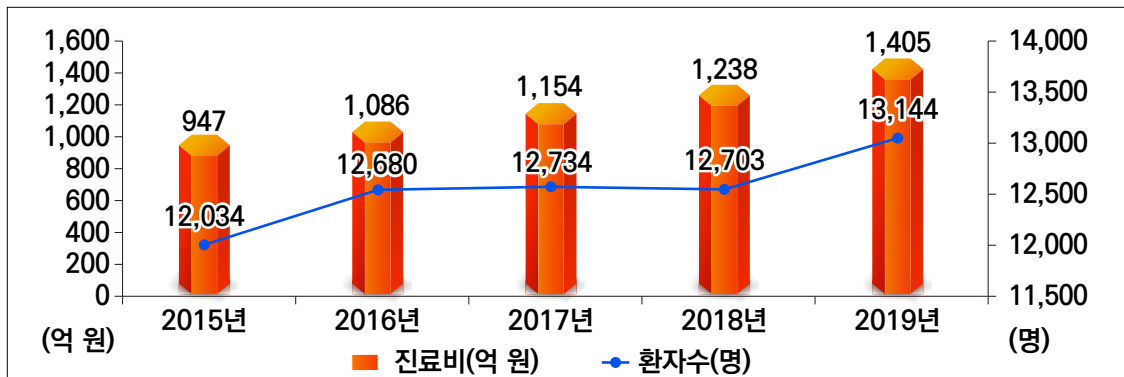
(출처: 연세암병원 건강질환정보)



주요현황

- ◆ 뇌(신경)암 환자수는 2015년 12,034명에서 2019년 13,144명으로 1,110명 증가하였고, 진료비는 2015년 947억 원에서 2019년 1,405억 원으로 458억 원 증가하였다.
- ◆ 2019년 기준 뇌(신경)암 환자는 남자와 여자가 비슷하였고, 전체 연령 중에서 60대, 50대, 40대 순으로 환자수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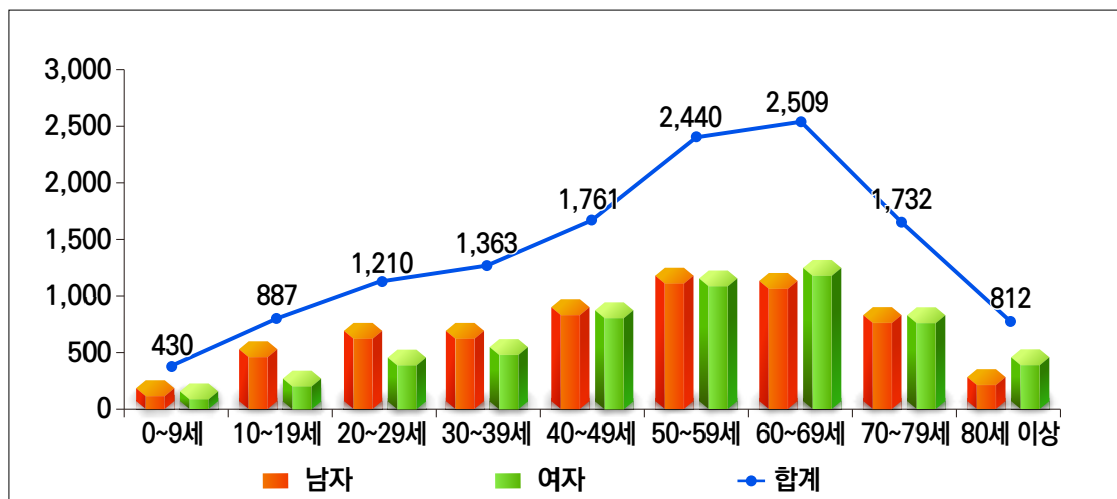
[연도별 뇌(신경)암 환자수 및 진료비(2015-2019)]



(단위: 명, 억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환자수	합계	12,034	12,680	12,734	12,703	13,144
	남자	6,141	6,480	6,564	6,506	6,767
	여자	5,893	6,200	6,170	6,197	6,377
진료비	합계	947	1,086	1,154	1,238	1,405
	남자	495	583	606	650	750
	여자	452	502	548	588	655

[연령별 뇌(신경)암 환자수(2019)]



(단위: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합계	430	887	1,210	1,363	1,761	2,440	2,509	1,732	812
남자	222	526	722	783	888	1,224	1,202	866	334
여자	208	361	488	580	873	1,216	1,307	866	478



질병정보

- ◆ 뇌 조직 혹은 그 주위 구조물에 생기는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암)을 말한다.
- ◆ 뇌종양은 두개골 안에서 성장하고 두개골에는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종양이 커지면 뇌압이 증가하여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 심한 두통이나 구토, 시각장애 등의 증상이다. 뇌종양은 다른 기관으로 전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다른 장기에서 생긴 암은 뇌로 전이되기도 한다. 폐암, 유방암, 소화기계 암 등의 전이가 잦으며, 이러한 전이성 암의 예후는 원발암의 진행정도나 **치료**반응에 따라 주로 결정된다.
- ◆ 양성뇌종양은 발생 부위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장이 느려서 수술하지 않고 관찰만 해도 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양성종양이 뇌의 중요한 부위에 발생하여 악성과 같은 영향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 ◆ 뇌종양의 **진단**에는 임상증상과 진찰, 그리고 CT, MRI 등의 영상의학적 검사가 이용된다.



12 자궁경부암



정 의

- ◆ 질병코드: C53(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
- ◆ 자궁은 체부(corpus)와 경부(cervix)로 구성되는데, 질에 연결된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을 「자궁경부암」이라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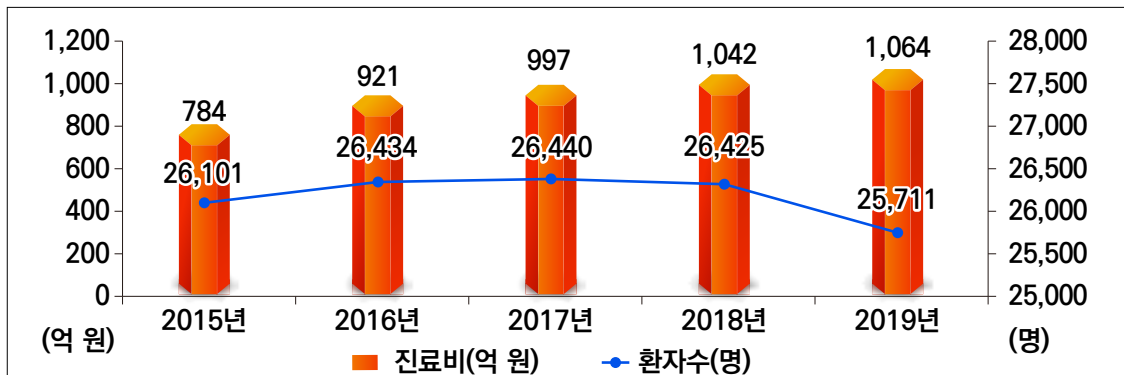
(출처: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주요현황

- ◆ 자궁경부암 환자수는 2015년 26,101명에서 2019년 25,711명으로 390명 감소하였고, 진료비는 2015년 784억 원에서 2019년 1,064억 원으로 280억 원 증가하였다.
- ◆ 2019년 기준 자궁경부암 전체 연령 중에서 50대, 40대, 60대 순으로 환자수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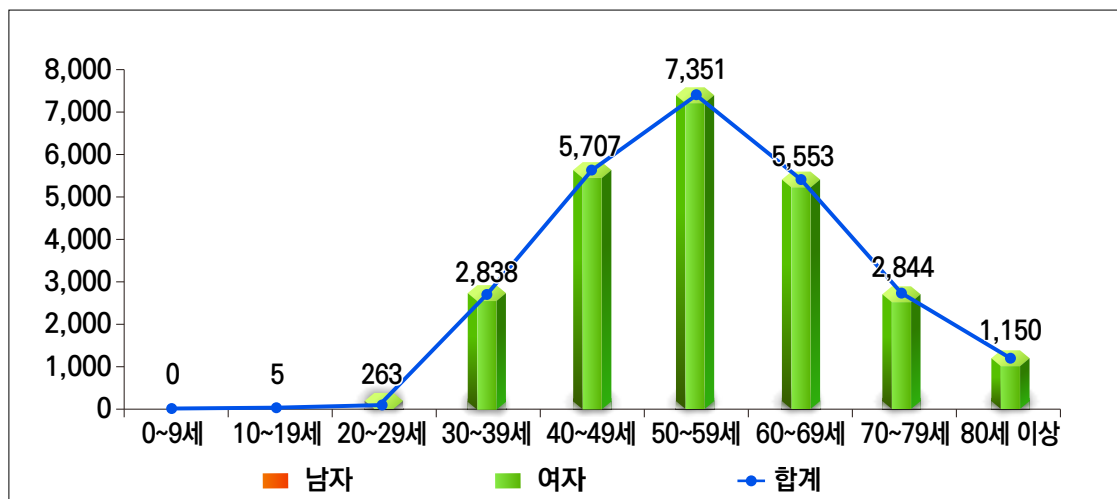
[연도별 자궁경부암 환자수 및 진료비(2015-2019)]



(단위: 명, 억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환자수	합계	26,101	26,434	26,440	26,425	25,711
	남자	0	0	0	0	0
	여자	26,101	26,434	26,440	26,425	25,711
진료비	합계	784	921	997	1,042	1,064
	남자	0	0	0	0	0
	여자	784	921	997	1,042	1,064

[연령별 자궁경부암 환자수(2019)]



(단위: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합계	0	5	263	2,838	5,707	7,351	5,553	2,844	1,150
남자	0	0	0	0	0	0	0	0	0
여자	0	5	263	2,838	5,707	7,351	5,553	2,844	1,150



질병정보

- ◆ 자궁경부암은 자궁의 입구인 경부의 상피세포에 생기는 암을 말하며, 조기검진으로 완치율이 크게 높아진 암 중의 하나다. 자궁경부암은 정상세포가 암으로 되기까지 중간단계를 거치는데, 상피내이형성(정상세포와 암세포 사이), 상피내암(0기암)이다. 이러한 중간단계를 조기에 발견하여 조치하면 거의 문제없이 생활이 가능하다.
- ◆ 자궁암의 **원인**으로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이 가장 핵심적이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자궁암 발생위험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므로 이러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예방접종이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 권고된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10대 초반, 즉, 성접촉이 있기 전에 맞는 것이 좋다.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암검진 대상질병으로 부록2, 2020년 건강검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테마1 |
관심질병

II. 순환계통 질환(사망원인 2위)

13. 뇌혈관질환.....	30
14. 심혈관 질환(허혈성 및 기타 심장질환)	32
15. 고혈압.....	34

13 뇌혈관 질환



정의

- ◆ 질병코드: I60-I69 (뇌혈관질환)
- ◆ 뇌혈관질환 중 뇌졸중(I60~I64)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뇌혈관 질환을 총칭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사람에 있어서 암 다음으로 흔한 사망원인이며, 단일 장기질환으로는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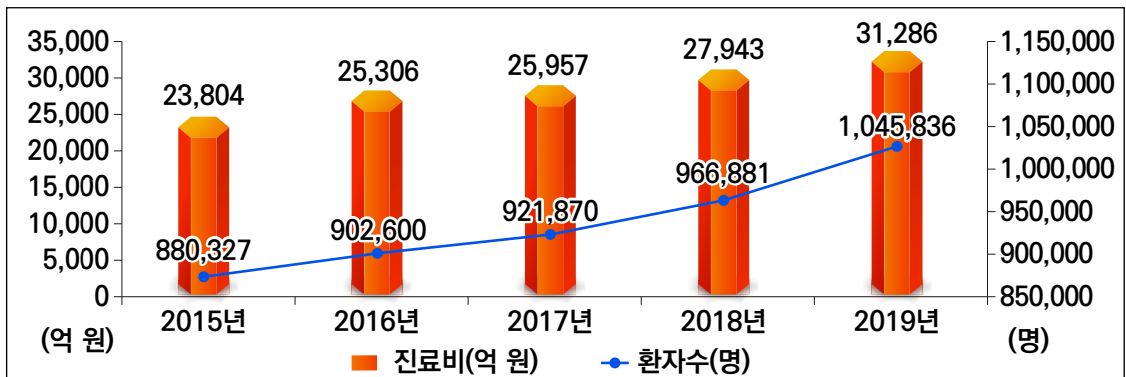
(출처: 중앙대학교병원 건강칼럼)



주요현황

- ◆ 뇌혈관 질환 환자수는 2015년 880,327명에서 2019년 1,045,836명으로 165,509명 증가하였고, 진료비는 2015년 23,804억 원에서 2019년 31,286억 원으로 7,482 억 원 증가하였다.
- ◆ 2019년 기준 뇌혈관 질환 환자는 남자와 여자가 비슷한 수준이었고, 전체 연령 중에서 70대, 60대, 80세 이상 순으로 환자수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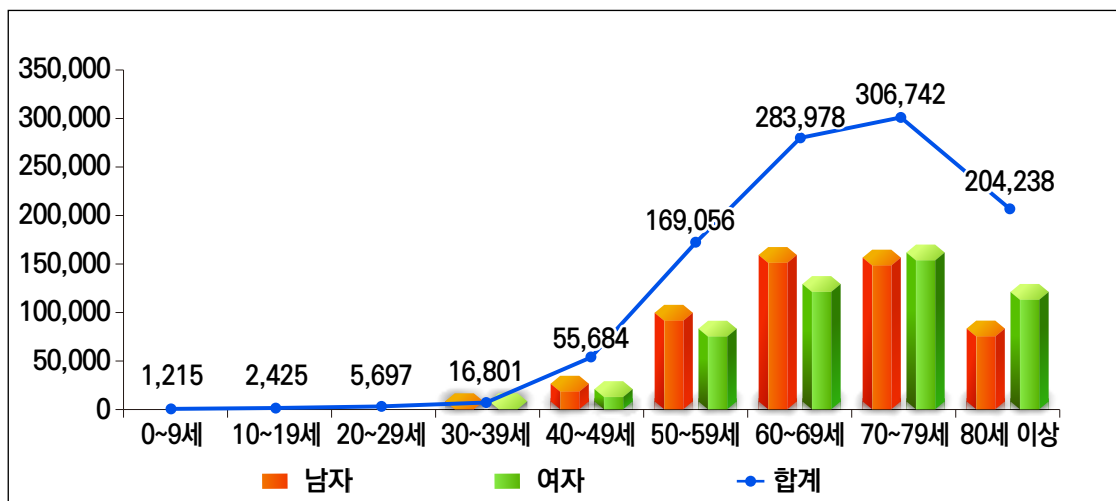
[연도별 뇌혈관 질환 환자수 및 진료비(2015-2019)]



(단위: 명, 억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환자수	합계	880,327	902,600	921,870	966,881	1,045,836
	남자	433,614	445,285	457,353	481,110	518,318
	여자	446,713	457,315	464,517	485,771	527,518
진료비	합계	23,804	25,306	25,957	27,943	31,286
	남자	10,985	11,755	12,203	13,257	14,916
	여자	12,819	13,551	13,755	14,686	16,370

[연령별 뇌혈관 질환 환자수(2019)]



(단위: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합계	1,215	2,425	5,697	16,801	55,684	169,056	283,978	306,742	204,238
남자	638	1,211	2,764	9,103	32,109	92,206	151,179	149,645	79,463
여자	577	1,214	2,933	7,698	23,575	76,850	132,799	157,097	124,775



질병정보

- ◆ 뇌졸중 혹은 중풍이라 부르는 병으로,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뇌경색) 혹은 터져서(뇌출혈)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 암에 이어 2번째로 흔한 사망원인이다.
- ◆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 그리고 당뇨 등의 병이 있을 때 뇌졸중이 일어나기 쉬우며, 흡연도 뇌졸중 발생 위험을 높인다.
- ◆ 뇌졸중 **증상**은 두통, 구토, 어눌한 말, 얼굴감각의 둔화 등 이상감각이나 근력소실, 시야 이상 등 다양하지만 대부분 갑자기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 ◆ 뇌졸중이 의심될 때는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119를 부르거나 빨리 병원을 찾아 검사 및 치료를 받으면 사망이나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



14 심혈관 질환(허혈성 및 기타 심장질환)



정 의

- ◆ 질병코드: I20~I25, I28, I42~I43, I50~I52 (심장질환)
- ◆ 심장과 주요 혈관(동맥)에 발생하는 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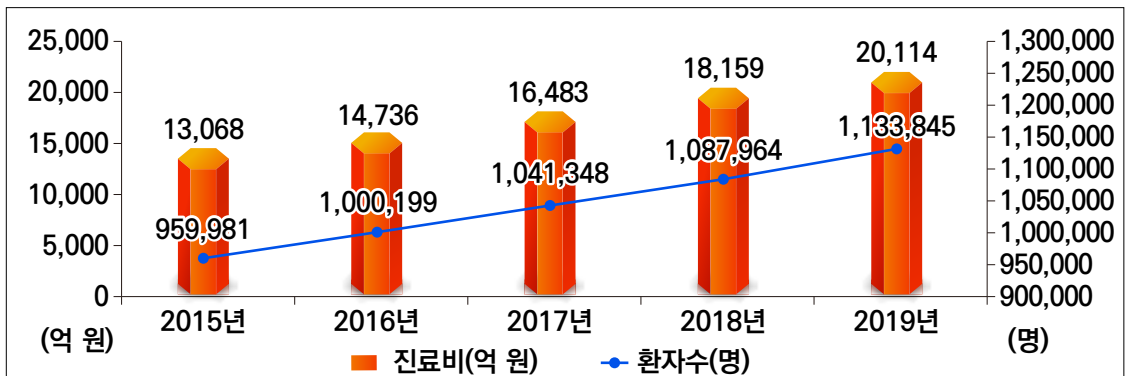
(출처: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주요현황

- ◆ 심혈관질환 환자수는 2015년 959,981명에서 2019년 1,133,845명으로 173,864명 증가하였고, 진료비는 2015년 13,068억 원에서 2019년 20,114억 원으로 7,046억 원 증가하였다.
- ◆ 2019년 기준 심혈관 질환 환자는 남자가 여자보다 1.44배 이상 많았고, 전체 연령 중에서 60대, 70대, 50대 순으로 환자수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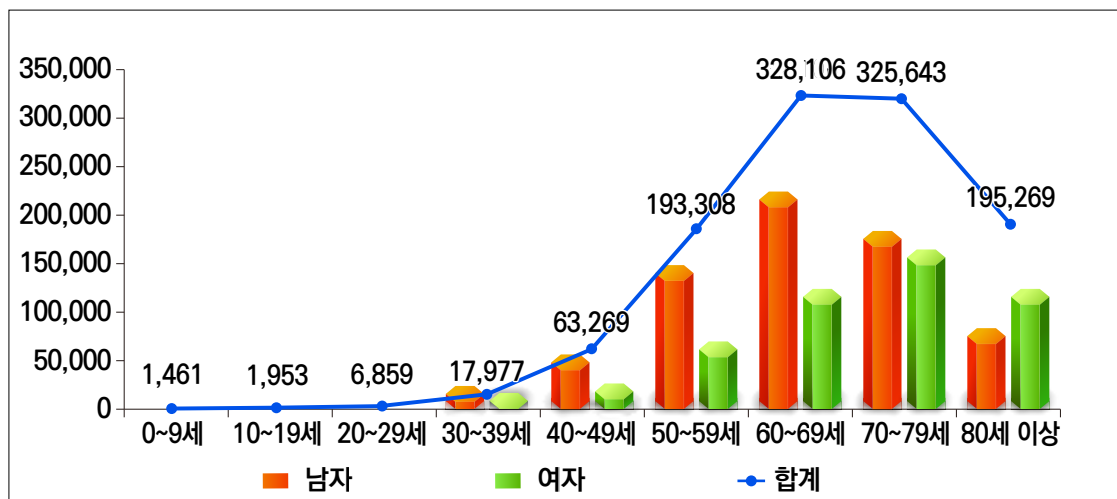
[연도별 심혈관 질환 환자수 및 진료비(2015~2019)]



(단위: 명, 억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환자수	합계	959,981	1,000,199	1,041,348	1,087,964	1,133,845
	남자	542,886	571,618	601,989	635,338	669,298
	여자	417,095	428,581	439,359	452,626	464,547
진료비	합계	13,068	14,736	16,483	18,159	20,114
	남자	8,165	9,287	10,526	11,732	13,106
	여자	4,903	5,449	5,957	6,427	7,008

[연령별 심혈관 질환 환자수(2019)]



(단위: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합계	1,461	1,953	6,859	17,977	63,269	193,308	328,106	325,643	195,269
남자	839	1,227	4,316	12,676	47,775	137,081	210,858	176,114	78,412
여자	622	726	2,543	5,301	15,494	56,227	117,248	149,529	116,857



질병정보

- ◆ 심장이 움직이는데 필요한 피를 공급하는 혈관(관상동맥)이 막혀서 심장세포가 죽어가는 상황이다. 과거에는 흔히 심장마비라 불렸다.
- ◆ 심근경색을 초래하는 **원인**은 주로 관상동맥을 막히게 하는 질환으로,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도 없어지며 찢어지기(혈전)가 잘 생기게 되는 동맥경화증이 가장 중요하며, 동맥경화증을 초래하는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병 등의 질환과 흡연도 심근경색의 위험을 높인다.
- ◆ **진단**은 임상증상과 심전도검사로 하며, 혈액검사나 심초음파 등의 영상의학적 검사도 진단에 도움이 된다.
- ◆ 심근경색 **치료**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5분 이내에 응급처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위에서 가슴통증 등의 심근경색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119에 연락하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
- ◆ 심근경색의 **예방**을 위해서는 위험을 높이는 요인을 잘 관리해야 한다. 즉,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병 등이 있으면 이를 치료하고, 금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칙적인 운동 및 저지방 및 과일야채 중심의 식단이 권장된다.

15 고혈압



정 의

- ◆ 질병코드: I10~I15 (고혈압)
- ◆ 고혈압이란 성인에서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일 때를 말함. 고혈압은 관상동맥질환과 뇌졸중, 신부전 등 전신에 걸쳐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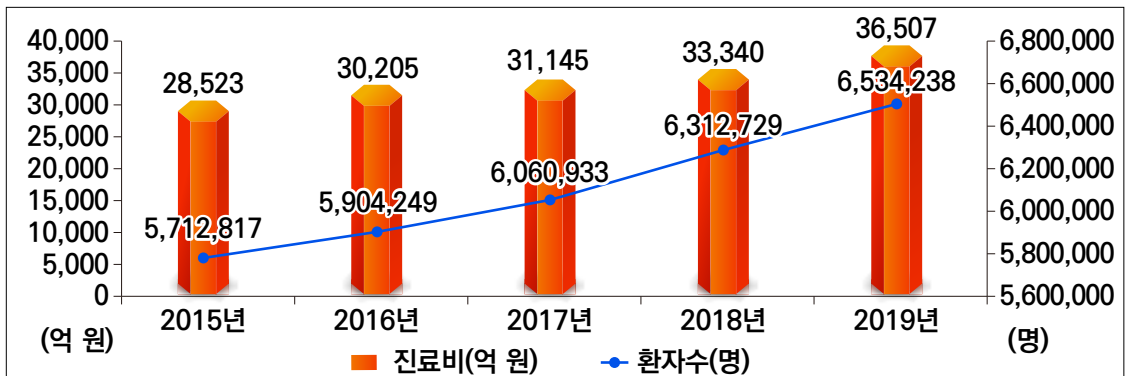
(출처: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주요현황

- ◆ 고혈압 환자수는 2015년 5,712,817명에서 2019년 6,534,238명으로 821,421명 증가하였고, 진료비는 2015년 28,523억 원에서 2019년 36,507억 원으로 7,984억 원 증가하였다.
- ◆ 2019년 기준 고혈압 환자는 남자와 여자가 비슷한 수준이었고, 전체 연령 중에서 60대, 50대, 70대 순으로 환자수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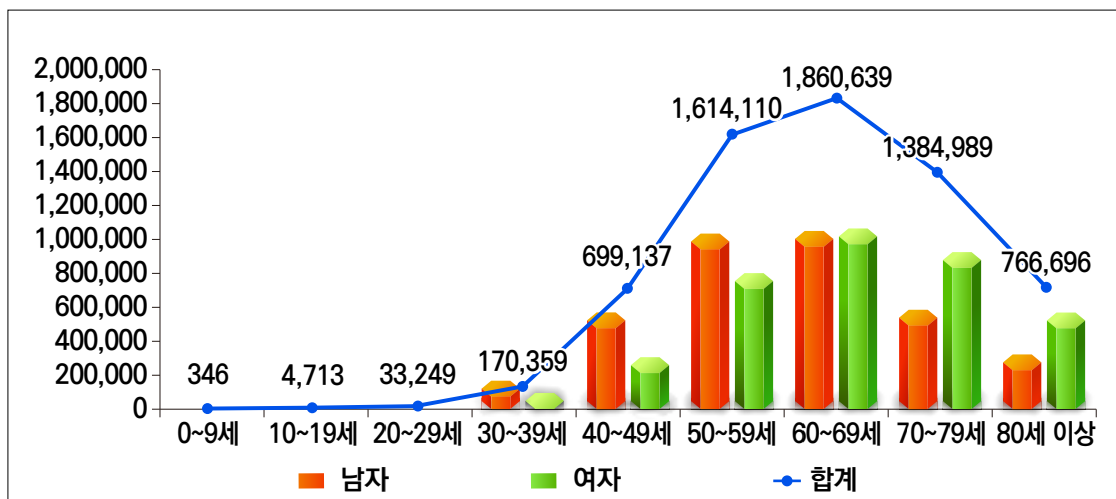
[연도별 고혈압 환자수 및 진료비(2015-2019)]



(단위: 명, 억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환자수	합계	5,712,817	5,904,249	6,060,933	6,312,729	6,534,238
	남자	2,764,858	2,887,072	2,987,460	3,141,857	3,278,468
	여자	2,947,959	3,017,177	3,073,473	3,170,872	3,255,770
진료비	합계	28,523	30,205	31,145	33,340	36,507
	남자	13,134	14,070	14,606	15,781	17,436
	여자	15,388	16,135	16,539	17,559	19,070

[연령별 고혈압 환자수(2019)]



(단위: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합계	346	4,713	33,249	170,359	699,137	1,614,110	1,860,639	1,384,989	766,696
남자	190	3,828	27,168	133,024	483,905	914,647	923,431	562,285	229,990
여자	156	885	6,081	37,335	215,232	699,463	937,208	822,704	536,706



질병정보

- ◆ 고혈압은 심혈관계 속을 흘러가는 혈액이 심장과 혈관 벽에 가하는 압력(혈압)이 높아진 질병이다. 혈압이 높은 채 방치되면 혈관벽과 심장에 문제가 생겨 혈액흐름이 막히거나 혈관이 터지는 등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 ◆ 고혈압을 **진단**하는 기준은 시대에 따라 그리고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2017년 미국심장학회는 고혈압 진단 기준을 140(수축기)/90(이완기)mmHg에서 130/80mmHg로 변경하였다. 즉, 고혈압 관리 가이드라인을 더 강화했다. 이렇게 바뀐 진단 기준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고혈압환자 비율(유병률)이 1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의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기존의 진단기준 140/90mmHg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테마1 |
관심질병

Ⅲ. 호흡계통 질환(사망원인 3위)

16. 폐렴.....	38
17. 호흡기 결핵	40
18. 만성폐색성 폐질환	42
19. 기흉.....	44
20. 인플루엔자.....	46

16 폐렴



정 의

- ◆ 질병코드: J12~J18 (폐렴)
- ◆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미생물로 인한 감염으로 발생하는 폐의 염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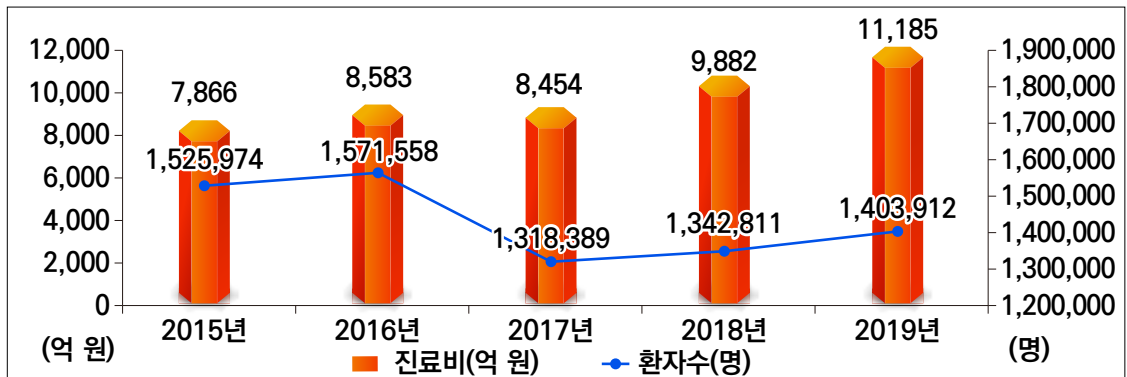
(출처: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주요현황

- ◆ 폐렴 환자수는 2015년 1,525,974명에서 2019년 1,403,912명으로 122,062명 감소하였고, 진료비는 2015년 7,866억 원에서 2019년 11,185억 원으로 3,319억 원 증가하였다.
- ◆ 2019년 기준 폐렴 환자는 여자가 남자보다 1.1배 이상 많았고, 전체 연령 중에서 10대 미만, 60대, 70대 순으로 환자수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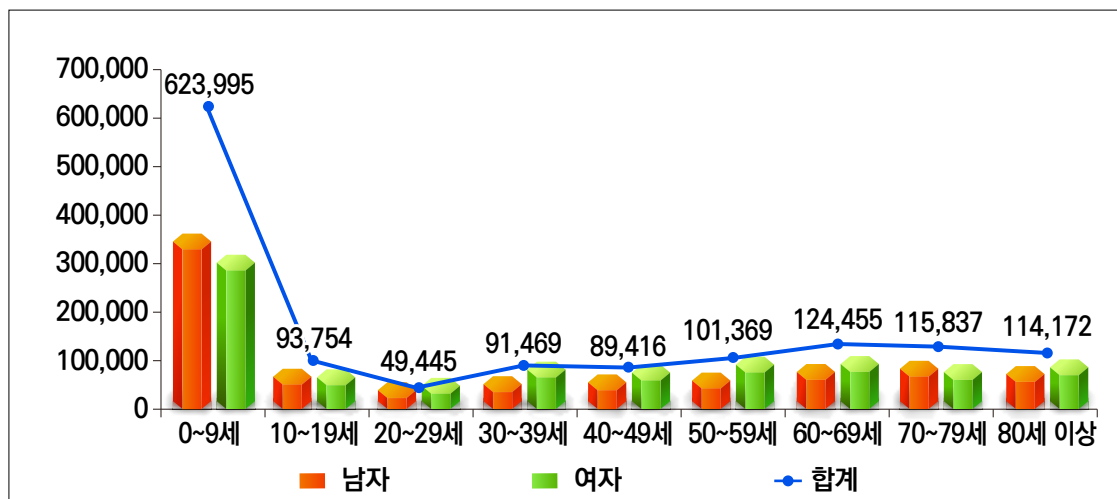
[연도별 폐렴 환자수 및 진료비(2015-2019)]



(단위: 명, 억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환자수	합계	1,525,974	1,571,558	1,318,389	1,342,811	1,403,912
	남자	718,187	737,060	621,220	632,387	666,485
	여자	807,787	834,498	697,169	710,424	737,427
진료비	합계	7,866	8,583	8,454	9,882	11,185
	남자	4,217	4,622	4,672	5,489	6,166
	여자	3,649	3,961	3,782	4,393	5,019

[연령별 폐렴 환자수(2019)]



(단위: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합계	623,995	93,754	49,445	91,469	89,416	101,369	124,455	115,837	114,172
남자	324,810	47,488	20,257	32,439	36,063	39,707	54,847	60,548	50,326
여자	299,185	46,266	29,188	59,030	53,353	61,662	69,608	55,289	63,846



질병정보

- ◆ 호흡기 질환의 5가지 중요 증상인 기침, 가래, 객혈, 호흡곤란, 가슴통증과 함께 발열, 오한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감기나 기관지염 등 다른 질환과 감별이 어렵고 감별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 호흡기 증상 외에도 두통/근육통, 구토/복통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고령자는 증상호소가 심하지 않아 진단이 늦어질 수 있다.
- ◆ 폐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미생물에 의한 발생이 가장 많아서, 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 곰팡이균 등이 모두 일으킬 수 있다. 사스, 메르스, 코비드19는 모두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폐렴의 일종이었다.
- ◆ 폐렴은 특히 면역력이 약하거나 떨어진, 어린아이, 고령자, 암환자, 알코올중독자, 에이즈 환자 등에서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 폐렴의 진단은 의사가 환자가 말하는 병력과 증상을 듣고 청진기로 호흡음을 듣는 등의 진찰과 흉부X-선 촬영 등의 영상의학적 검사, 그리고 혈액검사, 가래검사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게 된다.
- ◆ 폐렴의 예방은 감기나 독감 등의 질환이 폐렴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특히, 어린아이, 고령자 등의 위험군은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항상 폐렴의 가능성을 생각하여 악화되기 전에 초기에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17 호흡기 결핵



정의

- ◆ 질병코드: A15(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호흡기결핵), A16(세균학적으로나 조직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호흡기 결핵), A19(잠살결핵)
- ◆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에 의해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환을 통칭하며 폐, 림프절, 흉막, 뼈, 심낭 등 다양한 장기에 침범할 수 있음. 이 중 폐에 감염되는 폐결핵의 빈도가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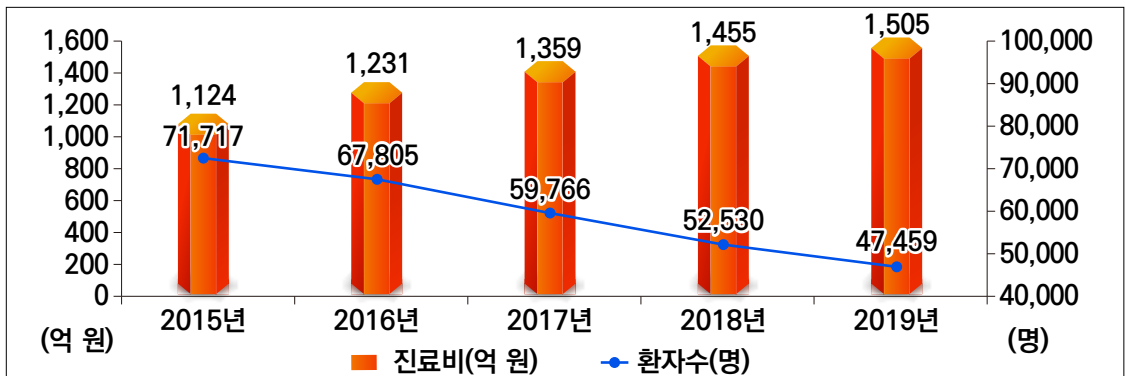
(출처: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주요현황

- ◆ 호흡기 결핵 환자수는 2015년 71,717명에서 2019년 47,459명으로 24,258명 감소하였고, 진료비는 2015년 1,124억 원에서 2019년 1,505억 원으로 381억 원 증가하였다.
- ◆ 2019년 기준 호흡기 결핵 환자는 남자가 여자보다 1.49배 이상 많았고, 전체 연령 중에서 70대, 80대 이상, 60대 순으로 환자수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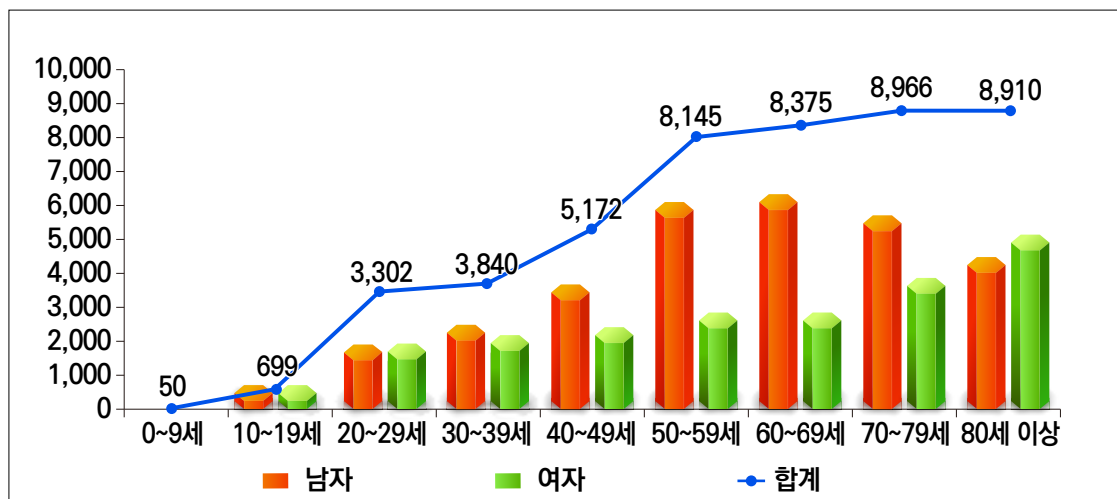
[연도별 호흡기 결핵 환자수 및 진료비(2015-2019)]



(단위: 명, 억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환자수	합계	71,717	67,805	59,766	52,530	47,459
	남자	42,487	40,264	35,666	31,501	28,400
	여자	29,230	27,541	24,100	21,029	19,059
진료비	합계	1,124	1,231	1,359	1,455	1,505
	남자	680	749	835	895	924
	여자	444	483	524	560	582

[연령별 호흡기 결핵 환자수(2019)]



(단위: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합계	50	699	3,302	3,840	5,172	8,145	8,375	8,966	8,910
남자	26	373	1,592	2,020	3,236	5,743	5,926	5,412	4,072
여자	24	326	1,710	1,820	1,936	2,402	2,449	3,554	4,838



질병정보

- ◆ 미세한 침방울 속에 포함되어 날아다니던 결핵균이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 감염된다. 감염된다고 해서 모두 결핵에 걸리는 것은 아니고 10% 이하만 결핵환자가 되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 특히 암환자, 당뇨 환자, 고령자, 에이즈 환자 등은 발병의 위험이 높다.
- ◆ 폐결핵은 **증상**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정기 검진이 아주 중요하다.
- ◆ 결핵균은 아주 느리게 번식하며 생존력이 강하고 약제에 내성을 잘 획득하기 때문에 빠르고 쉽게 죽일 수 없다. 따라서 항결핵제로 6개월 이상 **치료**하며, 소화장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지만 꾸준히 **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다.
- ◆ 결핵약 투여 후 1-2주일 지나면 완치가 되기 전 결핵균이 남아 있더라도 전염성은 없어진다.
- ◆ 결핵 **예방**을 위해서는 결핵균의 독성을 약하게 만들어 접종하면 결핵에 걸리지 않으면서 결핵에 면역력을 갖게 되는 비씨지(BCG) 접종을 해야 한다. 폐결핵뿐만 아니라 결핵성뇌막염이나 속립성결핵 등 다른 결핵도 예방해 주는 효과가 있다.

18 만성폐색성 폐질환



정의

- ◆ 질병코드: J431(범소엽성 폐기종), J432(중심소엽성 폐기종), J438(기타 폐기종), J439(상세불명의 폐기종), J44(기타 만성 폐색성 폐질환)
- ◆ 만성 폐색성 폐질환은 담배 등에 의해 유발되는 진행성 폐 손상으로 기도와 폐조직이 서서히 손상되어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질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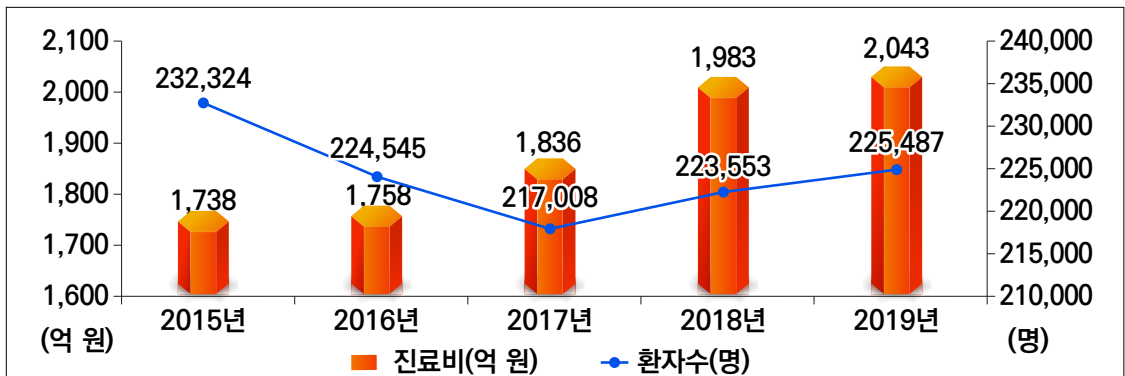
(출처: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주요현황

- ◆ 만성 폐색성 폐질환 환자수는 2015년 232,324명에서 2019년 225,487명으로 6,837명 감소하였고, 진료비는 2015년 1,738억 원에서 2019년 2,043억 원으로 305억 원 증가하였다.
- ◆ 2019년 기준 만성 폐색성 폐질환 환자는 남자가 여자보다 3.27배 이상 많았고, 전체 연령 중에서 70대, 60대, 80세 이상 순으로 환자수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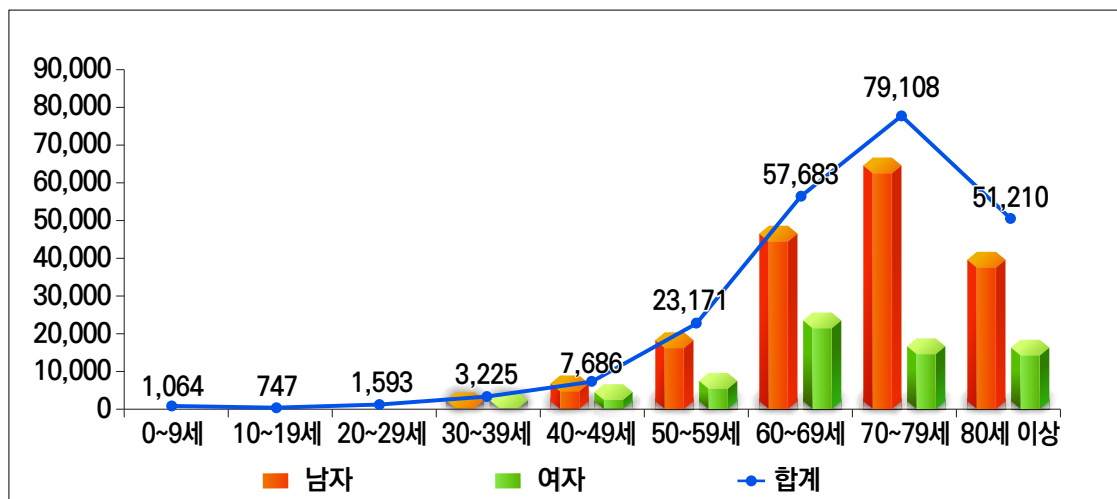
[연도별 만성폐색성 폐질환 환자수 및 진료비(2015-2019)]



(단위: 명, 억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환자수	합계	232,324	224,545	217,008	223,553	225,487
	남자	162,822	161,899	160,716	167,769	172,717
	여자	69,502	62,646	56,292	55,784	52,770
진료비	합계	1,738	1,758	1,836	1,983	2,043
	남자	1,290	1,313	1,394	1,531	1,599
	여자	448	445	442	452	444

[연령별 만성폐색성 폐질환 환자수(2019)]



(단위: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합계	1,064	747	1,593	3,225	7,686	23,171	57,683	79,108	51,210
남자	630	418	940	1,947	5,408	17,283	45,842	63,872	36,377
여자	434	329	653	1,278	2,278	5,888	11,841	15,236	14,833



질병정보

- ◆ 만성폐색성폐질환(COPD)는 숨 쉬는 통로가 원활하지 못해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의 호흡기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으로 전 세계에서 4번째 사망원인이며,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다.
- ◆ 가장 중요한 **원인**은 흡연과 미세먼지다. 흡연과 미세먼지 등으로 공기가 몸으로 들어가는 길인 기관지 벽이 두꺼워지고 통로가 좁아지는 기관지염이 생기고, 공기 중 산소를 핏 속으로 빨아들이는 폐포도 망가지는 폐기종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질환을 통칭하여 만성폐색성폐질환이라 한다.
- ◆ 이러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연해야 하며, 규칙적인 유산소운동으로 호흡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한다. 일단 이 병이 생기면 악화를 막아야 하는데, 약물치료와 운동, 그리고 호흡기 재활치료 등으로 도움이 된다.



19 기흉



정 의

- ◆ 질병코드: J93(기흉), S27.0(외상성 기흉), P25.1(출생전후기에 기원한 기흉)
- ◆ 흉벽과 폐를 분리시켜주는 늑막은 이중의 막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두 층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는 것을 기흉이라고 함. 기흉은 폐를 찢그러뜨리며 흉통과 호흡곤란을 유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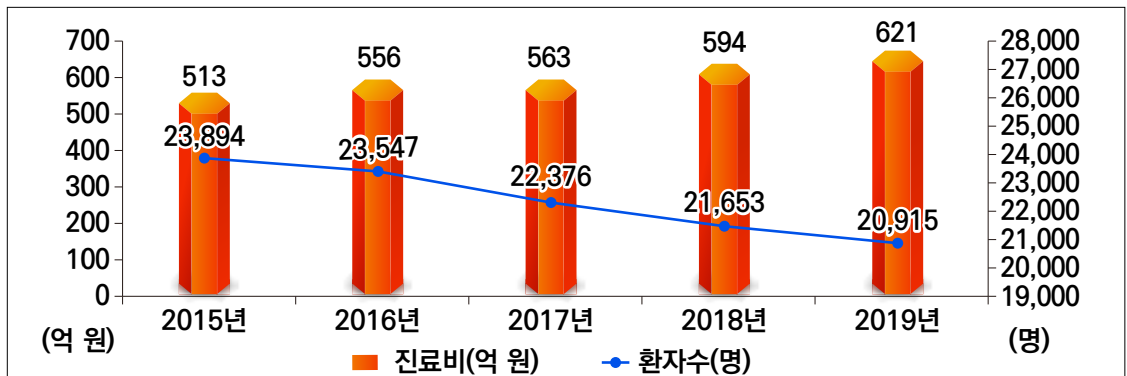
(출처: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주요현황

- ◆ 기흉 환자수는 2015년 23,894명에서 2019년 20,915명으로 2,979명 감소하였고, 진료비는 2015년 513억 원에서 2019년 621억 원으로 108억 원 증가하였다.
- ◆ 2019년 기준 기흉 환자는 남자가 여자보다 5.5배 이상 많았고, 전체 연령 중에서 20대, 10대, 70대 순으로 환자수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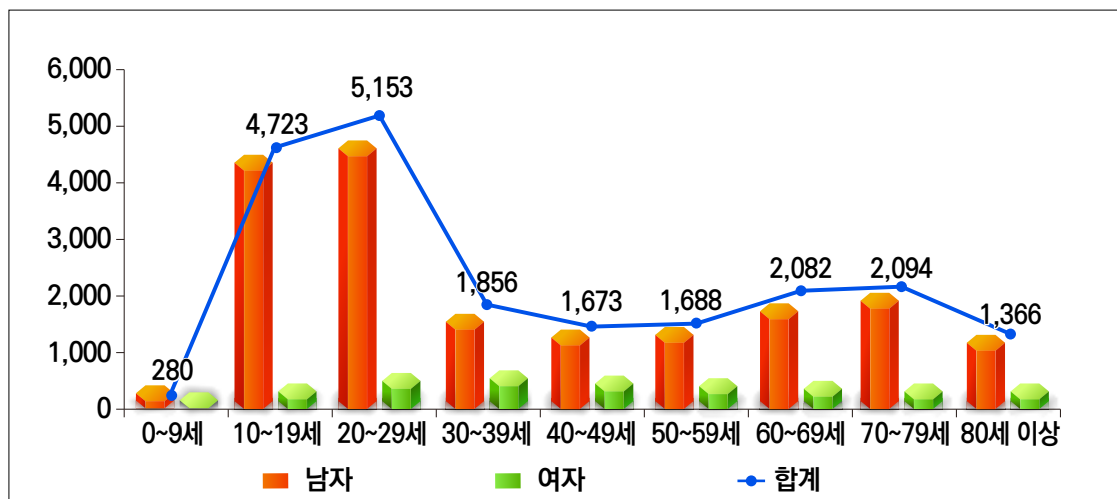
[연도별 기흉 환자수 및 진료비(2015-2019)]



(단위: 명, 억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환자수	합계	23,894	23,547	22,376	21,653	20,915
	남자	20,477	20,206	19,075	18,451	17,699
	여자	3,417	3,341	3,301	3,202	3,216
진료비	합계	513	556	563	594	621
	남자	455	494	495	525	543
	여자	58	62	67	69	78

[연령별 기흉 환자수(2019)]



(단위: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합계	280	4,723	5,153	1,856	1,673	1,688	2,082	2,094	1,366
남자	196	4,369	4,605	1,437	1,127	1,272	1,767	1,831	1,095
여자	84	354	548	419	546	416	315	263	271



질병정보

- ◆ 폐를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흉낭)에 여러 가지 이유로 공기가 차서 폐에 압박을 가함으로 폐가 찢어지들어 호흡이 어려워지고 가슴통증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 ◆ 성인 기흉의 **원인**은 가슴뼈 골절 등의,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흉막강 주머니에 구멍이 뚫리고 공기가 빠져나가 생기는 경우와 심한 천식이나 폐렴 등, 다른 질환이나 내부적 요인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내부적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흡연이다.
- ◆ 기흉의 **진단**은 병력 청취와 호흡곤란 가슴통증 등의 증상, 그리고 청진소견으로 내리게 된다. 흉부X-선 검사 등 영상의학적 검사도 도움이 된다.
- ◆ **치료**는 흉낭에 들어찬 공기를 빼내고 찢어지진 폐를 펴주는 것이 기본이며, 외상에 의해 기흉이 발생한 경우는 외상에 대한 처치도 함께 한다.



20 인플루엔자



정 의

- ◆ 질병코드: J09 ~ J11 (인플루엔자)
- ◆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호흡기 질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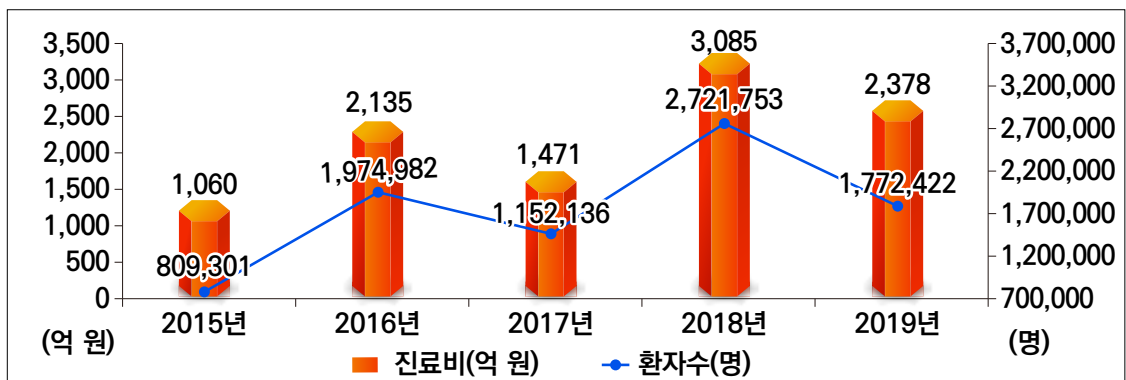
(출처: 국가건강정보 포털)



주요현황

- ◆ 인플루엔자 환자수는 2015년 809,301명에서 2019년 1,772,422명으로 963,121명 증가하였고, 진료비는 2015년 1,060억 원에서 2019년 2,378억 원으로 1,318억 원 증가하였다.
- ◆ 2019년 기준 인플루엔자 환자는 여자가 남자보다 1.13배 이상 많았고, 전체 연령 중에서 10세 미만, 10대, 30대 순으로 환자수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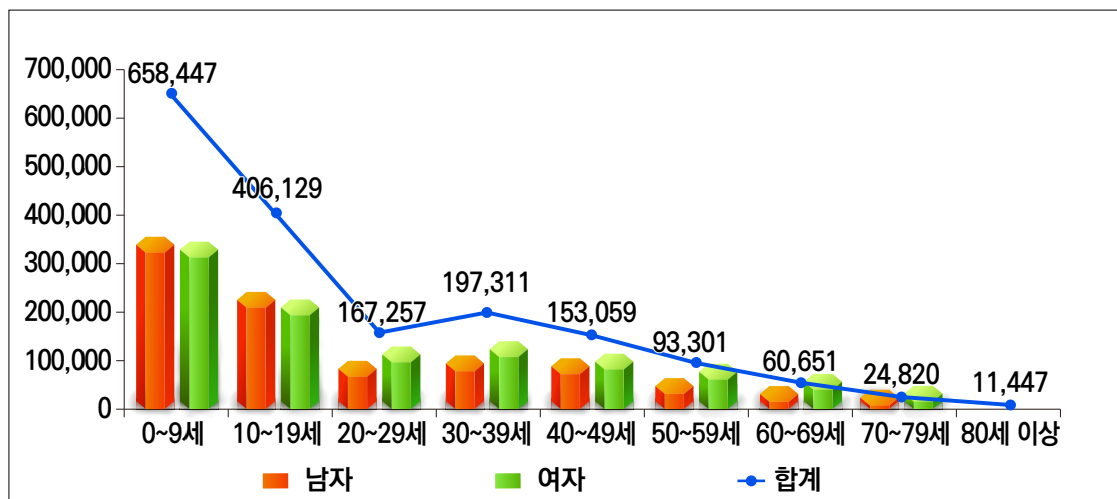
[연도별 인플루엔자 환자수 및 진료비(2015-2019)]



(단위: 명, 억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환자수	합계	809,301	1,974,982	1,152,136	2,721,753	1,772,422
	남자	366,802	922,480	527,604	1,245,705	830,019
	여자	442,499	1,052,502	624,532	1,476,048	942,403
진료비	합계	1,060	2,135	1,471	3,085	2,378
	남자	460	990	655	1,378	1,107
	여자	601	1,145	816	1,706	1,271

[연령별 인플루엔자 환자수(2019)]



(단위: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합계	658,447	406,129	167,257	197,311	153,059	93,301	60,651	24,820	11,447
남자	333,071	210,025	69,152	78,141	69,596	36,001	20,853	9,475	3,705
여자	325,376	196,104	98,105	119,170	83,463	57,300	39,798	15,345	7,742



질병정보

- ◆ 흔히 독감이라 부르며,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전파하는 호흡기질환으로 인후통, 발열 그리고 기침가래 등의 호흡기 **증상**을 나타낸다. 바이러스는 크게 A, B, C형으로 분류되며 이 중에서 A형과 B형이 사람에게 병을 일으킨다. 심한 고열(39℃ 이상)과 갑자기 나타나는 심한 증상으로 감기와 구분할 수 있지만 정확한 구분은 진단검사를 통해서 가능하다.
- ◆ **치료**는 타미플루 등의 항바이러스제 투약과 증상 완화 치료를 병행한다.
- ◆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맞는 것이 좋다.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종류는 매년 변화하며 예방 접종도 그 바이러스에 대항하도록 만들어진 백신이어야 효과가 있다.
- ◆ 백신은 접종 후 1개월 이상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9월부터, 늦어도 10월이나 11월에는 예방 접종을 하도록 한다. 접종시기를 놓쳤으면 늦게라도 맞는 것이 좋다. 백신이 인플루엔자 발병을 완전히 예방하진 못한다 할지라도 증상 완화와 사망위험 감소의 효과는 있다.



| 테마1 |
관심질병

Ⅳ. 정신 및 행동장애

21. 과다활동성주의력결핍장애(ADHD) ...	50
22. 우울증	52
23. 수면장애(불면증)	54
24. 공황장애.....	56
25. 조현병(정신분열증)	58
26. 치매.....	60
27. 정신지체.....	62
28. 틱장애.....	64
29. 뇌전증(간질)	66
30. 파킨슨병.....	68

21 과다활동성주의력결핍장애(ADHD)



정 의

- ◆ 질병코드: F90.0 (과다활동을 수반한 주의력 결핍장애)
- ◆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DHD)는 아동기에 많이 나타나는 장애로, 지속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하여 산만하고 과다활동, 충동성을 보이는 상태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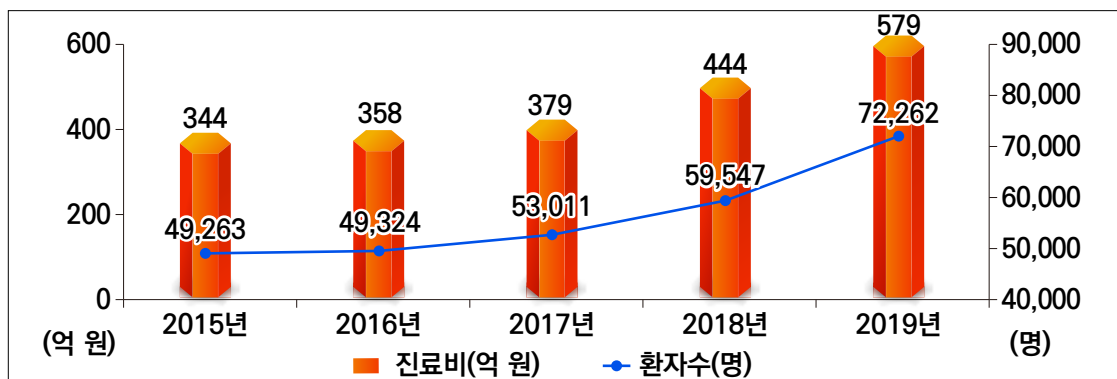
(출처: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주요현황

- ◆ 과다활동성주의력결핍장애 환자수는 2015년 49,263명에서 2019년 72,262명으로 22,999명 증가하였고, 진료비는 2015년 344억 원에서 2019년 579억 원으로 235억 원 증가하였다.
- ◆ 2019년 기준 과다활동성주의력결핍장애 환자는 남자가 여자보다 3.3배 이상 많았고, 전체 연령 중에서 10대, 10세 미만, 20대 순으로 환자수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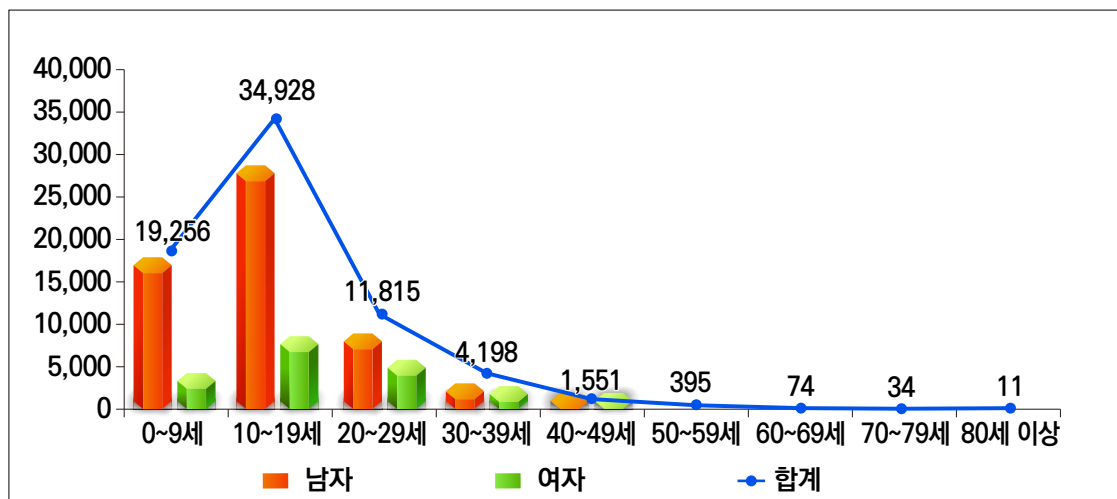
[연도별 과다활동성주의력결핍장애 환자수 및 진료비(2015-2019)]



(단위: 명, 억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환자수	합계	49,263	49,324	53,011	59,547	72,262
	남자	39,737	39,856	42,412	46,952	55,488
	여자	9,526	9,468	10,599	12,595	16,774
진료비	합계	344	358	379	444	579
	남자	284	296	310	360	459
	여자	60	62	68	85	120

[연령별 과다활동성주의력결핍장애 환자수(2019)]



(단위: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합계	19,256	34,928	11,815	4,198	1,551	395	74	34	11
남자	16,008	27,842	7,782	2,692	888	210	47	14	5
여자	3,248	7,086	4,033	1,506	663	185	27	20	6



질병정보

- ◆ 아동기에 주로 나타나며 지속적으로 주의력 결핍과 과다행동, 충동성 등을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 ◆ **원인**은 육아방법보다는 유전적 요인이나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런 양상을 보이는 아동의 부모에게 육아방법이 잘못되었다는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
- ◆ **증상**은 주의력 결핍, 즉, 집중하지 않고, 말을 경청하지 않고, 과제를 끝내지 못하고, 잘 잃어버리는 등의 증상과, 과잉행동, 즉, 손발을 자꾸 꼼지락거리고, 자리를 자주 이탈하고, 활동에 침착하게 참여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수다스럽게 말하는 행동, 그리고 충동성 행동, 즉,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대답하고, 다른 사람의 활동에 참견 혹은 방해하며,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는 행동 등이 두루 나타난다.
- ◆ **치료**는 소아 정신과에서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로 효과를 얻는 경우가 많으며, 놀이치료, 학습치료, 사회 그룹치료 등도 이용된다. 무엇보다 환자 가까이 있는 부모나 선생님 등이 이 질병에 대해 잘 이해하고 환자를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22 우울증



정 의

- ◆ 질병코드: F32~33 (우울증)
- ◆ 「우울증」은 의욕저하와 우울감의 주요 증상으로 하여 다양한 인지 및 정신 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 생활의 기능저하를 일으키는 질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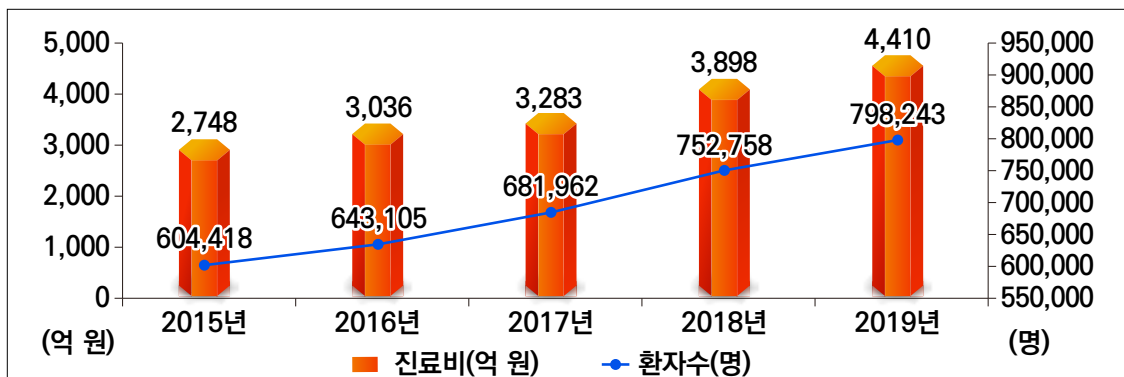
(출처: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주요현황

- ◆ 우울증 환자수는 2015년 604,418명에서 2019년 798,243명으로 193,825명 증가하였고, 진료비는 2015년 2,748억 원에서 2019년 4,410억 원으로 1,662억 원 증가하였다.
- ◆ 2019년 기준 우울증 환자는 여자가 남자보다 1.98배 이상 많았고, 전체 연령 중에서 60대, 50대, 20대 순으로 환자수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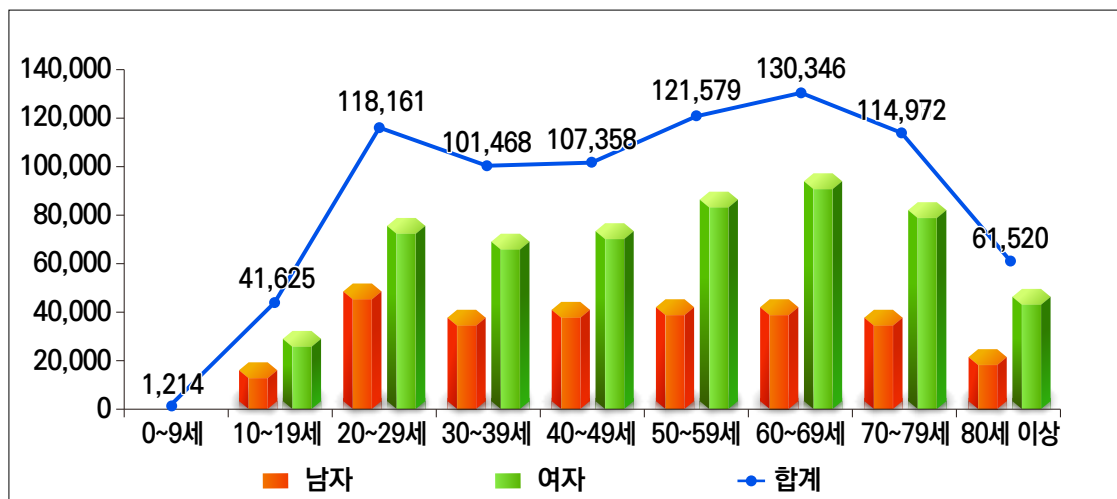
[연도별 우울증 환자수 및 진료비(2015-2019)]



(단위: 명, 억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환자수	합계	604,418	643,105	681,962	752,758	798,243
	남자	196,352	212,125	226,316	252,367	267,215
	여자	408,066	430,980	455,646	500,391	531,028
진료비	합계	2,748	3,036	3,283	3,898	4,410
	남자	932	1,048	1,130	1,311	1,477
	여자	1,816	1,989	2,153	2,587	2,933

[연령별 우울증 환자수(2019)]



(단위: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합계	1,214	41,625	118,161	101,468	107,358	121,579	130,346	114,972	61,520
남자	786	14,824	46,143	35,147	38,018	39,508	39,607	35,083	18,099
여자	428	26,801	72,018	66,321	69,340	82,071	90,739	79,889	43,421



질병정보

- ◆ 우울증으로 인한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지속되는 경우, 직업기능 및 학업기능의 저하가 지속되는 경우, 자살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동반되는 내과질환의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우울증 치료를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
- ◆ 가벼운 우울증은 상담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으나,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에서는 약물치료가 필수적이다. 특히, 최근 개발된 항우울제는 뇌 내 저하된 세로토닌을 증가시켜 우울증의 원인을 **치료**하며 부작용이 거의 없이 안전하게 우울증을 개선할 수 있다.
- ◆ 필요에 따라 지지정신치료, 정신분석, 인지행동치료, 대인관계치료 등 다양한 정신과적 상담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정적 사고를 감소시키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 시켜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23 수면장애(불면증)



정 의

- ◆ 질병코드: F510 (비기질성 불면증) G470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
- ◆ 「불면증」이란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증상, 신경증, 우울증, 분열병 따위의 경우에 나타나며 그 외에는 몸의 상태가 나쁘거나 흥분하였을 때도 나타남. 일차성 불면증은 수면의 시작이나 수면유지의 어려움, 또는 원기 회복이 되지 않는 수면을 호소하는 수면장애로 내과 질환, 우울장애 등 타 정신과적 장애나 약물 등의 요인 원인이 아닌 불면증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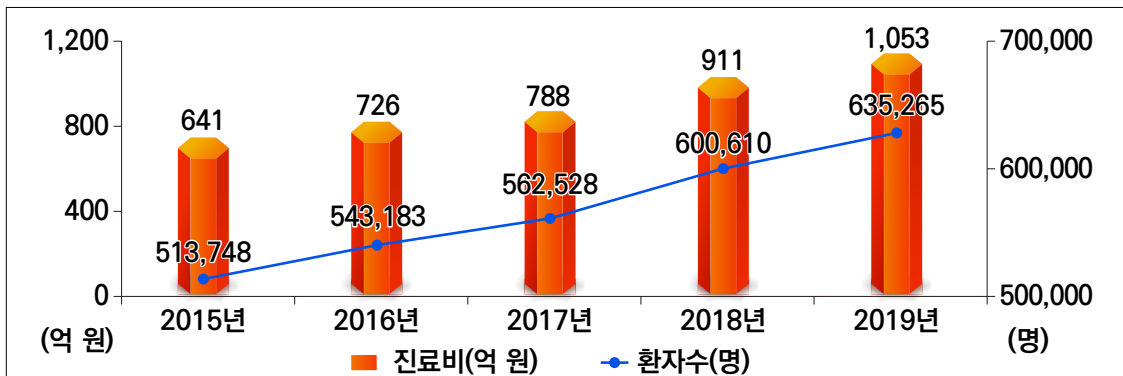
(출처: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주요현황

- ◆ 수면장애 환자수는 2015년 513,748명에서 2019년 635,265명으로 121,517명 증가하였고, 진료비는 2015년 641억 원에서 2019년 1,053억 원으로 412억 원 증가하였다.
- ◆ 2019년 기준 수면장애 환자는 여자가 남자보다 1.55배 많았고, 전체 연령 중에서 60대, 50대, 70대 순으로 환자수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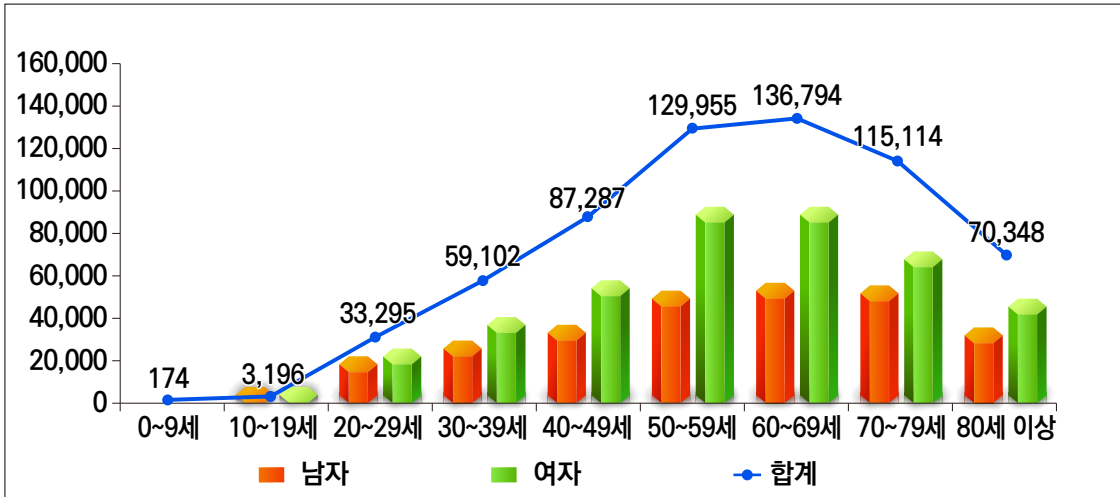
[연도별 수면장애(불면증) 환자수 및 진료비(2015-2019)]



(단위: 명, 억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환자수	합계	513,748	543,183	562,528	600,610	635,265
	남자	199,682	210,023	218,109	234,350	249,072
	여자	314,066	333,160	344,419	366,260	386,193
진료비	합계	641	726	788	911	1,053
	남자	252	286	309	358	414
	여자	388	440	479	552	639

[연령별 수면장애(불면증) 환자수(2019)]



(단위: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합계	174	3,196	33,295	59,102	87,287	129,955	136,794	115,114	70,348
남자	103	1,480	14,264	22,469	32,204	45,452	52,694	51,206	29,200
여자	71	1,716	19,031	36,633	55,083	84,503	84,100	63,908	41,148



질병정보

- ◆ 불면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잘못된 수면습관이다. 잘못된 수면 습관을 수정하고 건강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수면 위생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 ◆ 낮잠을 피하고, 잠자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며, 잠을 잘 때에만 침대에 눕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또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수면을 방해하는 담배, 카페인 함유 음료(커피, 홍차 등), 콜라, 술 등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 ◆ 잠들기 2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거나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는 등의 요법도 효과가 있다. 주말이나 휴일에도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주중에 수면이 부족했다고 해서 주말에 낮잠을 자지 않는 것이 좋다.
- ◆ 관절염, 두통과 같은 통증 질환, 호흡곤란이 있는 심폐질환, 전립선비대증이 있으면 잠을 자다 자주 깨기 때문에 해당질환을 먼저 치료해야 한다.

(출처: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24 공황장애



정 의

- ◆ 질병코드: F400 (광장공포증), F410 (공황장애)
- ◆ 「공황장애」란 심한 불안 발작과 함께 동반되는 다양한 신체 증상들이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불안장애를 말함. 공황이란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상황에서 오는 갑작스러운 공포감, 따라서 공황상태는 실제로 생명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면 누구에게서나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몸의 반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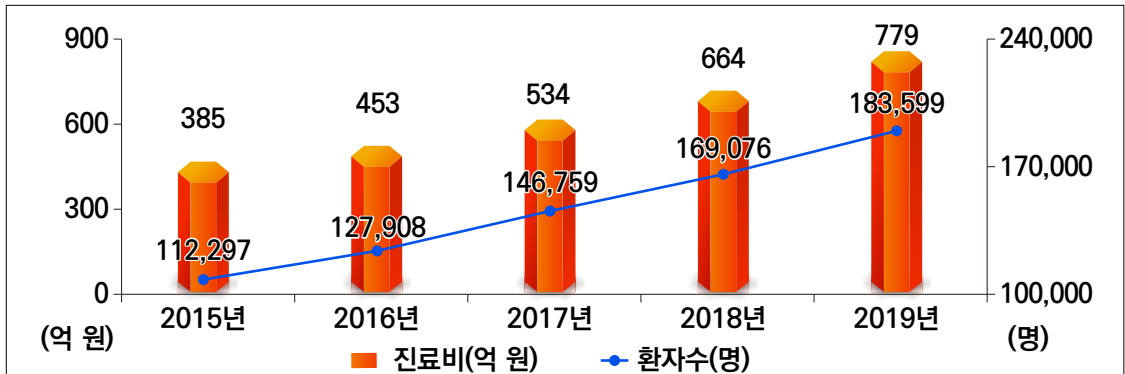
(출처: 서울대학교병원 신체기관정보)



주요현황

- ◆ 공황장애 환자수는 2015년 112,297명에서 2019년 183,599명으로 71,302명 증가하였고, 진료비는 2015년 385억 원에서 2019년 779억 원으로 394억 원 증가하였다.
- ◆ 2019년 기준 공황장애 환자는 여자가 남자보다 1.18배 이상 많았고, 전체 연령 중에서 40대, 50대, 30대 순으로 환자수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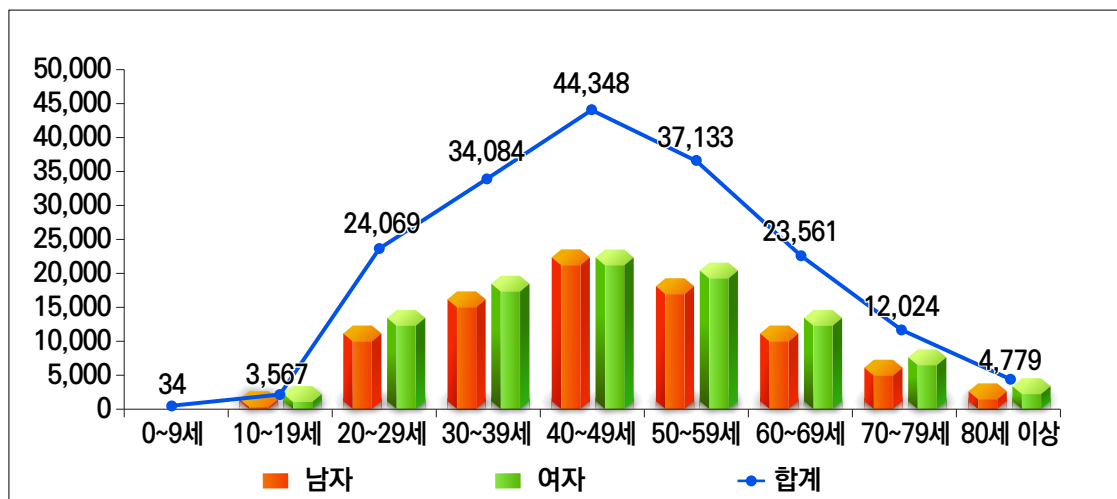
[연도별 공황장애 환자수 및 진료비(2015-2019)]



(단위: 명, 억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환자수	합계	112,297	127,908	146,759	169,076	183,599
	남자	52,660	59,905	68,513	77,988	84,089
	여자	59,637	68,003	78,246	91,088	99,510
진료비	합계	385	453	534	664	779
	남자	187	218	254	309	357
	여자	197	236	280	355	422

[연령별 공황장애 환자수(2019)]



(단위: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합계	34	3,567	24,069	34,084	44,348	37,133	23,561	12,024	4,779
남자	21	1,407	10,463	15,958	21,954	17,455	10,127	4,956	1,748
여자	13	2,160	13,606	18,126	22,394	19,678	13,434	7,068	3,031



질병정보

- ◆ 공황장애는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다면 대부분 완치가 가능한 병이다. 하지만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점점 더 진행될 수 있다.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 ◆ 공황장애에서의 약물**치료**는 항우울제의 일종인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가 우선적으로 권장된다. 증상이 가라앉더라도 적어도 12~18개월 정도 꾸준히 복용해야 하는 중요한 약물이다. 이 약물의 사용 기간이 길수록 재발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 ◆ 인지행동치료는 공황장애의 치료에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약물치료와 병행할 경우 더 효과적이다. 생각과 행동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을 밝혀내어 왜곡된 생각을 교정하고 회피하려는 행동을 바로잡는 데에 초점을 둔다.
- ◆ 높은 농도의 카페인 함유 커피, 홍차, 에너지 드링크 등을 피하고 금주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25 조현병(정신분열증)



정 의

- ◆ 질병코드: F20 (조현병), F21 (조현형 장애), F23.1 (조현병의 증상이 있는 급성 다형성 정신병 장애), F23.2 (급성-조현병-유사정신병 장애), F25 (조현정동장애)
- ◆ 조현병(정신분열증)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질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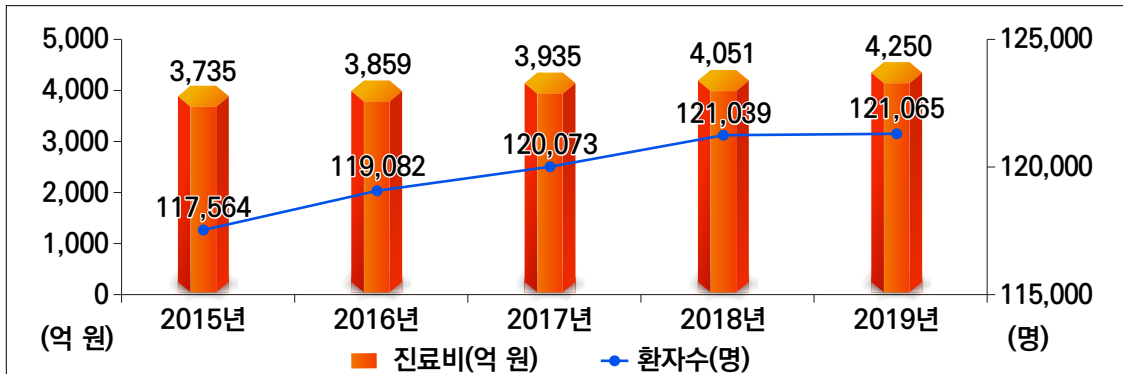
(출처: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주요현황

- ◆ 조현병 환자수는 2015년 117,564명에서 2019년 121,065명으로 3,501명 증가하였고, 진료비는 2015년 3,735억 원에서 2019년 4,250억 원으로 515억 원 증가하였다.
- ◆ 2019년 기준 조현병 환자는 여자가 남자보다 1.21배 이상 많았고, 전체 연령 중에서 40대, 50대, 30대 순으로 환자수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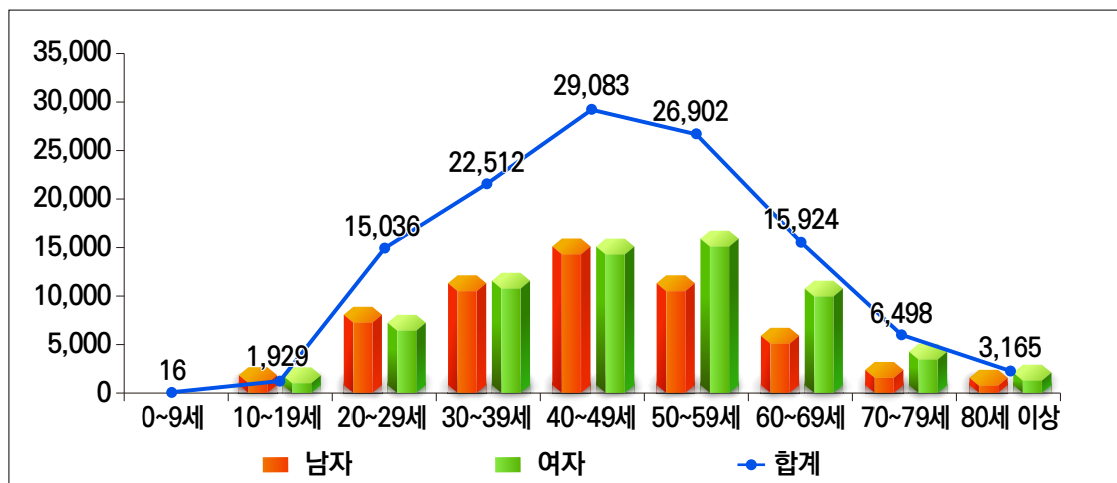
[연도별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수 및 진료비(2015-2019)]



(단위: 명, 억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환자수	합계	117,564	119,082	120,073	121,039	121,065
	남자	54,756	55,322	55,173	54,906	54,638
	여자	62,808	63,760	64,900	66,133	66,427
진료비	합계	3,735	3,859	3,935	4,051	4,250
	남자	1,949	1,994	2,008	2,042	2,116
	여자	1,786	1,865	1,927	2,008	2,135

[연령별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수(2019)]



(단위: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합계	16	1,929	15,036	22,512	29,083	26,902	15,924	6,498	3,165
남자	15	980	8,012	11,040	14,475	11,353	5,565	2,302	896
여자	1	949	7,024	11,472	14,608	15,549	10,359	4,196	2,269

질병정보

- ◆ 조현병(정신분열증)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질환으로, 예후가 좋지 않고 만성적인 경과를 보여 환자나 가족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지만, 최근 약물 요법을 포함한 치료적 접근에 뚜렷한 진보가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질환이다.
- ◆ **검사**시 조현병에서 보이는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내과적 질환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기분장애, 성격장애 등 타 질환과의 감별이 이루어져야 한다.
- ◆ 조현병의 확실한 **예방**법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조현병이 발병하기 전에 약한 조현병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 발병 고위험군' 등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현병을 예방하려는 연구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출처: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26 치매



정 의

- ◆ 질병코드: F00~03 (치매), G30 (알츠하이머병)
- ◆ 「치매」는 그 자체가 하나의 질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뇌손상에 의해 기억력을 위시한 여러 인지기능의 장애가 생겨 예전 수준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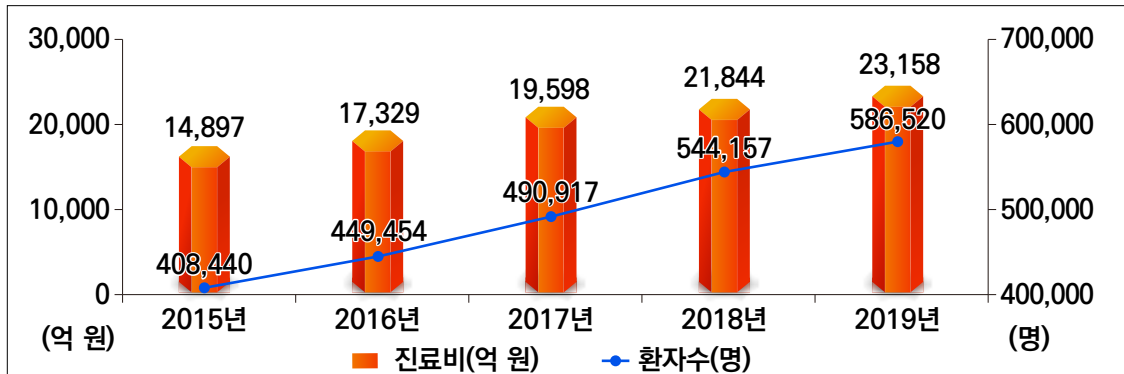
(출처: 국가건강정보 포털)



주요현황

- ◆ 치매 환자수는 2015년 408,440명에서 2019년 586,520명으로 178,080명 증가하였고, 진료비는 2015년 14,897억 원에서 2019년 23,158억 원으로 8,261억 원 증가하였다.
- ◆ 2019년 기준 치매 환자는 여자가 남자보다 2.45배 이상 많았고, 전체 연령 중에서 80세 이상, 70대, 60대 순으로 환자수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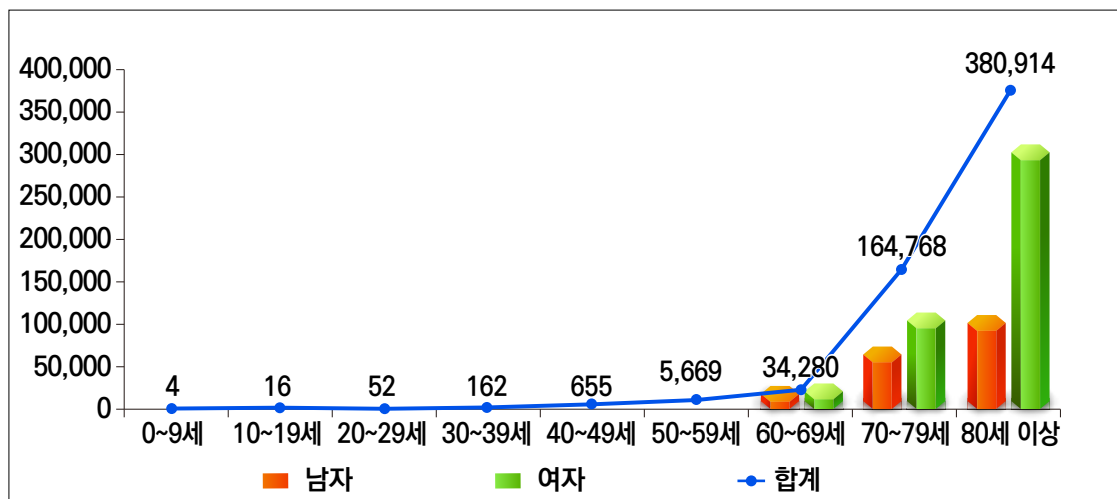
[연도별 치매 환자수 및 진료비(2015-2019)]



(단위: 명, 억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환자수	합계	408,440	449,454	490,917	544,157	586,520
	남자	117,591	128,919	140,461	156,577	169,526
	여자	290,849	320,535	350,456	387,580	416,994
진료비	합계	14,897	17,329	19,598	21,844	23,158
	남자	3,437	3,956	4,427	4,960	5,330
	여자	11,460	13,373	15,171	16,884	17,828

[연령별 치매 환자수(2019)]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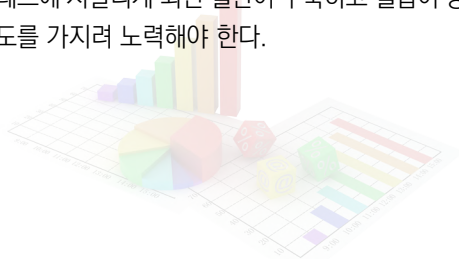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합계	4	16	52	162	655	5,669	34,280	164,768	380,914
남자	2	12	35	96	371	2,621	15,037	58,954	92,398
여자	2	4	17	66	284	3,048	19,243	105,814	288,516



질병정보

- ◆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자신에게 알맞은 운동을 선택하여 꾸준히 운동을 하도록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운동하는 것이다.
- ◆ 취미생활을 갖도록 한다. 특히 세밀한 손동작을 사용하는 취미가 좋는데, 예를 들면 즐거운 마음으로 서예, 자수, 그림 그리기 등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 두뇌 활동을 많이 한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이나 잡지를 매일 읽으면서 두뇌 활동을 지속시키는 것이 좋다. 글을 쓰는 것도 좋으며 일기를 매일매일 쓰는 것도 기억력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 ◆ 친구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가능한 한 사회 활동을 많이 하도록 한다. 노인이 되면 여가가 많기 때문에 그동안 하지 못하였던 사회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통하여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것이 좋다.
- ◆ 스트레스를 줄인다.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상승할 수 있다.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활태도를 가지려 노력해야 한다.

(출처: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27 정신지체



정 의

- ◆ 질병코드: F70-F79 (정신지체)
- ◆ 지적장애(정신지체)는 18세 이전에 시작하는 발달 장애 상태로, 지적, 인지적 능력에 뚜렷한 제한이 있고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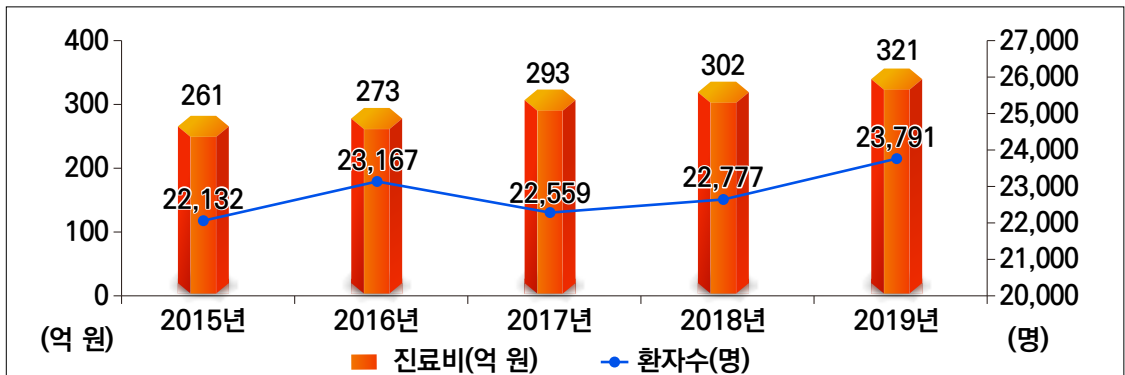
(출처: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주요현황

- ◆ 정신지체 환자수는 2015년 22,132명에서 2019년 23,791명으로 1,659명 증가하였고, 진료비는 2015년 261억 원에서 2019년 321억 원으로 60억 원 증가하였다.
- ◆ 2019년 기준 정신지체 환자는 남자가 여자보다 2.07배 이상 많았고, 전체 연령 중에서 10대, 20대, 10세 미만 순으로 환자수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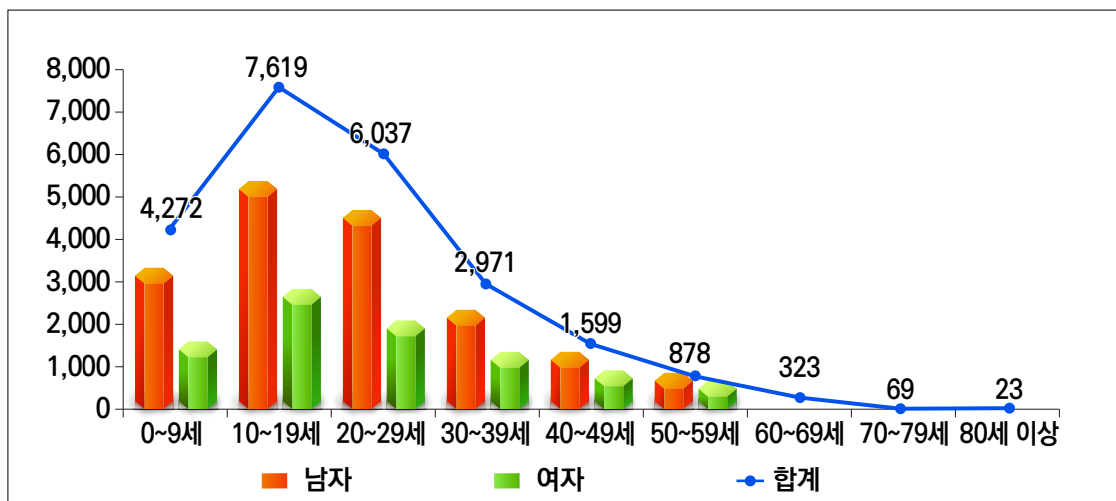
[연도별 정신지체 환자수 및 진료비(2015-2019)]



(단위: 명, 억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환자수	합계	22,132	23,167	22,559	22,777	23,791
	남자	14,708	15,547	15,078	15,286	16,048
	여자	7,424	7,620	7,481	7,491	7,743
진료비	합계	261	273	293	302	321
	남자	184	192	208	212	227
	여자	77	81	85	91	95

[연령별 정신지체 환자수(2019)]



(단위: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합계	4,272	7,619	6,037	2,971	1,599	878	323	69	23
남자	2,985	5,089	4,301	1,971	973	514	177	26	12
여자	1,287	2,530	1,736	1,000	626	364	146	43	11



질병정보

- ◆ 지적장애(정신지체)는 18세 이전에 시작하는 발달 장애 상태로, 지적, 인지적 능력에 뚜렷한 제한이 있고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지적장애 자체가 질병은 아니다.
- ◆ 정신지체에 대한 최선의 **치료**는 예방이다. 유전적 질환에 대한 조사, 산전 진단, 풍진예방과 예방 접종, 출생 초기의 선천성 질환에 대한 검사, 조기발견 및 치료 등이 중요하다. 유전적 위험성이 의심될 경우 산전에 유전상담을 실시하도록 한다.
- ◆ 정신지체 자체보다는 이차적인 정신질환과 후유증 및 사회적응에 대한 치료가 필수적이다. 개인정신치료를 포함한 가족치료와 행동치료 및 문제되는 행동에 대한 약물치료를 시행 할 수 있으며 간질과 같은 합병증에 대한 치료를 해야 한다.

(출처: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28 틱장애



정 의

- ◆ 질병코드: F95, F95.0~F95.9 (틱장애)
- ◆ 틱은 아이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나 목, 어깨, 몸통 등의 신체 일부분을 아주 빠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함. 전자를 운동 틱(근육 틱), 후자를 음성 틱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의 틱 증상이 모두 나타나면서 전체 유병기간이 1년을 넘는 것을 뚜렛병(Tourette's Disorder)이라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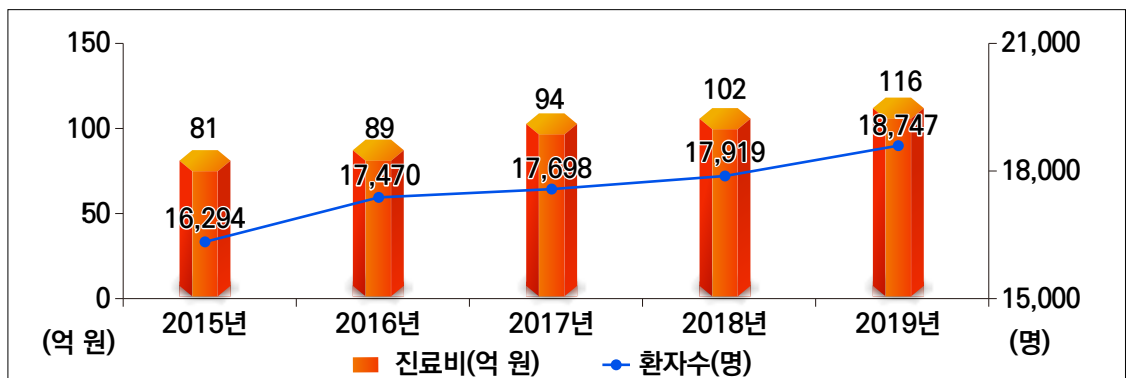
(출처: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주요현황

- ◆ 틱장애 환자수는 2015년 16,294명에서 2019년 18,747명으로 2,453명 증가하였고, 진료비는 2015년 81억 원에서 2019년 116억 원으로 35억 원 증가하였다.
- ◆ 2019년 기준 틱장애 환자는 남자가 여자보다 3.65배 이상 많았고, 전체 연령 중에서 10대, 10세 미만, 20대 순으로 환자수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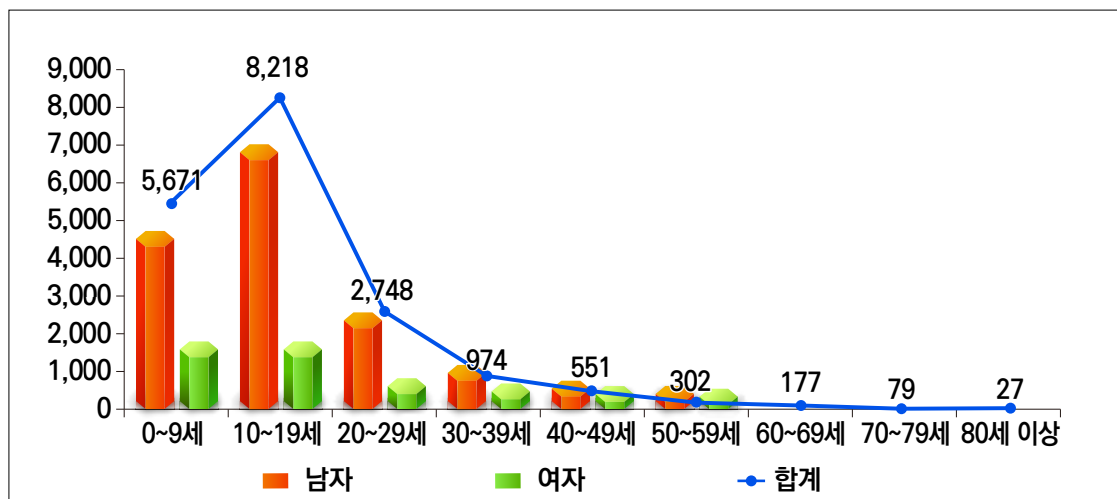
[연도별 틱장애 환자수 및 진료비(2015-2019)]



(단위: 명, 억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환자수	합계	16,294	17,470	17,698	17,919	18,747
	남자	12,707	13,770	13,964	14,057	14,716
	여자	3,587	3,700	3,734	3,862	4,031
진료비	합계	81	89	94	102	116
	남자	66	73	78	83	94
	여자	14	16	17	19	22

[연령별 틱장애 환자수(2019)]



(단위: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합계	5,671	8,218	2,748	974	551	302	177	79	27
남자	4,250	6,742	2,259	772	395	173	80	34	11
여자	1,421	1,476	489	202	156	129	97	45	16



질병정보

- ◆ 틱이란 갑작스럽고 빠르며 반복적, 비의도적, 상동적인 움직임이나 소리를 말한다. 그 증상은 눈 깜빡임, 경련 등 단순한 동작에서부터 복잡한 동작 틱, 음성 틱 등 다양하다.
- ◆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뇌신경계의 기질적 문제나 유전적, 환경적, 심리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 틱장애는 다른 질환 혹은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통된 원인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틱장애로 인해서 혹은 틱장애에 적응하는 과정에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동반되는 질환 또는 증상으로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강박장애, 충동조절 어려움, 학습장애, 우울증, 불안증 등이 있다.



29 뇌전증(간질)



정 의

- ◆ 질병코드: G40, G41, F80.3 (뇌전증)
- ◆ 뇌전증이란 뇌전증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인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뇌전증 발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만성화된 질환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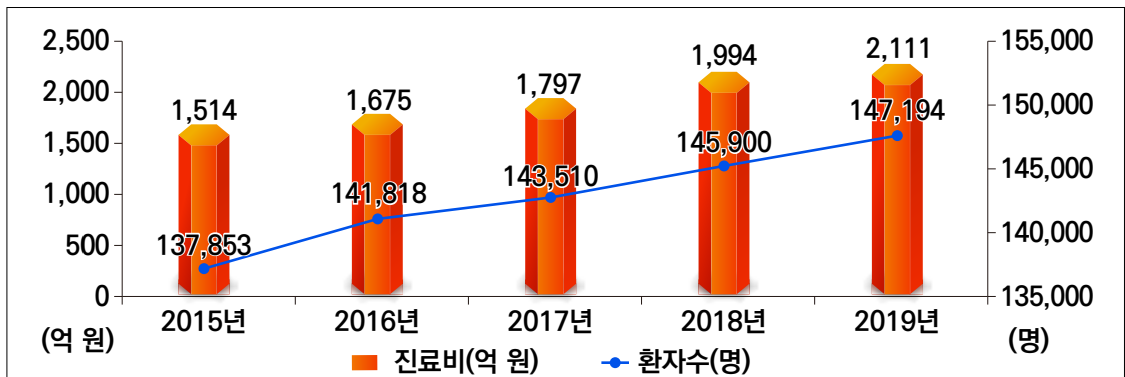
(출처: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주요현황

- ◆ 뇌전증 환자수는 2015년 137,853명에서 2019년 147,194명으로 9,341명 증가하였고, 진료비는 2015년 1,514억 원에서 2019년 2,111억 원으로 597억 원 증가하였다.
- ◆ 2019년 기준 뇌전증 환자는 남자가 여자보다 1.23배 이상 많았고, 전체 연령 중에서 20대, 50대, 40대 순으로 환자수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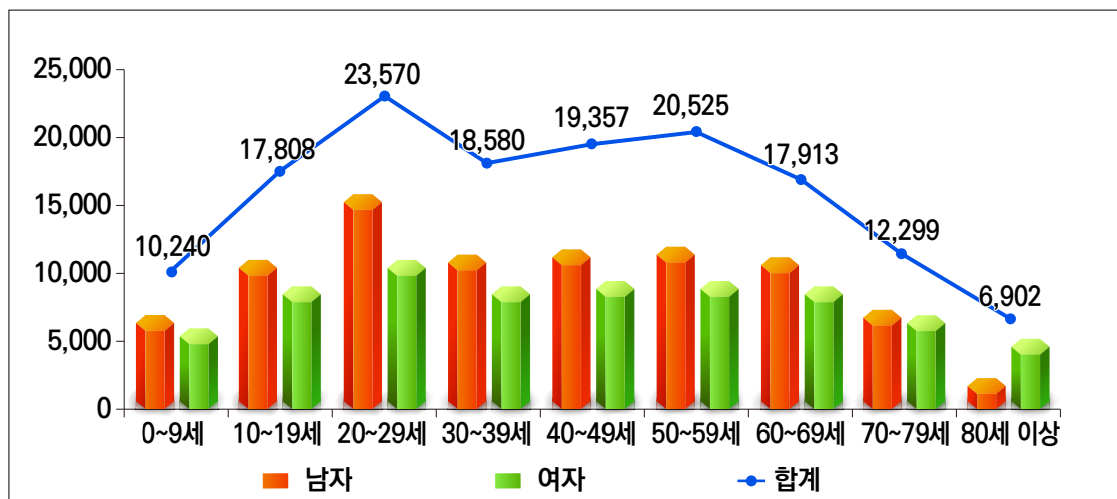
[연도별 뇌전증(간질) 환자수 및 진료비(2015-2019)]



(단위: 명, 억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환자수	합계	137,853	141,818	143,510	145,900	147,194
	남자	76,794	79,061	79,724	80,800	81,426
	여자	61,059	62,757	63,786	65,100	65,768
진료비	합계	1,514	1,675	1,797	1,994	2,111
	남자	845	927	991	1,081	1,149
	여자	668	748	806	913	963

[연령별 뇌전증(간질) 환자수(2019)]



(단위: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합계	10,240	17,808	23,570	18,580	19,357	20,525	17,913	12,299	6,902
남자	5,539	9,862	14,023	10,584	10,714	11,229	9,973	6,637	2,865
여자	4,701	7,946	9,547	7,996	8,643	9,296	7,940	5,662	4,037



질병정보

- ◆ 뇌전증은 발작 혹은 경련을 주 증상으로 하는 뇌질환이다. 뇌세포는 항상 전기적 파장을 발산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이러한 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발작으로 나타나게 된다.
- ◆ 뇌졸중의 **원인**은 많은 경우 뚜렷하게 찾을 수 없지만, 유전, 뇌졸중이나 사고로 인한 뇌손상 등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경우도 많다.
- ◆ 대발작의 경우 대부분은 5분 이내에 끝나지만 20분 이상 멈추지 않고 계속되면 위험하므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 ◆ 주위에서 발작이 나타난 환자를 보게 되면, 환자 주위에 다칠만한 물건이 없게 하고, 호흡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 발작이 멈출 때까지 가만히 두어야 한다. 뇌전증이 아닌 경우에도 발작처럼 보이는 증상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정신성 발작, 가성 발작, 금단증상 등), 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하며,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의 뇌전증 환자가 발작 증상 없이 생활할 수 있다.



30 파킨슨병



정 의

- ◆ 질병코드: G20 (파킨슨병)
- ◆ 파킨슨병은 미세한 움직임을 조절하는 뇌 부위인 기저핵에 있는 세포들이 퇴행함에 따라 생기는 질환이며 손떨림과 운동 장애가 생기는 진행성 뇌질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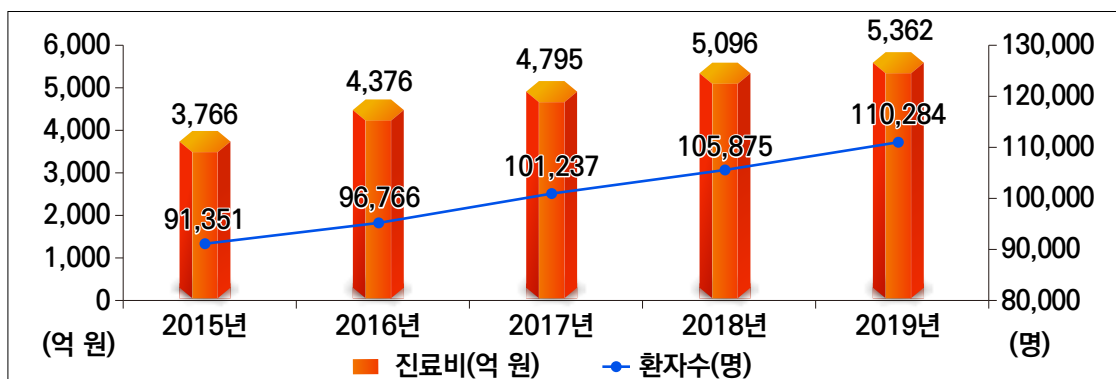
(출처: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주요현황

- ◆ 파킨슨병 환자수는 2015년 91,351명에서 2019년 110,284명으로 18,933명 증가하였고, 진료비는 2015년 3,766억 원에서 2019년 5,362억 원으로 1,596억 원 증가하였다.
- ◆ 2019년 기준 파킨슨병 환자는 여자가 남자보다 1.43배 이상 많았고, 전체 연령 중에서 70대, 80세 이상, 60대 순으로 환자수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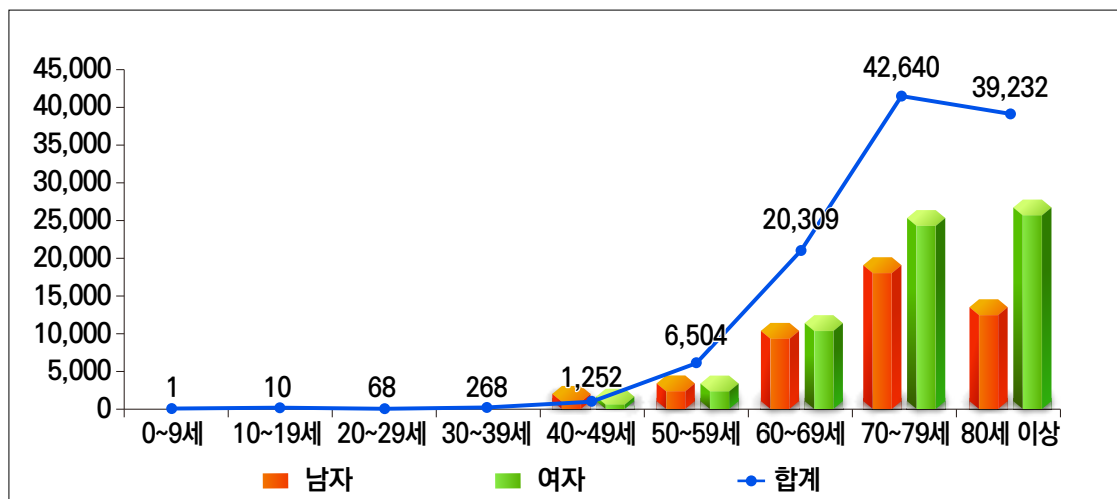
[연도별 파킨슨병 환자수 및 진료비(2015-2019)]



(단위: 명, 억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환자수	합계	91,351	96,766	101,237	105,875	110,284
	남자	36,254	38,646	40,853	43,082	45,351
	여자	55,097	58,120	60,384	62,793	64,933
진료비	합계	3,766	4,376	4,795	5,096	5,362
	남자	1,234	1,448	1,577	1,681	1,802
	여자	2,532	2,928	3,218	3,415	3,560

[연령별 파킨슨병 환자수(2019)]



(단위: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합계	1	10	68	268	1,252	6,504	20,309	42,640	39,232
남자	0	4	41	153	707	3,207	9,622	18,167	13,450
여자	1	6	27	115	545	3,297	10,687	24,473	25,782



질병정보

- ◆ 신경세포가 변성되어 몸이 떨리고 동작이 둔해지며 근육이 뻣뻣해지는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주로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퇴행성질환이다.
- ◆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들이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운동장애 증상 외에도 소화 및 배변 기능의 장애, 기억력 및 집중 장애, 논리적 사고력 저하 등의 정신적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 ◆ **진단**에는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병력 청취와 신경학적 진찰이 가장 중요하다. MRI나 PET 등 영상의학적 검사도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 **치료**는 약물치료가 중심이며 수술이나 전기자극치료 등이 보조적으로 시행되기도 한다.
- ◆ 파킨슨병 환자를 돌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기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동을 하는 것과 합병증(육창, 폐렴, 요로감염 등) 발생을 막고 합병증이 발생하면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 테마1 |
관심질병

V.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 31. 당뇨병..... 72
- 32. 성조숙증..... 74

31 당뇨병



정의

- ◆ 질병코드: E10~14 (당뇨병)
- ◆ 포도당은 우리 몸이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원임.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를 '혈당'이라고 하는데, 혈당은 췌장(이자)에서 생산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두 가지 물질에 의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됨. 당뇨병은 혈당 조절에 필요한 인슐린의 분비나 기능 장애로 인해 발생된 고혈당을 특징으로 하는 대사성 질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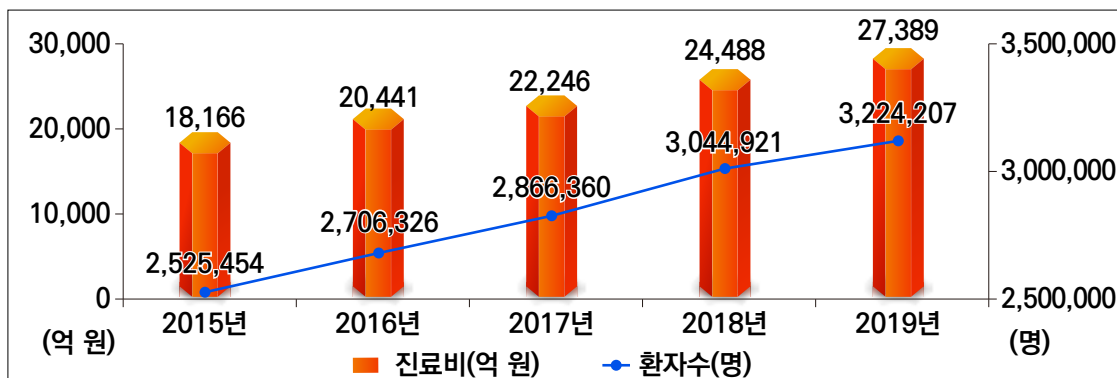
(출처: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주요현황

- ◆ 당뇨병 환자수는 2015년 2,525,454명에서 2019년 3,224,207명으로 698,753명 증가하였고, 진료비는 2015년 18,166억 원에서 2019년 27,389억 원으로 9,223억 원 증가하였다.
- ◆ 2019년 기준 당뇨병 환자는 남자가 여자보다 1.25배 이상 많았고, 전체 연령 중에서 60대, 50대, 70대 순으로 환자수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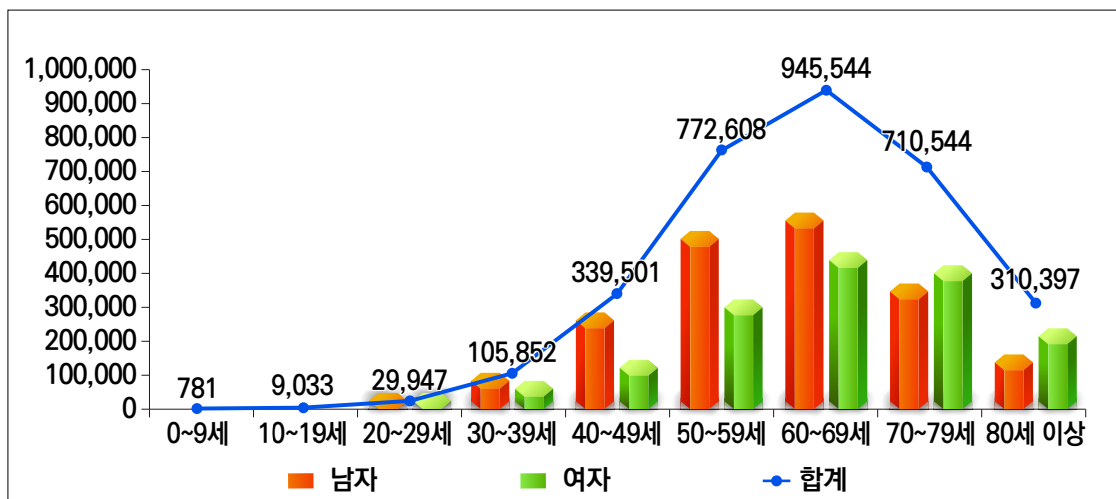
[연도별 당뇨병 환자수 및 진료비(2015-2019)]



(단위: 명, 억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환자수	합계	2,525,454	2,706,326	2,866,360	3,044,921	3,224,207
	남자	1,370,727	1,477,143	1,573,551	1,684,181	1,792,531
	여자	1,154,727	1,229,183	1,292,809	1,360,740	1,431,676
진료비	합계	18,166	20,441	22,246	24,488	27,389
	남자	9,510	10,829	11,904	13,269	14,976
	여자	8,655	9,612	10,341	11,219	12,412

[연령별 당뇨병 환자수(2019)]



(단위: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합계	781	9,033	29,947	105,852	339,501	772,608	945,544	710,544	310,397
남자	396	4,981	17,021	69,727	238,884	485,226	531,131	332,071	113,094
여자	385	4,052	12,926	36,125	100,617	287,382	414,413	378,473	197,303



질병정보

- ◆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켜 혈당을 낮추어 주고 제2형 당뇨병 위험 집단에서 당뇨병의 발생을 낮추어 줄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에 걸리는 비율을 감소시킨다.
- ◆ 운동의 효과는 1~3일간 지속되므로 최소한 2~3일마다 하는 것이 좋는데 1일에 30~40분간, 1주일에 3~5회 혹은 주 150분이 되도록 한다.
- ◆ 당뇨병 환자는 고혈압을 함께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비만한 당뇨병 환자는 체중조절 만으로도 혈당이 정상화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지수를 고려한 탄수화물 제공 및 섬유질, 과일, 채소, 저지방 유제품 등 개인의 영양소 균형에 맞는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32 성조숙증



정 의

- ◆ 질병코드: E301 (조발사춘기)
- ◆ 사춘기 현상은 유방 발달, 음모 발달, 고환 크기 증가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이 여자 아이 8세 이전, 남자 아이 9세 이전에 나타나면 성조숙증으로 진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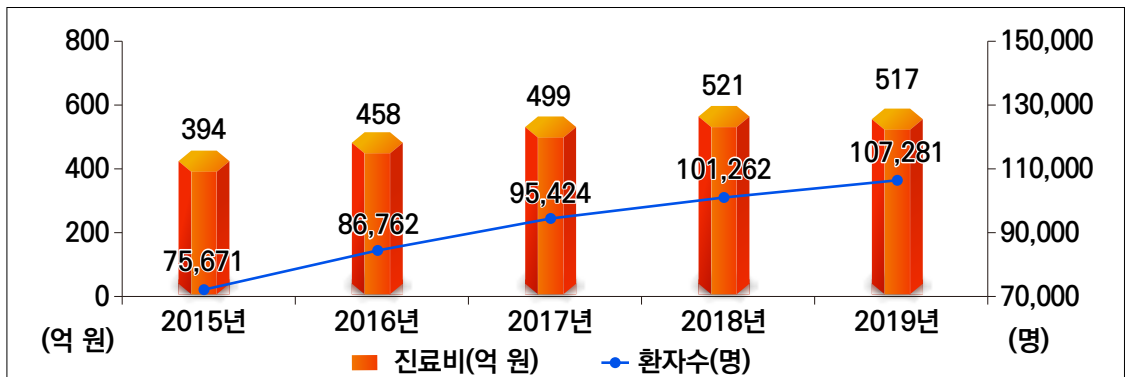
(출처: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주요현황

- ◆ 성조숙증 환자수는 2015년 75,671명에서 2019년 107,281명으로 31,610명 증가하였고, 진료비는 2015년 394억 원에서 2019년 517억 원으로 123억 원 증가하였다.
- ◆ 2019년 기준 성조숙증 환자는 여자가 남자보다 7.38배 이상 많았고, 10대보다 10세 미만의 환자수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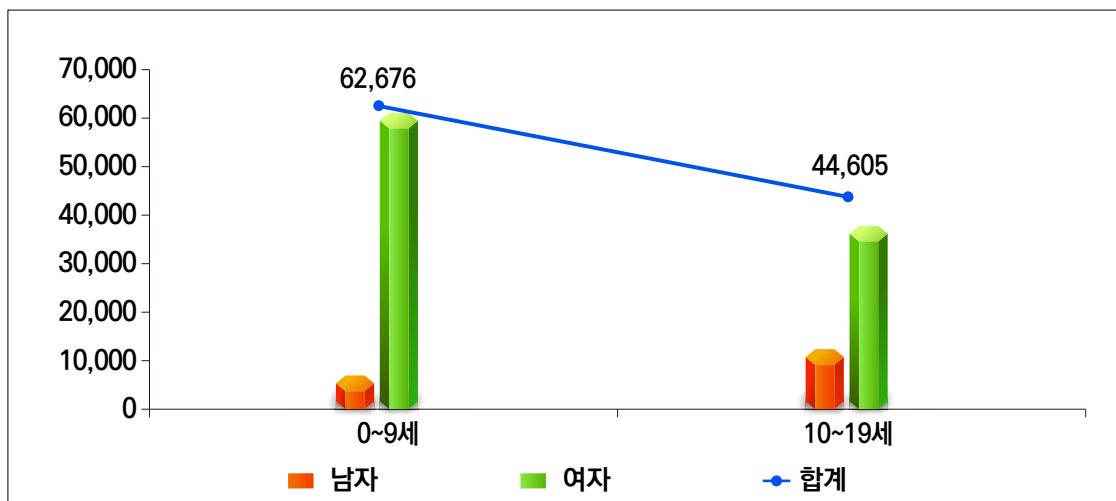
[연도별 성조숙증 환자수 및 진료비(2015-2019)]



(단위: 명, 억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환자수	합계	75,671	86,762	95,424	101,262	107,281
	남자	6,674	8,132	9,598	10,962	12,796
	여자	68,997	78,630	85,826	90,300	94,485
진료비	합계	394	458	499	521	517
	남자	22	28	33	38	46
	여자	371	431	466	482	471

[연령별 성조숙증 환자수(2019)]



(단위: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합계	62,676	44,605	0	0	0	0	0	0	0
남자	3,512	9,284	0	0	0	0	0	0	0
여자	59,164	35,321	0	0	0	0	0	0	0



질병정보

- ◆ 사춘기가 정상보다 빨리 온 상태를 말한다. 여성호르몬 혹은 남성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된 결과다. 드물게 난소나 고환 대뇌 등에 생긴 종양 때문에 성조숙증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특별한 질병이 없이 발생한다.
- ◆ 음모나 유방 고환 등의 변화 외에도 키가 빨리 자라거나 여드름도 생기고 목소리가 변하는 등 사춘기 증상이 나타난다. 개인에 따라 이러한 변화의 속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보호자는 자녀를 세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소아비만일 경우 특히 성조숙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 **치료**는 먼저 이러한 증상을 발생시키는 어떤 질환이 있는지 혹은 관련된 다른 약물을 복용 중인지 확인한 다음 모든 아이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춘기 증상의 진행속도, 성장판이 조기에 닫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치료한다.





| 테마1 |
관심질병

Ⅵ. 소화계통의 질환

33. 간 질환	78
34. 위 및 십이지장 궤양	80
35. 치질	82
36. 치은염 및 치주질환	84

33 간 질환



정의

- ◆ 질병코드: K70-K77 (간의 질환)
- ◆ 간질환은 무증상 단순 지방간에서부터 알코올성 간염과 간경변 및 이에 의한 말기 간부전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질환군을 일컫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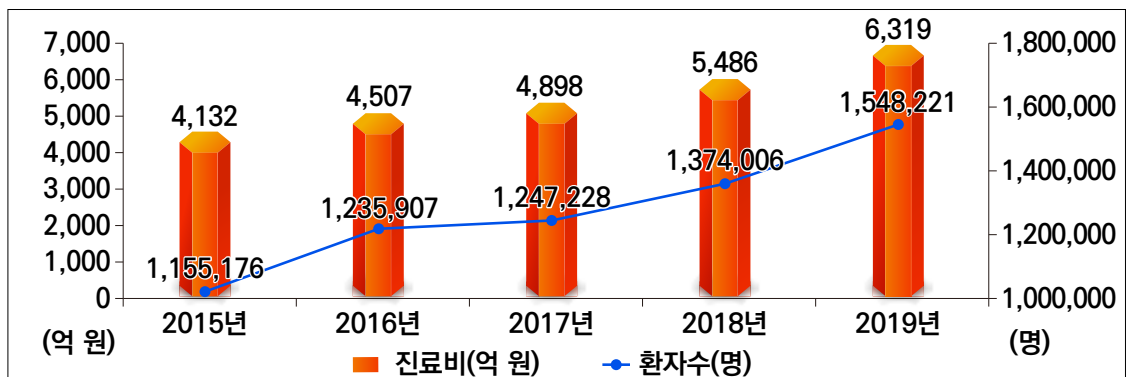
(출처: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주요현황

- ◆ 간 질환 환자수는 2015년 1,155,176명에서 2019년 1,548,221명으로 393,045명 증가하였고, 진료비는 2015년 4,132억 원에서 2019년 6,319억 원으로 2,187억 원 증가하였다.
- ◆ 2019년 기준 간 질환 환자는 남자가 여자보다 1.29배 이상 많았고, 전체 연령 중에서 50대, 60대, 40대 순으로 환자수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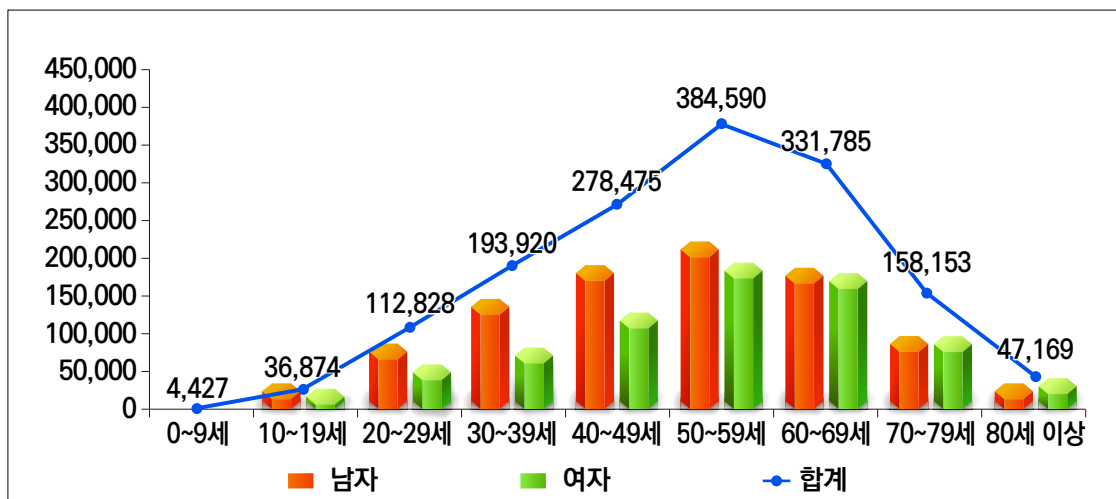
[연도별 간 질환 환자수 및 진료비(2015-2019)]



(단위: 명, 억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환자수	합계	1,155,176	1,235,907	1,247,228	1,374,006	1,548,221
	남자	668,788	710,030	718,261	783,655	873,103
	여자	486,388	525,877	528,967	590,351	675,118
진료비	합계	4,132	4,507	4,898	5,486	6,319
	남자	2,650	2,827	3,109	3,396	3,885
	여자	1,482	1,680	1,790	2,089	2,434

[연령별 간 질환 환자수(2019)]



(단위: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합계	4,427	36,874	112,828	193,920	278,475	384,590	331,785	158,153	47,169
남자	2,552	24,947	70,182	128,027	174,876	202,912	171,096	78,620	19,891
여자	1,875	11,927	42,646	65,893	103,599	181,678	160,689	79,533	27,278



질병정보

- ◆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간부전을 포함한다. 간부전이란 바이러스나 알코올, 독성물질 등에 의해 간조직이 파괴되면서 간의 기능이 크게 저하된 상태이다.
- ◆ 알코올성 간질환은 올바른 음주 습관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
- ◆ 지방간은 적절한 영양 섭취, 금주, 체중 조절, 당뇨병의 적절한 치료 등을 통해 지방간의 예방 및 증상 호전이 가능하다.
- ◆ 간경변증은 위험인자를 제거하는 것으로 예방할 수 있다. 즉, B형 간염 백신을 접종하고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과도한 음주를 하지 않도록 한다.
- ◆ 독성간질환의 경우 진통제나 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안전성이 미검증된 한약, 건강보조식품 등의 과다 복용과 남용 등이 흔한 원인이다.



34 위 및 십이지장 궤양



정 의

- ◆ 질병코드: K25 (위궤양), K26 (십이지장궤양)
- ◆ 위장 점막이 흡연, 스트레스, 약제, 헬리코박터균의 감염, 악성종양 등에 의해 손상되어 가장 표면에 있는 점막층보다 깊이 패이면서 점막근층 이상으로 손상이 진행된 상태를 위궤양이라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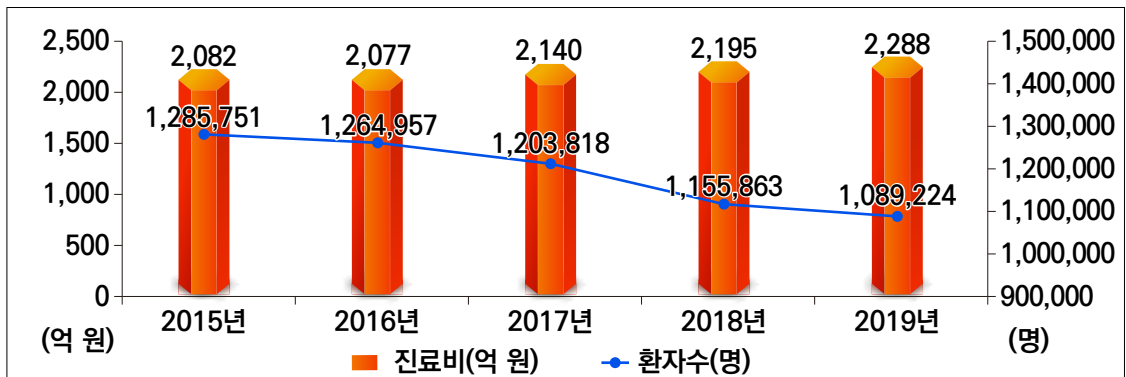
(출처: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주요현황

- ◆ 위 및 십이지장 궤양 환자수는 2015년 1,285,751명에서 2019년 1,089,224명으로 196,527명 감소하였고, 진료비는 2015년 2,082억 원에서 2019년 2,288억 원으로 206억 원 증가하였다.
- ◆ 2019년 기준 위 및 십이지장 궤양 환자는 남자와 여자가 비슷하고, 전체 연령 중에서 50대, 60대, 40대 순으로 환자수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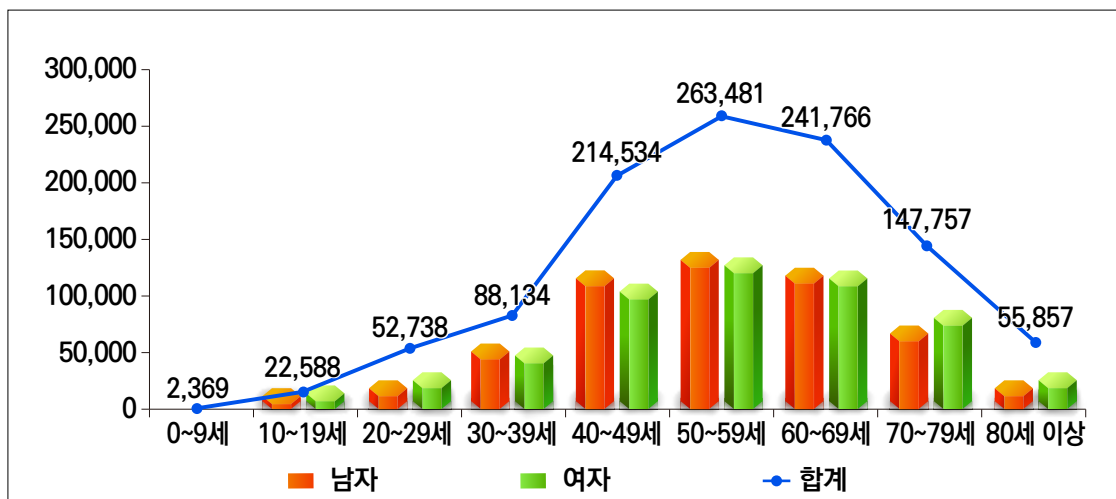
[연도별 위 및 십이지장 궤양 환자수 및 진료비(2015-2019)]



(단위: 명, 억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환자수	합계	1,285,751	1,264,957	1,203,818	1,155,863	1,089,224
	남자	634,446	618,525	594,714	573,610	544,388
	여자	651,305	646,432	609,104	582,253	544,836
진료비	합계	2,082	2,077	2,140	2,195	2,288
	남자	1,156	1,146	1,198	1,240	1,297
	여자	926	932	942	955	992

[연령별 위 및 십이지장 궤양 환자수(2019)]



(단위: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합계	2,369	22,588	52,738	88,134	214,534	263,481	241,766	147,757	55,857
남자	1,252	9,762	22,448	46,397	119,640	133,329	120,768	68,723	22,069
여자	1,117	12,826	30,290	41,737	94,894	130,152	120,998	79,034	33,788



질병정보

- ◆ 위궤양의 발생을 처음부터 차단하기 위해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하지는 않는다. 다만 위궤양이 한번이라도 발생했던 사람에게서 재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치료**를 시행한다.
- ◆ 십이지장 궤양의 발생을 처음부터 차단하기 위해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하지는 않는다. 다만 십이지장 궤양이 한번이라도 발생했던 사람에서 재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치료**를 시행한다.

(출처: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35 치질



정 의

- ◆ 질병코드: K64 (치핵 및 항문주위정맥혈전증), O22.4 (임신중 치핵), O87.2 (산후기중 치핵)
- ◆ 직장 내부와 항문 주위에 있는 조직의 정맥이 부어오르면서 생기는 질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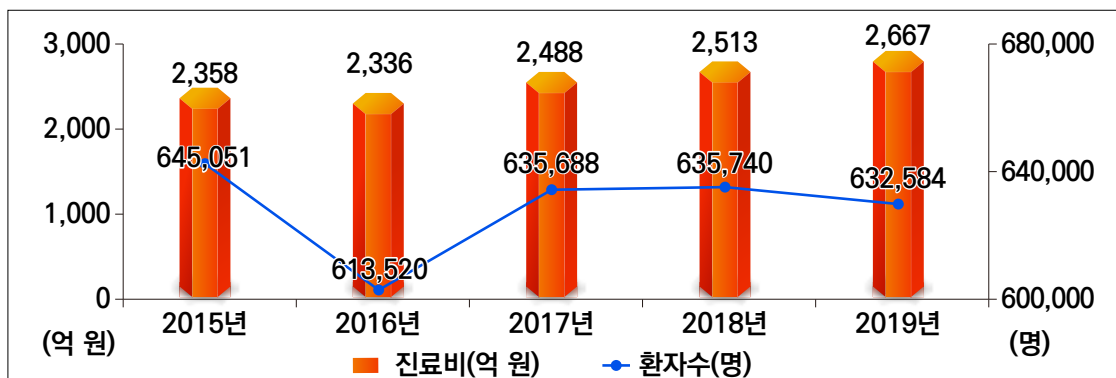
(출처: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주요현황

- ◆ 치질 환자수는 2015년 645,051명에서 2019년 632,584명으로 12,467명 감소하였고, 진료비는 2015년 2,358억 원에서 2019년 2,667억 원으로 309억 원 증가하였다.
- ◆ 2019년 기준 치질 환자는 남자와 여자가 비슷했고, 전체 연령 중에서 50대, 40대, 30대 순으로 환자수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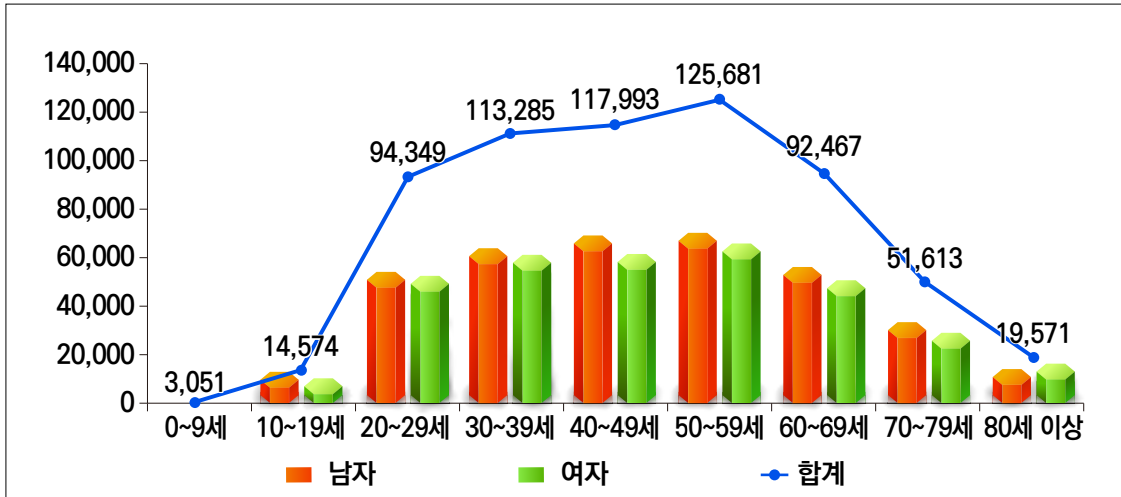
[연도별 치질 환자수 및 진료비(2015-2019)]



(단위: 명, 억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환자수	합계	645,051	613,520	635,688	635,740	632,584
	남자	334,534	319,721	331,835	333,837	331,258
	여자	310,517	293,799	303,853	301,903	301,326
진료비	합계	2,358	2,336	2,488	2,513	2,667
	남자	1,232	1,224	1,305	1,333	1,403
	여자	1,126	1,112	1,183	1,180	1,264

[연령별 치질 환자수(2019)]



(단위: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합계	3,051	14,574	94,349	113,285	117,993	125,681	92,467	51,613	19,571
남자	1,732	8,578	48,156	58,844	63,410	65,297	49,438	27,095	8,708
여자	1,319	5,996	46,193	54,441	54,583	60,384	43,029	24,518	10,863



질병정보

- ◆ 치질을 특별히 예방할 수는 없다. 다만 심한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일상적으로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고, 화장실에서 신문 등을 보며 오랜 시간 변기에 앉는 등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좋다.

(출처: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36 치은염 및 치주질환



정 의

- ◆ 질병코드: K05, A69.1, K04.4, K04.5, K04.6, K04.8, K09.0 (치은염 및 치주질환)
- ◆ 「치주질환」은 흔히 풍치라고도 하는데, 치주조직에 발생한 염증 등의 질환으로 치주조직이란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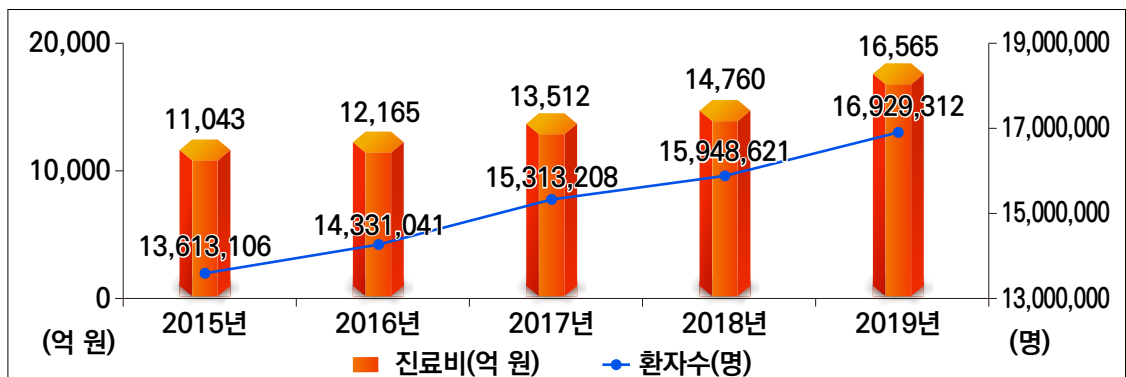
(출처: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주요현황

- ◆ 치은염 및 치주질환 환자수는 2015년 13,613,106명에서 2019년 16,929,312명으로 3,316,206명 증가하였고, 진료비는 2015년 11,043억 원에서 2019년 16,565억 원으로 5,522억 원 증가하였다.
- ◆ 2019년 기준 치은염 및 치주질환 환자는 남자와 여자가 비슷했고, 전체 연령 중에서 50대, 40대, 60대 순으로 환자수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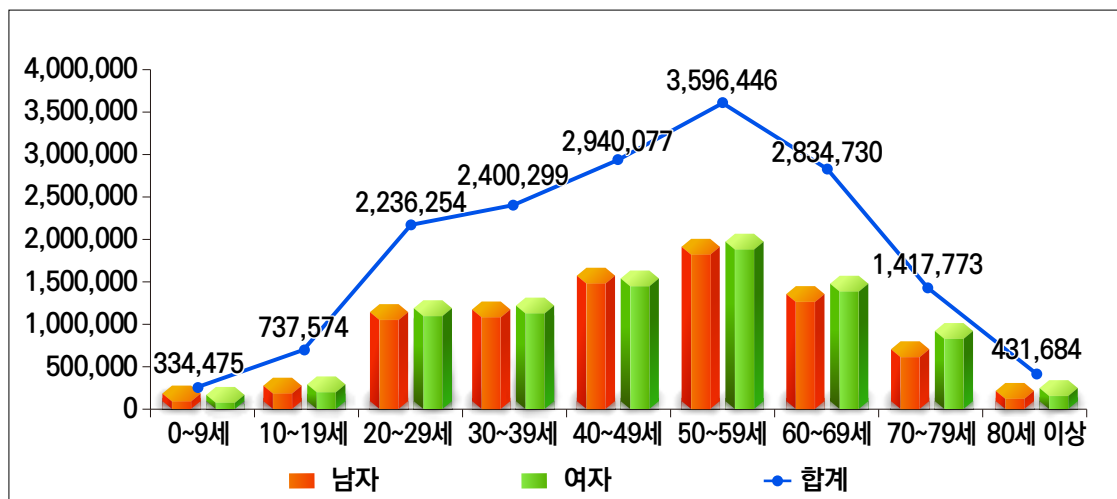
[연도별 치은염 및 치주질환 환자수 및 진료비(2015-2019)]



(단위: 명, 억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환자수	합계	13,613,106	14,331,041	15,313,208	15,948,621	16,929,312
	남자	6,711,592	7,045,317	7,513,807	7,812,412	8,243,493
	여자	6,901,514	7,285,724	7,799,401	8,136,209	8,685,819
진료비	합계	11,043	12,165	13,512	14,760	16,565
	남자	5,649	6,193	6,870	7,504	8,363
	여자	5,393	5,972	6,642	7,256	8,202

[연령별 치은염 및 치주질환 환자수(2019)]



(단위: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합계	334,475	737,574	2,236,254	2,400,299	2,940,077	3,596,446	2,834,730	1,417,773	431,684
남자	173,629	356,463	1,037,904	1,175,679	1,492,842	1,777,798	1,379,733	668,238	181,207
여자	160,846	381,111	1,198,350	1,224,620	1,447,235	1,818,648	1,454,997	749,535	250,477



질병정보

- ◆ 잇몸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사 후나 취침 전 양치질을 통해 구강 내에서 치태와 치석의 형태로 존재하는 세균을 없애는 것이다. 또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칫솔질은 하루 두 번 이상 실시하며, 치실과 치간 칫솔을 사용하여 치아 인접 면을 깨끗이 한다. 치과에서 정기검진과 스케일링을 받는 것도 잇몸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다.
- ◆ 금연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며, 치주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당뇨병과 같은 전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것도 권장한다. 보철물이 불량일 경우 다시 제작하며, 치아주위 조직의 뼈는 한 번 녹으면 회복되지 않으므로 뼈가 녹기 전에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 ◆ 완치가 어려운 질환이므로 6개월~1년 간격으로 전문가에게 치석제거술을 받는 등의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할 필요가 있다.





| 테마1 |
관심질병

Ⅶ. 비뇨, 생식기계 질환

37. 신부전.....	88
38. 요실금.....	90
39. 방광염.....	92
40. 요로결석증.....	94

37 신부전



정 의

- ◆ 질병코드: N17-N19 (신부전)
- ◆ 급성 신부전증은 신속하게 치료를 하지 않으면 치명적일 수도 있는 급격한 신장 기능의 상실임. 만성 신부전은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신장의 기능이 점진적으로 감퇴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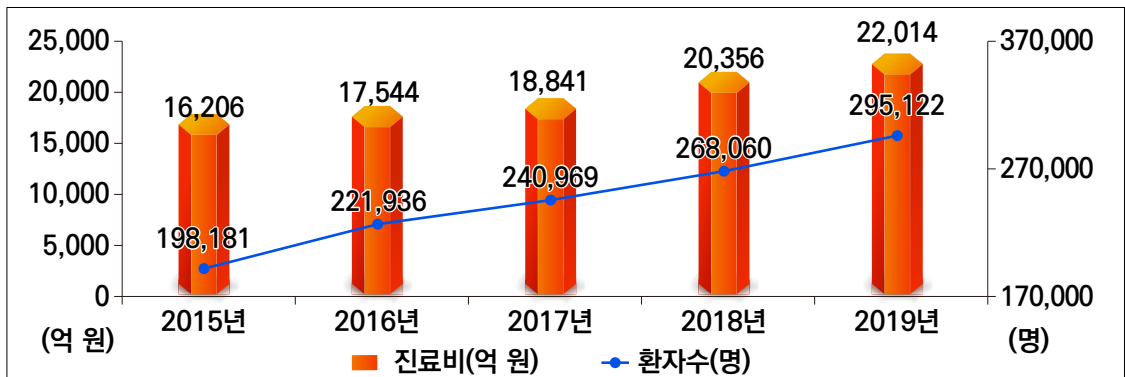
(출처: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주요현황

- ◆ 신부전 환자수는 2015년 198,181명에서 2019년 295,122명으로 96,941명 증가하였고, 진료비는 2015년 16,206억 원에서 2019년 22,014억 원으로 5,808억 원 증가하였다.
- ◆ 2019년 기준 신부전 환자는 남자가 여자보다 1.58배 이상 많았고, 전체 연령 중에서 70대, 60대, 80세 이상 순으로 환자수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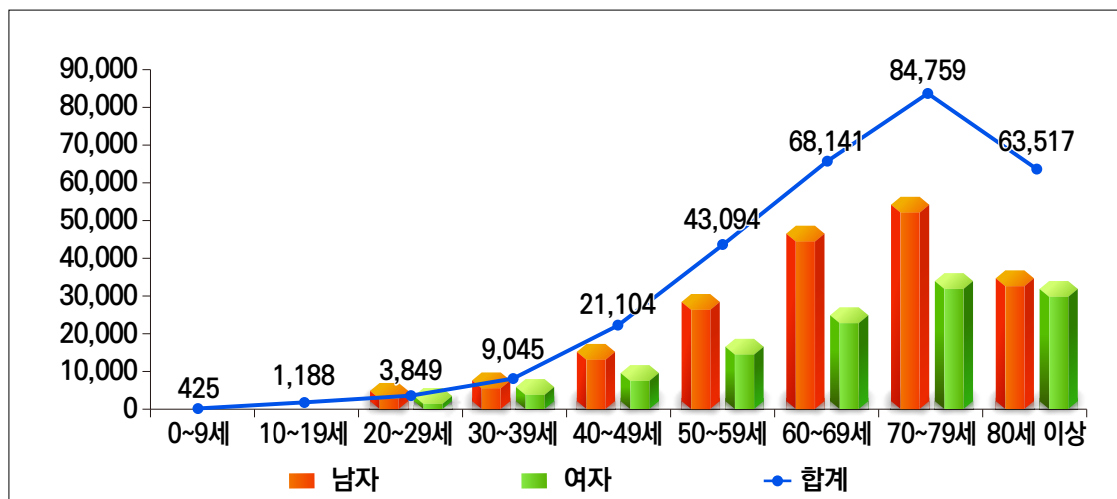
[연도별 신부전 환자수 및 진료비(2015-2019)]



(단위: 명, 억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환자수	합계	198,181	221,936	240,969	268,060	295,122
	남자	121,117	135,613	147,950	164,900	181,136
	여자	77,064	86,323	93,019	103,160	113,986
진료비	합계	16,206	17,544	18,841	20,356	22,014
	남자	9,167	9,948	10,685	11,577	12,541
	여자	7,039	7,596	8,156	8,779	9,472

[연령별 신부전 환자수(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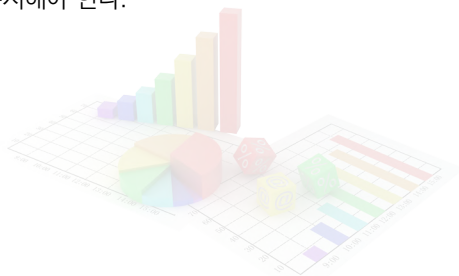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합계	425	1,188	3,849	9,045	21,104	43,094	68,141	84,759	63,517
남자	264	780	2,581	5,917	13,889	27,856	44,385	52,339	33,125
여자	161	408	1,268	3,128	7,215	15,238	23,756	32,420	30,392



질병정보

- ◆ 노폐물이 몸 안에 쌓여서 두통, 구토, 불면증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며 소변량도 줄어서 부종과 고혈압 등도 발생할 수 있다.
- ◆ 신부전을 초래하는 **원인**은 당뇨병, 고혈압 등의 질환이나 독성물질 섭취 등이 있지만 원인을 알지 못하거나 자가면역으로 초래되는 경우도 많다.
- ◆ **치료**는 신부전을 초래한 **원인질환** 및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함께 하며, 말기신부전에 이른 경우는 혈액투석을 하거나 신장이식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 ◆ 신부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장독성 물질을 피하기 위해 의사처방이 없는 약물을 함부로 이용하지 않아야 하며, 당뇨나 고혈압 등의 원인질환을 잘 관리하고, 요로감염은 조기에 치료한다. 과체중도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한다.



38 요실금



정 의

- ◆ 질병코드: R32, F98.0, N39.3, N39 (요실금)
- ◆ 요실금이란 방광에 대한 수의적 조절의 소실이다. 방광벽 근육은 방광 밖으로 소변을 배설하며, 방광 경부와 요도의 근육은 방광 출구의 개폐를 조절한다. 이 근육과 이를 조절하는 신경과 관련된 질환이 요실금을 유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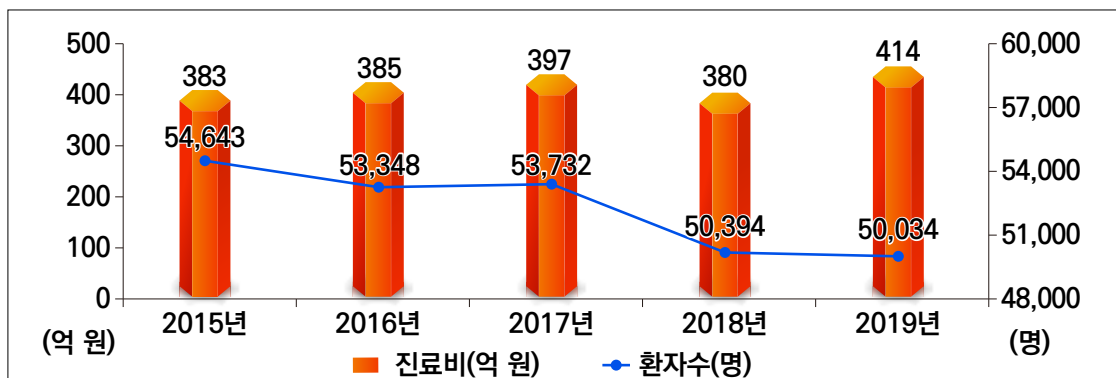
(출처: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주요현황

- ◆ 요실금 환자수는 2015년 54,643명에서 2019년 50,034명으로 4,609명 감소하였고, 진료비는 2015년 383억 원에서 2019년 414억 원으로 31억 원 증가하였다.
- ◆ 2019년 기준 요실금 환자는 여자가 남자보다 66.3배 이상 많았고, 전체 연령 중에서 50대, 60대, 40세 이상 순으로 환자수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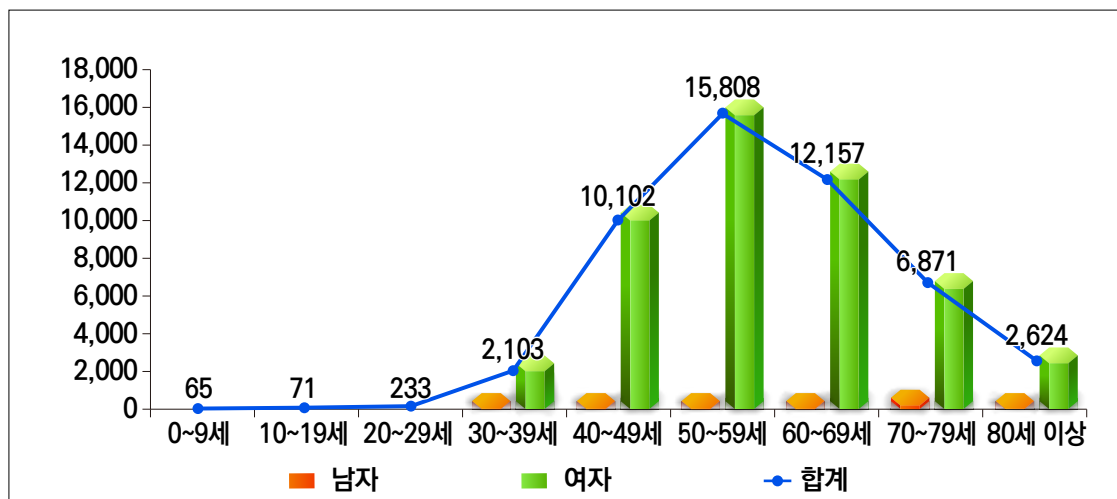
[연도별 요실금 환자수 및 진료비(2015-2019)]



(단위: 명, 억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환자수	합계	54,643	53,348	53,732	50,394	50,034
	남자	666	622	694	683	743
	여자	53,977	52,726	53,038	49,711	49,291
진료비	합계	383	385	397	380	414
	남자	3.1	2.7	5.0	4.0	5.5
	여자	380	382	392	376	409

[연령별 요실금 환자수(2019)]



(단위: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합계	65	71	233	2,103	10,102	15,808	12,157	6,871	2,624
남자	24	18	13	17	31	50	129	312	149
여자	41	53	220	2,086	10,071	15,758	12,028	6,559	2,475



질병정보

- ◆ 요실금은 여성에서 많이 나타나고 모든 연령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그 빈도가 증가한다.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에서 더 흔하게 발생한다.
- ◆ **진단**은 환자의 병력과 상황을 참고하여 신경계 질환의 유무, 수술경험(특히, 골반 내의 장기 수술), 사용중인 약물, 폐경 상태, 분만 횟수 등의 과거력과 요실금이 발생하는 상황 등을 종합하여 진단한다. 소변검사나 영상의학적 검사가 시행되기도 한다. 원인에 따라 다른 치료가 시행되므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
- ◆ 요실금의 **예방**을 위해서는 규칙적 운동과 소변을 볼 때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배뇨습관, 방광을 자극하거나 변비를 유발하는 음식 피하기, 비만이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체중조절, 금연 등이 필요하다.
- ◆ 무엇보다 요실금은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제약이 생기고 정신적으로 위축되어 소외와 우울증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위 사람들이 잘 감싸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39 방광염



정 의

- ◆ 질병코드: N30 (방광염)
- ◆ 방광 상피에 염증이 생긴 것으로 소변이 자주 마렵고, 소변을 볼 때 통증을 느낌. 이와 같은 방광염은 대부분 세균 감염에 기인한다.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훨씬 더 많이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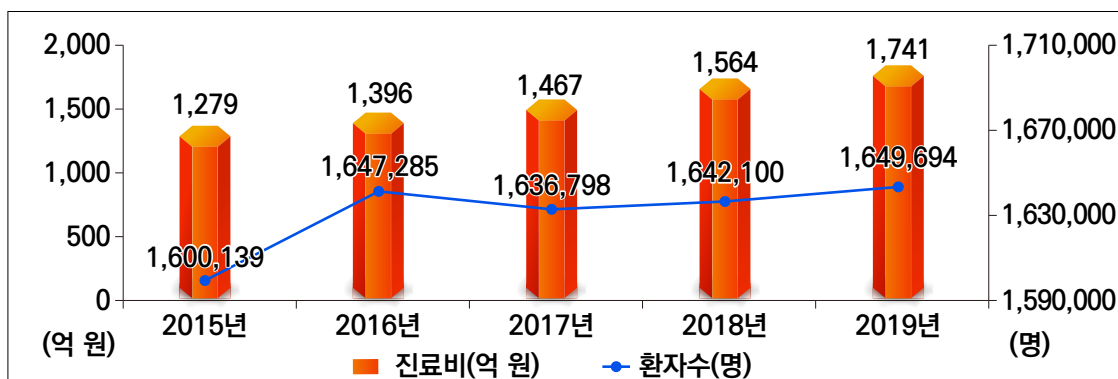
(출처: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주요현황

- ◆ 방광염 환자수는 2015년 1,600,139명에서 2019년 1,649,694명으로 49,555명 증가하였고, 진료비는 2015년 1,279억 원에서 2019년 1,741억 원으로 462억 원 증가하였다.
- ◆ 2019년 기준 방광염 환자는 여자가 남자보다 15배 이상 많았고, 전체 연령 중에서 50대, 40대, 60대 순으로 환자수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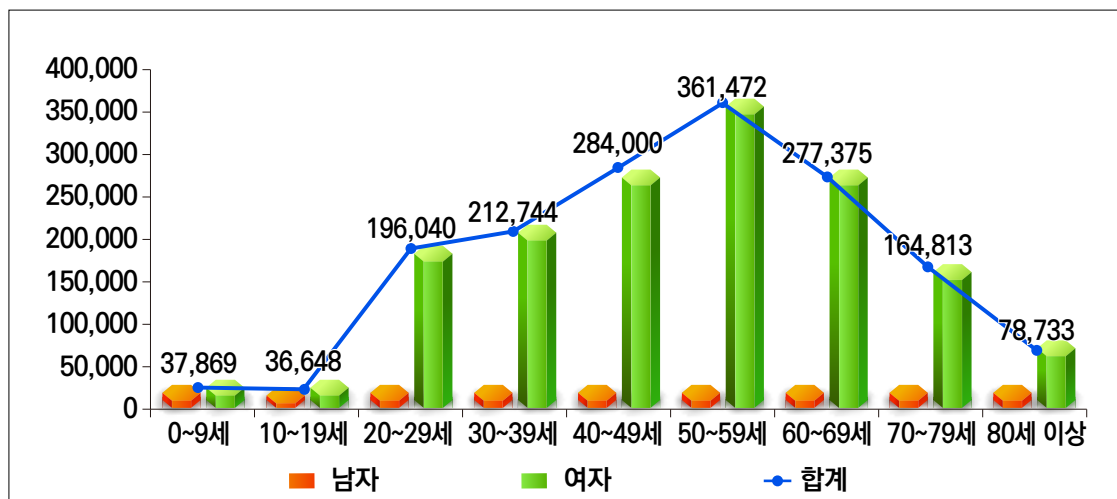
[연도별 방광염 환자수 및 진료비(2015-2019)]



(단위: 명, 억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환자수	합계	1,600,139	1,647,285	1,636,798	1,642,100	1,649,694
	남자	94,546	99,130	99,203	101,132	102,642
	여자	1,505,593	1,548,155	1,537,595	1,540,968	1,547,052
진료비	합계	1,279	1,396	1,467	1,564	1,741
	남자	89	103	113	126	156
	여자	1,190	1,293	1,354	1,438	1,585

[연령별 방광염 환자수(2019)]



(단위: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합계	37,869	36,648	196,040	212,744	284,000	361,472	277,375	164,813	78,733
남자	14,277	7,057	10,388	11,880	12,227	13,318	14,137	12,233	7,125
여자	23,592	29,591	185,652	200,864	271,773	348,154	263,238	152,580	71,608



질병정보

- ◆ 방광에 세균이 침입하여 염증이 발생한 상태로, 급성방광염과 만성방광염(급성이 치료되지 않은 상태, 혹은 자주 재발하는 경우)이 있다.
- ◆ 세균감염 경로는 요도에서 방광으로 올라가는 상행성 감염이 대부분이며, 요도가 짧은 여성에서 더 흔하다. 특히, 임신 시 및 폐경기 이후 여성에 더 쉽게 발생할 수 있고 성생활도 요인이 될 수 있다. 원인균은 대장균이 가장 흔하다.
- ◆ 방광염 **예방**을 위해서는 적당량의 수분을 섭취하여 체내 세균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 배변이후 항문과 성기주위를 닦아낼 때 앞에서 뒤로 닦는 습관이 중요하다. 성관계 전에는 성기를 깨끗이 하고, 관계가 끝난 후 소변을 보는 것이 좋다.



40 요로결석증



정 의

- ◆ 질병코드: N20-N23 (요로결석)
- ◆ 요로 결석이란 소변이 만들어져 몸 밖으로 나오기까지의 소변이 나오는 길(신장, 요관, 방광, 요도)에 결석(들)이 생기는 것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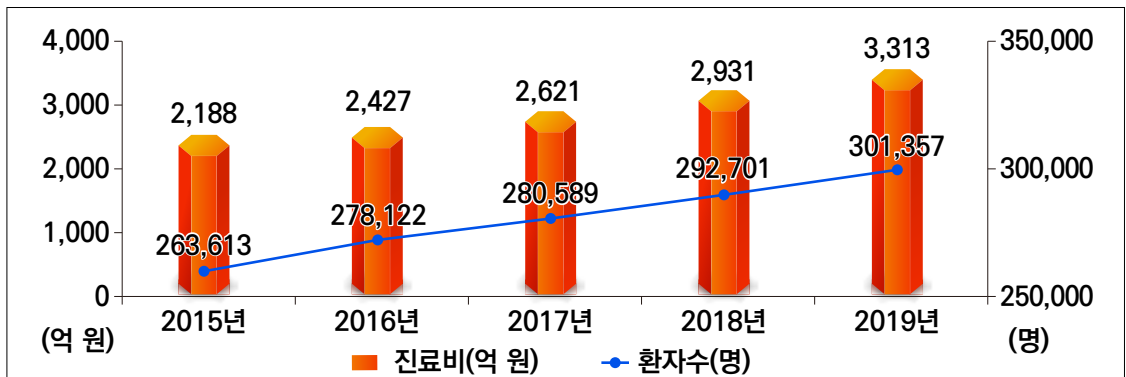
(출처: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주요현황

- ◆ 요로결석증 환자수는 2015년 263,613명에서 2019년 301,357명으로 37,744명 증가하였고, 진료비는 2015년 2,188억 원에서 2019년 3,313억 원으로 1,125억 원 증가하였다.
- ◆ 2019년 기준 요로결석증 환자는 남자가 여자보다 1.97배 이상 많았고, 전체 연령 중에서 50대, 40대, 60대 순으로 환자수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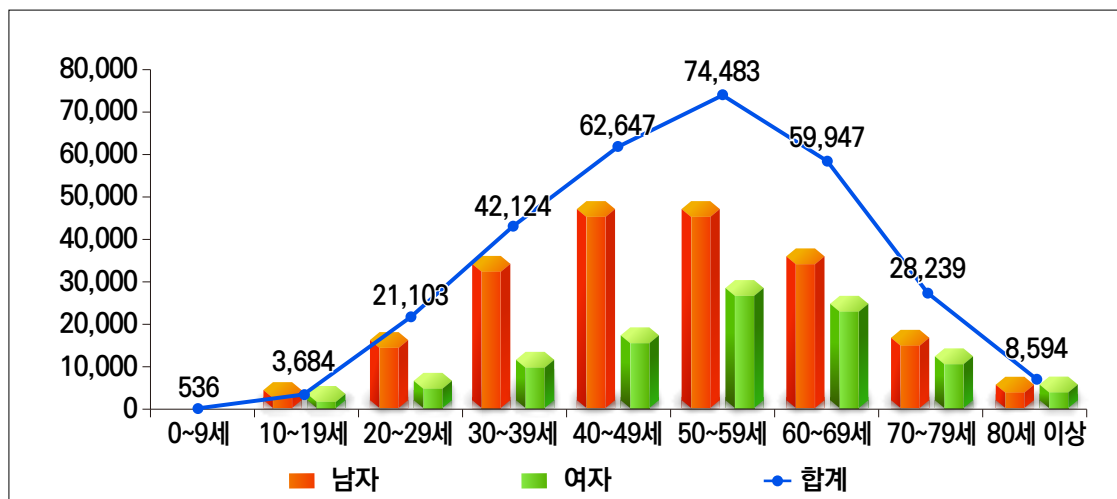
[연도별 요로결석증 환자수 및 진료비(2015-2019)]



(단위: 명, 억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환자수	합계	263,613	278,122	280,589	292,701	301,357
	남자	173,673	183,419	185,196	194,538	200,094
	여자	89,940	94,703	95,393	98,163	101,263
진료비	합계	2,188	2,427	2,621	2,931	3,313
	남자	1,512	1,673	1,794	2,019	2,286
	여자	676	754	826	912	1,027

[연령별 요로결석증 환자수(2019)]



(단위: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합계	536	3,684	21,103	42,124	62,647	74,483	59,947	28,239	8,594
남자	311	2,275	15,230	32,209	46,263	46,904	35,958	16,395	4,549
여자	225	1,409	5,873	9,915	16,384	27,579	23,989	11,844	4,045



질병정보

- ◆ 수분 섭취 증가는 요로결석 **예방**에 가장 중요한 철칙이다. 요로결석의 재발이 빈번한 환자의 경우 요로결석의 예방을 위한 약물요법도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 고려해 볼 수 있다.

(출처: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 테마1 |
관심질병

VIII. 희귀난치성 질환

41. 선천성 대사이상	98
42. 선천성 기형	100
43. 염색체 이상	102

41 선천성 대사이상



정 의

- ◆ 질병코드: E70-E90 (선천성 대사이상)
- ◆ 우리 몸의 생화학적인 대사 경로를 담당하는 효소나 조효소의 결핍으로 발생하는 질환임. 정상적으로 꼭 필요한 최종 물질이 생성되지 못하여 결핍 증상이 나타나고 불필요한 전구물질은 다양한 중요 장기(뇌, 심장, 간, 신장 등)에 축적되어 지능 장애와 같은 과잉 증상을 일으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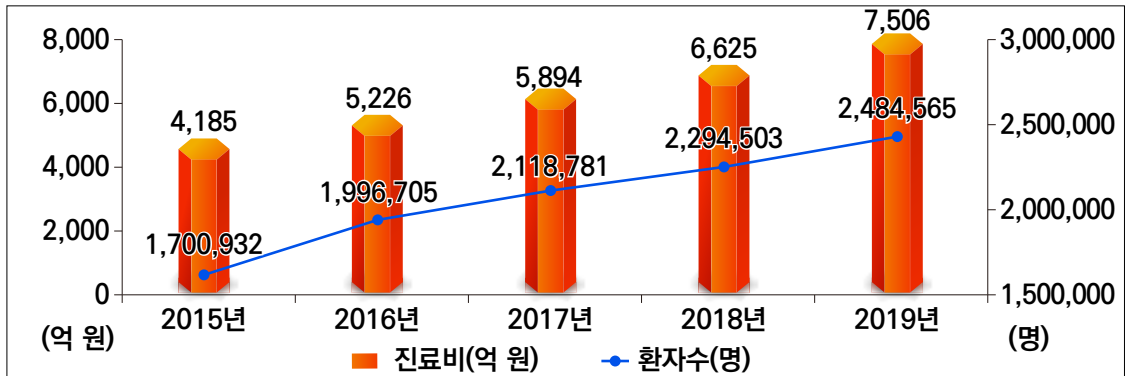
(출처: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주요현황

- ◆ 선천성 대사이상 환자수는 2015년 1,700,932명에서 2019년 2,484,565명으로 783,633명 증가하였고, 진료비는 2015년 4,185억 원에서 2019년 7,506억 원으로 3,321억 원 증가하였다.
- ◆ 2019년 기준 선천성 대사이상 환자는 여자가 남자보다 1.5배 이상 많았고, 전체 연령 중에서 50대, 60대, 40대 순으로 환자수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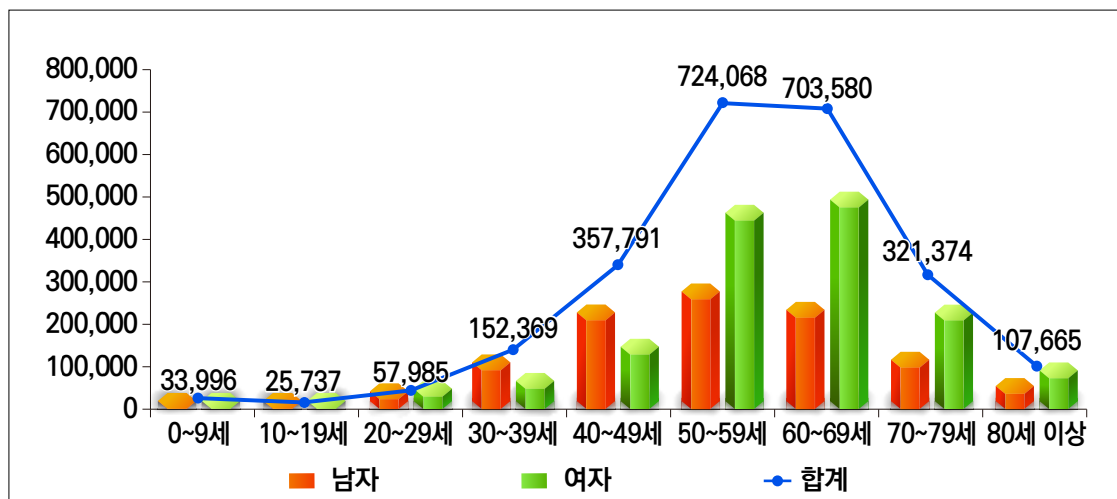
[연도별 선천성 대사이상 환자수 및 진료비(2015-2019)]



(단위: 명, 억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환자수	합계	1,700,932	1,996,705	2,118,781	2,294,503	2,484,565
	남자	675,551	792,493	840,344	913,416	991,083
	여자	1,025,381	1,204,212	1,278,437	1,381,087	1,493,482
진료비	합계	4,185	5,226	5,894	6,625	7,506
	남자	1,828	2,248	2,528	2,852	3,219
	여자	2,357	2,978	3,367	3,773	4,287

[연령별 선천성 대사이상 환자수(2019)]



(단위: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합계	33,996	25,737	57,985	152,369	357,791	724,068	703,580	321,374	107,665
남자	17,577	13,809	28,966	91,322	207,873	271,519	222,216	106,343	31,458
여자	16,419	11,928	29,019	61,047	149,918	452,549	481,364	215,031	76,207



질병정보

- ◆ 우리 몸의 생화학적인 대사 경로를 담당하는 효소나 조효소의 결핍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정상적으로 꼭 필요한 최종 물질이 생성되지 못하여 결핍 증상이 나타나고 불필요한 전구물질은 다양한 중요 장기(뇌, 심장, 간, 신장 등)에 축적되어 지능 장애와 같은 과잉 증상을 일으킨다. 어느 대사 경로의 결함이나에 따라 질환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증상 및 치료도 질환에 따라 다르다.
- ◆ 신생아시기에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 많다. 수유를 진행한 지 2~3일 후에 구토, 처짐, 경련, 혼수 등과 같은 비특이적 증상이 나타나며 신생아 시기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원인 모를 지능 장애, 발달 퇴행, 급성 질환이 있을 때 구토, 의식 저하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서 뒤늦게 진단을 받기도 한다.
- ◆ 진단법이 개발된 질환은 신생아시기에 선별검사를 통해 조기 진단 및 치료하는 것이 최선이다.

(출처: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42 선천성 기형



정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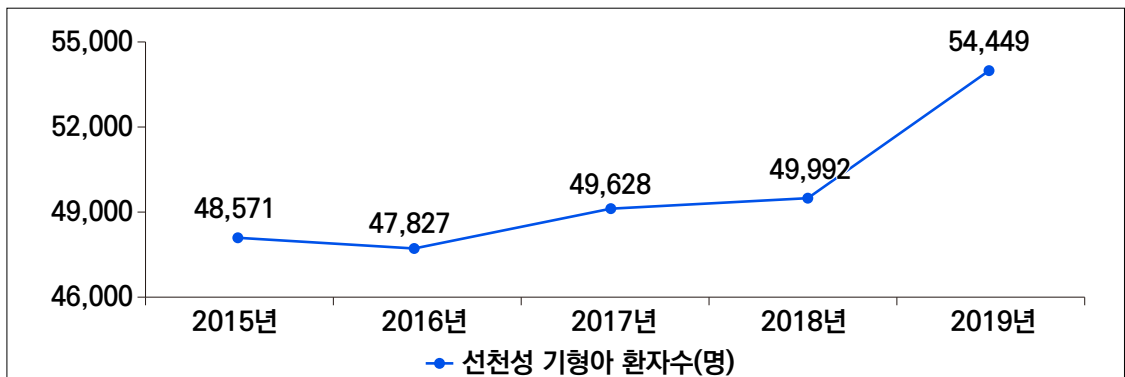
- ◆ 질병코드: Q00~99 (선천성 이상아)



주요현황

- ◆ 0세 선천성 기형 환자수는 2015년 48,571명에서 2019년 54,449명으로 5,878명 증가하였다.
- ◆ 2019년 기준 질병코드별로 0세 환자수를 살펴보면, 소화계통의 선천성 기형 환자수가 22,935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근골격계통(12,687명), 순환계통(12,238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선천성 기형 환자수 (2015-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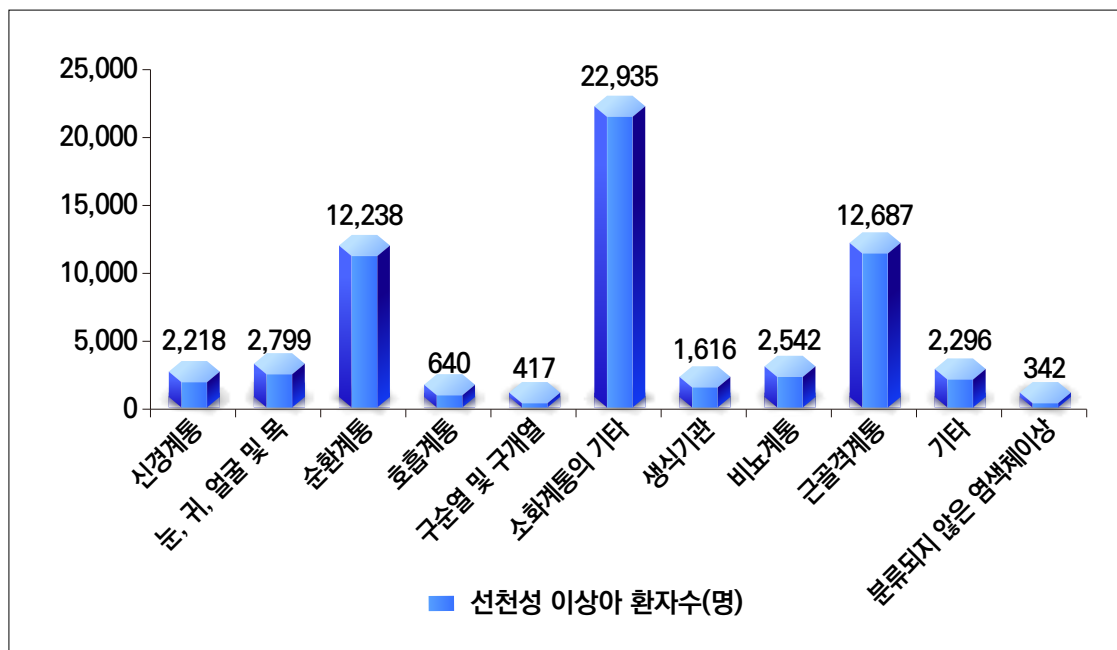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48,571	47,827	49,628	49,992	54,449
신경계통의 선천기형(Q00~Q07)	1,008	1,074	1,445	1,848	2,218
눈, 귀, 얼굴 및 목의 선천기형(Q10~Q18)	3,269	3,204	3,185	2,802	2,799
순환계통의 선천기형(Q20~Q28)	9,721	10,361	11,271	11,856	12,238
호흡계통의 선천기형(Q30~Q34)	831	834	693	639	640
구순열 및 구개열(Q35~Q37)	612	526	477	418	417
소화계통의 기타선천기형(Q38~Q45)	21,988	20,178	21,110	21,067	22,935
생식기관의 선천기형(Q50~Q56)	1,939	1,823	1,784	1,592	1,616
배뇨계통의 선천기형(Q60~Q64)	2,210	2,391	2,363	2,283	2,542
근골격계통의 선천기형 및 변형 (Q65~Q79)	8,859	9,515	9,846	10,421	12,687
기타 선천기형(Q80~Q89)	1,517	1,607	1,728	1,800	2,296
달리 분류되지 않은 염색체 이상(Q90~Q99)	298	290	338	310	342

주) 계는 중복인원이 제거된 값으로 구분별 단순 계와 다를 수 있음.

[질병코드별 선천성 기형 환자수(2019)]



질병정보

- ◆ 유전적 원인에 의한 기형이 18% 정도이며, 기형의 7%는 환경적, 주로 물리적 또는 화학적 기형 유발인자에 의한 것이다. 나머지 25%는 유전적 감수성이 있는 사람에서 환경적 요소가 가해져서 발생하는 경우이다.
- ◆ 특별히 선천성 이상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부모의 흡연이나 음주 및 약물 복용, 연령이 관련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계획된 임신으로 기형 유발 물질을 피하고, 임신 중 약물 복용이나 방사선 노출에 주의하며 풍진 등의 감염을 미리 예방하면 도움이 된다.



43 염색체 이상



정 의

- ◆ 질병코드: Q90~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염색체이상)
- ◆ 개수가 잘못되거나 구조적 결함이 있는 염색체가 유전되면서 생기는 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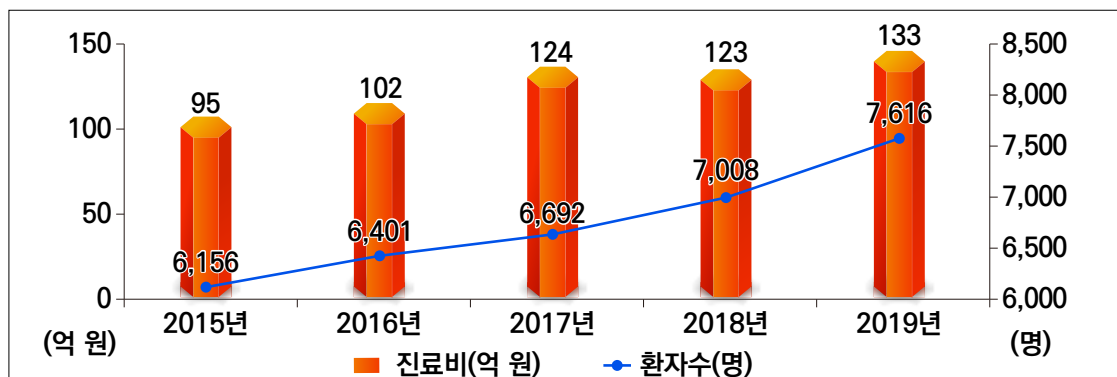
(출처: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주요현황

- ◆ 염색체 이상 환자수는 2015년 6,156명에서 2019년 7,616명으로 1,460명 증가하였고, 진료비는 2015년 95억 원에서 2019년 133억 원으로 38억 원 증가하였다.
- ◆ 2019년 기준 염색체 이상 환자는 여자가 남자보다 1.42배 이상 많았고, 전체 연령 중에서 10세 미만, 10대, 20대 순으로 환자수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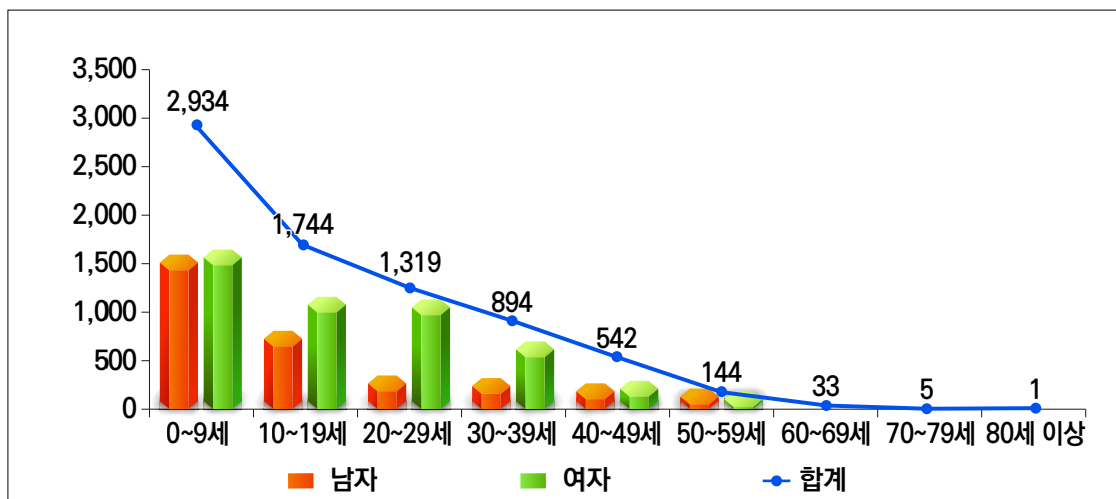
[연도별 염색체 이상 환자수 및 진료비(2015-2019)]



(단위: 명, 억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환자수	합계	6,156	6,401	6,692	7,008	7,616
	남자	2,491	2,570	2,736	2,852	3,145
	여자	3,665	3,831	3,956	4,156	4,471
진료비	합계	95	102	124	123	133
	남자	29	35	43	43	44
	여자	66	68	81	80	89

[연령별 염색체 이상 환자수(2019)]



(단위: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합계	2,934	1,744	1,319	894	542	144	33	5	1
남자	1,428	680	372	307	247	88	19	4	0
여자	1,506	1,064	947	587	295	56	14	1	1



질병정보

- ◆ 염색체의 이상은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질 때 염색체가 제대로 분열되지 않아서 생기는 것으로 생각된다. 때로는 수정란이 분열되기 시작하는 초기에 염색체 이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 ◆ 특별히 염색체 이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임신 중 조기진단을 통해 각 태아 기형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수행할 수 있다.





| 테마1 |
관심질병

IX. 환경성 질환

44. 아토피 피부염	106
45. 알레르기성 비염	108
46. 대상포진	110

44 아토피 피부염



정 의

- ◆ 질병코드: L20 (아토피성 피부염)
- ◆ 가려움증과 피부건조증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으로 주로 영유아기에 시작됨. 성장하면서 알레르기 비염, 천식 같은 호흡기 아토피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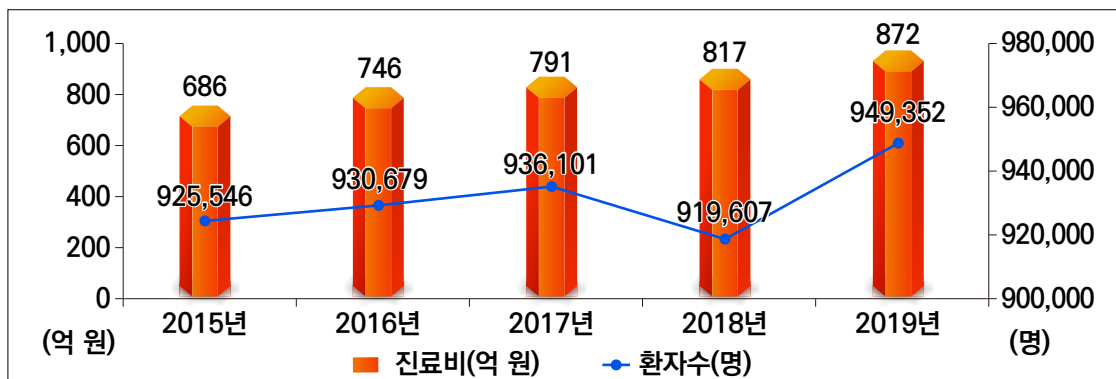
(출처: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주요현황

- ◆ 아토피 피부염 환자수는 2015년 925,546명에서 2019년 949,352명으로 23,806명 증가하였고, 진료비는 2015년 686억 원에서 2019년 872억 원으로 186억 원 증가하였다.
- ◆ 2019년 기준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남자와 여자가 비슷하고, 전체 연령 중에서 10세 미만, 10대, 20대 순으로 환자수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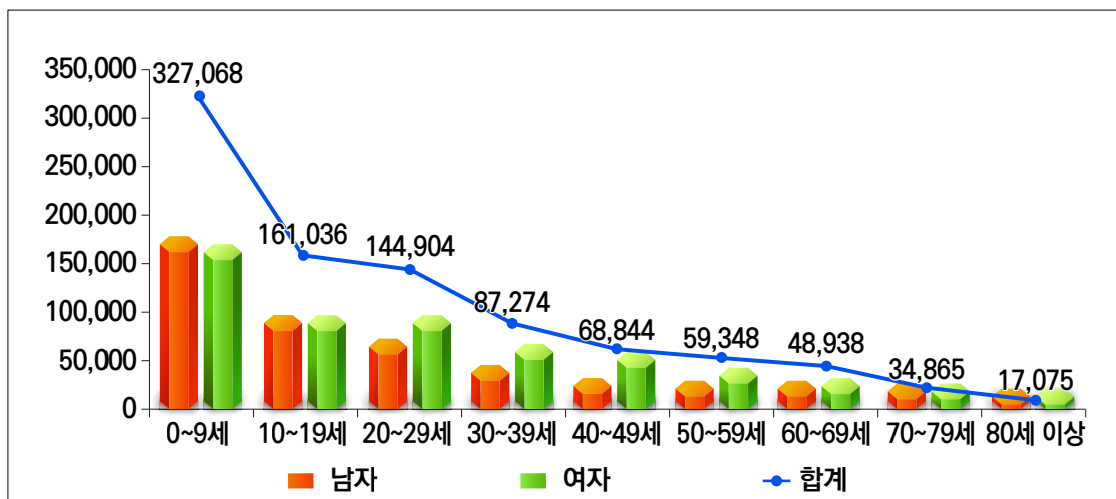
[연도별 아토피 피부염 이상 환자수 및 진료비(2015-2019)]



(단위: 명, 억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환자수	합계	925,546	930,679	936,101	919,607	949,352
	남자	439,216	442,876	447,251	438,370	449,675
	여자	486,330	487,803	488,850	481,237	499,677
진료비	합계	686	746	791	817	872
	남자	365	398	425	440	469
	여자	322	348	366	377	403

[연령별 아토피 피부염 이상 기형 환자수(2019)]



(단위: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합계	327,068	161,036	144,904	87,274	68,844	59,348	48,938	34,865	17,075
남자	170,220	80,528	64,684	34,907	26,522	24,560	22,990	17,591	7,673
여자	156,848	80,508	80,220	52,367	42,322	34,788	25,948	17,274	9,402



질병정보

- ◆ 피부보습이 중요하다. 지나친 목욕, 과도한 비누사용, 습도가 낮은 환경에서 **악화**될 수 있다.
- ◆ 면제품이 아닌 속옷, 거친 화학 섬유 옷 등을 착용하는 것과 목욕 시 타올로 밀거나 손으로 긁는 자체가 병변을 **유발**시킬 수 있다.
- ◆ 세탁 후 옷에 세제가 남지 않도록 잘 행구는 것이 좋으며 모직이나 나일론 등의 합성섬유는 가급적 피한다.
- ◆ 스트레스가 긁는 행위를 유발하여 아토피를 심하게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며, 더운 실내 환경이나 땀을 유발하는 환경이 **악화요인**이다.
- ◆ 알레르기 물질이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45 알레르기성 비염



정의

- ◆ 질병코드: J20 (알레르기 비염)
- ◆ 연속적인 재채기, 계속 흘러내리는 맑은 콧물, 코막힘, 가려움증 등의 증상을 보이는 코 점막의 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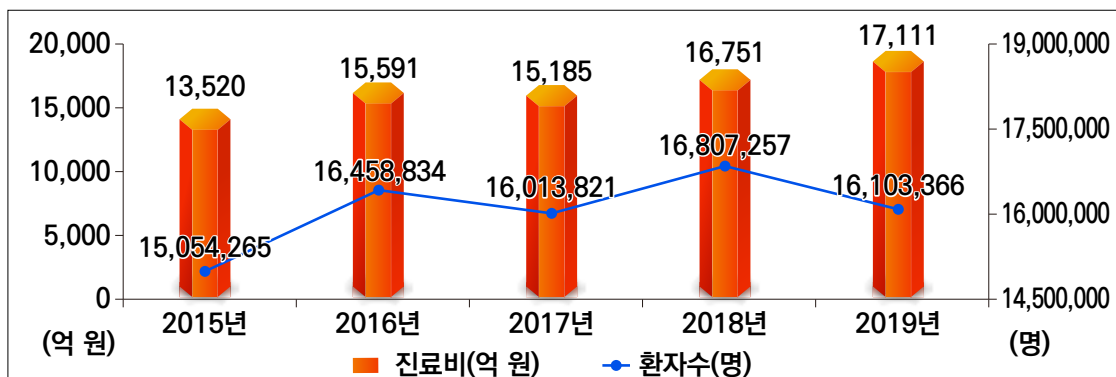
(출처: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주요현황

- ◆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수는 2015년 15,054,265명에서 2019년 16,103,366명으로 1,049,101명 증가하였고, 진료비는 2015년 13,520억 원에서 2019년 17,111억 원으로 3,591억 원 증가하였다.
- ◆ 2019년 기준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여자가 남자보다 1.22배 많았고, 전체 연령 중에서 10대 미만, 30대, 40대 순으로 환자수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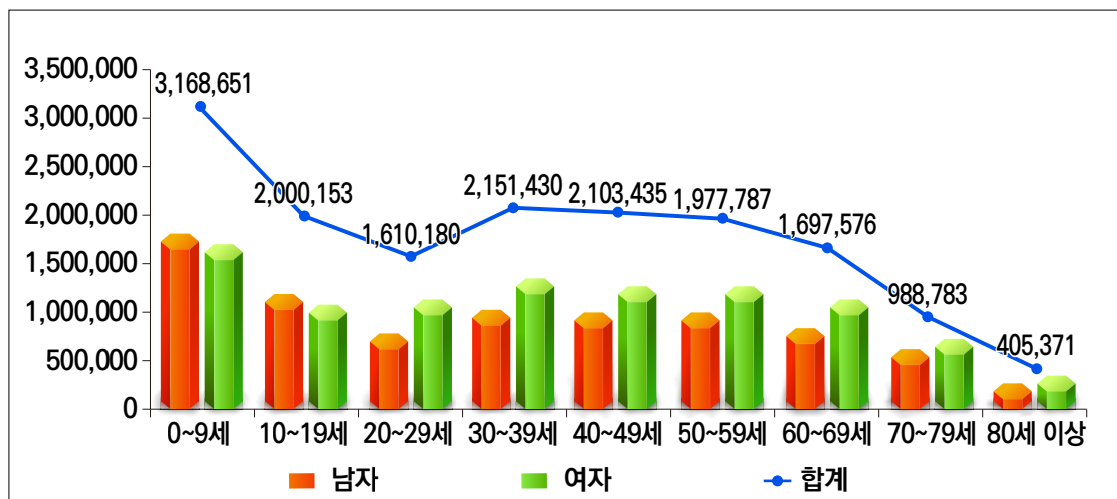
[연도별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수 및 진료비(2015-2019)]



(단위: 명, 억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환자수	합계	15,054,265	16,458,834	16,013,821	16,807,257	16,103,366
	남자	6,716,401	7,375,471	7,186,356	7,540,851	7,241,893
	여자	8,337,864	9,083,363	8,827,465	9,266,406	8,861,473
진료비	합계	13,520	15,591	15,185	16,751	17,111
	남자	6,169	7,134	6,971	7,660	7,869
	여자	7,351	8,457	8,215	9,090	9,242

[연령별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수(2019)]



(단위: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합계	3,168,651	2,000,153	1,610,180	2,151,430	2,103,435	1,977,787	1,697,576	988,783	405,371
남자	1,628,963	1,010,872	695,062	897,288	913,376	805,948	708,783	429,525	152,076
여자	1,539,688	989,281	915,118	1,254,142	1,190,059	1,171,839	988,793	559,258	253,295



질병정보

- ◆ 먼지, 온도의 변화, 담배연기나 매연, 화장품, 스트레스 등을 피하고 주변을 청결하게 한다.
- ◆ 꽃가루가 많은 계절에는 창문을 닫고 외출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며, 애완동물이 원인인 환자는 애완동물을 기르지 않는 것이 권장된다.
- ◆ 집먼지 진드기의 경우 침대, 이불, 베개, 담요 등 먼지가 쉽게 끼거나 방출되는 물건은 지퍼가 달린 커버를 사용하고, 커버는 삶도록 한다.
- ◆ 특정 음식을 먹은 후 반복적 증세가 나타나면 음식에 의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메밀, 계란, 꽃게, 우유, 새우, 복숭아, 밀가루 등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46 대상포진



정 의

- ◆ 질병코드: B02 (대상포진)
- ◆ 「대상포진」은 피부의 한 곳에 통증과 함께 발진과 수포들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수두를 유발하는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Varicella zoster virus)에 의하여 초래되는 질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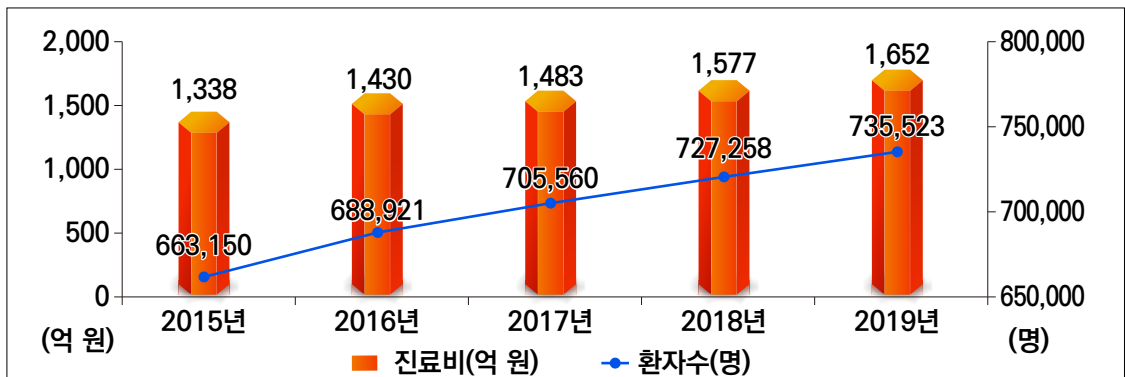
(출처: 질병관리청, 대한의학회)



주요현황

- ◆ 대상포진 환자수는 2015년 663,150명에서 2019년 735,523명으로 72,373명 증가하였고, 진료비는 2015년 1,338억 원에서 2019년 1,652억 원으로 314억 원 증가하였다.
- ◆ 2019년 기준 대상포진 환자는 여자가 남자보다 1.54배 많았고, 전체 연령 중에서 50대, 60대, 40대 순으로 환자수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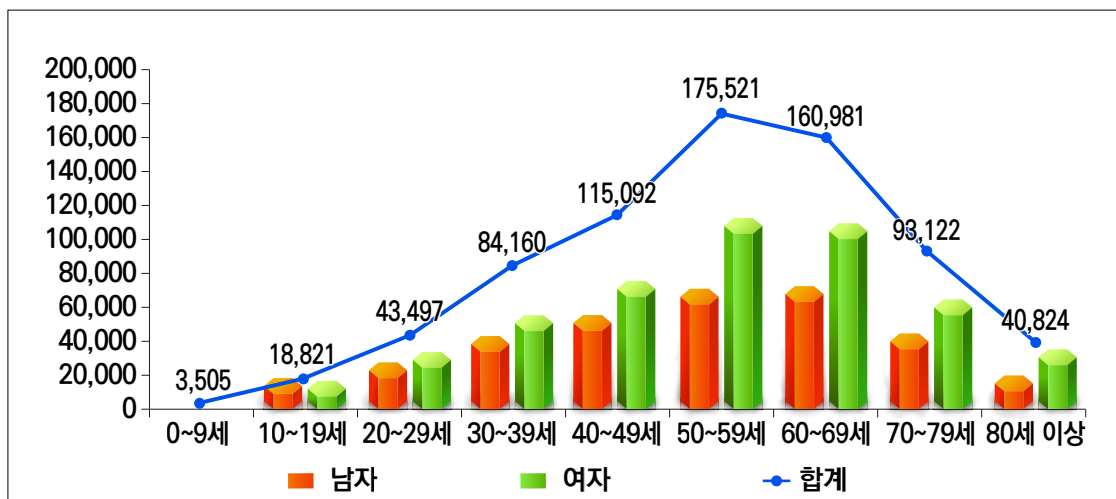
[연도별 대상포진 환자수 및 진료비(2015-2019)]



(단위: 명, 억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환자수	합계	663,150	688,921	705,560	727,258	735,523
	남자	260,600	269,602	275,803	285,001	289,084
	여자	402,550	419,319	429,757	442,257	446,439
진료비	합계	1,338	1,430	1,483	1,577	1,652
	남자	516	554	575	615	647
	여자	822	876	908	962	1,005

[연령별 대상포진 환자수(2019)]



(단위: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합계	3,505	18,821	43,497	84,160	115,092	175,521	160,981	93,122	40,824
남자	1,898	10,164	19,487	36,680	47,497	62,019	60,514	37,321	13,504
여자	1,607	8,657	24,010	47,480	67,595	113,502	100,467	55,801	27,320



질병정보

- ◆ 대상포진은 고령자이거나 에이즈, 혹은 암등이 있는 환자, 항암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등 면역기능이 떨어졌을 때 바이러스가 되살아나서 이 병에 걸리게 된다. 그러나 젊은 사람도 과로, 스트레스 등을 많이 받으면 이 병이 생길 수 있다.
- ◆ 최근 여러 가지 항바이러스제의 개발로 이 병의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앞에 언급했듯이 이 병은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며 현재까지 바이러스를 완전히 퇴치할 수 있는 약제는 없다. 초기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고 포진 후 신경통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 대상포진 환자를 접촉하였다고 이 병이 전염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전에 수두를 앓은 경험이 없는 사람, 혹은 어린이나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에게는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 테마1 |
관심질병

X. 기타질환

47. 백내장.....	114
48. 관절염.....	116
49. 손상 및 화상	118
50. 중독.....	120
51. 류마티스 관절염	122

47 백내장



정 의

- ◆ 질병코드: H25, H26, H28, Q12.0 (백내장)
- ◆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져 빛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게 되면서 안개가 낀 것처럼 시야가 뿌옇게 보이게 되는 질환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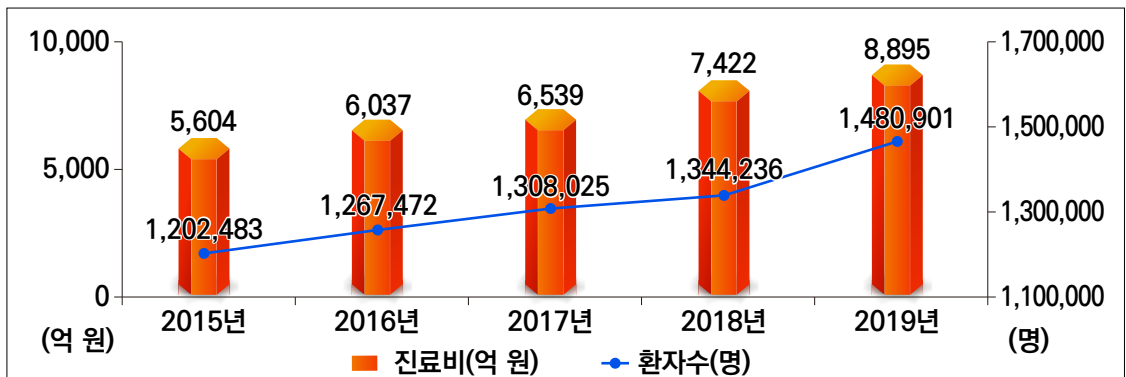
(출처: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주요현황

- ◆ 백내장 환자수는 2015년 1,202,483명에서 2019년 1,480,901명으로 278,418명 증가하였고, 진료비는 2015년 5,604억 원에서 2019년 8,895억 원으로 3,291억 원 증가하였다.
- ◆ 2019년 기준 백내장 환자는 여자가 남자보다 1.47배 이상 많았고, 전체 연령 중에서 70대, 60대, 50대 순으로 환자수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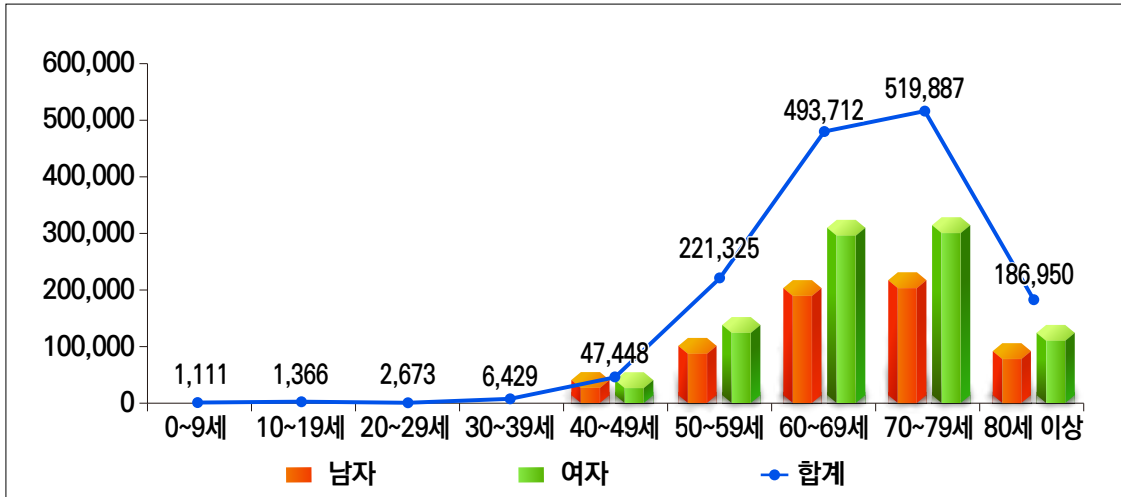
[연도별 백내장 환자수 및 진료비(2015-2019)]



(단위: 명, 억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환자수	합계	1,202,483	1,267,472	1,308,025	1,344,236	1,480,901
	남자	487,834	514,391	533,214	548,662	598,415
	여자	714,649	753,081	774,811	795,574	882,486
진료비	합계	5,604	6,037	6,539	7,422	8,895
	남자	2,299	2,468	2,679	3,031	3,577
	여자	3,305	3,569	3,860	4,392	5,318

[연령별 백내장 환자수(2019)]



(단위: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합계	1,111	1,366	2,673	6,429	47,448	221,325	493,712	519,887	186,950
남자	605	811	1,472	3,484	23,018	88,646	193,975	213,344	73,060
여자	506	555	1,201	2,945	24,430	132,679	299,737	306,543	113,890



질병정보

- ◆ 유전적 요인이나 임신 중 풍진감염 등의 **원인**으로 선천성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뚜렷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은 노화에 따른 합병증으로 발생하며, 나이가 많을수록 그 발생이 많아져 특히 75세가 넘으면 아주 흔하다.
- ◆ 노화 외의 백내장 발생의 다른 위험요인으로는 당뇨병 등 다른 전신 질환, 흡연, 음주 그리고 자외선에 과도한 노출, 눈 속의 염증과 독소(약물 포함), 외상 등이 있다.
- ◆ 백내장 **진단**은 안과적 검사로 백내장이 맞는지 그 정도는 얼마나 심한지 판단하며, 백내장을 초래하는 혹은 백내장과 연관된 다른 전신질환에 대해서도 검사한다.
- ◆ 백내장의 **치료**는 약물치료와 수술이 있으며, 약물치료는 더 악화되는 과정을 느리게 하는 것으로 수정체를 다시 맑게 만들 수는 없다. 수술이 가장 확실한 치료법으로 혼탁해 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별다른 합병증이 없으면 입원하지 않고 한 시간 이내에 수술을 끝내고 문제가 없으면 바로 귀가 할 수 있다.



48 관절염



정 의

- ◆ 질병코드: M00~19, M45 (관절염)
- ◆ 뼈와 뼈가 만나는 부위인 관절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손상 또는 염증이 발생한 질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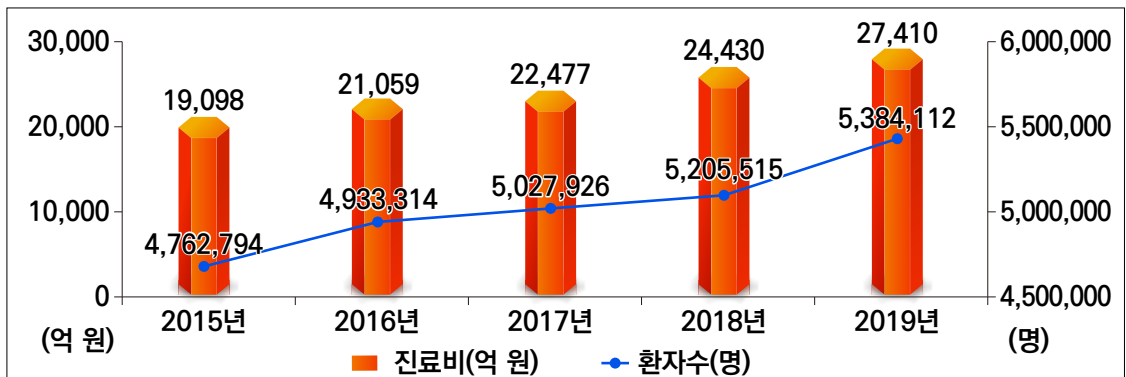
(출처: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주요현황

- ◆ 관절염 환자수는 2015년 4,762,794명에서 2019년 5,384,112명으로 621,318명 증가하였고, 진료비는 2015년 19,098억 원에서 2019년 27,410억 원으로 8,312억 원 증가하였다.
- ◆ 2019년 기준 관절염 환자는 여자가 남자보다 1.62배 많았고, 전체 연령 중에서 60대, 50대, 70대 순으로 환자수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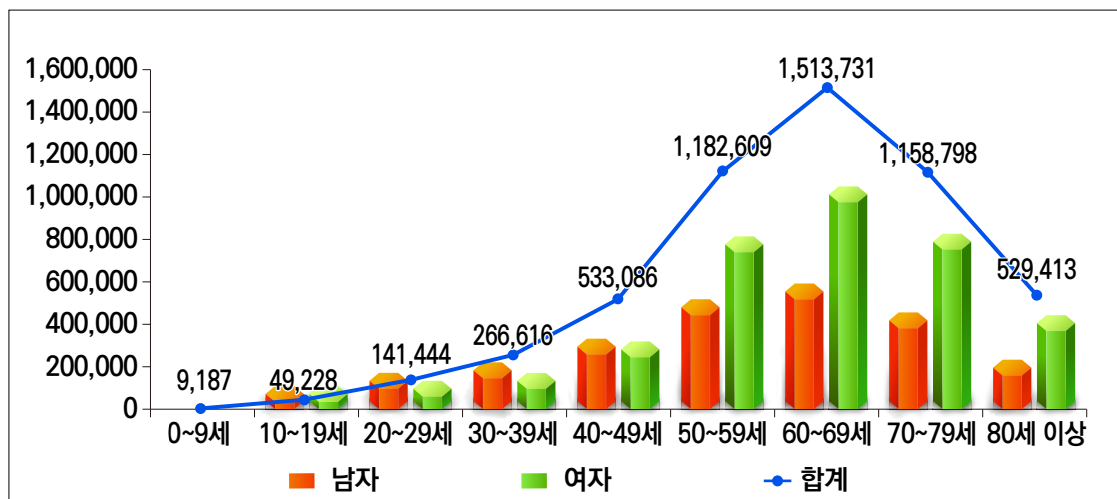
[연도별 관절염 환자수 및 진료비(2015-2019)]



(단위: 명, 억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환자수	합계	4,762,794	4,933,314	5,027,926	5,205,515	5,384,112
	남자	1,723,071	1,808,572	1,868,655	1,965,946	2,052,745
	여자	3,039,723	3,124,742	3,159,271	3,239,569	3,331,367
진료비	합계	19,098	21,059	22,477	24,430	27,410
	남자	5,214	5,758	6,265	7,002	7,880
	여자	13,884	15,301	16,212	17,428	19,530

[연령별 관절염 환자수(2019)]



(단위: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합계	9,187	49,228	141,444	266,616	533,086	1,182,609	1,513,731	1,158,798	529,413
남자	4,920	26,798	84,825	166,642	272,729	438,597	524,630	384,658	148,946
여자	4,267	22,430	56,619	99,974	260,357	744,012	989,101	774,140	380,467



질병정보

- ◆ 개인적인 차이나 연령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골에 반복적인 충격이 가해지면 연골의 강도가 떨어지고 손상 되어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본인의 연골 회복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운동이나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 **예방**에 있어서 중요하다. 발생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는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의 목적은 통증을 경감시키고 관절 기능을 유지하면서 변형을 방지하는데 있다.
- ◆ 수술을 하지 않는 방법에는 운동요법, 물리치료, 약물요법이 있는데 과도한 일을 하는 것은 관절에 무리한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퇴행성 변화가 빨리 오지만 적당한 규칙적인 운동은 연골에 자극을 주어 연골의 변성을 지연시키므로 적절한 운동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 또한 물리치료를 병행하면 증상을 완화시키고 근육이 약해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약물요법에는 진통제, 연고나 파스와 같은 국소적 치료제 등이 있으며 적절한 약물을 선택해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세브란스병원 건강칼럼)



49 손상 및 화상



정의

- ◆ 질병코드: T20-T31(화상), S00-S99, T00-T14(손상)
- ◆ 손상은 사고를 당하거나 고의적인 상해에 의해 신체의 각 부위에 생길 수 있음. 불이나 뜨거운 물, 화학물질 등에 의해 피부 및 조직이 손상된 것을 화상이라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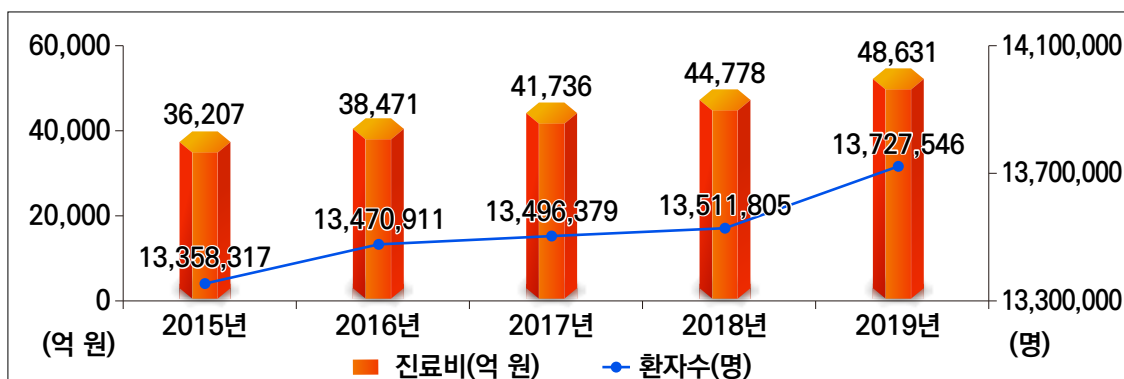
(출처: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주요현황

- ◆ 손상 및 화상 환자수는 2015년 13,358,317명에서 2019년 13,727,546명으로 369,229명 증가하였고, 진료비는 2015년 36,207억 원에서 2019년 48,631억 원으로 12,424억 원 증가하였다.
- ◆ 2019년 기준 손상 및 화상 환자는 남자와 여자가 비슷했고, 전체 연령 중에서 50대, 40대, 60대 순으로 환자수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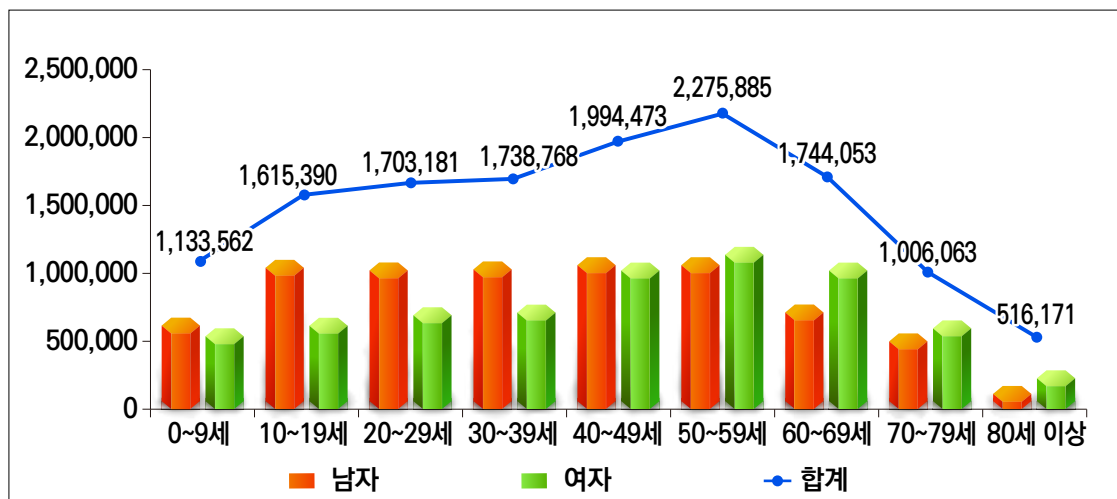
[연도별 손상 및 화상 환자수 및 진료비(2015-2019)]



(단위: 명, 억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환자수	합계	13,358,317	13,470,911	13,496,379	13,511,805	13,727,546
	남자	6,934,500	6,954,035	6,948,683	6,917,037	6,999,659
	여자	6,423,817	6,516,876	6,547,696	6,594,768	6,727,887
진료비	합계	36,207	38,471	41,736	44,778	48,631
	남자	18,621	19,522	20,957	22,246	24,059
	여자	17,586	18,949	20,779	22,533	24,572

[연령별 손상 및 화상 환자수(2019)]



(단위: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합계	1,133,562	1,615,390	1,703,181	1,738,768	1,994,473	2,275,885	1,744,053	1,006,063	516,171
남자	635,013	978,567	952,508	969,307	1,038,903	1,053,132	786,661	418,413	167,155
여자	498,549	636,823	750,673	769,461	955,570	1,222,753	957,392	587,650	349,016



질병정보

- ◆ 화상은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어린이가 있는 일반 가정에서 전열기 위에는 주전자나 냄비 따위를 절대로 놓지 않도록 하고, 전열기 주위에는 보호망을 두르는 것이 안전하다. 뜨거운 음식물, 다리미 등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 ◆ 그 밖에 도시가스 등을 사용할 때, 반드시 가스가 새는 곳이 없는지를 매일 확인하고, 사용 후에는 안전 밸브를 반드시 잠그는 습관을 가진다. 노약자나 지체부자유자 등이 있는 가정에서 불가피하게 외출하여야 하는 경우, 가급적 출입구에 가까운 곳에 노약자나 지체부자유자 등을 위치하게 하고 외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겠다.
- ◆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구나 대피사다리, 소화기를 갖추어 사용방법을 숙지해두어야 한다. 또한 방염 커튼이나 방염 용단 등의 자재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하며, 이는 이미 어린이 안전교육과 함께 외국에서는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 생활 규범이다.

(출처: 한림대한강성심병원)



50 중독



정 의

- ◆ 질병코드: T36-T50 (약물, 약제 및 생물학적 물질에 의한 중독)
- ◆ 고의적으로, 또는 사고에 의해 위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의 과용과 중독이 생길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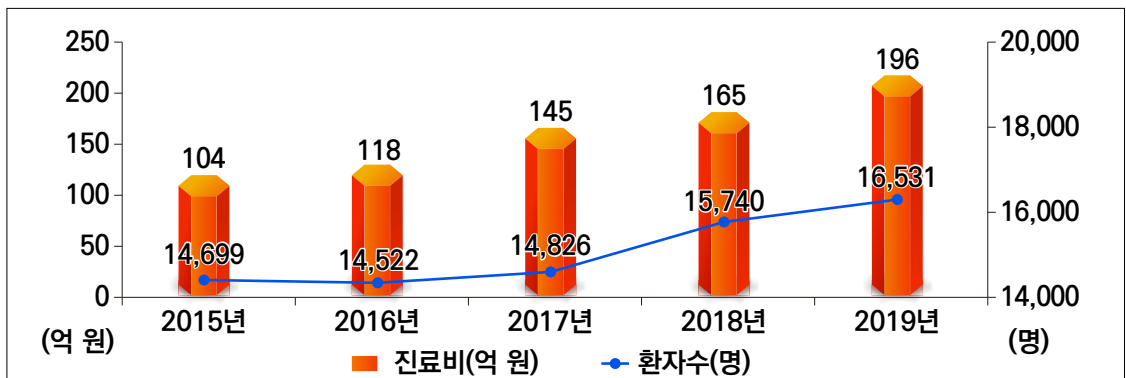
(출처: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주요현황

- ◆ 중독 환자수는 2015년 14,699명에서 2019년 16,531명으로 1,832명 증가하였고, 진료비는 2015년 104억 원에서 2019년 196억 원으로 92억 원 증가하였다.
- ◆ 2019년 기준 중독 환자는 여자가 남자보다 1.89배 많았고, 전체 연령 중에서 40대, 20대, 50대 순으로 환자수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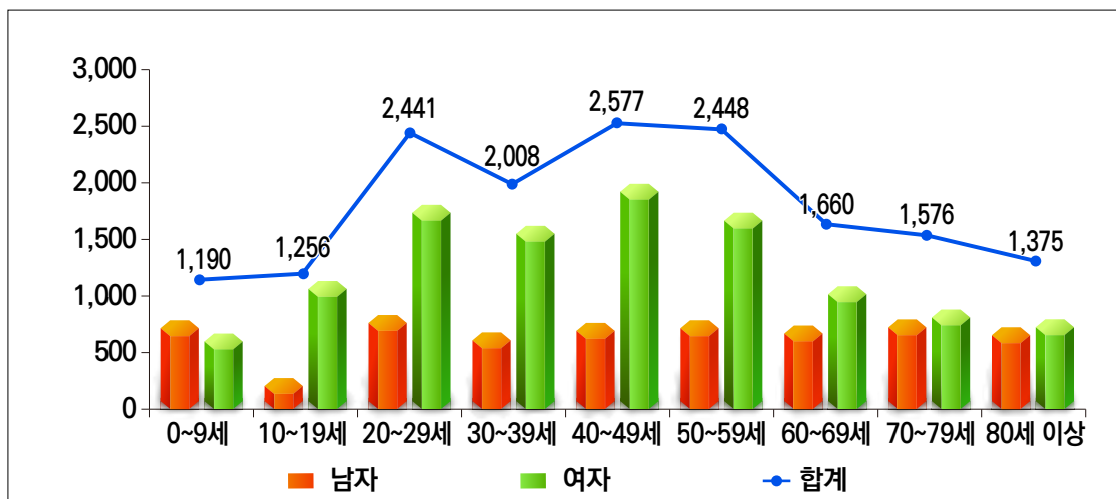
[연도별 중독 환자수 및 진료비(2015-2019)]



(단위: 명, 억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환자수	합계	14,699	14,522	14,826	15,740	16,531
	남자	5,268	5,233	5,234	5,526	5,715
	여자	9,431	9,289	9,592	10,214	10,816
진료비	합계	104	118	145	165	196
	남자	39	46	56	65	74
	여자	65	73	89	100	122

[연령별 중독 환자수(2019)]



(단위: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합계	1,190	1,256	2,441	2,008	2,577	2,448	1,660	1,576	1,375
남자	647	262	693	557	715	764	718	750	609
여자	543	994	1,748	1,451	1,862	1,684	942	826	766



질병정보

- ◆ 의학적 용어로서 중독은 약물에 의한 급성 독성상태를 말한다. 이는 투여된 물질에 의해서 일시적인 의식 수준, 인지 지각, 정감 또는 행태와 정신생리적 기능 및 반응의 장애가 초래된 상태이다.
- ◆ 약물을 잘못 먹어서 중독되는 경우는 대개 5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발생하는데,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 ◆ 성인들은 고의로 약물을 과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약물과용으로 인한 사고는 우울증 및 자살시도와 관련성이 높으며 남성보다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난다.



51 류마티스 질환



정의

- ◆ 질병코드: M05~06(류마티스관절염), M10(통풍), M07(건선성 및 장병성 관절병증), M45(강직척추염), M32(전신홍반루푸스), M352(베체트병)
- ◆ 류마티스질환은 관절통과 관절의 종창, 경직되거나 변형될 수 있는 만성 질환 및 체내 만성 염증성 질환 등을 포함하며 류마티스 관절염, 통풍, 관절병증, 강직성 척추염, 전신홍반루푸스, 베체트병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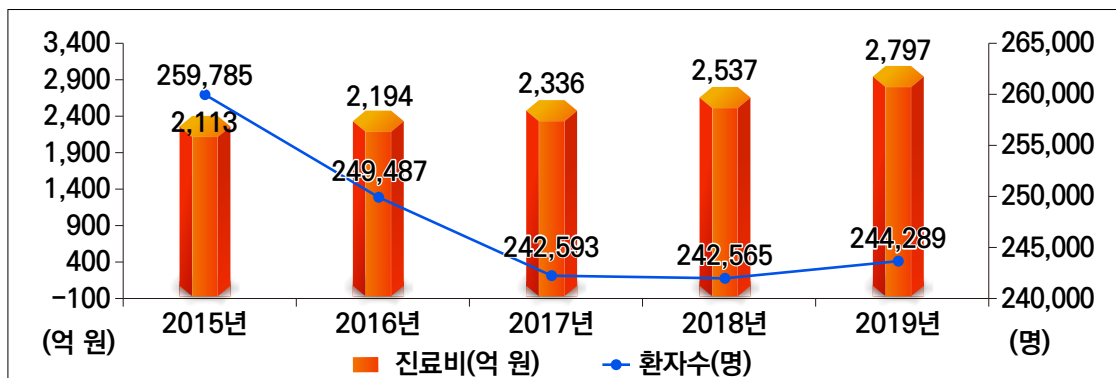
(출처: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주요현황

- ◆ 류마티스 질환 환자수는 2015년 259,785명에서 2019년 244,289명으로 15,496명 감소하였고, 진료비는 2015년 2,113억 원에서 2019년 2,797억 원으로 684억 원 증가하였다.
- ◆ 2019년 기준 류마티스 질환 환자는 여자가 남자보다 3배 많았고, 전체 연령 중 50대, 60대, 40대 순으로 환자수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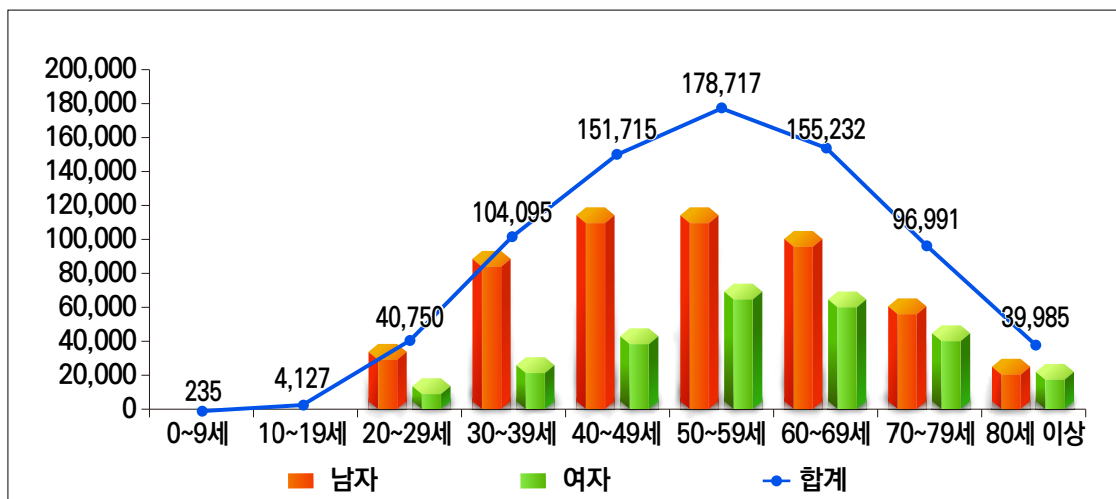
[연도별 류마티스 질환 환자수 및 진료비(2015-2019)]



(단위: 명, 억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환자수	합계	259,785	249,487	242,593	242,565	244,289
	남자	63,662	60,706	59,030	59,803	59,615
	여자	196,123	188,781	183,563	182,762	184,674
진료비	합계	2,113	2,194	2,336	2,537	2,797
	남자	401	422	454	495	538
	여자	1,711	1,772	1,882	2,042	2,259

[연령별 류마티스 질환 환자수(2019)]



(단위: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합계	235	4,127	40,750	104,095	151,715	178,717	155,232	96,991	39,985
남자	104	2,455	31,669	84,888	112,780	113,091	94,079	56,552	21,043
여자	131	1,672	9,081	19,207	38,935	65,626	61,153	40,439	18,942



질병정보

- ◆ 류마티스 관절염, 통풍, 베체트병, 루푸스 등을 포함하며 류마티스 질환의 경우 **예방**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없지만, 조기 진단과 치료를 통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 ◆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문의에 의한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는 증상을 완화하고 관절 변형을 줄일 수 있으며 나아가 완전관해 및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
- ◆ 베체트병의 경우 안구, 중추신경계 등 주요 장기의 침범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으므로, 침범 부위에 따라 류마티스 내과, 안과, 피부과, 신경과, 산부인과 등의 전문의들에게 조기에 진료를 받고 필요한 치료를 할 필요가 있다.
- ◆ 통풍은 적절한 약물을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예방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체중 조절, 절주, 과식 자제 등은 통풍발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출처: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 테마2 |
건강검진

I. 검진결과

52. 건강검진 수검률	126
53. 신장.....	128
54. 체중.....	129
55. 허리둘레.....	130
56. 비만율(체질량 지수 활용)	131
57. 공복혈당.....	132
58. 총콜레스테롤	133
59. 혈색소.....	134
60. 혈압.....	135

52 건강검진 수검률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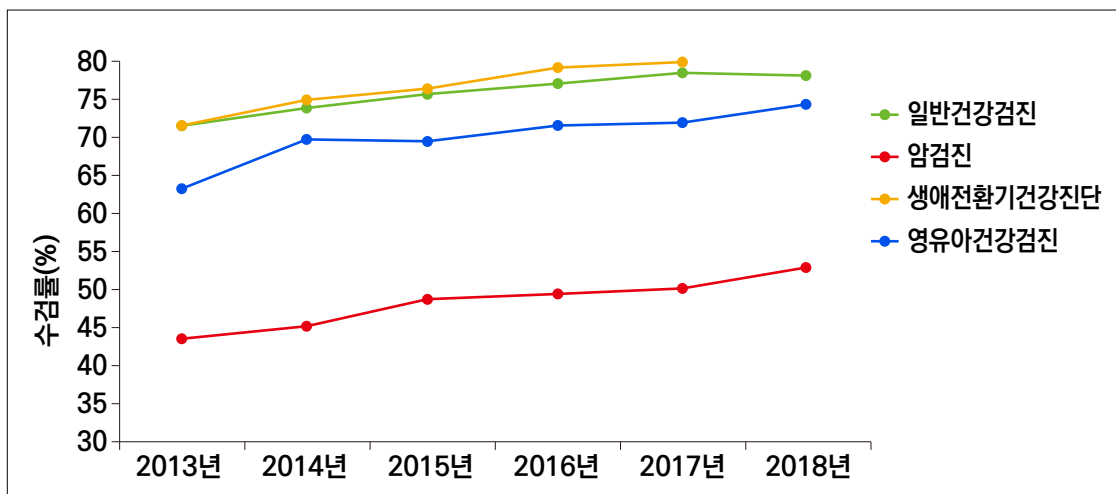
- ◆ 국가건강검진의 연도별 검진종별 수검률 변화 추이



주요현황

- ◆ 2013년에서 2018년 사이 수검률은 영유아 건강검진이 10.8%p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암검진이 10.4%p로 다음으로 높음.

[연도별 건강검진종별 수검률 현황(2013~2018년)]



(단위 : %, %p)

구 분	2013년(A)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B)	증가율 (B-A)
일반건강검진	72.1	74.8	76.1	77.7	78.5	77.0	4.9
암검진	43.5	45.8	48.3	49.2	50.4	53.9	10.4
생애전환기건강진단	72.4	75.2	77.1	79.3	79.8	-	-
영유아건강검진	63.7	69.8	69.5	71.9	72.1	74.5	10.8

주 : 1) 2018년부터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이 일반검진에 통합됨.

2)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 2018 건강검진통계연보

- ◆ 2018년 기준 수검률이 가장 높은 검진종목은 일반 건강진단으로 77.0%p.
- ◆ 2017년과 비교하여 2018년 수검률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검진종목은 암검진으로 전년에 비해 3.5%p 증가함.

[건강검진 수검현황(2017~2018년)]

(단위 : 천 명, %, %p)

구 분		2017년			2018년			증가율 (B-A)
		대상자	수검자	수검률(A)	대상자	수검자	수검률(B)	
일반 건강검진	1차	17,818	13,987	78.5	19,593	15,076	77.0	-1.5
	2차	1,390	496	35.7	-	-	-	-
암검진		22,658	11,411	50.4	22,503	12,131	53.9	3.5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1차	1,025	818	79.8	-	-	-	-
	2차	818	255	31.2	-	-	-	-
영유아건강검진		3,025	2,182	72.1	2,889	2,152	74.5	2.4

- 주 : 1) 반올림 관계로 총계와 내용의 합이 다를 수 있음.
 2) 2018년부터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이 일반검진에 통합, 일반검진 2차는 1차에 통합됨.
 3)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 2018 건강검진통계연보

건강검진 제도와 관련한 사항은 **부록 2. 2020년 건강검진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3 신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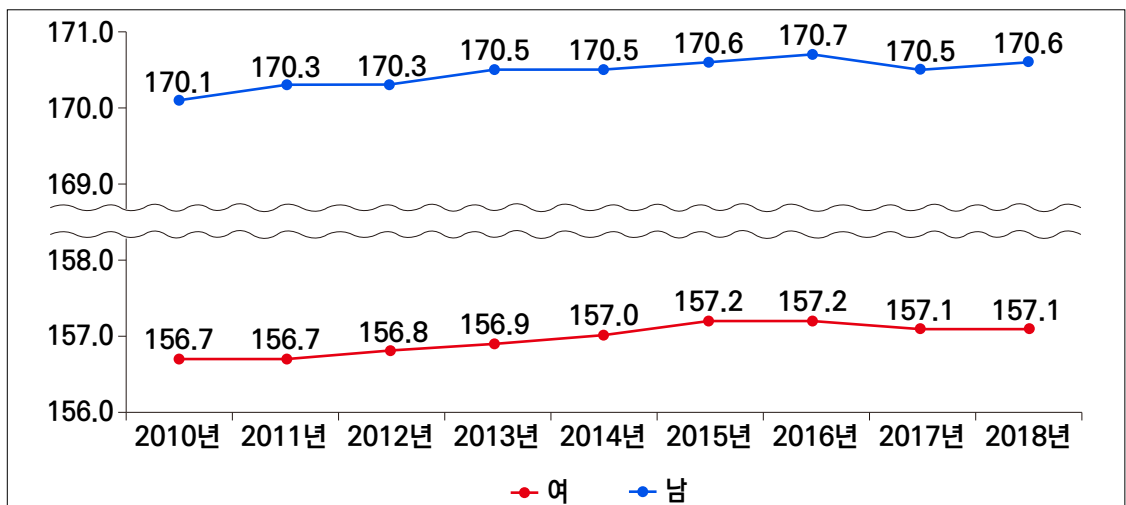
개 요

◆ 건강검진 결과, 연령별/성별 평균 신장 변화추이



주요현황

[성별 평균 신장 분포 현황(2010~2018년)]



[연령별 성별 평균 신장 분포 현황(2010~2018년)]

(단위 : cm)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계	남	170.1	170.3	170.3	170.5	170.5	170.6	170.7	170.5	170.6
	여	156.7	156.7	156.8	156.9	157.0	157.2	157.2	157.1	157.1
20대	남	174.1	174.1	174.1	174.1	174.0	174.0	174.0	173.8	173.8
	여	161.4	161.5	161.5	161.6	161.6	161.7	161.7	161.5	161.4
30대	남	173.0	173.2	173.5	173.7	173.8	174.0	174.1	174.0	174.1
	여	160.2	160.5	160.7	160.9	161.0	161.2	161.3	161.1	161.2
40대	남	170.6	170.9	171.1	171.3	171.5	171.8	172.0	172.0	172.2
	여	157.9	158.1	158.3	158.5	158.7	158.9	159.1	159.1	159.3
50대	남	168.3	168.4	168.6	168.7	169.0	169.1	169.3	169.2	169.4
	여	155.8	155.8	156.1	156.1	156.3	156.5	156.6	156.5	156.7
60대	남	166.1	166.1	166.3	166.4	166.5	166.7	166.8	166.8	166.9
	여	153.4	153.5	153.7	153.8	154.0	154.1	154.2	154.2	154.2
70대	남	164.3	164.5	164.6	164.7	164.8	164.9	165.0	164.9	164.9
	여	150.3	150.5	150.7	150.8	151.0	151.1	151.4	151.4	151.5
80세 이상	남	162.1	162.4	162.4	162.5	162.7	162.8	162.9	162.8	162.9
	여	147.1	147.3	147.5	147.5	147.7	147.8	147.9	147.8	147.9

주 : 1) 만 20세 이상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수검자 기준
 2) 100cm~200cm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기타 오류값은 제외함.
 3)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 2018 건강검진통계연보

54 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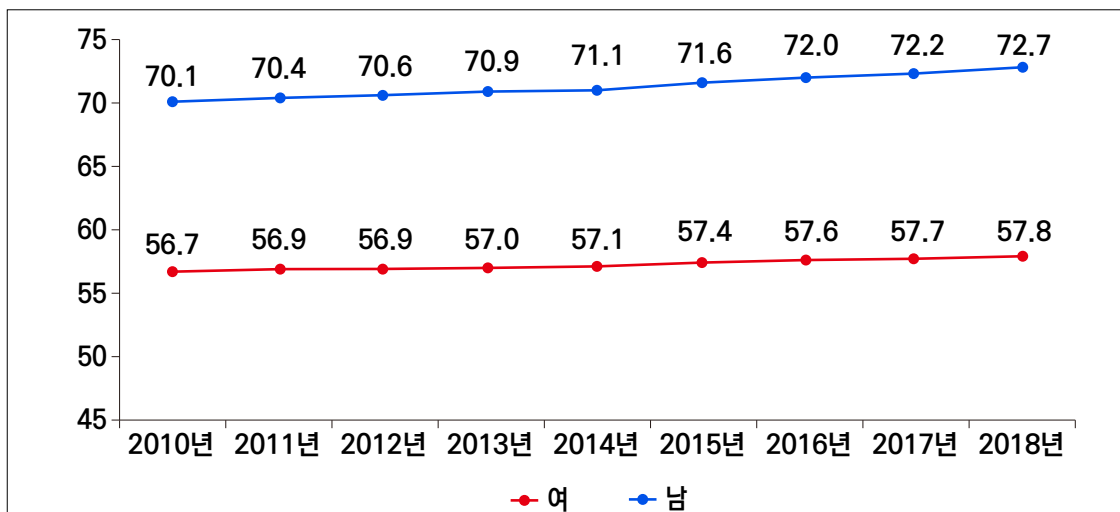
개 요

◆ 건강검진 결과, 연령별/성별 평균 체중 변화추이



주요현황

[성별 평균 체중 분포 현황(2010~2018년)]



[연령별 성별 평균 체중 분포 현황(2010~2018년)]

(단위 : kg)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계	남 70.1	70.4	70.6	70.9	71.1	71.6	72.0	72.2	72.7
	여 56.7	56.9	56.9	57.0	57.1	57.4	57.6	57.7	57.8
20대	남 71.8	72.2	72.2	72.7	72.9	73.4	73.9	74.3	74.8
	여 54.3	54.7	54.8	55.1	55.4	55.9	56.2	56.5	56.9
30대	남 73.1	73.6	74.0	74.6	75.0	75.7	76.3	76.7	77.3
	여 55.7	56.3	56.2	56.7	56.7	57.2	57.5	57.8	58.1
40대	남 71.2	71.5	71.9	72.2	72.6	73.3	73.8	74.3	74.9
	여 57.4	57.6	57.6	57.8	57.8	58.1	58.3	58.4	58.6
50대	남 69.0	69.0	69.3	69.3	69.7	70.2	70.5	70.8	71.2
	여 57.9	57.9	57.8	57.9	57.8	58.1	58.2	58.2	58.3
60대	남 66.4	66.5	66.7	66.8	67.0	67.5	67.8	68.0	68.3
	여 57.8	57.8	57.8	57.7	57.8	58.0	58.1	58.0	58.0
70대	남 63.3	63.5	63.8	63.9	64.2	64.6	65.0	65.3	65.5
	여 54.8	55.1	55.2	55.3	55.5	55.9	56.2	56.4	56.5
80세 이상	남 58.9	59.3	59.5	59.7	60.1	60.6	61.0	61.4	61.7
	여 49.6	49.9	50.1	50.2	50.5	51.0	51.4	51.7	52.0

주 : 1) 만 20세 이상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수검자 기준
 2) 30kg~150kg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기타 오류값은 제외함.
 3)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 2018 건강검진통계연보

55 허리둘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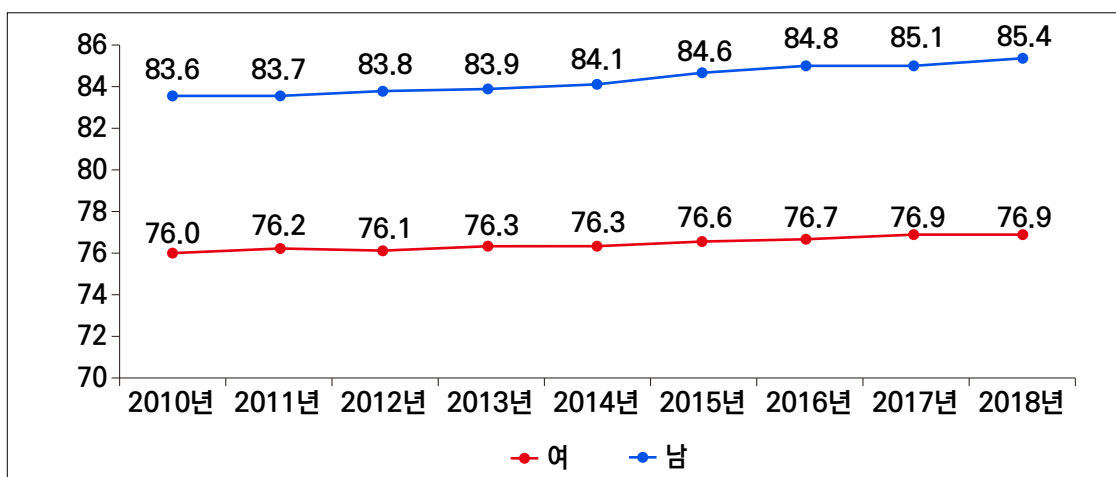
개 요

◆ 건강검진 결과, 연령별/성별 평균 허리둘레 변화 추이



주요현황

[성별 평균 허리둘레 현황(2010~2018년)]



[연령별 성별 평균 체중 분포 현황(2010~2018년)]

(단위 : cm)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계	남 83.6	83.7	83.8	83.9	84.1	84.6	84.8	85.1	85.4
	여 76.0	76.2	76.1	76.3	76.3	76.6	76.7	76.9	76.9
20대	남 80.5	80.8	80.7	81.2	81.4	81.8	82.1	82.6	82.5
	여 69.1	69.5	69.5	69.9	70.1	70.4	70.6	70.9	70.8
30대	남 83.0	83.3	83.3	83.8	84.0	84.6	85.0	85.5	85.4
	여 71.8	72.2	72.0	72.4	72.5	72.8	73.0	73.3	73.1
40대	남 83.8	83.9	83.9	84.0	84.2	84.6	84.9	85.3	85.1
	여 74.6	74.7	74.6	74.7	74.7	75.0	75.0	75.1	75.1
50대	남 84.6	84.6	84.5	84.4	84.5	84.8	84.9	85.2	85.0
	여 77.8	77.7	77.4	77.5	77.3	77.5	77.5	77.5	77.4
60대	남 85.1	85.0	85.0	85.0	85.1	85.4	85.5	85.6	85.5
	여 81.1	80.9	80.6	80.6	80.5	80.6	80.6	80.5	80.2
70대	남 84.7	84.7	84.8	84.8	85.0	85.3	85.6	85.8	85.7
	여 82.2	82.1	82.0	82.0	82.0	82.3	82.5	82.6	82.5
80세 이상	남 83.1	83.2	83.3	83.4	83.6	84.0	84.4	84.8	84.7
	여 80.5	80.6	80.6	80.7	80.8	81.2	81.6	82.0	81.9

주 : 1) 각 연도별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수검자 기준
 2) 범위 : 1~999cm(999cm 초과 수치는 오류값으로 제외함)
 3)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 2018 건강검진통계연보

56 비만을(체질량지수 활용)



개 요

- ◆ 건강검진 결과, 연령별/성별 비만을 변화추이



주요현황

- ◆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 체질량지수란 몸무게와 키를 고려하여 비만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말함.
 - 계산방법: 체중(kg) / (신장(m) x 신장(m))

[연령별 성별 비만을 분포 현황(2016~2018년)]

(단위 :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저체중	정상	비만	고도 비만	저체중	정상	비만	고도 비만	저체중	정상	비만	고도 비만
총계	계	3.6	60.8	30.5	5.1	3.3	59.9	31.4	5.5	3.3	58.6	32.0	6.1
	남	1.9	55.5	36.8	5.7	1.7	54.1	38.0	6.2	1.7	52.2	39.1	7.0
	여	5.5	66.9	23.3	4.4	5.1	66.5	23.8	4.6	5.2	66.0	23.9	4.9
20대	계	9.5	65.7	19.0	5.7	8.4	64.9	20.3	6.4	8.1	63.3	21.3	7.2
	남	3.2	60.2	28.6	8.0	2.8	58.6	29.8	8.7	2.9	56.5	30.8	9.8
	여	15.8	71.3	9.4	3.5	14.3	71.4	10.3	3.9	13.9	70.7	10.9	4.5
30대	계	4.8	58.1	29.6	7.5	4.4	57.1	30.4	8.2	4.2	55.1	31.4	9.2
	남	1.7	51.1	38.0	9.1	1.4	49.4	39.2	10.0	1.3	47.3	40.1	11.3
	여	10.9	72.0	12.8	4.3	10.0	71.8	13.5	4.7	10.1	70.8	13.9	5.2
40대	계	3.0	61.2	30.3	5.5	2.9	60.1	31.1	5.9	3.0	58.5	31.8	6.7
	남	1.4	52.4	39.7	6.5	1.2	50.7	41.0	7.1	1.2	48.6	42.0	8.2
	여	5.0	71.6	19.2	4.3	4.8	71.1	19.5	4.5	5.2	70.5	19.4	4.9
50대	계	2.0	61.9	32.2	4.0	1.9	61.0	33.0	4.2	2.0	59.9	33.5	4.7
	남	1.5	56.4	38.3	3.8	1.3	54.9	39.7	4.2	1.3	53.0	40.9	4.8
	여	2.5	67.5	25.9	4.1	2.4	67.1	26.2	4.2	2.7	67.0	25.9	4.5
60대	계	1.9	59.1	34.9	4.1	1.8	58.5	35.5	4.2	1.8	57.9	35.8	4.5
	남	1.9	58.8	36.3	3.0	1.7	57.6	37.5	3.1	1.7	56.1	38.7	3.5
	여	1.9	59.4	33.5	5.2	1.8	59.4	33.5	5.2	2.0	59.7	33.0	5.3
70대	계	2.9	59.1	34.0	3.9	2.6	58.1	35.1	4.2	2.6	57.6	35.4	4.3
	남	3.3	63.0	31.5	2.2	2.9	61.7	33.0	2.4	2.8	60.4	34.1	2.7
	여	2.6	55.8	36.1	5.4	2.4	54.9	36.9	5.8	2.4	55.1	36.6	5.9
80세 이상	계	7.5	63.9	25.8	2.7	6.8	62.9	27.3	3.0	6.7	62.0	28.1	3.3
	남	7.0	68.5	23.2	1.3	6.3	67.6	24.6	1.5	6.1	66.2	26.0	1.7
	여	7.9	60.7	27.6	3.7	7.1	59.6	29.2	4.1	7.0	58.9	29.6	4.4

- 주 : 1) 만 20세 이상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수검자 기준, 수검인원 대비 방목별 인원의 비율
 2) 저체중 : $10 \leq \text{BMI} < 18.5$, 정상 : $18.5 \leq \text{BMI} < 25$, 비만 : $25 \leq \text{BMI} < 30$, 고도비만 : $30 \leq \text{BMI} \leq 50$
 3) BMI 지수가 10 미만, 50 초과 자료는 오류값으로 제외하며, 반올림으로 총계와 내용의 합이 상이할 수 있음.
 4)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 2018 건강검진통계연보

57 공복혈당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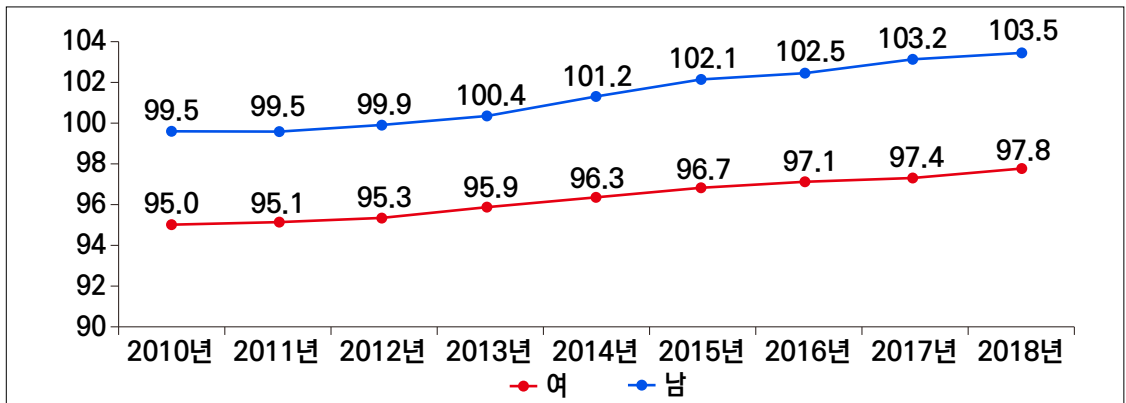
- ◆ 건강검진 결과, 연령별/성별 평균 공복혈당 변화 추이



주요현황

- ◆ 8시간 금식 후 혈당농도를 측정하여 100mg/dL미만이면 정상, 126mg/dL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간주. 100~125mg/dL은 공복 시 혈당장애로 당뇨 발병의 위험성이 있음.

[성별 평균 공복혈당 분포 현황(2010~2018년)]



[연령별 성별 평균 공복혈당 분포 현황(2010~2018년)]

(단위 : mg/dL)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계									
남	99.5	99.5	99.9	100.4	101.2	102.1	102.5	103.2	103.5
여	95.0	95.1	95.3	95.9	96.3	96.7	97.1	97.4	97.8
20대									
남	89.8	89.8	89.9	90.3	90.8	91.4	91.9	92.6	93.0
여	86.8	86.8	87.0	87.3	87.9	88.3	88.7	89.3	89.6
30대									
남	94.2	94.3	94.4	94.8	95.5	96.1	96.5	97.2	97.6
여	89.1	89.3	89.2	89.7	90.1	90.5	90.8	91.2	91.6
40대									
남	99.8	99.9	100.0	100.4	101.2	101.9	102.1	102.6	103.1
여	93.2	93.0	93.2	93.6	93.9	94.2	94.4	94.7	94.9
50대									
남	104.6	104.7	104.7	105.4	106.0	106.8	107.0	107.6	107.9
여	97.2	97.0	97.0	97.7	98.0	98.4	98.7	99.0	99.2
60대									
남	106.0	105.9	106.1	106.9	107.5	108.3	108.7	109.1	109.4
여	101.4	101.1	101.0	101.7	101.9	102.2	102.4	102.4	102.5
70대									
남	105.0	104.9	105.1	105.9	106.5	107.1	107.8	108.2	108.5
여	103.4	103.1	103.3	104.1	104.6	104.7	105.3	105.3	105.5
80세 이상									
남	103.4	103.7	103.8	104.7	104.9	105.4	106.2	106.7	106.9
여	104.2	104.0	104.1	104.9	104.9	105.3	105.8	106.3	106.2

- 주 : 1) 만 20세 이상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수검자 기준
 2) 범위 : 1~999mg/dL(999mg/dL 초과 수치는 오류값으로 제외함)
 3)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 2018 건강검진통계연보

58 총콜레스테롤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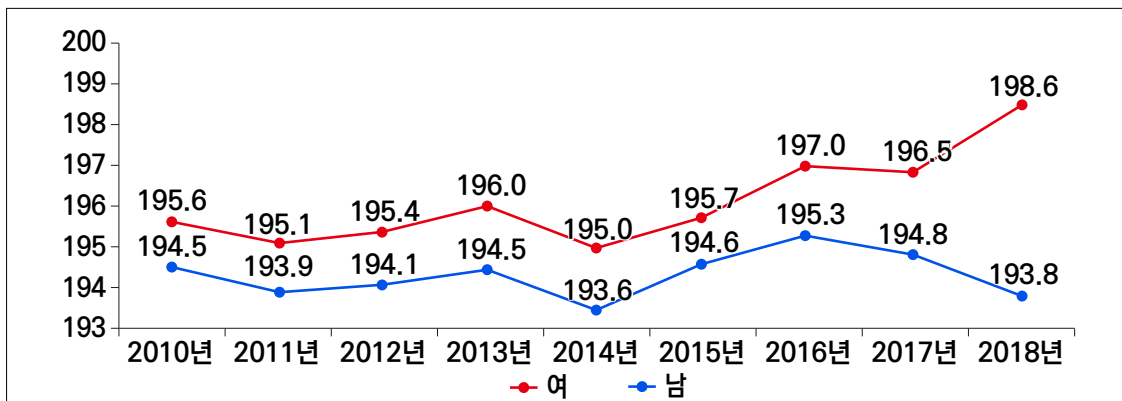
- ◆ 건강검진 결과, 연령별/성별 평균 공복혈당 변화 추이



주요현황

- ◆ 콜레스테롤 수치란 혈액 내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의 양을 뜻하며, 총콜레스테롤수치가 200mg/dL 미만, 중성지방 수치가 150mg/dL 미만,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30mg/dL 미만,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남성 기준 40mg/dL 이상, 여성 기준 50mg/DL 이상이면 적정수준으로 진단함.

[성별 평균 총콜레스테롤 분포 현황(2010~2018년)]



[연령별 성별 평균 총콜레스테롤 분포 현황(2010~2018년)]

(단위 : mg/dL)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계	남 194.5	남 193.9	남 194.1	남 194.5	남 193.6	남 194.6	남 195.3	남 194.8	남 193.8
	여 195.6	여 195.1	여 195.4	여 196.0	여 195.0	여 195.7	여 197.0	여 196.5	여 198.6
20대	남 180.2	남 180.0	남 179.9	남 180.3	남 179.8	남 181.1	남 182.2	남 182.6	남 184.6
	여 175.3	여 174.9	여 175.9	여 176.5	여 176.5	여 177.7	여 179.4	여 179.7	여 173.4
30대	남 194.7	남 194.6	남 195.2	남 196.0	남 195.8	남 197.5	남 198.6	남 199.0	남 199.0
	여 181.2	여 181.3	여 182.2	여 183.3	여 182.8	여 184.3	여 185.9	여 186.3	여 180.4
40대	남 199.9	남 199.8	남 200.4	남 201.3	남 200.7	남 202.4	남 203.5	남 203.5	남 203.8
	여 191.6	여 191.0	여 192.0	여 192.8	여 192.0	여 193.4	여 195.2	여 195.3	여 195.8
50대	남 198.2	남 197.1	남 197.3	남 197.3	남 196.1	남 197.0	남 197.7	남 197.0	남 196.7
	여 207.8	여 207.0	여 207.0	여 207.8	여 206.7	여 207.6	여 209.0	여 208.2	여 208.9
60대	남 192.1	남 190.5	남 190.1	남 189.7	남 188.1	남 187.9	남 188.3	남 187.3	남 186.4
	여 206.7	여 204.8	여 204.0	여 203.7	여 202.1	여 201.9	여 202.6	여 201.0	여 199.8
70대	남 187.3	남 185.1	남 184.2	남 183.5	남 181.4	남 180.0	남 180.1	남 178.4	남 176.0
	여 204.0	여 201.2	여 199.3	여 198.1	여 195.9	여 193.5	여 193.6	여 191.1	여 187.9
80세 이상	남 183.8	남 181.1	남 179.8	남 179.1	남 177.7	남 175.7	남 175.9	남 174.2	남 172.7
	여 202.1	여 198.5	여 196.8	여 194.8	여 192.7	여 189.8	여 189.8	여 187.6	여 185.0

주 : 1) 만 20세 이상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수검자 기준

2) 범위 : 1-9999mg/dL(9999mg/dL 초과 수치는 오류값으로 제외함)

3)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 2018 건강검진통계연보

59 혈액소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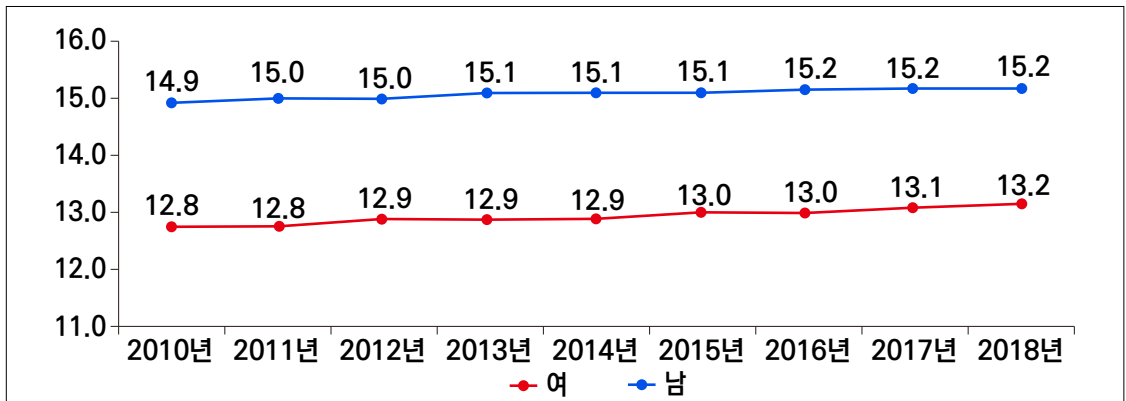
- ◆ 건강검진 결과, 연령별/성별 평균 혈액소 변화 추이



주요현황

- ◆ 혈액소의 정상 범위는 남성의 경우 13~17g/dL, 여성은 12~16g/dL
- ◆ 혈액소 수치가 낮으면 빈혈이 올 수 있음.

[성별 평균 혈액소 분포 현황(2010~2018년)]



[연령별 성별 평균 혈액소 분포 현황(2010~2018년)]

(단위 : g/dL)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계	남	14.9	15.0	15.0	15.1	15.1	15.1	15.2	15.2
	여	12.8	12.8	12.9	12.9	12.9	13.0	13.0	13.2
20대	남	15.3	15.4	15.4	15.5	15.5	15.5	15.6	15.6
	여	12.9	13.0	13.0	13.1	13.1	13.2	13.2	13.3
30대	남	15.2	15.3	15.4	15.4	15.5	15.5	15.5	15.6
	여	12.7	12.8	12.8	12.9	12.9	13.0	13.0	13.1
40대	남	15.1	15.1	15.2	15.3	15.3	15.3	15.4	15.5
	여	12.6	12.7	12.7	12.7	12.7	12.8	12.9	12.9
50대	남	14.8	14.9	14.9	15.0	15.0	15.1	15.2	15.3
	여	12.9	13.0	13.0	13.1	13.1	13.2	13.3	13.4
60대	남	14.5	14.5	14.6	14.6	14.7	14.7	14.8	14.9
	여	12.9	13.0	13.0	13.0	13.1	13.1	13.2	13.3
70대	남	14.0	14.0	14.1	14.6	14.1	14.1	14.2	14.4
	여	12.6	12.7	12.7	12.7	12.7	12.8	12.9	13.0
80세 이상	남	13.4	13.4	13.4	13.4	13.5	13.5	13.5	13.7
	여	12.2	12.2	12.3	12.2	12.3	12.3	12.5	12.5

- 주 : 1) 만 20세 이상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수검자 기준
 2) 범위 : 1~25g/dL(25g/dL 초과 수치는 오류값으로 제외함)
 3)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 2018 건강검진통계연보

60 혈압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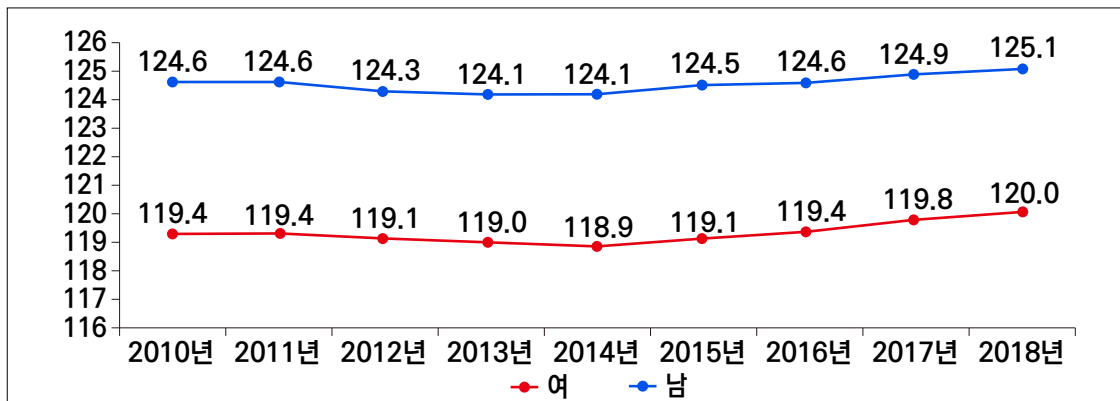
- ◆ 건강검진 결과, 연령별/성별 평균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수치 변화 추이



주요현황

- ◆ 수축기혈압의 정상 범위는 90~119mmHg, 이완기혈압의 정상 범위는 60~79mmHg이며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인 경우 고혈압으로, 수축기 혈압이 90 미만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60 미만인 경우 저혈압으로 간주함.

[성별 평균 수축기혈압 분포 현황(2010~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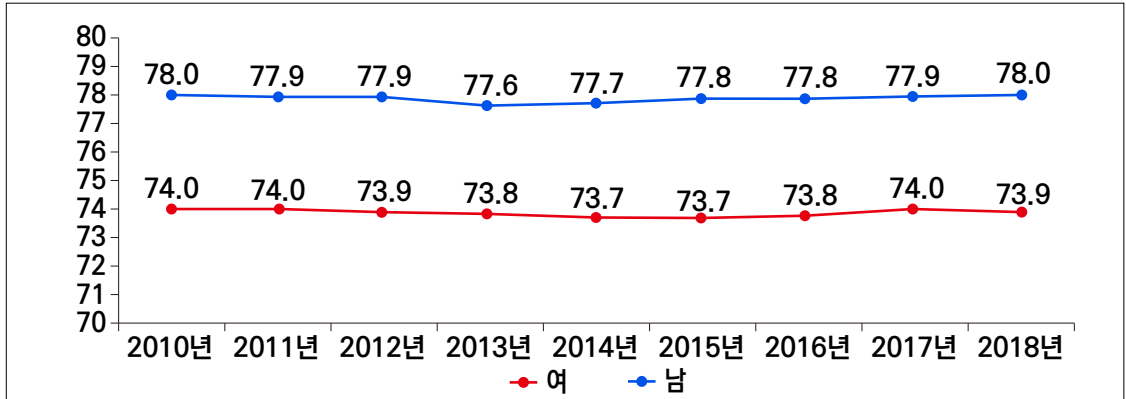
[연령별 성별 평균 수축기혈압 분포 현황(2010~2018년)]

(단위 : mmHg)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계	남 124.6	124.6	124.3	124.1	124.1	124.5	124.6	124.9	125.1
	여 119.4	119.4	119.1	119.0	118.9	119.1	119.4	119.8	120.0
20대	남 121.2	121.1	120.7	120.5	120.5	120.7	120.7	118.6	121.1
	여 110.5	110.3	110.3	110.1	110.5	110.7	111.0	111.6	111.5
30대	남 122.7	122.8	122.5	122.4	122.5	122.8	122.9	120.9	123.3
	여 111.6	111.9	111.2	111.4	111.3	111.5	111.8	111.4	112.3
40대	남 123.7	123.7	123.5	123.3	123.4	123.7	123.8	123.1	124.4
	여 116.5	116.4	116.1	116.0	115.8	116.0	116.2	112.1	116.5
50대	남 125.8	125.7	125.3	125.0	124.8	125.2	125.2	124.1	125.5
	여 121.7	121.4	120.8	120.6	120.3	120.6	120.7	116.4	120.9
60대	남 128.6	128.2	127.7	127.2	126.9	127.3	127.3	125.4	127.5
	여 127.4	126.8	126.2	125.6	125.2	125.4	125.5	120.9	125.5
70대	남 130.3	130.0	129.6	128.9	128.8	129.2	129.4	127.4	129.9
	여 130.9	130.8	130.5	129.9	129.8	130.1	130.4	125.4	130.7
80세 이상	남 130.7	130.6	130.4	129.5	129.5	129.8	130.2	129.6	130.8
	여 131.8	131.9	131.8	130.7	130.8	130.9	131.5	130.6	132.0

주 : 1) 각 연도별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수검자 기준
 2) 범위 : 1~300mmHg(300mmHg 초과 수치는 오류값으로 제외함)
 3)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 2018 건강검진통계연보

[성별 평균 이완기혈압 분포 현황(2010~2018년)]



[연령별 성별 평균 이완기혈압 분포 현황(2010~2018년)]

(단위 : mmHg)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계	남	78.0	77.9	77.9	77.6	77.7	77.8	77.8	77.9	78.0
	여	74.0	74.0	73.9	73.8	73.7	73.7	73.8	74.0	73.9
20대	남	75.5	75.4	75.2	74.9	74.9	74.7	74.6	74.7	74.6
	여	69.4	69.4	69.3	69.1	69.2	69.1	69.3	69.6	69.6
30대	남	77.1	77.1	77.1	77.0	77.1	77.1	77.2	77.3	77.5
	여	70.1	70.4	70.0	70.2	70.1	70.1	70.3	70.6	70.6
40대	남	78.4	78.4	78.4	78.3	78.4	78.6	78.7	78.9	79.2
	여	73.0	73.0	72.9	73.0	72.9	72.9	73.0	73.2	73.2
50대	남	79.3	79.2	79.1	78.8	78.8	79.0	79.0	79.1	79.2
	여	75.7	75.6	75.4	75.3	75.1	75.1	75.2	75.3	75.2
60대	남	78.9	78.6	78.5	78.1	78.0	78.1	78.0	78.1	78.0
	여	77.5	77.1	76.9	76.5	76.2	76.2	76.1	76.1	75.9
70대	남	78.0	77.5	77.4	76.7	76.6	76.5	76.4	76.3	76.1
	여	78.2	77.9	77.7	77.1	76.9	76.8	76.7	76.5	76.2
80세 이상	남	77.4	76.9	76.8	76.0	75.9	75.8	75.6	75.3	75.0
	여	78.3	77.9	77.8	77.1	76.9	76.9	76.7	76.5	76.1

- 주 : 1) 각 연도별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수검자 기준
 2) 범위 : 1-300mmHg(300mmHg 초과 수치는 오류값으로 제외함)
 3)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 2018 건강검진통계연보



| 테마2 |
건강검진

II. 문진

61. 월간음주율	138
62. 흡연실태 및 흡연량	139

61 월간 음주율



개 요

- ◆ 강검진 문진결과, 수검자의 연령별/성별 월간 음주율 현황



주요현황

- ◆ 월간 음주율
 - 최근 1년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한 분율, 만 19세 이상

[연령별 성별 월간 음주율 현황(2018년)]

(단위: 천 명, %)

구 분		2018년		
		전체 응답인원	해당인원	비율
총계	계	15,065,365	9,044,788	60.0
	남	8,099,736	6,082,999	75.1
	여	6,965,629	2,961,789	42.5
20대	계	1,345,137	1,062,405	79.0
	남	702,386	574,491	81.8
	여	642,751	487,914	75.9
30대	계	2,528,514	1,952,852	77.2
	남	1,689,250	1,407,102	83.3
	여	839,264	545,750	65.0
40대	계	3,568,341	2,475,228	69.4
	남	1,958,158	1,587,164	81.1
	여	1,610,183	888,064	55.2
50대	계	3,625,123	2,078,434	57.3
	남	1,833,647	1,391,065	75.9
	여	1,791,476	687,369	38.4
60대	계	2,464,728	1,064,689	43.2
	남	1,207,726	790,666	65.5
	여	1,257,002	274,023	21.8
70대	계	1,194,254	341,597	28.6
	남	561,935	279,038	49.7
	여	632,319	62,559	9.9
80세 이상	계	317,738	54,508	17.2
	남	133,532	44,620	33.4
	여	184,206	9,888	5.4

주 : 1) 만 20세 이상 건강검진 수검자 중 음주관련 문진항목 응답자 기준(일반검진)

2) 2018년 기준 음주관련 항목이 변경되어 추이 제공 제외

3) 반올림 관계로 총계와 내용의 합이 상이할 수 있음.

4)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 2018 건강검진통계연보

62 흡연실태 및 흡연량



개요

- ◆ 건강검진 문진결과, 연령별/성별 현재흡연을 추이 및 하루 평균 흡연량 추이



주요현황

[연령별 성별 흡연을 추이(2016~2018년)]

(단위: 천 명,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응답인원	현재 흡연인원	비율	전체 응답인원	현재 흡연인원	비율	전체 응답인원	현재 흡연인원	비율
총계	계	14,670	3,248	22.1	14,924	3,216	21.6	15,073	3,242	21.5
	남	7,827	3,012	38.5	7,923	2,971	37.5	8,106	2,994	36.9
	여	6,842	235	3.4	7,001	245	3.5	6,968	248	3.6
20대	계	1,328	337	25.4	1,317	332	25.2	1,346	346	25.7
	남	663	295	44.6	673	289	43.0	703	300	42.7
	여	665	42	6.2	644	43	6.6	643	46	7.2
30대	계	2,441	791	32.4	2,440	750	30.8	2,530	759	30.0
	남	1,628	753	46.3	1,600	710	44.4	1,691	718	42.5
	여	813	38	4.7	839	40	4.8	840	41	4.9
40대	계	3,711	1,004	27.1	3,719	992	26.7	3,571	971	27.2
	남	2,004	933	46.5	2,004	918	45.8	1,960	899	45.9
	여	1,707	71	4.2	1,715	74	4.3	1,611	73	4.5
50대	계	3,540	708	20.0	3,609	713	19.8	3,627	723	19.9
	남	1,797	656	36.5	1,815	659	36.3	1,835	670	36.5
	여	1,743	52	3.0	1,794	54	3.0	1,792	53	2.9
60대	계	2,277	310	13.6	2,383	327	13.7	2,465	333	13.5
	남	1,115	286	25.6	1,168	301	25.8	1,208	308	25.5
	여	1,161	24	2.1	1,215	26	2.2	1,257	26	2.0
70대	계	1,100	85	7.8	1,152	88	7.6	1,194	90	7.5
	남	509	79	15.5	537	81	15.1	562	83	14.8
	여	591	6	1.1	614	6	1.0	632	6	1.0
80세 이상	계	273	13	4.7	304	13	4.4	318	14	4.3
	남	111	11	9.8	125	11	9.2	134	12	9.0
	여	162	2	1.2	179	2	1.0	184	2	0.9

- 주 : 1) 만 20세 이상 건강검진 수검자 중 흡연관련 문진항목 응답자 기준(일반검진, 생애검진 포함)
 2) 현재 흡연인원: 평생 총 5갑(100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운 경험에 관한 문항에서 현재도 흡연 중이라고 응답한 인원
 3) 반올림 관계로 총계와 내용의 합이 상이할 수 있음.
 4)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 2018 건강검진통계연보

[연령별 성별 하루 평균 흡연량 추이(2016~2018년)]

(단위: 응답인원 대비 항목별 인원의 비율,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10개비 미만	10~20개비미만	20~40개비미만	40~100개비이하	10개비 미만	10~20개비미만	20~40개비미만	40~100개비이하	10개비 미만	10~20개비미만	20~40개비미만	40~100개비이하
총계	계	15.1	48.8	35.0	1.1	15.8	49.8	33.7	1.0	16.7	50.8	31.6	0.9
	남	12.8	49.3	36.8	1.1	13.2	50.3	35.6	1.0	14.1	51.5	33.4	1.0
	여	46.5	42.4	10.8	0.3	46.4	43.0	10.7	0.3	48.0	42.0	9.6	0.3
20대	계	23.3	57.5	19.0	0.2	24.1	57.7	18.0	0.2	25.7	57.4	16.6	0.2
	남	18.5	60.2	21.0	0.3	19.1	60.7	19.9	0.2	20.6	60.5	18.6	0.3
	여	57.8	37.9	4.2	0.1	56.4	38.4	5.0	0.1	59.0	36.8	4.1	0.1
30대	계	16.5	57.2	26.0	0.4	17.3	57.8	24.5	0.3	18.8	58.3	22.5	0.4
	남	14.6	58.0	27.0	0.4	15.3	58.8	25.5	0.4	16.7	59.4	23.6	0.4
	여	53.3	41.1	5.4	0.1	52.2	41.8	5.9	0.2	54.7	40.1	5.0	0.2
40대	계	12.8	47.3	38.8	1.1	13.6	48.8	36.7	0.9	14.5	50.6	34.1	0.8
	남	10.4	47.5	41.0	1.1	11.0	49.1	38.9	1.0	11.9	51.1	36.1	0.9
	여	45.2	44.3	10.2	0.3	45.5	44.4	9.8	0.3	46.9	43.7	9.0	0.3
50대	계	11.3	41.7	45.1	1.9	11.6	42.9	43.8	1.7	12.1	44.5	41.8	1.5
	남	9.4	41.4	47.2	2.0	9.5	42.7	46.0	1.8	10.0	44.5	43.9	1.6
	여	37.3	45.4	16.8	0.5	37.9	45.8	15.9	0.4	39.6	45.5	14.4	0.5
60대	계	14.2	41.3	42.7	1.8	14.2	42.1	42.0	1.8	14.3	43.9	40.2	1.6
	남	12.4	41.2	44.5	1.9	12.3	41.9	43.9	1.9	12.4	43.9	42.1	1.7
	여	37.4	42.9	19.0	0.7	36.6	44.4	18.5	0.5	37.5	44.3	17.6	0.6
70대	계	27.8	40.7	30.3	1.2	27.0	41.4	30.4	1.1	26.6	42.9	29.4	1.1
	남	26.4	41.0	31.4	1.2	25.6	41.7	31.5	1.2	25.2	43.3	30.4	1.1
	여	45.2	37.1	16.9	0.8	45.0	37.9	16.6	0.5	45.3	38.0	16.1	0.6
80세 이상	계	43.9	36.9	18.4	0.7	42.5	37.7	19.1	0.8	42.5	37.7	19.0	0.8
	남	41.7	38.0	19.6	0.7	40.5	38.5	20.2	0.9	40.7	38.4	20.1	0.8
	여	57.1	30.8	11.7	0.4	54.8	32.8	12.0	0.5	55.4	32.7	11.4	0.5

- 주 : 1) 만 20세 이상 건강검진 수검자 중 흡연관련 문진항목 응답자 기준(일반검진, 생애검진 포함)
 2) 하루 평균흡연량: 평생 총 5갑(100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운 경험에 관한 문항에서 현재도 흡연 중이라고 응답한 인원
 3) 반올림 관계로 총계와 내용의 합이 상이할 수 있음.
 4)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 2018 건강검진통계연보



| 테마3 |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

I. 건강보험 적용

- 63. 의료보장 적용인구 142
- 64.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적용인구 143

63 의료보장 적용인구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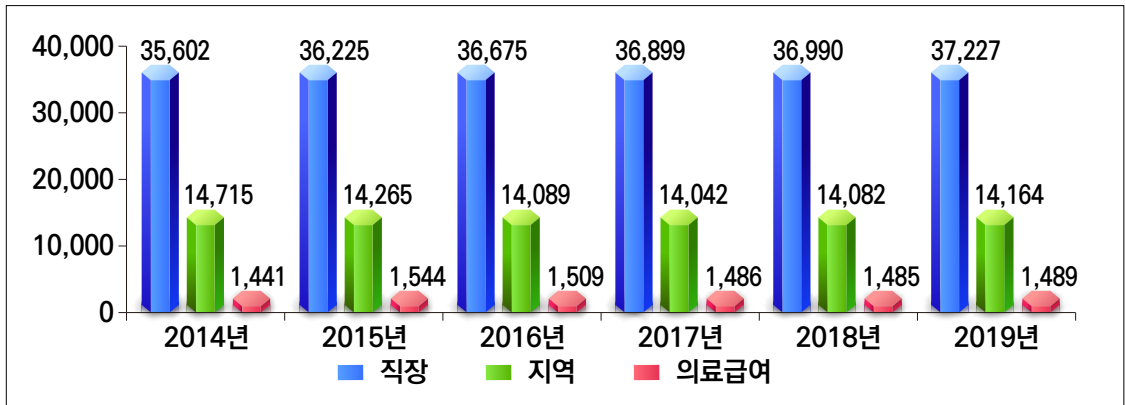
- ◆ 건강보험 적용인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인구 추이
- 의료보장 적용인구 = 건강보험 적용인구 + 의료급여 수급권자



주요현황

- ◆ 2019년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3,723만명, 지역 가입자는 1,416만명으로 나타남.
- ◆ 1인당 평균 부양가족(세대원) 수는 직장·지역 모두 감소 추세이며, 직장 적용인구는 증가, 지역 및 의료급여 적용인구는 감소 추세임.

[연도별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2014~2019년)]



(단위: 천 명, 천 세대)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의료보장		51,757	52,034	52,273	52,427	52,557	52,880
건강 보험	합계	50,316	50,490	50,763	50,941	51,072	51,391
	직장	35,602	36,225	36,675	36,899	36,990	37,227
	- 가입자	15,141	15,760	16,338	16,830	17,480	18,123
	- 피부양자	20,461	20,465	20,337	20,069	19,510	19,104
	부양률(명)	1.35	1.3	1.24	1.19	1.12	1.05
	지역	14,715	14,265	14,089	14,042	14,082	14,164
	- 세대주	6,655	6,507	6,481	6,541	6,678	6,957
	- 세대원	8,060	7,758	7,607	7,501	7,404	7,207
건강 보험	- 세대수	7,749	7,653	7,665	7,786	8,053	8,377
	부양률(명)	1.04	1.01	0.99	0.96	0.92	0.86
의료급여		1,441	1,544	1,509	1,486	1,485	1,489

주 : 1) 연도 말 기준 2) 지역세대주는 세대주가 지역가입자가 아닌 경우(비가입세대주) 제외
 3) 지역 세대수는 비가입세대주 세대 포함 4) 지역 부양률(명) = 세대원 / 세대수
 5) 건강보험 적용 외국인 및 재외국민 포함 6) 차상위 270천명, 임의계속가입자 170천명(2019년말기준)
 7)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적부과실

64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적용인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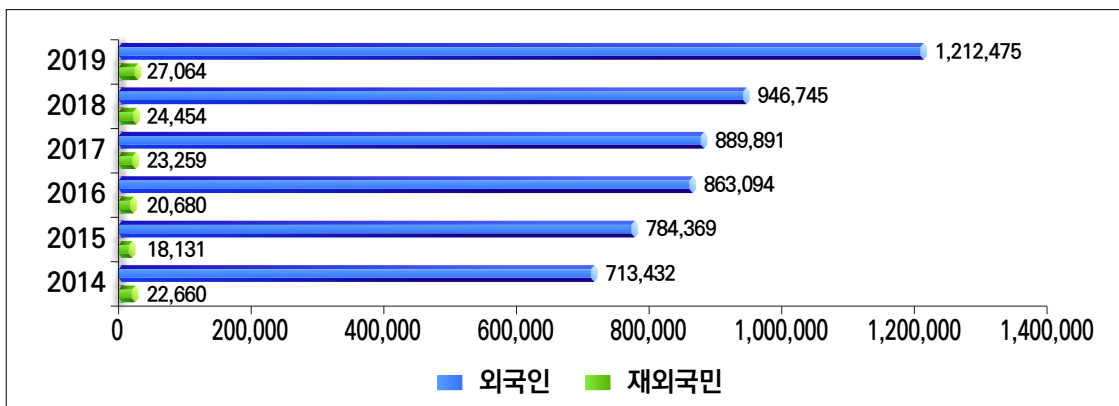
- ◆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가입자 연도별 추이



주요현황

- ◆ 건강보험 적용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2014년 73만6천명에서 2019년 124만명으로 2014~2019년 연평균 11.3% 증가함.
- ◆ 2019년 외국인 121만 명 중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57.5%, 지역 가입자는 42.5%를 차지하며, 재외국민은 27,064명 중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63.1%, 지역 가입자는 36.9%임.

[연도별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2014~2019년)]



(단위: 명,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증감률
총계(A+B)	736,092	802,500	883,774	913,150	971,199	1,239,539	- 11.3
외국인(A)	713,432	784,369	863,094	889,891	946,745	1,212,475	(100.0) 11.5
- 직장	534,192	580,359	620,322	625,891	647,057	697,234	(57.5) 5.5
- 지역	179,240	204,010	242,772	264,000	299,688	515,241	(42.5) 25.4
재외국민(B)	22,660	18,131	20,680	23,259	24,454	27,064	(100.0) 4.5
- 직장	17,095	13,957	14,973	16,843	17,472	17,089	(63.1) 0.6
- 지역	5,565	4,174	5,707	6,416	6,982	9,975	(36.9) 15.2

주 : 1) 연도 말 기준

2)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 테마3 |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

II.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65. 건강보험 보장률	146
66.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147
67. 중증질환 산정특례	148
68. 본인부담금 상한제	151
69. 재난적 의료비 지원	155
70.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157
71. 노인 틀니, 임플란트 및 치석제거 건강보험 적용.....	158

65 건강보험 보장률



개 요

- ◆ 건강보험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한 연간 건강보험 보장률



주요현황

- ◆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대비 1.1%p 증가하였음.
- ◆ 법정본인부담률은 19.6%로 전년대비 0.6%p 하락하였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0.5%p 하락함.

[연도별 건강보험환자 보장률 추이(2012~2018년)]

(단위: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	62.5	62.0	63.2	63.4	62.6	62.7	63.8
법정본인부담률	20.3	20.0	19.7	20.1	20.2	20.2	19.6
비급여 본인부담률	17.2	18.0	17.1	16.5	17.2	17.1	16.6

- 주 : 1) 건강보험 보장률 :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
 - 일반 매약비, 성형, 미용목적의 보철비, 건강증진 목적의 첩약비 등 제외
 - 의료급여, 산업재해, 자동차보험 등 건강보험 외의 보험 제외
 2) 조사대상(2018년 기준) : 2018년 12월 중 외래방문 및 입원(퇴원)한 환자의 진료비
 3) 분석기관(2018년 기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총 2,105개 기관
 4)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2018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건강보험 보장률 계산식〉

$$\frac{\text{공단부담금}^{1)}}{\text{공단부담금}^{1)} + \text{법정본인부담금}^{2)} + \text{비급여본인부담금}^{3)}} \times 100$$

- 주 : 1) 공단부담금 = 요양급여 + (본인부담액 상한제 사후환급금 + 임신출산지원금 + 요양비 공단부담금)
 2) 법정본인부담금 = 법정본인부담금 - (본인부담액 상한제 사후환급금 + 임신출산진료비 법정본인부담금 + 요양비 본인부담금)
 3) 비급여본인부담금 = 비급여본인부담금 - 임신출산진료비의 비급여본인부담금



66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개 요

- ◆ 건강보험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한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대상자의 건강보험 보장률

주요현황

- ◆ 2018년 본인부담률 특례 혜택을 받고 있는 암 등 4대 중증질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83%로서 17년도(81.7%)보다 1.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대상자 건강보험 보장률 및 급여율(2018년)]

(단위: %)

구 분	건강보험 보장률	법정보인 부담률	비급여 본인부담률	건강보험 급여율	
				건강보험 급여율	법정보인 부담률
전체	83.0 (1.4)	8.0 (0.9)	9.0 (1.2)	92.2	7.8
암질환	79.1 (2.3)	8.0 (1.5)	12.9 (2.1)	93.6	6.4
뇌혈관질환	86.5 (0.7)	6.3 (0.4)	7.2 (0.6)	94.0	6.0
심장질환	87.6 (0.6)	6.1 (0.3)	6.3 (0.6)	94.6	5.4
희귀난치성질환	88.2 (0.8)	8.5 (0.7)	3.3 (0.4)	89.0	11.0

주 : 1) 괄호는 95% 신뢰수준의 오차한계를 나타냄.
2) 건강보험 급여율은 2018 건강보험공단 DB의 진료비 중 공단 부담금의 비중을 나타냄.
3)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2018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 4대 중증질환(산정특례대상자)은 '보건복지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이하 산정특례기준)에 제시된 암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법정보인부담금 일부※를 경감 받는 대상자를 의미함.
※ 암(5%) 및 희귀난치성질환(10%)으로 등록된 환자(등록기간 5년), 심장 및 뇌혈관 질환으로 입원하여 수술 받는 경우 30일(5%)
* 괄호(%)는 법정보인부담금의 비율을 나타냄.

67 중증질환 산정특례



개 요

- ◆ 중증질환 진료비 경감을 위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란?

- ◆ 진료비 부담이 큰 암,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심장·뇌혈관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경감해주는 제도
- ◆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확진된 경우 담당의사의 확진일이 기재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가까운 공단지사에 제출 또는 요양기관(병·의원)에 등록 신청함(심장·뇌혈관질환, 중증외상은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음).

[산정특례 경감 혜택]

구 분		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 질환	결핵	중증 화상	중증 외상	중증 치매
시행시기		2005년 9월	2005년 9월	2005년 9월	2009년 7월	2009년 7월	2009년 7월	2010년 7월	2016년 1월	2017년 10월
특례기간		5년	수술·입원 30일	수술·입원 30일	5년	5년	치료기간	1년	입원 30일	5년
진료비	본인부담	5%	5%	5%	10%	10%	0%	5%	5%	10%
	공단부담	95%	95%	95%	90%	90%	100%	95%	95%	90%

※ 기존 희귀난치성질환이 2019년 1월 1일부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으로 이원화

※ 결핵 본인부담률: 10%(‘10.1월~’16.6월), 0%(‘16.7월~현재)

※ 뇌혈관질환

· I60~I62의 중증뇌출혈 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최대 30일 적용

· I63의 뇌경색증 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 진료 중 NIHSS가 5점 이상인 경우 최대 30일 적용

※ 심장질환: 복잡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심장이식술은 받은 경우 최대 60일 적용

[연도별 중증질환 산정특례 등록인원 현황]

(2019. 12. 31. 기준, 단위: 명)

등록년도	암	희귀난치성 (~'18.)	희귀질환 (~'19.1~)	중증난치 질환 (~'19.1~)	결핵	중증화상	중증치매 (~'17.10~)
누적(계)	1,730,978	974,147	90,897	203,241	183,156	76,388	52,044
2014년	248,909	289,388	-	-	31,656	8,140	-
2015년	257,614	201,150	-	-	31,191	9,221	-
2016년	279,144	162,153	-	-	35,188	10,976	-
2017년	307,056	160,128	-	-	30,409	13,450	14,234
2018년	315,539	161,328	-	-	28,826	15,736	21,586
2019년	322,716	-	90,897	203,241	25,886	18,865	16,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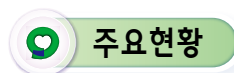
주 : 1) 삭제 건 미포함.

2) 희귀난치성에 극희귀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도 포함.

3) 심장·뇌혈관질환·중증외상은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산정특례 적용되므로 제외함.

4) 자격변동·취소·판정요류로 인한 등록자수 변동 발생할 수 있음.

5) 희귀난치성→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으로 분리('19.1~)



주요현황

[연도별 중증질환 산정특례 진료현황(2015~2019년)]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암	실수진자(명)	1,037,761	1,081,725	1,136,483	1,165,945	1,248,102
	내원일수(천일)	25,205	27,423	24,839	25,481	29,372
	진료비(억 원)	52,418	62,359	66,740	75,058	91,548
	급여비(억 원)	48,959	57,988	61,942	69,411	84,113
희귀 난치성	실수진자(명)	650,999	695,006	746,16	790,239	-
	내원일수(천일)	21,703	23,812	22,311	22,065	-
	진료비(억 원)	36,371	41,402	44,606	46,097	-
	급여비(억 원)	32,437	36,870	39,717	41,004	-
희귀 질환	실수진자(명)	-	-	-	-	297,119
	내원일수(천일)	-	-	-	-	4,231
	진료비(억 원)	-	-	-	-	12,840
	급여비(억 원)	-	-	-	-	11,422
중증난치 질환	실수진자(명)	-	-	-	-	583,472
	내원일수(천일)	-	-	-	-	21,025
	진료비(억 원)	-	-	-	-	42,603
	급여비(억 원)	-	-	-	-	37,831
뇌혈관	실수진자(명)	43,585	55,169	59,710	62,970	68,576
	내원일수(천일)	738	923	1,005	1,012	1,118
	진료비(억 원)	4,203	5,568	6,140	6,752	8,495
	급여비(억 원)	3,955	5,209	5,720	6,266	7,854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심장 질환	실수진자(명)	85,067	91,673	93,553	95,781	104,909
	내원일수(천일)	629	692	664	676	750
	진료비(억 원)	8,373	10,278	10,802	11,959	14,388
	급여비(억 원)	7,906	9,603	10,036	11,064	13,241
중증 화상	실수진자(명)	10,152	13,520	15,114	16,326	22,177
	내원일수(천일)	204	240	250	240	307
	진료비(억 원)	379	427	501	479	643
	급여비(억 원)	352	393	437	417	563
결핵	실수진자(명)	74,447	71,322	62,807	51,350	47,442
	내원일수(천일)	1,288	1,260	919	800	788
	진료비(억 원)	1,498	1,614	1,672	1,694	1,933
	급여비(억 원)	1,318	1,467	1,617	1,647	1,883
중증 외상	실수진자(명)	-	1,285	1,464	2,457	3,529
	내원일수(천일)	-	22	25	41	55
	진료비(억 원)	-	164	207	387	651
	급여비(억 원)	-	154	192	357	603
중증 치매	실수진자(명)	-	-	6,867	30,549	41,776
	내원일수(천일)	-	-	8	280	507
	진료비(억 원)	-	-	24	470	835
	급여비(억 원)	-	-	22	414	732
가정 간호	실수진자(명)	-	-	54,298	66,866	88,524
	내원일수(천일)	-	-	475	550	818
	진료비(억 원)	-	-	438	488	720
	급여비(억 원)	-	-	374	414	605

- 주 : 1) 암환자 본인부담률 : 10%(2005.9월~2009.11월), 5%(2009.12월~현재)
2) 희귀난치성...2009년 7월 등록제 실시에 따라 외래 20%에서 입원/외래 10%로 변경됨
3) 희귀질환...「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2019.1.1.부터 주2)희귀난치성→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으로 분리, 본인부담률 10%
4) 중증난치질환 ... 2019.1.1.부터 주2)희귀난치성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으로 분리, 본인부담률 10%
5) 뇌혈관 본인부담률 : 10%(2005.9월~2009.12월), 5%(2010.1월~현재)
6) 심장질환 본인부담률 : 10%(2005.9월~2009.12월), 5%(2010.1월~현재)
7) 중증화상 본인부담률 : 5%(2010.7월~현재)
8) 결핵 본인부담률 : 10%(2009.7월~2016.6월), 0%(2016.7월~현재)
9) 중증외상 본인부담률 : 5%(2016.1월~현재)
10) 중증치매본인부담률 : 10%(2017.10월~)
11) 가정간호본인부담률 : 질환별 0% ~ 20% 적용
12) 지급기준이며, 자격변동·취소 등으로 과거 등록자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13)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사업실

68 본인부담금 상한제



개 요

- ◆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본인부담금상한제의 의미 및 연도별 지급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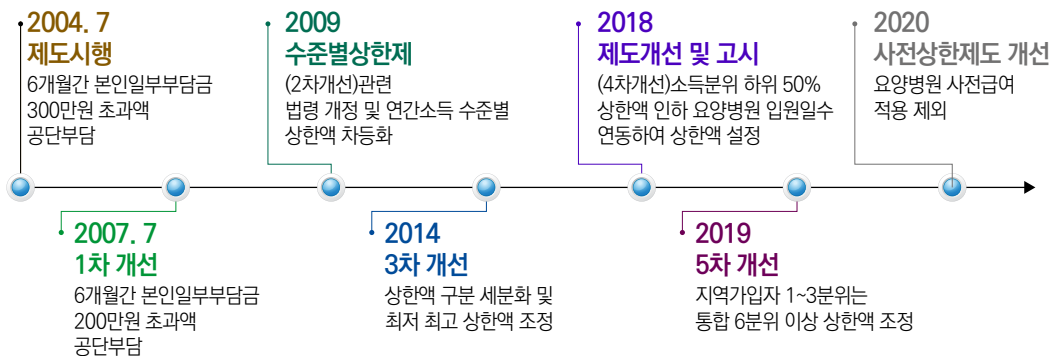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개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을 가구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부담이 가능한 정도로 적정 관리
- ◆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연간(1.1~12.31)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
 -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상급병실 입원료(2인실·3인실),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은 제외



본인부담금 상한제 제도 변화



- ◆ (2004.7.1) 6월간 본인부담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
- ◆ (2007.7.1) 6월간 본인부담액이 2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
- ◆ (2009.1.1) 진료 받은 해 1년간 연평균 보험료 수준에 따라 소득 계층별로 상한액을 차등 적용함.
 - ※ 보험료 수준이 하위 50%에 속하면 연 200만 원, 중위 30% 300만원, 상위 20%는 400만 원의 상한액을 적용

- ◆ (2014.1.1) 소득수준별로 상한액 구간 세분화(3→7구간), 최저상한액 하향(200→120만원) 및 최고 상한액(400→500만원) 상향 조정함.
- ◆ (2018.1.1) 저소득층의 상한액을 인하(1~3구간)하고 요양병원 입원일수에 따라 상한액 차등 적용함.
- ◆ (2019.1.1) 지역 최저보험료 대상자는 상한액 1구간 적용하고 고소득층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4~7구간)
- ◆ (2020.1.1) 요양병원에서 상한제 사전급여 적용을 제외하고, 수진자에게 직접 사후환급

〈참고 1〉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연도	요양병원 입원일수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저소득 →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04년 7월		6개월간 300만원(제도시행)						
2007년 7월		6개월간 200만원						
2009년 1월		연간 200만원(하위 50%)			300만원(중위 30%)		400만원(상위 20%)	
2014년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2015년		121만원	151만원	202만원	253만원	303만원	405만원	506만원
2016년		121만원	152만원	203만원	254만원	305만원	407만원	509만원
2017년		122만원	153만원	205만원	256만원	308만원	411만원	514만원
2018년	120일이하	80만원	100만원	150만원	260만원	313만원	418만원	523만원
	120일초과	124만원	155만원	208만원				
2019년	120일이하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80만원	350만원	430만원	580만원
	120일초과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2020년	120일이하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81만원	351만원	431만원	582만원
	120일초과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참고 2〉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2019. 12. 31. 기준)

구분	구간	분위	2019년(고시2020-82호)		상수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	월별 직장보험료 구간	
81만원/125만원 (하위 10%)	1	1	9,850원 이하	44,250원 이하	0.22
101만원/157만원 (하위 11%~30%)	2	2	9,850원 초과~13,550원 이하	44,250원 초과~55,420원 이하	0.24
		3	13,550원 초과~16,570원 이하	55,420원 초과~61,580원 이하	0.27
152만원/211만원 (하위 31%~50%)	3	4	16,570원 초과~28,600원 이하	61,580원 초과~70,670원 이하	0.40
		5	28,600원 초과~52,510원 이하	70,670원 초과~83,360원 이하	0.63
280만원 (하위 51%~70%)	4	6	52,510원 초과~81,230원 이하	83,360원 초과~99,550원 이하	0.82
		7	81,230원 초과~109,710원 이하	99,550원 초과~122,790원 이하	0.89
350만원 (하위 71%~80%)	5	8	109,710원 초과~152,180원 이하	122,790원 초과~157,480원 이하	0.97
430만원 (하위 81%~90%)	6	9	152,180원 초과~222,350원 이하	157,480원 초과~216,180원 이하	1.03
580만원 (하위 91% 이상)	7	10	222,350원 초과	216,180원 초과	1.03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 방법

사전급여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같은 요양기관에서 부담한 연간(1.1~12.31)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 최고금액을 초과하면 수진자는 최고 상한액까지만
부담하고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음.

※ 2020년부터 요양병원 제외

- '14년 500만원, '15년 506만원, '16년 509만원, '17년 514만원, '18년 523만원, '19년
580만원, '20년 582만원 초과

사후환급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공단이
그 초과액을 부담하여, 수진자에게 직접 지급

상한액기분보험료 결정 이전(진료 후 다음해 7월까지): **최고상한액 초과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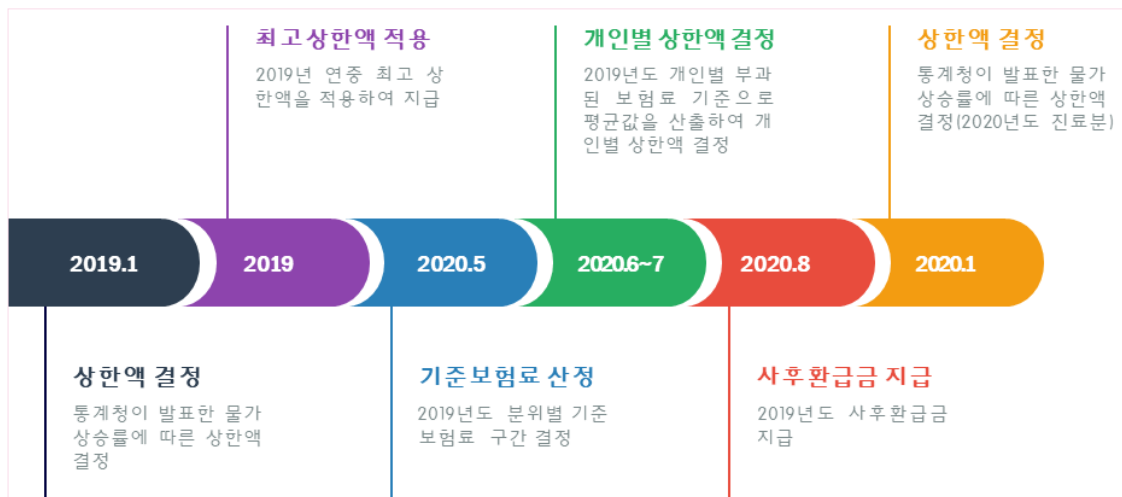
사후환급금 = 본인일부부담금 총액 - 최고상한액 - 사전상한액 초과금 - 기지급금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후(진료 후 다음해 8월 이후): **본인부담상한액과 최고상한액 차액지급**

사후환급금 = 본인일부부담금 총액 - 본인부담상한액 - 사전상한액 초과금 - 기지급금



본인부담금 상한제 선정 순서도(2019년도 기준)



주요현황

- ◆ 현재 7구간 수준별 상한제 시행('14년) 이후 2015~2019년 연평균 사전지급액은 10.9%, 사후환급액은 34.8%, 총 지급액은 28.2% 증가함.
- ◆ 2019년 본인부담금상한제 총 지급건수 2,110천 건, 총 지급액 1조 7037억 원(사전지급액: 2,596억원, 사후환급액: 1조 4,441억 원) 지급
-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일환인 '18년 개선된 상한제도* 적용으로 2019년에는 전년대비 총 지급액은 21.4% 증가하였으며, 사전지급액은 8.3% 감소, 사후환급액은 28.9% 증가

* 소득하위 50% 의료비상한액 인하 1분위(120→80), 2분위(150→100), 3·4분위(200→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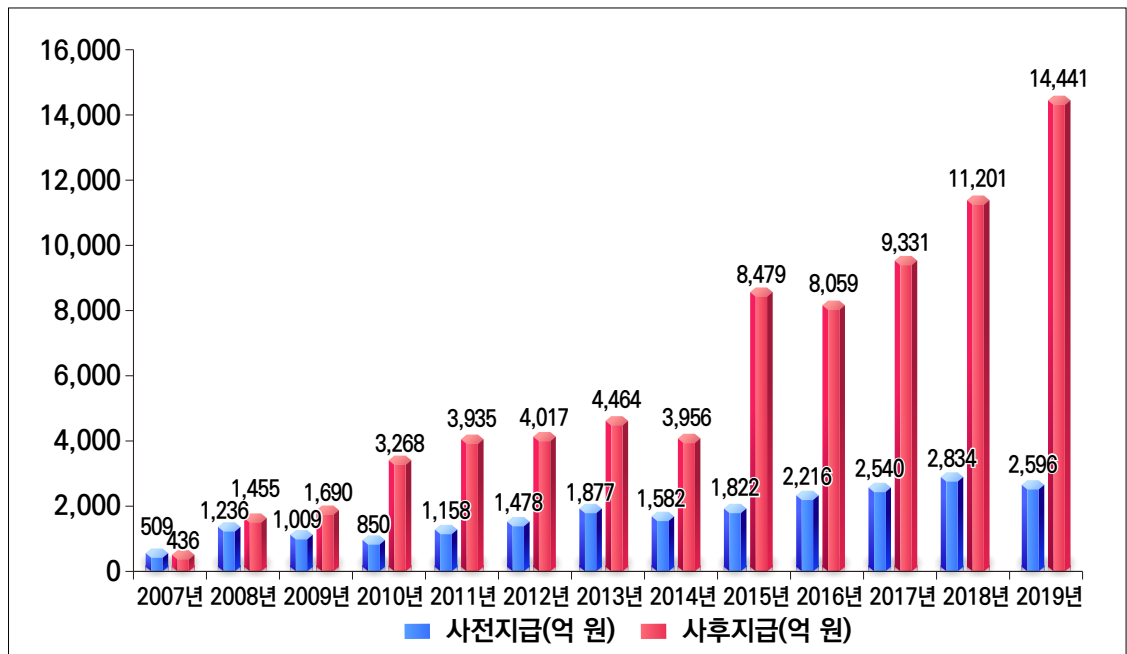
[연도별 본인부담금상한제 급여 지급 현황(2008~2019년)]

(단위: 건, 억 원)

구 분	본인부담금상한제 사전지급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		계(사전지급+사후환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7년	66,633	509	111,134	436	177,767	945
2008년	192,125	1,236	512,391	1,455	704,516	2,691
2009년	181,303	1,009	550,305	1,690	731,608	2,699
2010년	163,138	850	491,392	3,268	654,530	4,118
2011년	236,743	1,158	690,604	3,935	927,347	5,093
2012년	311,420	1,478	725,274	4,017	1,036,694	5,495
2013년	408,717	1,877	777,003	4,464	1,185,720	6,341
2014년	354,425	1,582	697,875	3,956	1,052,300	5,538
2015년	390,722	1,822	922,441	8,479	1,313,163	10,301
2016년	464,520	2,216	898,324	8,059	1,362,844	10,275
2017년	526,472	2,540	949,672	9,331	1,476,144	11,871
2018년	562,357	2,834	1,149,572	11,201	1,711,929	14,035
2019년	473,631	2,596	1,636,216	14,441	2,109,847	17,037

주)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사업실

[본인부담금상한제 사전·사후 지급금 추이]



69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개요

- ◆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건강 보호 및 최후의 의료 안전망 역할 수행



추진경과

- ◆ ('13.8월~'17년)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시행
- ◆ ('18. 1월)「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18.1.16.)
- ◆ ('18. 1~6월)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시행
- ◆ ('18. 7월~)「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18.7.1.)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 및 본사업 시행



지원기준

- ◆ (대상질환) 모든 질환(외래는 6대 중증질환* 중심)
 - * 6대 중증질환: 암, 심장, 뇌혈관, 희귀질환, 희귀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 * 6대 중증질환 이외 외래진료비는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
- ◆ (지원항목) 비급여 본인부담금(치료외적 비급여 제외)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선별·예비급여 등)
- ◆ (지원비율)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 중심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의 경우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 비율(20% 초과)을 고려하여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
- ◆ (재산기준) 5억4천만원 이하
- ◆ (의료비 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법정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선별 급여 본인부담)이 15% 초과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계층은 의료비가 100만원 초과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자는 의료비 200만원 초과시 지원
- ◆ (개별심사)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실무위원회에서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추가 지원
 - * 중위소득 100~200%이하, 외래 중증질환 외 진료, 고액의료비, 질환 특성 등
- ◆ (지원한도) 연간 최대 2천만원
 - * 다만, 추가 필요성 인정시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 추가 지원



연도별 집행현황

(2019. 12. 31. 기준,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지원건수	4,550	19,974	19,291	14,752	11,571	8,687	11,142
지원금액	15,018	57,999	58,961	44,056	31,607	21,044	25,912



질환별·소득수준별 지급 현황

(2019. 12. 31. 기준,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총 계		상반기		하반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1,142 (100.0)	25,912 (100.0)	5,582	13,043	5,560	12,869
질환별	4대 중증질환	5,230 (47.0)	14,699 (56.7)	2,603	7,389	2,627	7,310
	중증화상	83 (0.7)	445 (1.7)	46	193	37	252
	그 외 질환	5,829 (52.3)	10,768 (41.6)	2,933	5,461	2,896	5,307
소득 수준별	수급자, 차상위	4,148 (37.2)	6,455 (24.9)	2,089	3,266	2,059	3,189
	중위소득 50% 이하	2,616 (23.5)	5,237 (20.2)	1,359	2,795	1,257	2,442
	중위소득 50~85%	2,944 (26.4)	7,848 (30.3)	1,459	3,810	1,485	4,038
	중위소득 85~100%	726 (6.5)	2,267 (8.8)	353	1,138	373	1,129
	중위소득 100~200%	708 (6.4)	4,105 (15.8)	322	2,034	386	2,071

주)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사업실



70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개요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제도 소개 및 주요 추진경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란?

- ◆ 입원환자 간호와 간병을 병원의 책임 하에 통합된 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해소하고, 감염관리 등 입원 서비스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시행

[의료기관 종별·지역별 지정 현황]

(2020. 6. 30. 기준, 단위: 개소, 개)

구분		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충청	광주 전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계	기관	556	108	138	9	53	57	86	100	5
	병동	1,261	297	378	15	102	99	156	208	6
	병상	53,400	12,170	16,143	632	4,384	4,341	6,234	9,267	229
상급	기관	42	13	8	1	4	5	5	6	-
종합	병동	187	60	59	2	15	17	16	18	-
병원	병상	8,157	2,706	2,635	72	690	647	698	709	-
종합 병원	기관	231	38	61	5	23	29	28	44	3
	병동	619	137	200	8	50	50	56	114	4
	병상	27,362	5,997	8,894	357	2,120	2,151	2,368	5,316	159
병원	기관	283	57	69	3	26	23	53	50	2
	병동	455	100	119	5	37	32	84	76	2
	병상	17,881	3,467	4,614	203	1,574	1,543	3,168	3,242	70

[의료기관 및 시설 증가 추이]

(2020. 6. 30. 기준, 단위: 개소, 개)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지정기관수	13	28	112	300	400	495	534	556
병동수	29	50	170	451	647	898	1,164	1,261
병상수	1,423	2,363	7,443	18,646	26,381	37,288	49,067	53,400

주 : 1) 사업형태 : 2013~2014년은 국고시범사업, 2015년부터는 건강보험을 적용
2)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지원실

테마 1

테마 2

테마 3

건강
보험
및
노인
장기
요양
보험

테마 4



개요

- ◆ 노인틀니·임플란트, 치석제거,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기준 등 제도 소개 및 적용 현황



제도 소개

- ◆ 노인의 저작기능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
- ◆ 국민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자 연1회 치석제거 건강보험 급여화
- ◆ 구순구개열 환자의 적절한 안면성장과 치열발육을 위해 성장발달 단계에 따른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치료와 관리를 위해 급여화
- ◆ 중복급여 예방 등 한정된 재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등록제 운영

[급여적용 대상]

적용시기	적용 대상
'12.7월~	(틀니) 75세 이상 노인,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
'13.7월~	(틀니) 75세 이상 노인, 부분틀니 급여화 (치석제거) 만 20세 이상,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로 급여 확대 ※ (기존 보험적용) 치료 등 후속처치가 있는 경우
'14.7월~	(임플란트) 75세 이상 노인 급여화
'15.7월~	(틀니, 임플란트) 70세 이상 노인으로 급여확대, 금속상 완전틀니 급여화
'16.7월~	(틀니, 임플란트) 65세 이상 노인으로 급여 확대
'17.7월~	(치석제거) 19세 이상으로 급여 확대
'17.11월~	(틀니) 본인부담률 30%로 경감
'18.1월~	(치석제거) 매년 1.1~12.31 적용기간 변경
'18.7월~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30%로 경감
'19.3월~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전체 연령 급여 적용

[급여적용 기준]

구분		대상자	적용기간 및 횟수	본인부담률
틀니	완전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7년에 1회 적용	30%, 희귀난치성질환자(5%), 만성질환자(15%)
	부분	부분 무치악 환자		
임플란트		부분 무치악 환자	1인당 2개 인정(평생)	30%, 희귀난치성질환자(10%), 만성질환자(20%)
치석제거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 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	1년에 1회 (매년 1.1 ~ 12.31)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본인부담률 적용 예) 의원 30%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로 진단받은 환자	7개 교정치료와 각 교정치 료 내 진료단계 (평생)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본인부담률 적용 (참4 다-주.)만 종별가산제외



주요현황

- ◆ 2018년 노인틀니 등록자는 34만 2,688명에서 2019년 32만 1,438명으로 6.2% 감소하였으며, 임플란트는 2018년 46만 6천명에서 2019년 54만 1천명으로 16% 증가함.
- ◆ 치석제거의 경우 2018년 855만 건에서 2019년 934만 건으로 증가함.
- ◆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화로 2019년 1,389명 등록함.

[치과 시술대상자 등록 현황]

(단위: 명, 건)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노인틀니	등록자수		328,512	342,688	321,438
	등록건수	완전틀니	162,364	176,516	163,865
		부분틀니	266,234	272,996	252,810
임플란트	등록자수		423,342	466,217	541,419
	등록건수		657,599	716,520	864,402
치석제거건수			8,190,027	8,559,888	9,346,840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 정형치료	등록자수		-	-	1,389
	등록건수		-	-	741

주 : 1) 연도 말 기준

2) 반올림 관계로 총계와 내용의 합이 다를 수 있음.

3)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사업실



| 테마3 |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

Ⅲ. 건강보험 의료이용

72. 건강보험 총 진료비	162
73. 의약부문별 진료비(요양기관 종별, 의과 입원/ 외래별)	163
74. 질병별 다빈도 상병(급여)	164

72 건강보험 총 진료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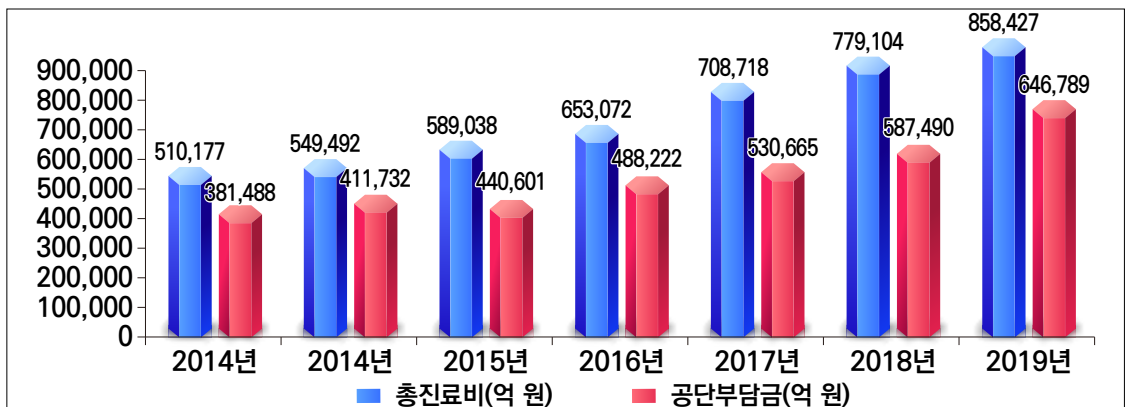
- 연도별 건강보험 총 진료비 및 공단부담금 증가 추이



주요현황

-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3년 51조 1백억 원에서 2019년 85조 8천 4백억 원으로 2013년 대비 약 1.7배 증가하였으며 급여비 역시 약 1.7배 증가함.

[연도별 건강보험 총 진료비 현황(2013~2019년)]



(단위 : 억 원,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 진료비		510,177	549,492	589,038	653,072	708,718	779,104	858,427
의료 기관	소계	390,713	423,537	457,480	508,807	555,439	613,641	680,868
	입원	177,253	192,144	212,254	238,437	260,652	288,606	319,617
	외래	213,460	231,394	245,226	270,370	294,786	325,035	361,251
약 국	소계	119,465	125,955	131,559	144,265	153,279	165,464	177,558
	처방	119,399	125,888	131,489	144,191	153,205	165,385	177,488
	직접	66	67	70	75	74	78	69
공단부담금		381,488	411,732	440,601	488,222	530,665	587,490	646,789
(급여율)		74.8	74.9	74.8	74.8	74.9	75.4	75.3
본인부담금		128,690	137,760	148,437	164,850	178,053	191,614	211,638
(부담률)		25.2	25.1	25.2	25.2	25.1	24.6	24.7

주 : 1) 진료일기준, 건강보험급여실적(의료급여, 비급여 제외)

2) 반올림 관계로 총계와 합계가 다를 수 있음.

3)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19 건강보험 주요통계



개 요

- ◆ 요양기관종별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 및 종별 증감 추이



주요현황

- ◆ 요양기관종별 총 진료비는 2018년 77조 6천 5백억 원에서 2019년 86조 4천 7백억 원으로 11.4% 증가 하였으며 기관 당 진료비는 2018년 8억 3천만 원에서 2019년 9억 1천만 원으로 9.4% 증가함.

[요양기관종별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2018~2019년)]

(단위 : 억 원, 백만 원)

구 분	진 료 비(억 원)			기관당 진료비(백만 원)		
	2018년	2019년	증감률(%)	2018년	2019년	증감률(%)
총 계	776,583	864,775	11.4	833	912	9.4
종합병원급	226,149	299,467	12.5	75,396	84,120	11.6
상급종합	140,333	450,998	7.6	334,125	359,519	7.6
종합병원	125,817	148,470	18.0	40,456	47,283	16.9
병 원 급	131,088	143,987	9.8	3,673	3,937	7.2
병 원	69,596	77,411	11.2	4,751	5,199	9.4
요양병원	55,262	59,222	7.2	3,542	3,755	6.0
치과병원	2,652	3,160	19.2	1,119	1,322	18.2
한방병원	3,578	4,195	17.2	1,166	1,192	2.2
의 원 급	213,404	242,066	13.4	335	373	11.4
의 원	150,828	169,856	12.6	476	523	9.9
치과의원	39,021	46,124	18.2	221	257	16.3
한 의 원	23,554	26,087	10.8	165	181	9.9
보건기관 등	1,647	1,642	-0.3	47	47	-0.3
보건기관	1,640	1,635	-0.3	47	47	-0.3
조 산 원	6	6	-2.0	31	33	8.4
약 국	164,295	177,613	8.1	744	790	6.1

주 : 1) 수진기준, 2020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 건강보험(의료급여·비급여 제외) 진료실적 기준
2)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19 건강보험 주요통계

74 질병별 다빈도 상병 급여



개요

- ◆ 입원/외래를 구분하여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실적 중 가장 많이 발생한(진료인원 기준) 질환 상위 15위



주요현황

- ◆ 건강보험 진료실적을 기준으로 의료기관에 가장 많이 입원한 질환은 분만을 제외하고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노년 백내장(349,427명), 다음으로는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308,637명)으로 나타남.
- ◆ 외래 다빈도 상병은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1천 6백 8십만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급성 기관지염이 1천 6백 8만여 명으로 나타남.

[질병소분류별 건강보험 다빈도 상병 상위 15위 현황(2019년)]

(단위 : 명)

순위	입원		외래	
	상병명	진료인원	상병명	진료인원
1	(H25)노년 백내장	349,427	(K05)치은염 및 치주질환	16,850,437
2	(J18)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308,637	(J20)급성 기관지염	16,086,523
3	(A09)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301,128	(J30)혈관운동성 및 알러지성 비염	7,044,504
4	(Z38)출산장소에 따른 생존출생	264,079	(K02)치아우식	6,450,381
5	(M51)기타 추간판 장애	261,121	(I10)본태성(원발성) 고혈압	6,273,197
6	(K64)치핵 및 항문주위 정맥혈전증	160,944	(J06)다발성 및 상세불명부위의 급성 상기도 감염	5,656,029
7	(M17)무릎관절증	131,256	(M54)등 통증	5,382,583
8	(M75)어깨병변	127,546	(K29)위염 및 십이지장염	5,217,454
9	(M48)기타 척추병증	124,888	(J03)급성편도염	5,109,062
10	(F00)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	121,154	(L23)알러지성 접촉피부염	4,664,219
11	(J10)확인된 계절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116,643	(K21)위-식도역류병	4,585,693
12	(I63)뇌경색증	107,399	(H10)결막염	4,571,489
13	(R42)어지럼증 및 어지럼	105,463	(J02)급성인두염	4,389,435
14	(I20)협심증	101,152	(K04)치수 및 근단주위 조직의 질환	4,217,081
15	(J20)급성기관지염	88,130	(A09)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4,216,717

주 : 1) 수진기준, 한의제외, 약국제외, 분만질환 제외, 2020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

2)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실

| 테마3 |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

Ⅳ. 건강보험 급여

75. 건강보험료 대비 급여비	166
76. 현물 및 현금 급여	167
77. 임신·출산진료비	168
78. 장애인 보장기기	170
79. 요양비.....	172

75 건강보험료 대비 급여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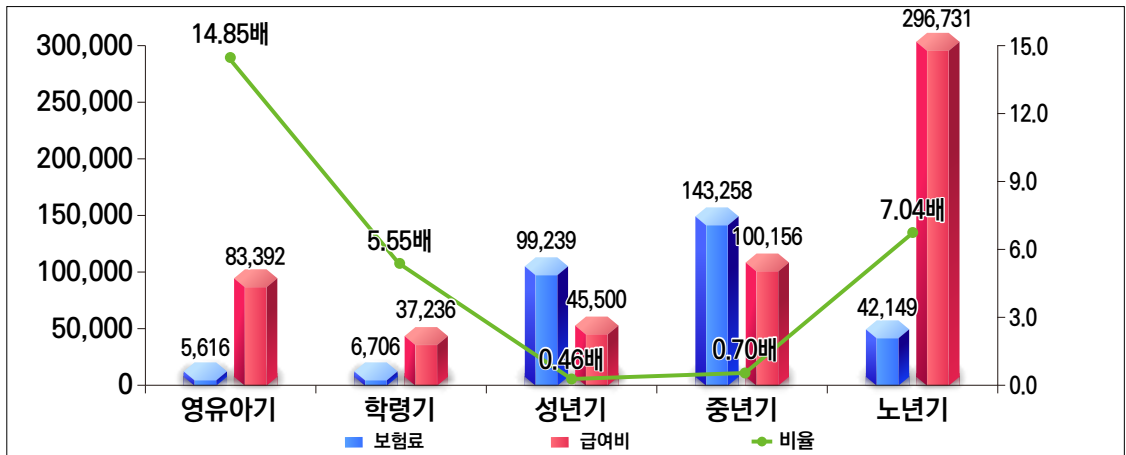
- ◆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1인당 월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현황



주요현황

- ◆ 2019년 1인당 월평균 보험료 부과금액은 93,789원, 보험급여비는 106,562원으로 1.14배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 영유아기, 학령기, 노년기에서 각각 14.85배, 5.55배, 7.04배로 보험료 보다 급여비 혜택이 많았고, 성년기 및 중년기에서 각각 0.46배, 0.70배로 급여비 혜택보다 보험료 부담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전체 적용인구 1인당 생애주기별(5구간) 월보험료 대 급여비 현황(원)]



[건강보험료 대비 급여비 현황(2019년)]

(단위: 천 명, 원)

구분	전체	영유아기 (만0-6세)	학령기 (만7-18세)	성년기 (만19-39세)	중년기 (만40-64세)	노년기 (만65세 이상)
전체적용인구	46,906	2,186	5,239	13,325	19,060	7,097
월보험료(A)	93,789	5,616	6,706	99,239	143,258	42,149
월급여비(B)	106,562	83,392	37,236	45,500	100,156	296,731
보험료대급여비(B/A)	1.14	14.85	5.55	0.46	0.70	7.04

- 주 : 1) 건강보험료는 연내 부과액 기준(경감보험료 반영). 지역은 세대별 배분, 직장은 가입자만 배분
 2) 급여비는 현금급여(요양비, 임신출산진료비 등), 건강검진비 포함됨.
 3)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실, 2019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76 현물 및 현금급여



개 요

- ◆ 공단이 지출한 건강보험 보험급여비의 연도별 종류별 세부 추이



보험급여란?

-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이 현물(병·의원 진료 등의 의료서비스) 또는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것.



주요현황

[연도별 현물 및 현금급여 지급 현황(2016~2019년)]

(단위: 만 건, 억 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계	143,428	508,907	145,272	546,249	147,525	616,696	151,696	687,286
현물급여	143,278	497,055	145,101	533,217	147,317	601,411	151,403	668,308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상한제사전지급)	139,596 (46)	483,239 (2,216)	141,329 (53)	518,225 (2,540)	143,485 (56)	585,836 (2,834)	147,255 (47)	651,674 (2,596)
■ 건강검진비	3,682	13,816	3,772	14,992	3,832	15,575	4,147	166,341
현금급여	150	11,853	171	13,032	209	15,285	293	18,978
■ 요양비	47	540	63	768	79	1,004	116	1,460
■ 장애인보조기기	13	1,101	13	1,065	14	1,192	13	1,105
■ 본인부담액상한제 사후환급	90	8,059	95	9,331	116	11,201	164	14,440
■ 임신출산진료비	-	2,154	-	1,868	-	1,888	-	1,973

- 주 : 1) 지급기준이며, 반올림 관계로 총계와 내용의 합이 다를 수 있음.
 2) 본인부담상한제는 2004.7.1. 신설, 사전지급은 요양급여비에 포함되며, 사후환급은 현금급여로 구분
 3) 건강검진비는 2010년부터 건강검진 실시 기준 변경으로 주요 검진에 따른 진료건수를 합산
 4) 요양비: 15년 통계(요양비 지급 현황) 참조
 5) 출산비, 만성신부전,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대여료, 자가도뇨,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양압기는 요양비에 포함됨.
 6) 임신출산 진료비 건수는 신청자 수입(예탁금 형식으로 진료건수 산출 불가), 13년 통계 참조
 7)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자 수는 지급건 수 산정에서는 제외
 8)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2019 건강보험 주요통계

77 임신·출산 진료비



개 요

- ◆ 산전 진찰, 분만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소개 및 지급 현황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임신·출산이 확인된 지원 신청자에게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



지원금액

- ◆ 임신 1회당 60만 원 지원(다태아 임신부는 100만원) (2019.1.1. 시행)
- ◆ 2019년 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에 따라 선정된 분만 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2016.7.1. 시행)



신청방법

- ◆ (방문신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를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급받아 카드사(BC(회원사 은행영업점)·삼성·롯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 ◆ (온라인신청)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임신·출산확인정보를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입력한 후, 임신부가 공단·카드사 홈페이지(어플) 또는 전화로 지원금 및 카드 신청(2단계)

〈온라인 신청 중 유선 바우처 신청 문의처〉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BC카드 회원은행 중 농협(1644-4000),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1588-6200), 우체국(1599-1900), 우리카드(1588-9955)

〈카드사 임신·출산 진료비 전담접수처〉

- ◆ BC카드 :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SC은행, 우체국,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정북은행
- ◆ 삼성카드 : 새마을금고,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센터서비스센터, 삼성카드 지점
- ◆ 롯데카드 : 롯데백화점카드센터, 롯데카드지점



지원범위

- ◆ 임신부: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 비용 중 임신부 본인이 부담한 금액, 약국에서는 사용 불가
- ◆ 1세 미만 영유아: 요양기관에서 받은 진료 비용 및 진료에 따른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주요현황

- ◆ 2019년 지원 신청자 수는 36만 6천 명으로 전년 대비 3.39% 증가
- ◆ 2008년 12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지급액은 2조 951억 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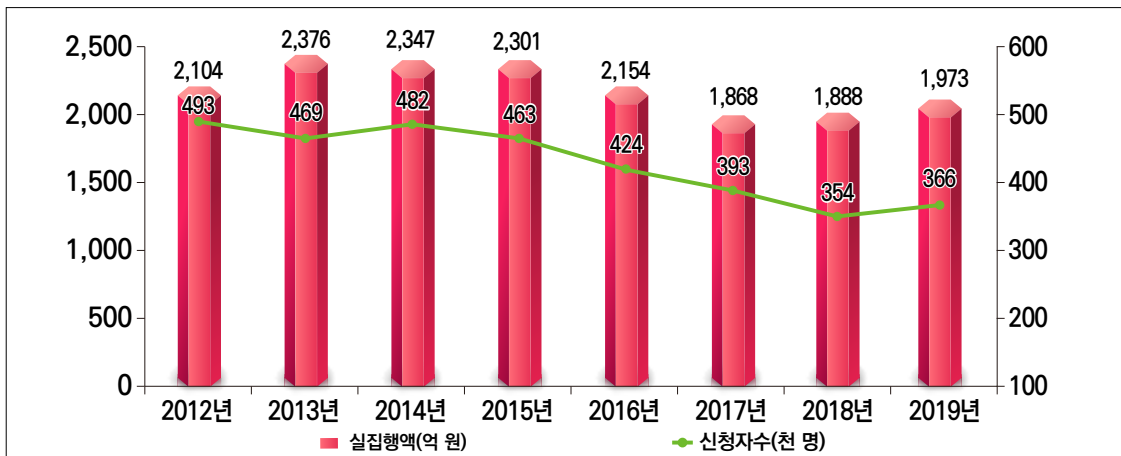
[연도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지급 현황]

(단위: 천 명, 억 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신청자수	493	469	482	463	424	393	354	366
실집행액	2,104	2,376	2,347	2,301	2,154	1,868	1,888	1,973

주)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사업실

[연도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 및 지원 신청자 추이]



78 장애인 보조기기



개 요

-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제도 소개 및 주요 지급 현황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제도란?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지체장애인용, 뇌병변장애인용, 시각·청각·언어장애인용 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 금액의 일부*를 급여비로 지급

* 공단 부담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7 제2호”의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등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확대 주요현황]

시행년도	보험급여 주요 현황
1997년	■ 장애인보조기기 중 지팡이 등 6종 보험급여 실시
1999년	■ 보조기기 보험급여 항목 → 74개 품목으로 확대
2005년	■ 보조기기 보험급여 항목 77개 품목으로 확대 및 기준금액 인상
2008년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정비
2010년	■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여확대 및 전동보조기기 배터리 보험급여 실시
2011년	■ 현재 보조기기 보험급여 총 78개 품목 실시 중
2015년	■ 2015.7.1.부터 20→10% 본인부담률경감, 2015.11.15.부터 5품목 급여확대
2018년	■ 2018.7.2.부터 3품목 급여확대 총 88개 품목 보험급여 실시
2019년	■ 2019.7.1.부터 5품목 급여확대(1,2급→심한), 2019.10.24.부터 2개품목 기준금액인상 및 내구연한 단축



주요현황

[장애인보조기기 유형별 주요 지급 현황(2019년)]

(단위: 건, 백만 원, %)

구분	2019년			
	품목	건수	금액	비율
계	합계	131,564	110,539	100.0
1	보청기	57,119	67,304	60.9
2	전동스쿠터	8,200	12,372	11.2
3	의지·보조기	15,222	9,030	8.2
4	수동휠체어	15,581	7,257	6.6
5	전동휠체어	2,525	4,782	4.3
6	맞춤형교정용신발	12,436	2,807	2.5
7	이동식전동리프트	719	1,633	1.5
8	욕창예방방석·매트리스	5,369	1,488	1.3
9	전동보조기기 전지	7,574	1,098	1.0
10	자세보조용구	814	1,001	0.9
-	그외 기타	6,005	1,767	1.6

- 2019년 지급액 높은 순

: 보청기(60.9%), 전동스쿠터(11.2%),

의지·보조기(8.2%), 수동휠체어(6.6%)등

주 : 1) 전·후방 보행보조차, 욕창예방방석·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는 2015.11.15.부터 급여 시행
2) 기타보조기기: 의안, 저시력안경, 돋보기, 콘택트 렌즈, 망원경, 흰지팡이, 인공후두, 지팡이, 목발

[연도별 장애인보조기기 유형별 지급 현황(2015~2019년)]

(단위: 건, 백만 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83,077	46,324	131,738	110,077	129,193	106,487	137,685	119,224	131,564	110,539
지체 · 뇌병변 지체	전동휠체어	2,647	4,752	2,681	4,932	2,529	4,788	2,783	5,270	2,525	4,782
	전동스쿠터	7,315	10,519	7,561	11,169	7,636	11,542	8,193	12,378	8,200	12,372
	자세보조용구	697	765	808	1,014	851	1,047	780	958	814	1,001
	휠체어	14,967	6,109	18,313	8,225	17,245	7,462	15,916	7,043	15,581	7,257
	다리의지	2,823	3,961	2,755	4,655	2,766	4,152	2,825	4,437	2,809	4,372
	다리보조기	8,656	2,784	9,214	3,661	10,061	3,959	9,689	3,841	9,708	3,841
	맞춤형교정용신발	12,166	2,300	11,648	2,708	12,061	2,724	11,309	2,554	12,436	2,807
	팔의지	1,142	461	1,104	515	1,030	441	1,058	458	1,014	438
	척추보조기	975	302	1,094	372	1,462	482	866	273	888	278
	팔보조기	730	88	814	115	834	111	829	111	704	90
	지팡이	1,075	18	1,464	27	1,902	34	1,644	30	1,675	30
	골반보조기	21	2	26	4	46	5	34	4	99	11
	목발	68	1	86	2	75	1	75	1	79	1
	전방보행보조차	4	1	171	8	178	8	211	9	149	7
	후방보행보조차	3	1	189	54	216	59	184	50	199	54
	이동식전동리프트	7	16	471	1,092	551	1,255	531	1,208	719	1,633
	욕창예방매트리스	47	17	2,699	996	2,355	844	1,928	690	2,096	748
	욕창예방방석	60	14	1,803	433	1,455	329	2,003	452	3,273	740
시각	의안	2,266	669	2,849	1,824	2,750	1,590	2,680	1,553	2,651	1,535
	저시력안경	765	64	816	82	800	71	811	72	739	66
	돋보기	205	16	257	24	243	21	275	24	234	20
	콘택트렌즈	51	3	61	5	59	4	58	4	51	4
	망원경	12	1	13	1	17	1	13	1	13	1
	흰지팡이	143	2	142	2	154	2	88	1	110	2
청각	보청기	20,540	12,648	58,235	67,094	54,879	64,499	65,257	76,661	57,119	67,304
언어	인공후두	118	51	104	55	116	52	103	47	105	47
기타	전동보조기기 전지	5,574	759	6,360	1,008	6,922	1,004	7,542	1,094	7,574	1,098

주 : 1) 2015.11.15.부터 욕창예방(방석, 매트리스), 이동식리프트, 지지워커(전, 후방) 5개 품목 급여확대
2)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사업실

79 | 요양비



개 요

◆ 건강보험 현금급여 중 요양비의 세부 유형별 지급 추이

※ 요양비: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출산한 경우에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주요현황

◆ 건강보험 현금급여 중 요양비 건수는 2014년 11만 5천 건에서 2019년 116만 건으로 약 10.1배 증가 하였으며, 요양비 지급액은 약 6.6배 증가함.

[연도별 요양비 유형별 지급현황(2014~2019년)]

(단위: 천 건, 백만 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요양비 전체	115	22,266	144	23,617	466	53,950	632	76,793	791	100,388	1,160	145,950
출산비	0.1	33	0.1	32	0.1	26	0.1	25	1	25	1	19
만성신부전증요양비	23	12,226	22.7	10,847	22	9,230	22	10,384	21	9,337	22	9,302
가정산소치료	74	8,017	84	9,093	94	10,250	127	15,272	168	21,938	198	27,366
당뇨병소모성재료	17	1,451	36	2,847	326	21,948	435	29,022	522	39,585	600	56,546
자가도뇨소모성재료	0.9	539	1.2	798	1.0	982	6.2	3,717	11	7,029	15	10,004
인공호흡기	-	-	-	-	22.9	11,514	34	17,188	38	19,503	45	22,886
기침유발기	-	-	-	-	-	-	8	1,185	10	1,352	11	1,468
양압기	-	-	-	-	-	-	-	-	20	1,619	268	18,359

- 주 : 1) 출산비: 가입자(피부양자)가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사산인 경우는 임신 16주 이상)한 경우 출산 자녀수에 관계없이 지급
 2) 만성신부전증 요양비: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복막관류액,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3) 산소치료 서비스: 만성 심폐질환자 등에게 필수적인 산소치료(의료용 산소 발생기)를 가정 등에서 받을 경우 지급
 4) 당뇨병 소모성재료: 공단에 등록된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5) 자가도뇨소모성재료: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지급
 6) 인공호흡기: 중추신경계질환, 폐질환, 심장질환 등으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인공호흡기 대어 및 소모품을 구입 사용한 경우 지급
 7) 기침유발기: 중추신경계질환의 합병으로 인공호흡기 사용자가 스스로 기도분비물 배출이 어려워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기침유발기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8) 양압기: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경우
 9)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 테마3 |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

V. 의료 인프라

80. 요양기관 현황	174
81. 의료 인력, 시설 장비 현황	176

80 | 영양기관 현황



개 요

- ◆ 연도별 종합병원급, 병원급, 의원급, 약국 등의 영양기관종별 증감 추이
- ◆ 전국 시도권역의 영양기관(종별) 분포 비율



주요현황

- ◆ 2019년 현재 등록된 건강보험 영양기관 수는 94,865개소로 종합병원급은 356개소, 병원급 3,657개소, 의원급 64,862개소, 약국 22,493개소 등이 있음.
- ◆ 2014년 대비 2019년 증감률은 한방병원이 52.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영양병원(18% ↑), 치과 병원(16.6% ↑) 순이었음.

[연도별 영양기관 현황(2014~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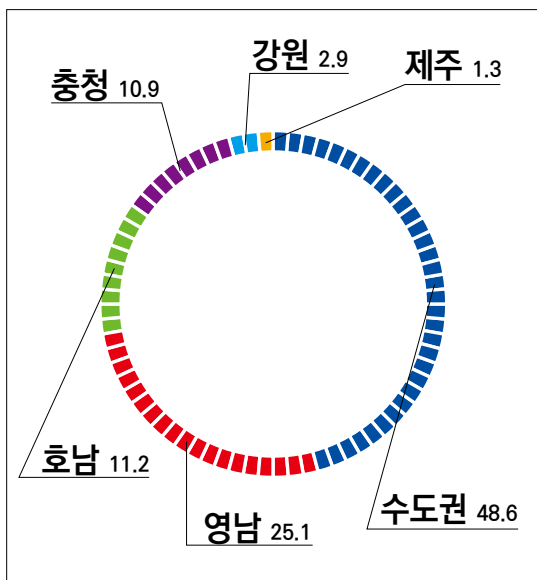
(단위 : 개소, %)

구 분		계	종합 병원 이상 (상급)	병원급					의원급				보건 기관 등	약국
				병원	요양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기 관 수	2014년	86,629	330 (43)	3,274	1,474	1,337	205	231	58,478	28,883	16,172	13,423	3,516	21,058
	2015년	88,163	337 (43)	3,341	1,496	1,372	213	260	59,710	29,488	16,609	13,613	3,508	21,267
	2016년	89,919	341 (43)	3,447	1,514	1,428	223	282	61,183	30,292	17,023	13,868	3,505	21,443
	2017년	91,545	344 (43)	3,538	1,466	1,529	231	312	62,425	30,938	17,376	14,111	3,501	21,737
	2018년	93,184	353 (42)	3,569	1,465	1,560	237	307	63,681	31,718	17,668	14,295	3,478	22,082
	2019년	94,865	356 (42)	3,657	1,489	1,577	239	352	64,862	32,491	17,963	14,408	3,478	22,493
종별 분포		100	0.4 (0.05)	3.8	1.6	1.7	0.2	0.4	68.4	34.0	19.0	15.2	3.7	23.7
증 감 률	2014년 대비 2019년	9.5	7.9	11.7	1.0	18	16.6	52.4	10.9	12.5	11.1	7.3	-1.1	6.8
	2018년 대비 2019년	1.8	0.8	2.5	1.6	1.1	0.8	14.7	1.9	2.4	1.7	0.8	0.0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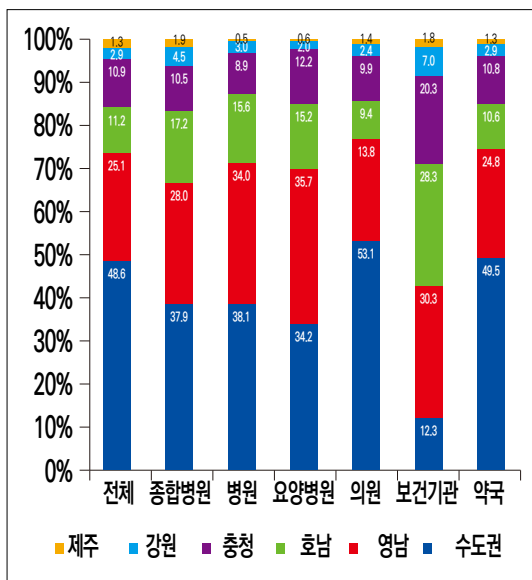
주 : 1) 연도 말 기준
 2) 분포 및 증감률은 반올림한 값으로서 개별 값의 합이 전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전국의 요양기관 중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 요양기관 비율은 48.6%
- ◆ 수도권 다음으로는 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상) 25.1%, 호남권(광주, 전라) 11.2%, 충청권(대전, 세종, 충청) 10.9% 순으로 나타남.

[시도별 요양기관종별 분포 현황(2019년)]



【지역별 전체 요양기관 분포 현황】



【지역별 요양기관종별 분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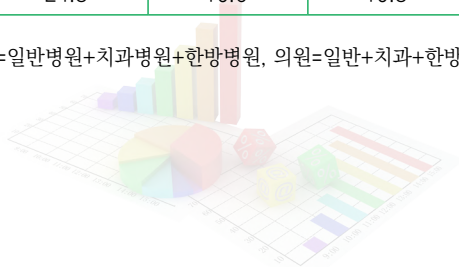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제주
전 체	48.6	25.1	11.2	10.9	2.9	1.3
종합병원	37.9	28.0	17.2	10.5	4.5	1.9
병원	38.1	34.0	15.6	8.9	3.0	0.5
요양병원	34.2	35.7	15.2	12.2	2.0	0.6
의원	53.1	23.8	9.4	9.9	2.4	1.4
보건기관	12.3	30.3	28.3	20.3	7.0	1.8
약국	49.5	24.8	10.6	10.8	2.9	1.3

주 : 1) 연도 말 요양기관소재지 기준

2)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병원=일반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의원=일반+치과+한방의원을 뜻함.

3)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81 의료 인력, 시설, 장비 현황



개 요

- ◆ 의료업계 종사자(의사, 약사, 간호사 등)의 인력 현황 및 연도별 증감 추이
- ◆ 전국 요양기관의 의료시설·주요 의료장비 현황 및 연도별 증감 추이



주요현황

- ◆ 2019년 의사 수는 105,628명, 한의사 21,630명, 간호사 215,293명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의사 수에서 레지던트는 2014년에 비해 감소함.
- ◆ 2014년 대비 2019년 증감을 높은 순 : 간호사(46.3% ↑), 간호조무사(44.1% ↑), 일반의(20.9% ↑), 약사(19.3% ↑)

[연도별 주요 의료인력 현황(2014~2019년)]

(단위 : 명, %)

구 분	의 사					치과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계	일반의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2014년	92,927	4,854	2,734	12,229	73,110	22,952	18,767	32,645	147,207	135,636
2015년	95,076	4,790	2,829	11,907	75,550	23,540	19,246	33,206	158,247	144,886
2016년	97,713	5,061	2,766	11,604	78,282	24,150	19,737	33,946	179,989	169,690
2017년	100,241	5,246	2,743	11,211	81,041	25,300	20,389	36,980	185,853	171,027
2018년	102,471	5,557	2,777	10,990	83,147	25,792	20,759	37,837	195,314	178,287
2019년	105,628	5,870	2,863	10,773	86,122	26,486	21,630	38,941	215,293	195,401
‘14년대비 ‘19년 증감률	13.7	20.9	4.7	-11.9	17.8	15.4	15.3	19.3	46.3	44.1

주 : 1) 각 연도별 12월 말 의료인력 기준
2)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요 의료인력 현황 비교(2014년,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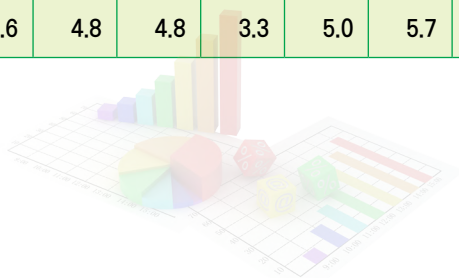
- ◆ 2019년 기준 17만 7천여 개의 입원실, 71만여 개의 병상이 관리되고 있으며, 2014년 이후 2019년 현재까지 입원실은 연평균 2.4% 증가, 병상수는 2.3% 증가함.
- ◆ 의료장비는 2014년 73만 8천대에서 2019년 92만 5천대로 연평균 4.6% 증가함.

[연도별 시설 및 주요 의료장비 현황(2014~2019년)]

(단위: 백 병실, 백 병상, 백 대, %)

구 분	시 설		장 비									
	입원실	병상수	소계	검사 장비	방사선 진단 및 치료 장비	이학요법 장비	수술 및 처치장비	한방 장비	치과 장비	CT (대)	MRI (대)	PET (대)
2014년	1,581	6,301	7,387	1,856	1,170	2,511	642	908	300	1,870	1,294	207
2015년	1,599	6,746	7,700	1,920	1,209	2,622	681	952	316	1,882	1,334	202
2016년	1,645	6,925	8,088	2,024	1,293	2,718	716	1,003	333	1,939	1,428	209
2017년	1,676	7,017	8,434	2,122	1,354	2,798	748	1,066	346	1,964	1,496	200
2018년	1,722	7,073	8,800	2,229	1,415	2,886	781	1,131	358	1,991	1,553	195
2019년	1,777	7,035	9,257	2,343	1,482	2,959	820	1,198	455	2,049	1,656	191
연평균 증감률	2.4	2.3	4.6	4.8	4.8	3.3	5.0	5.7	9.0	1.8	5.1	-1.6

주 : 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테마3 |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

Ⅵ.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및 인프라

82. 인정 신청 및 인정	180
83. 인정자 주요 질병	181
84. 인정자의 주 수발자	182
85.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실적	183
86. 전문인력 및 기관	184

82 인정 신청 및 인정



개 요

- ◆ 연도별 노인인구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자, 판정자, 인정자 현황



주요현황

- ◆ 2019년 12월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누적 신청자 수는 111만 3천 명이며, 인정자는 77만 2천 명으로 83.1%의 인정률을 보임.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인정 현황(2015~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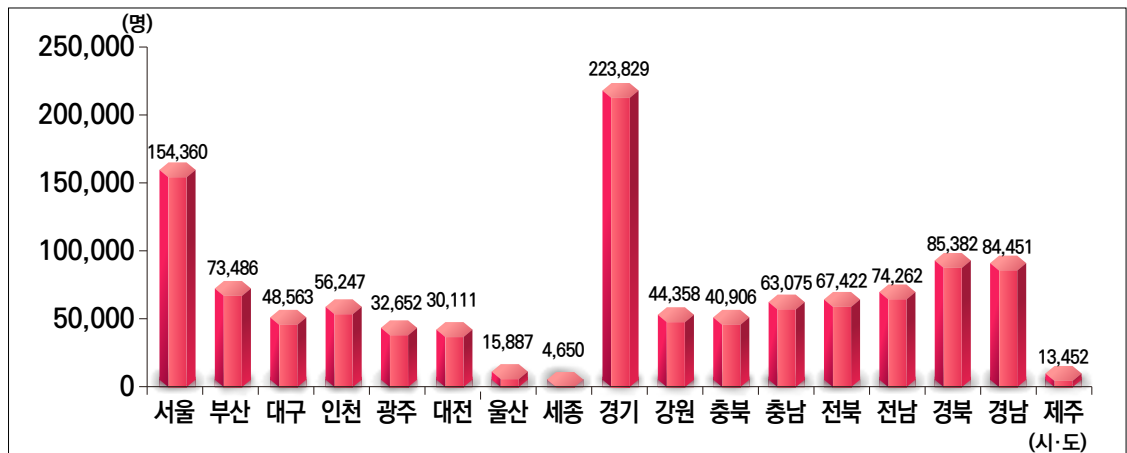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노인인구 (65세 이상)	6,719,244	6,940,396	7,310,835	7,611,770	8,003,418
신청자	789,024	848,829	923,543	1,009,209	1,113,093
판정자 (등급내+등급외)	630,757	681,006	749,809	831,512	929,003
인정자 (판정 대비 인정률)	467,752 (74.2%)	519,850 (76.3%)	585,287 (78.1%)	670,810 (80.7%)	772,206 (83.1%)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	7.0%	7.5%	8.0%	8.8%	9.6%

주 : 1) 각 연도 말 누적, 인정자격 유지자 기준(사망건 제외)

2)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 2019년 시도별 장기요양보험 신청자 현황 】



83 인정자 주요 질병

개 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정자(1~5등급자, 인지지원등급자) 주요 질병 및 증상 현황

주요현황

[등급별 성별 주요 질병 및 증상 현황(2019년)]

(단위: 명)

구분		합계	치매	중풍 (뇌졸중)	치매 + 중풍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요통 좌골통	호흡 곤란	난 청	백내장 등 시각 장애	골절, 탈골 등 사고 후유증	암	기타	질병 없음
합계	계	772,206	289,702	92,095	61,669	8,722	10,032	65,426	104,387	3,828	1,201	9,153	59,366	15,087	49,491	2,047
	남	211,837	71,852	41,649	23,134	2,593	3,931	8,114	16,224	1,953	476	3,119	11,619	7,281	19,067	825
	여	560,369	217,850	50,446	38,535	6,129	6,101	57,312	88,163	1,875	725	6,034	47,747	7,806	30,424	1,222
1 등급	계	44,504	14,093	10,440	8,433	312	294	891	1,131	123	20	99	2,861	746	4,828	233
	남	12,779	2,272	4,330	2,346	95	106	105	184	69	7	28	840	351	1,950	96
	여	31,725	11,821	6,110	6,087	217	188	786	947	54	13	71	2,021	395	2,878	137
2 등급	계	86,678	27,254	14,180	13,681	694	866	3,524	7,024	371	43	416	9,795	2,166	6,431	233
	남	22,499	4,956	5,555	4,194	195	341	466	1,184	190	19	136	1,780	1,049	2,333	101
	여	64,179	22,298	8,625	9,487	499	525	3,058	5,840	181	24	280	8,015	1,117	4,098	132
3 등급	계	226,182	75,715	33,397	20,427	2,396	2,994	16,649	29,020	1,033	248	2,500	21,639	4,613	14,968	583
	남	64,880	18,732	15,548	8,311	743	1,192	1,996	4,460	532	96	817	3,975	2,259	5,975	244
	여	161,302	56,983	17,849	12,116	1,653	1,802	14,653	24,560	501	152	1,683	17,664	2,354	8,993	339
4 등급	계	325,901	102,790	33,225	14,275	4,848	5,391	41,010	62,093	2,171	763	5,884	23,643	7,194	21,617	997
	남	87,704	27,350	15,800	6,168	1,437	2,105	5,082	9,558	1,112	306	2,053	4,706	3,438	8,205	384
	여	238,197	75,440	17,425	8,107	3,411	3,286	35,928	52,535	1,059	457	3,831	18,937	3,756	13,412	613
5 등급	계	73,294	57,345	720	4,306	331	379	2,693	4,239	110	91	209	1,236	316	1,318	1
	남	19,503	15,014	349	1,837	90	146	357	675	43	31	70	256	152	483	0
	여	53,791	42,331	371	2,469	241	233	2,336	3,564	67	60	139	980	164	835	1
인 지 지 원 단 위 인 정 자	계	15,647	12,505	133	547	141	108	659	880	20	36	45	192	52	329	0
	남	4,472	3,528	67	278	33	41	108	163	7	17	15	62	32	121	0
	여	11,175	8,977	66	269	108	67	551	717	13	19	30	130	20	208	0

주: 1) 2019년 연도 말 현재 인정자격 유지자 기준(사망 건 제외)

2) 주요 질병은 인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의사소견과 다를 수 있으며, 기타는 만성질환 및 정신질환, 기타 감염성 질환 등 포함.

3)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테마 1

테마 2

테마 3

건강
보험
및
노인
장기
요양
보험

테마 4

84 인정자의 주 수발자



개 요

-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정자(1~5등급자, 인지지원등급자)의 연도별 주 수발자 유형 현황



주요현황

- ◆ 2019년 주 수발자는 자녀가 39.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로 배우자(21.3%), 기타(17.7%), 간병인(9.3%) 순으로 나타남.
- ◆ 주 수발자가 자녀인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간병인의 비율은 다소 감소하고 있음.

[연도별 인정자 대비 주 수발자 현황(2015~2019년)]

(단위: 명, %)

수발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정자	467,752	100.0	519,850	100.0	585,287	100.0	670,810	100.0	772,206	100.0
독거	25,551	5.5	29,120	5.6	34,661	5.9	43,989	6.6	56,852	7.4
배우자	102,751	22.0	112,297	21.6	124,856	21.3	141,920	21.2	164,268	21.3
부모	1,887	0.4	1,817	0.3	1,751	0.3	1,834	0.3	2,076	0.3
자녀 (며느리,사위포함)	181,506	38.8	200,782	38.6	223,088	38.1	259,864	38.7	306,537	39.7
손자녀	3,775	0.8	4,147	0.8	4,713	0.8	5,343	0.8	6,233	0.8
친척	6,690	1.4	6,770	1.3	6,967	1.2	7,699	1.1	14,931	1.9
친구, 이웃	6,961	1.5	7,984	1.5	9,048	1.5	10,222	1.5	12,245	1.6
간병인	59,995	12.8	59,421	11.4	61,975	10.6	67,395	10.0	71,756	9.3
자원 봉사자	861	0.2	743	0.1	614	0.1	504	0.1	523	0.1
기타	77,775	16.6	96,769	18.6	117,596	20.1	131,995	19.7	136,741	17.7
무응답	-	-	-	-	18	0.0	45	0.0	44	0.0

주 : 1) 각 연도 말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자격 유지자 기준(사망자 제외)

2) 주거상태는 인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며, 기타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시설관계자 등이 포함됨.

3)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85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실적



개 요

-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연도별 총 요양비, 요양급여비, 1인당 월평균 급여비 등의 급여 추이



주요현황

- ◆ 2019년 연간 총 급여비는 8조 5,653억 원이며,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284,256원으로 전년대비 6.2% 증가함.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실적 현황(2015~2019년)]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급여이용수급자(명)	475,382	520,043	578,867	648,792	732,181
급여제공일수(만 일)	10,085	10,997	12,292	13,593	15,434
급여비(억 원)	45,226	50,052	57,600	70,670	85,653
공단부담금(억 원)	39,816	44,177	50,937	62,992	77,363
공단부담률(%)	88.0	88.3	88.4	89.1	90.3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원)	1,057,425	1,067,761	1,103,129	1,208,942	1,284,256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원)	930,917	942,415	975,496	1,058,765	1,159,922

주 : 1) 급여비: 공단부담금 + 법정본인부담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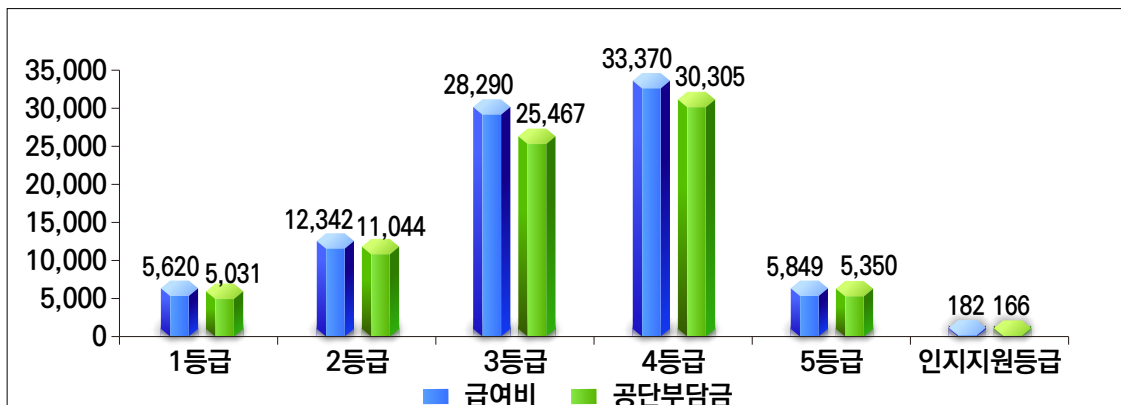
2) 공단부담률: 공단부담금/급여비

3)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공단부담금) : 월간 급여비(공단부담금)/월간 급여이용수급자 수의 연평균

4) 급여제공일수는 같은 날짜에 여러 번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하루로 계산하며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는 급여제공 일수에서 제외함.

5)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2019년 등급별 총 급여비 및 공단부담금 현황]



86 전문인력 및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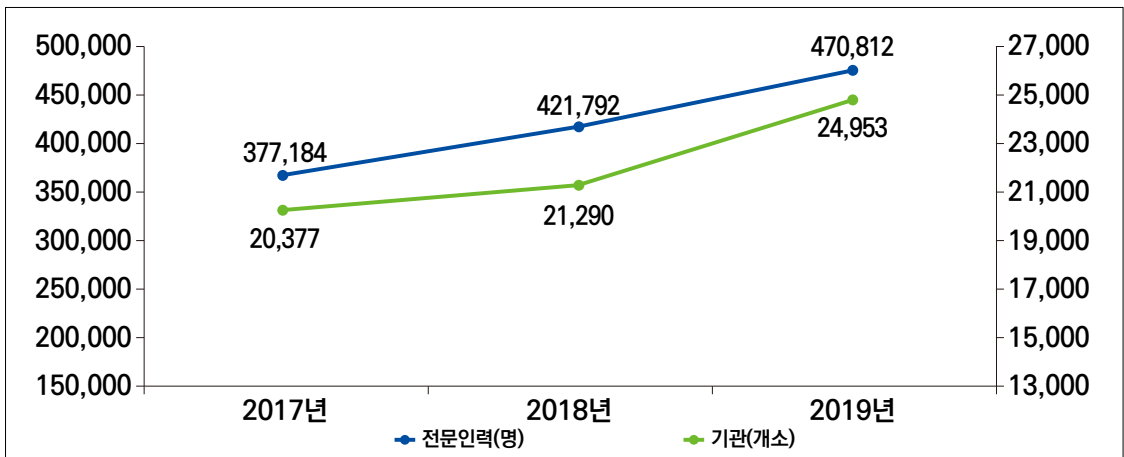
개요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종사 전문인력과 기관의 최근 3년간 변화 추이



주요현황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문인력 및 기관 현황(2017~2019년)]



전문인력

(단위: 명)

기관

(단위: 개소)

직종	2017년	2018년	2019년	급여종류		2017년	2018년	2019년
계	377,184	421,792	470,812	계		20,377	21,290	24,953
사회복지사	18,535	22,305	26,371	재가	방문요양	11,662	12,335	15,305
의사(촉탁포함)	2,198	2,243	2,290		방문목욕	9,357	9,665	11,121
간호사	2,791	2,999	3,280		방문간호	650	682	795
간호조무사	9,845	10,726	11,987		주야간보호	2,795	3,211	4,179
치과위생사	7	10	7		단기보호	218	179	162
물리(작업)치료사	2,024	2,122	2,348		복지용구	1,892	1,920	1,975
요양보호사	340,624	380,255	423,399	시설	노인요양시설	3,289	3,389	3,604
영양사	1,160	1,132	1,13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015	1,931	1,939

주 : 1) 각 연도 말 등록 기준

2) 각 직종 내 중복인원 제거(의사+촉탁의,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1급+2급)

3) 조리원, 사무원 등 기타종사자는 포함하지 않음.

4) 기관현황의 '계'는 급여종류별 중복 서비스 기관 제외

5)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

| 테마4 |
**국내외
사회지표**

I. 인구·사회

87. 장래인구 추계	186
88. 기초생활 수급자	187
89. 등록 장애인	188
90. 사망원인별 사망률	189

87 장래인구 추계



개 요

- ◆ 인구의 구성 형태 및 인구 성장률, 노인 부양률 추이



주요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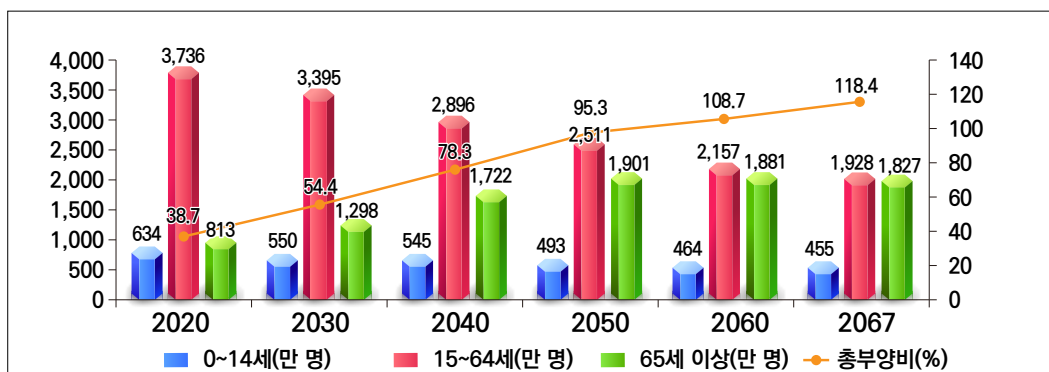
- ◆ 2020년 전체 인구 중 생산가능 인구(15~64세 인구)는 72.1%였으나, 2030년에는 64.7%, 2067년에는 45.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 인구성장률은 2030년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 2067년에는 -0.99%의 성장률을 보이며 총부양비는 계속해서 증가하여 2060년에는 피부양인구가 생산 가능인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단위: 만 명, %)

구 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2067년
전체 인구	5,182	5,243	5,163	4,904	4,503	4,209
0~14세	634	550	545	493	464	455
(구성비)	12.2	10.5	10.6	10.0	10.3	10.8
15~64세	3,736	3,395	2,896	2,511	2,157	1,928
(구성비)	72.1	64.7	56.1	51.2	47.9	45.8
65세 이상	813	1,298	1,722	1,901	1,881	1,827
(구성비)	15.7	24.8	33.4	38.8	41.8	43.4
인구성장률(%)	0.20	0.03	-0.31	-0.70	-0.93	-0.99
총부양비	38.7	54.4	78.3	95.3	108.7	118.4
유소년부양비	17.0	16.2	18.8	19.6	21.5	23.6
노년부양비	21.7	38.2	59.5	75.7	87.2	94.8
노령화지수	128.2	235.8	316.2	385.9	405.6	401.9

- 주 : 1) 인구는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인구임(외국인 포함)
 2) 총 부양비 = (0~14세 인구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3) 유소년부양비 = (0~14세 인구) / (15~64세 인구) × 100
 4)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5)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 / (0~14세 인구) × 100
 6) OECD 평균 출산율, 기대수명 및 국제순이동 중위 기준 예상 추계
 7)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7-2067

[연도별 연령대별 장래 인구수 및 부양비]



88 기초생활 수급자



개요

- ◆ 가구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주요현황

- ◆ 2019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88만여 명이며, 수급률은 3.6%임.
- ◆ 수급가구 수는 2010년 87만여 명에서 2019년 128만여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19년 기준 노인가구, 일반가구, 장애인가구 순으로 수급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2010~2019년)]

(단위 : 천 명,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급자수	1,550	1,469	1,394	1,351	1,329	1,646	1,630	1,582	1,744	1,881
수급률	3.1	2.9	2.7	2.6	2.6	3.2	3.2	3.1	3.4	3.6

주 : 1) 수급자수는 시설수급자를 포함함

2) 수급률 = (수급자수/통계청 년도별 주민등록인구)*100

3)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부처 부문(보건복지부),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보건복지부)

<참고> 가구유형별 수급가구 수

(단위 : 가구)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878,799	850,689	821,879	810,544	814,184	1,014,177	1,035,435	1,032,996	1,165,175	1,281,759
노인가구	243,708	237,213	236,617	235,601	236,548	262,124	261,680	263,475	337,788	391,096
소년소녀가장가구	11,565	9,798	8,105	6,945	5,882	5,188	4,324	3,544	2,972	2,467
모자가구	85,970	83,525	78,333	76,270	74,925	123,497	132,277	130,506	135,862	143,810
부자가구	20,879	20,479	18,820	18,366	18,362	37,753	37,753	36,675	38,095	40,368
장애인가구	173,322	173,751	174,112	175,867	178,397	193,585	193,585	197,081	211,010	219,889
일반가구	291,774	277,081	259,866	251,372	251,333	328,282	328,282	322,918	340,597	359,017
기 타	51,581	48,842	46,026	46,123	48,737	77,534	77,534	78,797	98,851	125,112

주 : 1) 일반수급자의 가구수를 기준으로 함.

2) 기타는 미혼부모세대, 조손세대 등을 포함.

3)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부처 부문(보건복지부),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보건복지부)

89 등록 장애인



개요

- ◆ 복지 정책의 주요 대상인 장애인 보호 및 사회적 지원 등과 관련하여 현재 등록된 장애인의 장애종별 추이



주요현황

- ◆ 2019년 등록 장애인 수는 261만 9천여 명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하였으며, 2011년 이후 매년 감소와 증가를 반복함.
- ◆ 2019년 기준, 지체장애가 46.7%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청각·언어장애로 15.2%를 차지하고 있음.

[장애종별 등록 장애인 현황(2011~2019년)]

(단위: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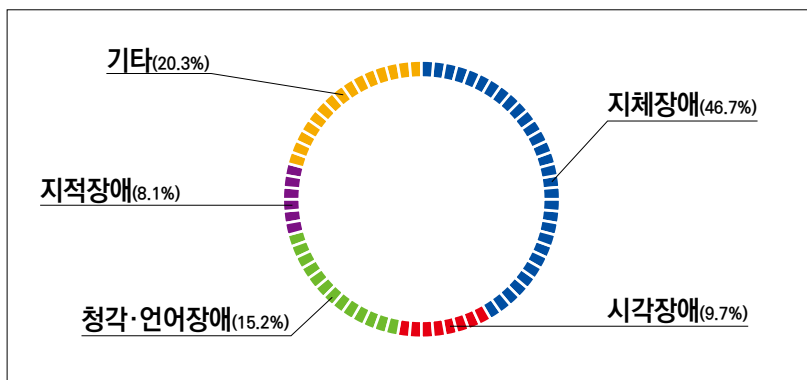
구분	장애인수(천 명)						구성비(%)				
	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기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기타
2011년	2,519	1,333	251	279	167	489	52.9	10.0	11.1	6.6	19.4
2012년	2,511	1,322	253	276	173	487	52.6	10.1	11.0	6.9	19.4
2013년	2,501	1,309	253	273	179	489	52.3	10.1	10.9	7.2	19.6
2014년	2,494	1,296	253	271	184	490	52.0	10.1	10.9	7.4	19.6
2015년	2,490	1,281	253	269	190	497	51.4	10.2	10.8	7.6	20.0
2016년	2,511	1,267	253	291	195	505	50.5	10.1	11.6	7.8	20.1
2017년	2,546	1,254	253	322	201	516	49.3	9.9	12.7	7.9	20.3
2018년	2,586	1,239	253	364	207	524	47.9	9.8	14.1	8.0	20.3
2019년	2,619	1,223	253	399	213	531	46.7	9.7	15.2	8.1	20.3

주 : 1) 장애종별 구성비 = 장애종별 장애인수 / 총 장애인수 × 100

2) 기타: 뇌병변,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장애인

3) 출처: 장애인 현황(보건복지부)

【2019년 기준 장애종별 등록 장애인 구성비】



90 사망원인별 사망률

개요

- ◆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 변화 추이

주요현황

- ◆ 2018년의 사망자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을 보면 악성신생물(암)이 인구 10만 명당 154.3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심장질환이 62.4명, 뇌혈관질환이 44.7명 순임.
- ◆ 2013년 대비 2018년 증감률을 살펴보면 전체 사망률은 10.6% 증가하였으며, 고혈압성 질환 및 심장 질환은 각 25.5%, 24.3% 크게 증가하였고, 악성신생물(암)이 3.6% 증가함. 반면 운수사고(-23.5%), 당뇨병(-20.5%), 뇌혈관질환(-11.1%), 자살(-6.7%)은 감소함.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 현황(2013~2018년)]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사망원인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3년 대비 '18년 증감률
전 체	526.6	527.3	541.5	549.4	557.3	582.5	10.6
악성신생물 (C00-C97)	149	150.9	150.8	153	153.9	154.3	3.6
당뇨병 (E10-E14)	21.5	20.7	20.7	19.2	17.9	17.1	-20.5
고혈압성 질환 (I10-I13)	9.4	10.0	9.9	10.6	11.3	11.8	25.5
심장 질환 (I20-I52)	50.2	52.4	55.6	58.2	60.2	62.4	24.3
뇌혈관질환 (I60-I69)	50.3	48.2	48.0	45.8	44.4	44.7	-11.1
운수사고 (V01-V99)	11.9	11.2	10.9	10.1	9.8	9.1	-23.5
자살(X60-X84)	28.5	27.3	26.5	25.6	24.3	26.6	-6.7

주 : 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전체는 모든 질병분류 전체를 의미함.
 2) 사망원인별 사망률 = 특정 사인에 의한 사망자수 / 연앙인구 × 100,000
 3)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 테마4 |
**국내외
사회지표**

II. 저출산 및 고령화

91. 저출산·고령화 주요현황	192
92. 총 혼인건수	194
93. 고령임신 및 불임환자	195
94. 어린이집 수 및 아동수	197
95. 노인의 요양병원 진료 현황	198
96. 노인진료비 및 다빈도 상병	199

91 저출산·고령화 주요현황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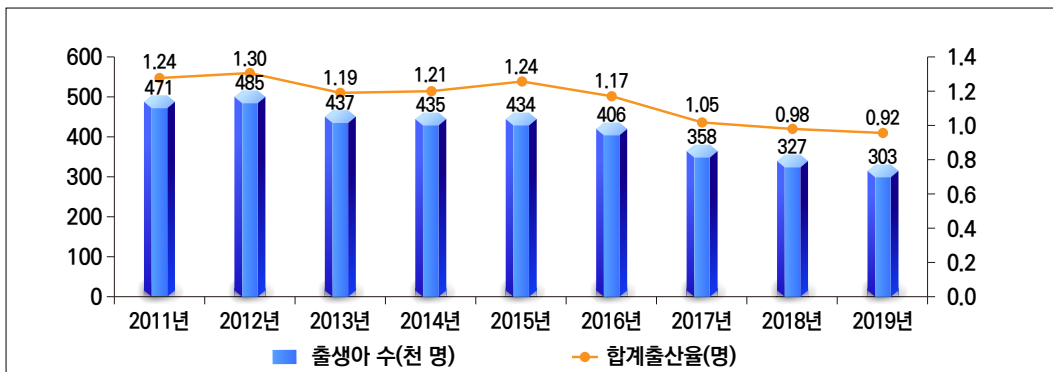
- ◆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관련 지표



주요현황

- ◆ 2019년 총 출생아수(잠정)은 30만 3천 명으로 전년보다 7.3% 감소하였으며, 합계출산율은 2019년 0.92 명으로 전년보다 6.1% 감소하였음.

[합계출산율 추이(2011~2019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8년 대비 '19년 증감률
출생아 수 (천명)	471	485	437	435	434	406	358	327	303	-7.3%
합계출산율 (명)	1.24	1.30	1.19	1.21	1.24	1.17	1.05	0.98	0.92	-6.1%

주 : 1)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것으로 연별 출산율의 총합이며,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임.

2) 2019년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수치는 잠정 수치임

3) 출처 : 통계청 2019년 출생·사망 통계 잠정 결과 보도자료(관련: 통계청, 인구동향과)

〈참고〉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 비교 (2020년 예상)

(단위: 명)

영국	일본	스위스	폴란드	스웨덴	프랑스	멕시코	터키
1.8	1.4	1.5	1.4	1.9	1.9	2.1	2.1

주) 출처: KOSIS OECD 합계출산율

◆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비교

- 노년부양비는 2010년 14.8%에서 2020년에는 21.7%로 6.9%p 증가할 전망이며 점차 그 비율의 증가폭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앞으로 노인인구 부양을 위해 생산가능인구가 부담하는 조세, 사회보장비가 늘어나 세대 간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음.

(단위: 15~6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

구분	2010	2015	2018	2020	2030	2040	2050	2060	2067
노년부양비	14.8	17.5	19.6	21.7	38.2	59.5	75.7	87.2	94.8
노령화지수	67.2	93.1	110.5	128.2	235.8	316.2	385.9	405.6	401.9

주 : 1)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 × 100, 노년인구에 대한 생산가능인구의 경제적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

*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인구의 수

2) 노령화지수 = 유소년인구(0~14세 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65세 이상 인구)의 비

3) OECD 평균 출산율, 기대수명 및 국제순이동 중위 기준 예상 추계

4)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참고〉 노년부양비 국제 비교

◆ 노년부양비가 독일의 경우 34%(2020년) → 44%(2040년) → 53%(2060년)이고 미국의 경우 26%(2020년) → 33%(2040년) → 37%(2060년)으로 우리나라의 노년부양비는 2040년에 미국, 2050년에는 독일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됨.

(단위: %)

구분	2020	2030	2040	2050	2060
한국	22	29	38	60	78
일본	48	51	53	66	74
미국	26	29	33	35	37
칠레	18	22	26	34	41
핀란드	37	40	43	45	47
프랑스	34	37	40	47	49
독일	34	38	44	51	53
네덜란드	31	36	41	48	49
폴란드	28	34	37	42	56
스페인	30	34	40	56	72
영국	29	32	35	40	43

주) 출처: 통계청 KOSIS (원 출처: OECD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92 총 혼인건수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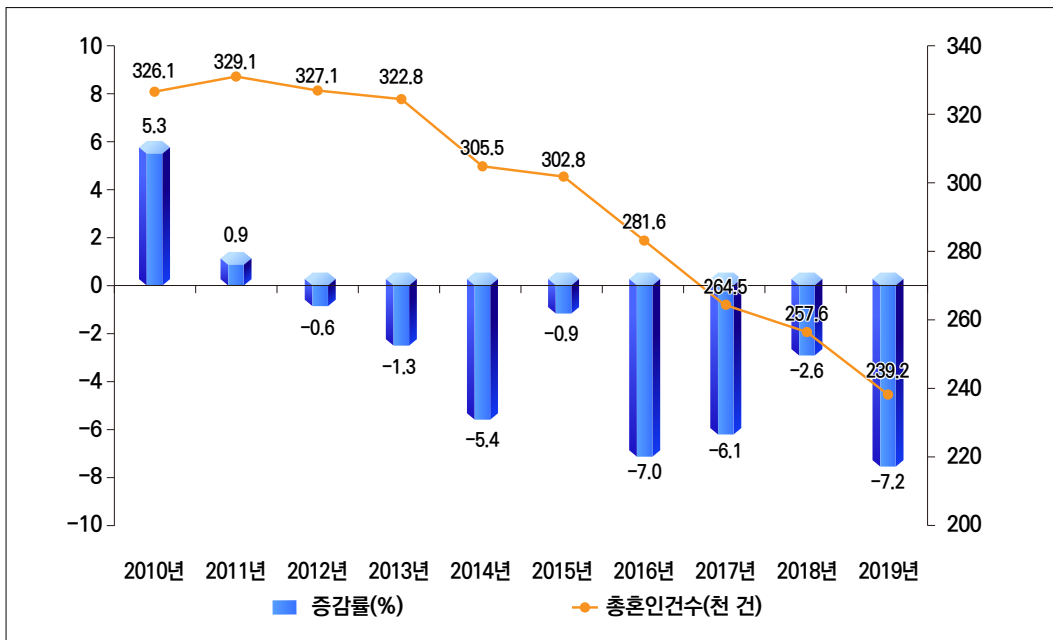
- ◆ 저출산 관련 지표인 총 혼인건수 변동 현황



주요현황

- ◆ 2019년 기준 총 혼인건수는 23만 9천여 건이며, 2018년 대비 7.2% 감소한 수치임.
- ◆ 총 혼인건수는 2010년에 비해 8만 6천 9백여 건 감소하였고 2012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총 혼인건수 변동 현황(2010~2019년)]



(단위: 천 건,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혼인건수	326.1	329.1	327.1	322.8	305.5	302.8	281.6	264.5	257.6	239.2
증감률	5.3	0.9	-0.6	-1.3	-5.4	-0.9	-7.0	-6.1	-2.6	-7.2

주) 출처: 통계청, 2020년 「혼인·이혼 통계」

93 고령임신 및 불임환자



개요

- ◆ 저출산의 원인인 고령임신의 주요 현황
- ◆ 남성 및 여성 불임(질병코드 N46, N97) 진료현황



주요현황

- ◆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은 30대 초반이 86.3명으로 가장 높고, 30대 후반이 45.0명, 20대 후반이 35.7명 순임.
- ◆ 2019년은 20대 후반의 출산율과 30대 초반 출산율이 전년대비 각각 5.3명(-13.0%), 5.1명(-6.0%)씩 크게 감소함.
- ◆ 30대 후반까지의 출산율은 감소하는 반면, 40대 초반 이후의 연령대에서는 출산율이 계속하여 소폭 상승하는 추세임.
- ◆ 지난 10년간 가장 출산율이 높은 연령대는 30대 초반이며 2018년 기준으로 30대 후반의 출산율이 20대 후반의 출산율을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 변동 추이(2010~2019년)]

(단위: 여성 1천 명당 출생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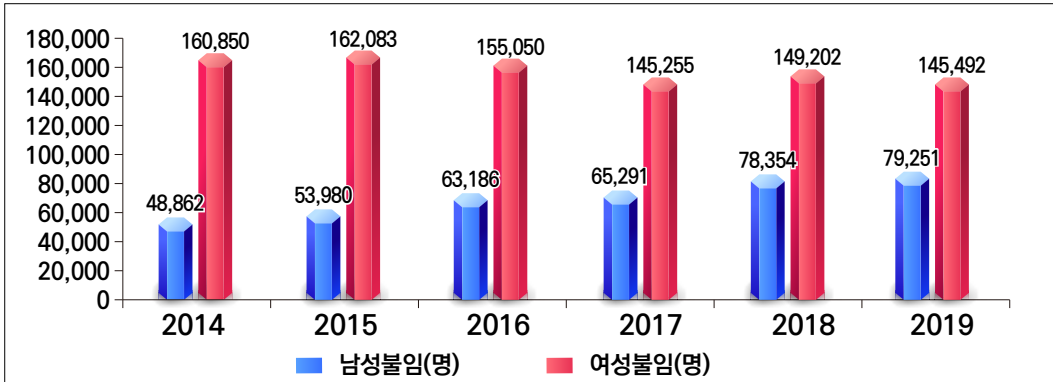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5-19세	1.8	1.8	1.8	1.7	1.6	1.4	1.3	1.0	0.9	0.8
20-24세	16.5	16.4	16.0	14.0	13.1	12.5	11.5	9.6	8.2	7.1
25-29세	79.7	78.4	77.4	65.9	63.4	63.1	56.4	47.9	41.0	35.7
30-34세	112.4	114.4	121.9	111.4	113.8	116.8	110.1	97.7	91.4	86.3
35-39세	32.6	35.4	39.0	39.5	43.2	48.3	48.7	47.2	46.1	45.0
40-44세	4.1	4.6	4.9	4.8	5.2	5.6	5.9	6.0	6.4	7.0
45-49세	0.2	0.2	0.2	0.1	0.1	0.2	0.2	0.2	0.2	0.2

주) 출처 : 통계청 2019년 출생·사망 통계 잠정 결과 보도자료(관련: 통계청, 인구동향과)



- ◆ 2019년 기준 남성 불임 환자는 7만 9천여 명, 여성 불임 환자는 14만 5천여 명에 달함.
- ◆ 2014년과 비교해 여성 불임 환자는 다소 증감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감소하였고 남성 불임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3만여 명이 증가하였음.

[불임 환자의 연도별 변동 추이(2014~2019년)]



(단위: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남성불임(N46)	48,862	53,980	63,186	65,291	78,354	79,251
여성불임(N97)	160,850	162,083	155,050	145,255	149,202	145,492

- 주 : 1) 수진기준(한의분류 제외, 약국제외)
 2) 건강보험 급여실적 기준(비급여 및 의료급여 제외)
 3) 주상병기준(N46, N97)
 4) 2020년 6월까지 요양급여비용 지급된 건 반영
 5)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실



94 어린이집수 및 아동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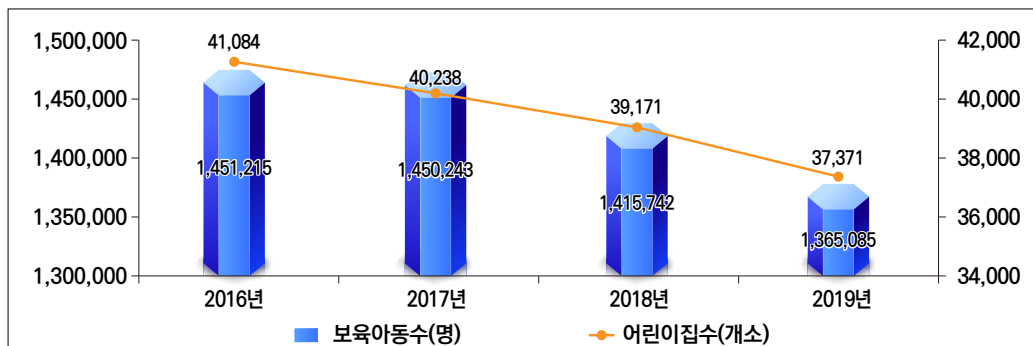
- ◆ 보육정책의 기초자료인 유형별 어린이집 설치 현황 및 이용 아동수



주요현황

- ◆ 2019년 기준 전체 어린이집수는 3만 7천여 개소이며 설립 유형별로는 가정, 민간, 국공립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 보육아동수로 보면 민간, 가정, 국공립의 순으로 많았으며 2019년 전체 보육아동수는 2018년에 비해 3.6 % 감소한 136만여 명임.

[연도별 어린이집수 및 보육아동수 현황(2016~2019년)]



(단위: 개소,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어린이집수	계	41,084	40,238	39,171	37,371
	(전년대비, %)	-3.4	-2.1	-2.7	-4.6
	국공립	2,859	3,157	3,602	4,324
	사회복지법인	1,402	1,392	1,377	1,343
	법인, 단체 등	804	771	748	707
	민간	14,316	14,045	13,518	12,568
	가정	20,598	19,656	18,651	17,117
	협동	157	164	164	159
	직장	948	1,053	1,111	1,153
보육아동수	계	1,451,215	1,450,243	1,415,742	1,365,085
	(전년대비, %)	-0.1	-0.1	-2.4	-3.6
	국공립	175,929	186,916	200,783	232,123
	사회복지법인	99,113	96,794	92,787	86,775
	법인, 단체 등	45,374	43,404	41,298	38,538
	민간	745,663	738,559	711,209	664,106
	가정	328,594	321,608	302,674	273,399
	협동	4,240	4,508	4,360	4,121
	직장	52,302	58,454	62,631	66,023

주) 출처 : 통계청 e-나라지표> 경제, 사회, 환경분야> 가족(보건복지부「보육통계」)

95 노인의 요양병원 진료 현황



개 요

- ◆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와 관련 노인의 요양병원 진료 추이



주요현황

- ◆ 노인(65세 이상)의 요양병원(정신요양병원 포함) 진료인원은 2010년 27만 4천명에서 2019년 48만명으로 연평균 6.4% 증가함.
- ◆ 2019년 기준으로 진료비는 5조 1백억 원, 급여비 3조 8천억 원으로 전년 2018년과 비교했을 시 약 5.5% 증가함.

[연도별 노인의 요양병원 진료현황(2010~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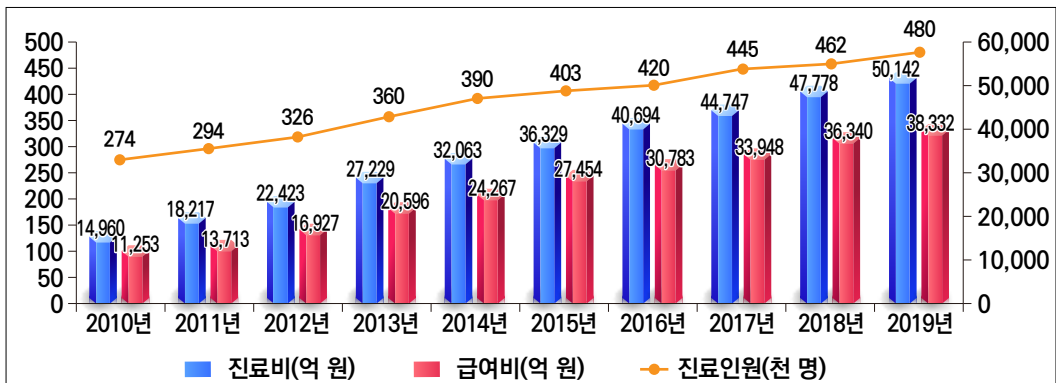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억 원, %)

년도	진료인원	전년도 대비 증가율	진료비	전년도 대비 증가율	급여비	전년도 대비 증가율
2010년	274	4.9	14,960	31.2	11,253	33.3
2011년	294	7.2	18,217	21.8	13,713	21.9
2012년	326	11.1	22,423	23.1	16,927	23.4
2013년	360	10.3	27,229	21.4	20,596	21.7
2014년	390	8.4	32,063	17.8	24,267	17.8
2015년	403	3.4	36,329	13.3	27,454	13.1
2016년	420	4.1	40,694	12.0	30,783	12.1
2017년	445	5.8	44,747	10.0	33,948	10.3
2018년	462	3.9	47,778	6.8	36,340	7.0
2019년	480	3.8	50,142	4.9	38,332	5.5
연평균증가율		6.4		14.4		14.6

주 : 1) 수진기준

2) 건강보험 급여실적 기준(비급여 및 의료급여 제외)

3)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실



96

노인진료비 및 다빈도 상병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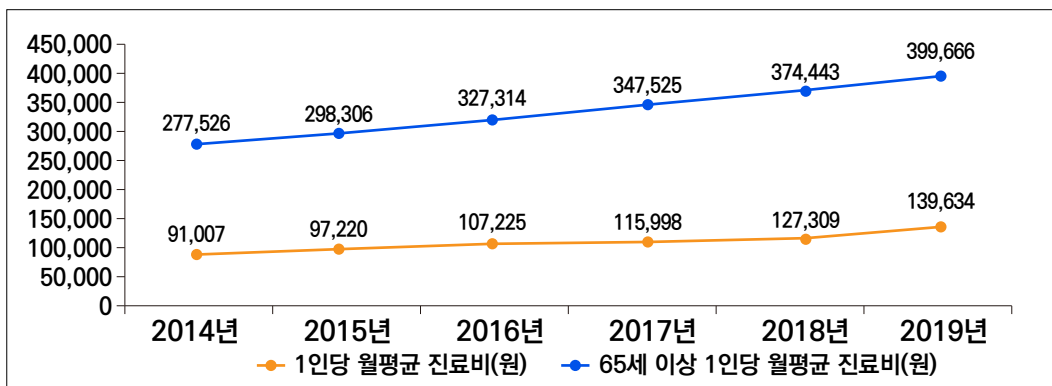
- ◆ 건강수명의 증가 및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 추이
- ◆ 65세 이상 노인의 주요 질환 및 다빈도 상병 진료인원 현황



주요현황

- ◆ 2019년 말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인구 746만 명은 총 적용인구의 14.5%를 차지함.
- ◆ 65세 이상 월평균 1인당 진료비는 40만 9천원으로 전체 월평균 진료비의 약 2.9배에 달하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7.3% 증가함.

[연도별 노인진료비 현황(2014~2019년)]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 체 인 구(천 명)	50,316	50,490	50,763	50,941	51,072	51,391
65세 이상 인구(천 명)	6,005	6,223	6,445	6,806	7,092	7,463
(비율, %)	(11.9)	(12.3)	(12.7)	(13.4)	(13.9)	(14.5)
총 진 료 비(억 원)	549,492	589,039	653,166	709,089	780,229	861,110
65세 이상 진료비(억 원)	199,986	222,763	253,144	283,830	318,666	357,925
(비율, %)	(36.4)	(37.8)	(38.8)	(40.0)	(40.8)	(41.6)
1인당 월평균 진료비(원)	91,007	97,220	107,225	115,998	127,309	139,634
65세 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원)	277,526	298,306	327,314	347,525	374,443	399,666

주 : 1) 수진기준, 2020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 적용인구는 연도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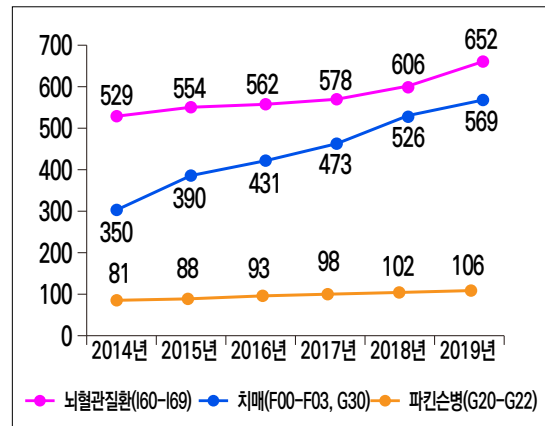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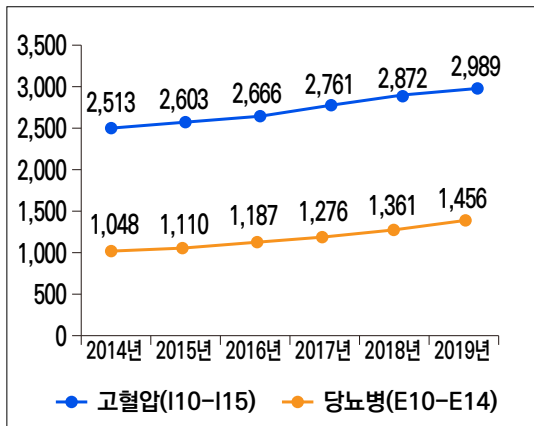
2) 1인당 월평균 진료비 = (진료비/연평균 건강보험 적용인구)/12 65세 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 = (65세 이상 진료비/연도 말 건강보험 적용인구)/12

3) 반올림 계산하여 실제 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실, 2019 건강보험 주요통계

- ◆ 2019년 기준으로 고혈압을 진료 받은 인원은 298만 9천 명이며 당뇨병은 145만 6천 명, 뇌혈관질환 65만 2천 명으로 나타남.
- ◆ 2014년과 비교해서 연평균 증가율이 높은 질환은 치매로 2014년 35만 명에서 2019년 56만 9천 명으로 연평균 10.2% 증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당뇨병이 104만 8천 명에서 145만 6천 명으로 연평균 6.8% 증가함.

[노인 주요 질환별 진료인원 추이(2014~2019년)]



(단위: 천 명,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증가율
고혈압(I10-I15)	2,513	2,603	2,666	2,761	2,872	2,989	-
전년도 대비 증가율	2.2	3.6	2.4	3.6	4.0	4.1	3.53
당뇨병(E10-E14)	1,048	1,110	1,187	1,276	1,361	1,456	-
전년도 대비 증가율	5.7	5.9	6.9	7.5	6.7	7.0	6.8
뇌혈관질환(I60-I69)	529	554	562	578	606	652	-
전년도 대비 증가율	2.3	4.8	1.5	2.8	4.8	7.7	4.31
치매(F00-F03, G30)	350	390	431	473	526	569	-
전년도 대비 증가율	11.4	11.6	10.3	9.8	11.3	8.2	10.2
파킨슨병(G20-G22)	81	88	93	98	102	106	-
전년도 대비 증가율	6.6	7.6	6.4	5.0	4.3	4.1	5.5

주 : 1) 수진기준(한의분류 제외, 약국제외), 2020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

2) 건강보험 급여실적 기준(비급여 및 의료급여 제외)

3)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실

[2019년 노인(65세 이상) 다빈도 상병 상위 10위 진료인원 (입원/외래)]

(단위: 명)

구분	입원		외래	
	병명	환자수	병명	환자수
1위	(H25)노년백내장	242,975	(K05)치은염및치주질환	2,993,365
2위	(F00)알츠하이머병에서의치매(G30.-+)	119,170	(I10)본태성(원발성)고혈압	2,841,661
3위	(J18)상세불명병원체의폐렴	105,176	(J20)급성기관지염	2,109,692
4위	(M17)무릎관절증	81,444	(M54)등통증	1,634,601
5위	(I63)뇌경색증	79,573	(M17)무릎관절증	1,625,970
6위	(M48)기타척추병증	67,503	(M54)등통증	1,379,408
7위	(S32)요추및골반의골절	57,459	(E11)2형당뇨병	1,305,529
8위	(A09)감염성및상세불명기원의기타위장염및결장염	54,847	(K29)위염및십이지장염	1,198,685
9위	(I20)협심증	54,145	(K21)위-식도역류병	1,183,295
10위	(S22)늑골,흉골및흉추의골절	51,608	(K08)치아및지지구조의기타장애	1,167,284

주 : 1) 수진기준(한의분류 제외, 약국제외), 2020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

2) 건강보험 급여실적 기준(비급여 및 의료급여 제외)





| 테마4 |
**국내외
사회지표**

Ⅲ. OECD Health Data

97. OECD 건강상태 관련 주요지표	204
98. OECD 국민의료비 지출	205
99. OECD 보건의료 자원	206
100. OECD 보건의료 이용	207

97 OECD 건강상태 관련 주요지표



개 요

- ◆ 국제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OECD 지표 중 평균수명, 영아사망률과 같은 보건으로 건강상태 주요 지표



주요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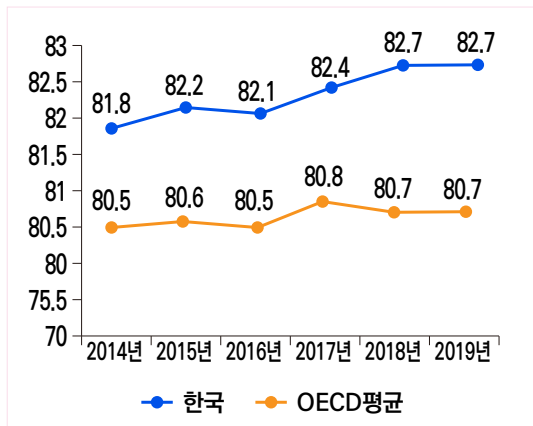
- ◆ 한국의 2018년 평균수명은 82.7세로 OECD 평균(80.7세)보다 높은 수준이며, 자살 인원은 인구 십만 명 당 23명으로 OECD 국가 평균 자살 인원(11.2명)의 두 배를 뛰어넘는 수치를 기록함.
- ◆ 영아 사망 인원은 출생 천 명 당 2.8명으로 OECD 평균(4.1명)보다 낮은 수준임.

[연도별 OECD 건강상태 주요 지표(2013~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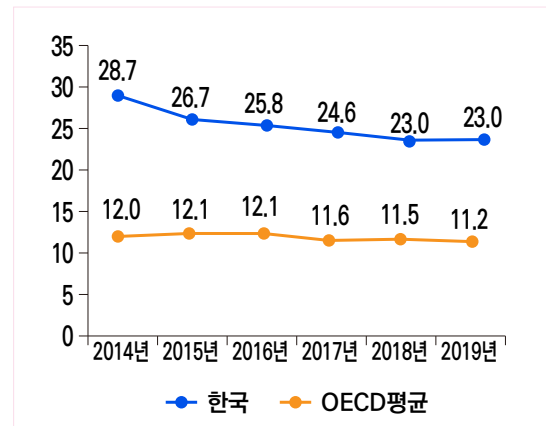
(단위 : 명, 출생 천 명당, 인구 십만 명당)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기대 여명(세)	한 국	81.8	82.2	82.1	82.4	82.7	82.7
	OECD평균	80.5	80.6	80.5	80.8	80.7	80.7
영아 사망률	한 국	3.0	3.0	2.7	2.8	2.8	2.8
	OECD평균	4.1	4.0	3.9	3.9	3.8	4.1
자살 사망률	한 국	28.7	26.7	25.8	24.6	23.0	23.0
	OECD평균	12.0	12.1	12.1	11.6	11.5	11.2

주 : 1) OECD 평균(2018년) : 미제출 국가 자료는 가장 최근자료로 구성하여 평균치 계산 (한국의 자살 사망률은 2017년이 가장 최근)
2) 자료는 2020 OECD Health Data 기준 작성, OECD 자료는 추후 국가별 제출 정도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음.



[기대 여명 추이 비교]



[자살률 추이 비교]

98 OECD 국민의료비 지출



개요

- ◆ OECD 지표 기준, 국민의료비의 규모 및 세부 지출 비율



주요현황

- ◆ 2018년도 한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비율은 7.6%로 OECD 국가 중 하위권으로 나타남.
- ◆ 2018년도 국민의료비 대비 의약품 지출 비율은 20.0%로 OECD 국가 중 상위 8순위로 나타남.

[연도별 OECD 국민의료비 관련 지표(2013~2018년)]

(단위 : %)

구분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공공지출		가계지출		의약품지출	
	한국	OECD 평균	한국	OECD 평균	한국	OECD 평균	한국	OECD 평균
2013년	6.6	8.9	59.0	72.2	34.6	20.2	23.2	16.5
2014년	6.8	8.9	58.7	73.1	34.3	20.3	22.5	16.3
2015년	7.0	8.9	58.9	73.1	34.0	20.3	21.6	16.4
2016년	7.3	8.9	59.1	73.6	33.4	20.5	21.4	16.1
2017년	7.6	8.8	58.9	73.6	33.7	20.5	20.9	16.3
2018년	7.6	8.8	59.9	73.8	32.5	20.1	20.0	15.7

주 : 1) OECD 평균(2018년) : 미제출 국가 자료는 가장 최근자료로 구성하여 평균치 계산

2) 자료는 2020 OECD Health Data 기준 작성, OECD 자료는 추후 국가별 제출 정도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참고> OECD 주요국의 국민의료비 비교(2018년)

(단위 : %)

구분	OECD 평균	한국	미국	스위스	일본	멕시코	폴란드
GDP 대비 국민의료비	8.8	7.6	16.9	11.9	11.0	5.5	6.3
국민의료비 지출 중 공공지출 비율	73.8	59.9	84.7	64.4	84.1	50.8	71.5

주) 출처: 2020 OECD Health Data

99 OECD 보건의료 자원



개요

- ◆ 총 병상수, 활동의사수 등 OECD 보건의료자원 관련 주요 지표 비교·수록



주요현황

- ◆ 한국의 총 병상수는 인구 천 명당 12.4병상, CT 장비수는 인구 백만 명당 38.6대, MRI 장비수는 30.1대로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에 있으며, 의료인력 및 의대졸업자는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연도별 OECD 보건의료자원 주요지표(2013~2018년)]

(단위: 병상, 명, 대)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병상수 (인구천명당)	한국	10.9	11.6	11.6	12.0	12.3	12.4
	OECD평균	4.8	4.7	4.7	4.7	4.7	4.5
급성기의료병상수 (인구천명당)	한국	7.1	7.3	7.0	7.1	7.1	7.1
	OECD평균	3.7	3.7	3.6	3.6	3.6	3.6
활동의사수 (인구천명당)	한국	2.2	2.2	2.2	2.3	2.3	2.4
	OECD평균	3.3	3.3	3.4	3.4	3.5	3.5
활동간호사수 (인구천명당)	한국	5.2	5.6	5.9	6.8	6.9	7.2
	OECD평균	9.1	8.9	9.0	9.0	8.8	8.8
CT 장비수 (인구백만명당)	한국	37.5	36.9	37.0	37.8	38.2	38.6
	OECD평균	24.6	25.3	25.6	25.6	26.8	26.9
MRI 장비수 (인구백만명당)	한국	24.4	25.5	26.3	27.8	29.1	30.1
	OECD평균	14.3	14.9	15.5	16.4	16.7	17.0
의대졸업자 (인구십만명당)	한국	8.0	8.2	7.9	7.9	7.6	7.5
	OECD평균	11.1	11.4	12.1	12.0	12.7	13.5

- 주 : 1) 급성기의료병상이란 평균 입원기간이 18일 이하인 입원환자를 위한 병상을 말하며, 한국의 경우 장기요양병상 및 특수목적 병원의 병상을 제외한 병상수를 기준으로 작성됨.
 2) 자료는 2020 OECD Health Data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OECD 자료 추후 국가별 제출 정도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음.

100 OECD 보건의료 이용



개요

- ◆ OECD 지표 중 의사방문건수, 평균재원일수 등 보건의료이용과 밀접한 주요지표 비교·수록



주요현황

- ◆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건수는 2018년 약 17건으로 OECD 평균 6.6회와 비교하였을 때 가장 높은 수치로, 일본이 12.6회로 2순위를 기록함.
- ◆ 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19.1일로 OECD 평균의 약 2.4배이며, 제왕절개건수 또한 OECD 평균 보다 1.6배 많음.

[연도별 OECD 보건의료이용 주요지표(2013~2018년)]

(단위: 건, 일)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건수	한 국	14.3	14.6	16.8	16.6	17.0	16.6	16.9
	OECD평균	6.7	6.7	6.8	6.9	6.9	6.8	6.6
국민 1인당 치과외사 방문건수	한 국	1.7	1.9	1.3	1.4	1.4	1.5	1.5
	OECD평균	1.2	1.3	1.2	1.3	1.3	1.2	1.2
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	한 국	16.1	16.5	17.7	18.6	18.1	18.5	19.1
	OECD평균	7.4	7.3	8.2	8.1	8.3	8.1	8.0
출생아 천 명당 제왕절개건수	한 국	360	368	368	394	394	452	452
	OECD평균	273	278	275	279	281	281	283

주 : 1) 본 지표 수치는 공단에서 활용하는 입내원일수, 평균 입원일수와 상이하므로 활용 시 유의
 2) 2020 OECD Health Data 기준 작성, 추후 국가별 제출 정도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부록 1 |

관심질병 요약

관심질병 요약(2019년, 전체)

질병명	환자수	연령대									환자수 증감 (2015년 대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1. 폐암	98,098							○	◎	●	△ 33.7%
2. 간암	74,405						●	◎	○		△ 12.0%
3. 대장암	142,690						●	◎	○		△ 7.0%
4. 위암	159,639						●	◎	○		△ 6.5%
5. 췌장암	20,071						●	○	◎		△ 38.2%
6. 유방암	196,978					●	◎	○			△ 39.3%
7. 전립선암	96,934							○	◎	●	△ 54.4%
8. 혈액암	65,583						○	◎	●		△ 30.5%
9. 식도암	10,502						●	◎	○		△ 20.8%
10. 방광암	36,782							○	◎	●	△ 29.9%
11. 뇌(신경)암	13,144					●	○	◎			△ 9.2%
12. 자궁경부암	25,711					○	◎	●			▼ 1.5%
13. 뇌혈관질환	1,045,836							○	◎	●	△ 18.8%
14. 심혈관 질환(허혈성 및 기타 심장질환)	1,133,845							◎	○	●	△ 18.1%
15. 고혈압	6,534,238						○	◎	●		△ 14.4%
16. 폐렴	1,403,912	◎						○	●		▼ 8.0%
17. 호흡기 결핵	47,459							●	◎	○	▼ 33.8%
18. 만성폐색성 폐질환	225,487							○	◎	●	▼ 2.9%
19. 기흉	20,915		○	◎					●		▼ 12.5%
20. 인플루엔자	1,772,422	◎	○		●						△ 119.0%
21. 과다활동성주의력 결핍장애(ADHD)	72,262	○	◎	●							△ 46.7%
22. 우울증	798,243			●			○	◎			△ 32.1%
23. 수면장애(불면증)	635,265						○	◎	●		△ 23.7%
24. 공황장애	183,599				●	◎	○				△ 63.5%
25. 조현병(정신분열증)	121,065				●	◎	○				△ 3.0%

◎ : (2019년간) 환자수 1위 △ : 증가
 ○ : (2019년간) 환자수 2위 ▼ : 감소
 ● : (2019년간) 환자수 3위

(단위 : 명)

질병명	환자수	연령대									환자수 증감 (2015년 대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26. 치매	586,520							●	○	◎	△ 43.6%
27. 정신지체	23,791	●	◎	○							△ 7.5%
28. 틱장애	18,747	○	◎	●							△ 15.1%
29. 뇌전증(간질)	147,194			◎		●	○				△ 6.8%
30. 파킨슨병	110,284							●	◎	○	△ 20.7%
31. 당뇨병	3,224,207						○	◎	●		△ 27.7%
32. 성조숙증	107,281	◎	○								△ 41.8%
33. 간 질환	1,548,221					●	◎	○			△ 34.0%
34. 위 및 십이지장 궤양	1,089,224					●	◎	○			▼15.3%
35. 치질	632,584				●	○	◎				▼1.9%
36. 치은염 및 치주질환	16,929,312					○	◎	●			△ 24.4%
37. 신부전	295,122							○	◎	●	△ 48.9%
38. 요실금	50,034					●	◎	○			▼8.4%
39. 방광염	1,649,694					○	◎	●			△ 3.1%
40. 요로결석증	301,357					○	◎	●			△ 14.3%
41. 선천성 대사이상	2,484,565					●	◎	○			△ 46.1%
42. 선천성 기형	54,449	◎									△ 12.1%
43. 염색체 이상	7,616	◎	○	●							△ 23.7%
44. 아토피 피부염	949,352	◎	○	●							△ 2.6%
45. 알레르기성 비염	16,103,366	◎			○	●					△ 7.0%
46. 대상포진	735,523					●	◎	○			△ 10.9%
47. 백내장	1,480,901						●	○	◎		△ 23.2%
48. 관절염	5,384,112						○	◎	●		△ 13.0%
49. 손상 및 화상	13,727,546					○	◎	●			△ 2.8%
50. 중독	16,531			●		◎	○				△ 12.5%
51. 류마티스 관절염	244,289					●	◎	○			▼6.0%

관심질병 요약(2019년, 남자)

질병명	환자수	연령대									환자수 증감 (2015년 대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1. 폐암	61,381							○	◎	●	△ 27.8%
2. 간암	55,452						●	◎	○		△ 12.1%
3. 대장암	84,803						●	◎	○		△ 5.8%
4. 위암	107,268						●	◎	○		△ 6.6%
5. 췌장암	10,329						●	◎	○		△ 33.2%
6. 유방암	662						●	◎	○		△ 31.1%
7. 전립선암	96,934							○	◎	●	△ 54.4%
8. 혈액암	36,279						●	◎	○		△ 30.0%
9. 식도암	9,465						●	◎	○		△ 20.3%
10. 방광암	29,741							○	◎	●	△ 29.0%
11. 뇌(신경)암	6,767					●	◎	○			△ 10.2%
12. 자궁경부암											
13. 뇌혈관질환	518,318						●	◎	○		△ 19.5%
14. 심혈관 질환(허혈성 및 기타 심장질환)	669,298						●	◎	○		△ 23.3%
15. 고혈압	3,278,468						○	◎	●		△ 18.6%
16. 폐렴	666,485	◎						●	○		▼ 7.2%
17. 호흡기 결핵	28,400						○	◎	●		▼ 33.2%
18. 만성폐색성 폐질환	172,717							○	◎	●	△ 6.1%
19. 기흉	17,699		○	◎					●		▼ 13.6%
20. 인플루엔자	830,019	◎	○		●						△ 126.3%
21. 과다활동성주의력 결핍장애(ADHD)	55,488	○	◎	●							△ 39.6%
22. 우울증	267,215			◎			●	○			△ 36.1%
23. 수면장애(불면증)	249,072						●	◎	○		△ 24.7%
24. 공황장애	84,089				●	◎	○				△ 59.7%
25. 조현병(정신분열증)	54,638				●	◎	○				▼ 0.2%

◎ : (2019년간) 환자수 1위 △ : 증가
○ : (2019년간) 환자수 2위 ▼ : 감소
● : (2019년간) 환자수 3위

(단위 : 명)

질병명	환자수	연령대									환자수 증감 (2015년 대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26. 치매	169,526							●	○	◎	△ 44.2%
27. 정신지체	16,048	●	◎	○							△ 9.1%
28. 틱장애	14,716	○	◎	●							△ 15.8%
29. 뇌전증(간질)	81,426			◎		●	○				△ 6.0%
30. 파킨슨병	45,351							●	◎	○	△ 25.1%
31. 당뇨병	1,792,531						○	◎	●		△ 30.8%
32. 성조숙증	12,796	○	◎								△ 91.7%
33. 간 질환	873,103					○	◎	●			△ 30.6%
34. 위 및 십이지장 궤양	544,388					●	◎	○			▼ 14.2%
35. 치질	331,258				●	○	◎				▼ 1.0%
36. 치은염 및 치주질환	8,243,493					○	◎	●			△ 22.8%
37. 신부전	181,136							○	◎	●	△ 49.6%
38. 요실금	743							●	◎	○	△ 11.6%
39. 방광염	102,642	◎					●	○			△ 8.6%
40. 요로결석증	200,094					○	◎	●			△ 15.2%
41. 선천성 대사이상	991,083					●	◎	○			△ 46.7%
42. 선천성 기형											
43. 염색체 이상	3,145	◎	○	●							△ 26.3%
44. 아토피 피부염	449,675	◎	○	●							△ 2.4%
45. 알레르기성 비염	7,241,893	◎	○			●					△ 7.8%
46. 대상포진	289,084					●	◎	○			△ 10.9%
47. 백내장	598,415						●	○	◎		△ 22.7%
48. 관절염	2,052,745						○	◎	●		△ 19.1%
49. 손상 및 화상	6,999,659		●			○	◎				△ 0.9%
50. 중독	5,715						◎	●	○		△ 8.5%
51. 류마티스 관절염	59,615					○	◎	●			▼ 6.4%

관심질병 요약(2019년, 여자)

질병명	환자수	연령대									환자수 증감 (2015년 대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1. 폐암	36,717						●	◎	○		△ 44.9%
2. 간암	18,953							○	◎	●	△ 11.4%
3. 대장암	57,887						●	○	◎		△ 8.8%
4. 위암	52,371						●	◎	○		△ 6.3%
5. 췌장암	9,742							○	◎	●	△ 43.8%
6. 유방암	196,316					●	◎	○			△ 39.3%
7. 전립선암											
8. 혈액암	29,304						○	◎	●		△ 31.1%
9. 식도암	1,037						●	◎	○		△ 24.8%
10. 방광암	7,041							●	◎	○	△ 34.0%
11. 뇌(신경)암	6,377					●	○	◎			△ 8.2%
12. 자궁경부암	25,711					○	◎	●			▼ 1.5%
13. 뇌혈관질환	527,518							○	◎	●	△ 18.1%
14. 심혈관 질환(허혈성 및 기타 심장질환)	464,547							○	◎	●	△ 11.4%
15. 고혈압	3,255,770						●	◎	○		△ 10.4%
16. 폐렴	737,427	◎						○		●	▼ 8.7%
17. 호흡기 결핵	19,059							●	○	◎	▼ 34.8%
18. 만성폐색성 폐질환	52,770							●	◎	○	▼ 24.1%
19. 기흉	3,216			◎	●	○					▼ 5.9%
20. 인플루엔자	942,403	◎	○		●						△ 113.0%
21. 과다활동성주의력 결핍장애(ADHD)	16,774	●	◎	○							△ 76.1%
22. 우울증	531,028						○	◎	●		△ 30.1%
23. 수면장애(불면증)	386,193						◎	○	●		△ 23.0%
24. 공황장애	99,510				●	◎	○				△ 66.9%
25. 조현병(정신분열증)	66,427				●	○	◎				△ 5.8%

◎ : (2019년간) 환자수 1위 △ : 증가
○ : (2019년간) 환자수 2위 ▼ : 감소
● : (2019년간) 환자수 3위

(단위 : 명)

질병명	환자수	연령대									환자수 증감 (2015년 대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26. 치매	416,994							●	○	◎	△ 43.4%
27. 정신지체	7,743	●	◎	○							△ 4.3%
28. 틱장애	4,031	○	◎	●							△ 12.4%
29. 뇌전증(간질)	65,768			◎		●	○				△ 7.7%
30. 파킨슨병	64,933							●	○	◎	△ 17.9%
31. 당뇨병	1,431,676						●	◎	○		△ 24.0%
32. 성조숙증	94,485	◎	○								△ 36.9%
33. 간 질환	675,118					●	◎	○			△ 38.8%
34. 위 및 십이지장 궤양	544,836					●	◎	○			▼ 16.3%
35. 치질	301,326				●	○	◎				▼ 3.0%
36. 치은염 및 치주질환	8,685,819					●	◎	○			△ 25.9%
37. 신부전	113,986							●	◎	○	△ 47.9%
38. 요실금	49,291					●	◎	○			▼ 8.7%
39. 방광염	1,547,052					○	◎	●			△ 2.8%
40. 요로결석증	101,263					●	◎	○			△ 12.6%
41. 선천성 대사이상	1,493,482						○	◎	●		△ 45.7%
42. 선천성 기형											
43. 염색체 이상	4,471	◎	○	●							△ 22.0%
44. 아토피 피부염	499,677	◎	○	●							△ 2.7%
45. 알레르기성 비염	8,861,473	◎			○	●					△ 6.3%
46. 대상포진	446,439					●	◎	○			△ 10.9%
47. 백내장	882,486						●	○	◎		△ 23.5%
48. 관절염	3,331,367						●	◎	○		△ 9.6%
49. 손상 및 화상	6,727,887					●	◎	○			△ 4.7%
50. 중독	10,816			○		◎	●				△ 14.7%
51. 류마티스 관절염	184,674						◎	○	●		▼ 5.8%



| 부록 2 |

2020년 건강검진 안내문

2020년 건강검진 안내문입니다

“최근 10년간
본인의 검진결과” 확인

건강정보전문 포털사이트 건강IN
(<http://hi.nhis.or.kr/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 모바일 앱
(M건강보험/검진결과 조회)

아름 때나 건강할 때나 **늘 고마운 친구처럼** 함께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안내문 페이지별 보이스아이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강 검진 안내

일반건강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만 20세이상 세대원 중 짝수연도 출생자

피부양자 만 20세이상 짝수연도 출생자

직장가입자 비사무직 전체,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대상자 (2018년도부터 사무직 격년제는 출생연도(짝, 홀) 기준 적용) ※ 사업장으로 검진대상자 명부가 송부됩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만19세~만64세 짝수연도 출생자

공통 검사항목



※ 시력, 청력은 운전면허 신체검사 수치로 활용되므로, 안경착용자는 교정시력으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상질환	검사항목	대상질환	검사항목
비만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당뇨병	공복혈당
시각, 청각이상	시력, 청력	간장질환	AST, ALT, r-GTP
고혈압	혈압	폐결핵 / 흉부질환	흉부방사선촬영
신장질환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e-GFR	구강질환	구강검진
빈혈증	혈색소		

성·연령별 검사항목



※ 전년도 대상자 중 건강검진을 한 종목도 받지 않은 분은 공단에 신청하시면 공통항목에 한하여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사항목	대상연령	비고
이상 지질혈증 · 총콜레스테롤 · HDL/LDL 콜레스테롤 · 중성지방(트리글리세라이드)	남자: 만 24세 이상 여자: 만 40세 이상(4년 주기)	남자: 만 24세, 28세, 32세... 여자: 만 40세, 44세, 48세...만 해당
B형간염항원, 항체	만 40세	면역자, 보균자는 제외
골밀도 검사	만 54세,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	만 66세 이상(2년 주기)	만 66세, 68세, 70세...
정신건강(우울증) 검사	만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생활습관평가	만 40세, 50세, 60세, 70세	
노인신체기능 검사	만 66세, 70세, 80세	
치면세균막 검사	만 40세	구강검진 항목

확진검사



대상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자 **실시기간** 2021년 1월 31일까지

고혈압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당뇨병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 검진 결과 통보서 지참하여 가까운 병 · 의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제외)에 방문하여 실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 전달체계에 따라 의원에서 실시)
· 진료와 해당 검사비용을 1회에 한하여 본인부담 면제 (단, 지정검사 외 추가검사 시에는 본인 부담 비용발생)

암 확진 시기별 5년 생존율

국가암검진은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발병하고, 조기진단 방법이 있으며, 치료할 수 있는 **6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으로 구성되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6대암 요약병기별 5년 상대 생존율

(2012~2016)



(단위: % / 국립암센터, 2018년 발표)

암 진행 정도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국한 주1)	96.5	95.3	56.4	98.6	93.2	65.9
국소 주2)	61.3	81.8	19.0	91.5	72.8	37.1
원격 주3)	5.9	20.0	2.6	38.8	25.2	6.7
모름 주4)	41.4	56.7	24.7	82.3	67.2	20.3

주) 1. 암이 발생한 장기를 벗어나지 않음
2. 암이 발생한 장기 외 주위 장기, 인접 조직 또는 림프절을 침범
3. 암이 발생한 장기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부위에 전이
4. 병기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암은 확진시기에 따라 **5년 생존율**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가장 **생존율이 높은 국한(초기) 단계**에 확진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검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국가암검진비 지원(혜택) 대상자인 경우 올해 검진을 받지 않고 다음 연도에 추가 신청시 국가암검진비 지원 대상자격이 상실되어 국가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건강보험 급여 혜택은 동일합니다.)

1 | 2

위암 검진

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1단계 검진결과
암 의심자의
2단계 검진 실시기간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입니다.

암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정기검진으로 조기에 암을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입니다.



검사항목	10% 본인부담 비용	대상자
문진 및 진찰, 상담	692원	만 40세이상 남, 여
위장 조영검사	4,638 ~ 5,199원	
위 내시경 검사	6,987원	
조직검사	4,370 ~ 6,570원	

※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 수검자가 10%를 부담합니다. (본인부담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개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 국가암검진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 정해진 항목 이외의 검사 시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면내시경 마취비용 등)
※ 위암 산정특례자는 대상에서 유예 (단, 본인검진 희망시 대상등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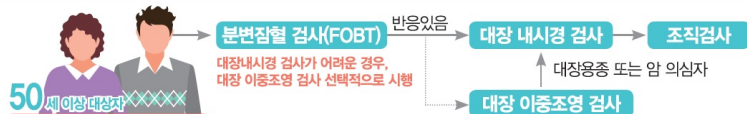
대장암 검진

만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 검사(대변검사)를 받습니다.



2단계 검진은
분변잠혈 검사(대변검사) 결과
반응있음인 분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2단계 검진
실시기간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입니다.



분변잠혈 검사(대변검사) 채취방법
채변통에 변을 받아서 하는 검사로서, 대변의 3곳 이상을 깊이 찌러서 충분한 양의 분변을 깨끗한 채변통에 담아 서늘한 곳이나 냉장보관 하셨습니다 검진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분변잠혈 검사(대변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대장 내시경 또는 대장 이중조영 촬영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검사항목	10% 본인부담 비용	대상자
문진 및 진찰, 상담	본인 부담 없음	만 50세이상 남, 여
분변잠혈검사		
대장 이중조영 촬영 검사		
대장 내시경 검사		
조직검사		

※ 대장암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 정해진 항목 이외의 검사 시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수면내시경 마취비용 등)
※ 대장암 산정특례자 또는 대장내시경 검사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검자는 대상에서 유예 (단, 본인 검진희망시 대상 등록 가능)

3 | 4

간암 검진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 1년에 2회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간 초음파 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혈액검사)를 받습니다.



공단검진 외에 별도로 받은
간염 검사 결과 B형 또는 C형 간염보유자는
검사 결과서를 공단에 제출하시면
지속적으로 간암 검사 대상으로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암 예방과 검진,
건강한 생활습관이 암 예방의
지름길입니다.



40세 이상 대상자

간 초음파 검사 + 혈청 알파태아단백검사

고위험군
기준

- ① 간경변증 ②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양성
- ③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 ④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간암은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본인이 해당되는지 평소 확인하시고
건강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검사항목	10% 본인부담 비용	대상자
문진 및 진찰, 상담	692원	만 40세 이상 남, 여 고위험군
간초음파검사 + 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	9,200 ~ 9,798원	

※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 수검자가 10%를 부담합니다. (본인부담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개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 국가암검진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 간암 산정특례자는 대상에서 유예 (단, 본인 검진희망시 대상 등록 가능)

여성암 검진

유방암 검진 : 만 40세 이상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 받습니다.
자궁경부암 검진 : 만 20세 이상 자궁경부 세포 검사 받습니다.



유방암 검진



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유방촬영검사

유방
촬영

유방 촬영술은 유방질환의
진단에 있어 무중상 초기
유방암을 발견하는 가장
필수 기본적인 방법으로
유방 압박으로 인한
고통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검사항목	10% 본인부담 비용	대상자
문진 및 진찰, 상담	692원	만 40세 이상 여성
유방촬영(좌, 우)	1,699 ~ 3,730원	

※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 수검자가 10%를 부담합니다.

(본인부담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개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 국가암검진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자궁경부암 검진



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자궁경부 세포 검사

자궁경부
세포검사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검사 전에 반드시
검진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검사항목	10% 본인부담 비용	대상자
문진 및 진찰, 상담	본인 부담 없음	만 2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 세포검사		

※ 자궁경부암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 유방암, 자궁경부암 산정특례자는 해당 암검진 대상에서 유예
(단, 본인 검진희망시 대상 등록가능)

516

폐암 검진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를 이용한 폐암검진을 받습니다.



폐암검진은 저선량 흉부CT 검사와
검진결과 사후상담만 국가암검진에
해당하며, 검진결과 사후상담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입니다.

암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정기검진으로 조기에 암을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입니다.



만 54~74세 폐암발생 고위험군

저선량 흉부 CT 검사

폐암발생
고위험군
기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현재 흡연중인 자로 해당연도 전 2년내 국가건강검진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하루 한갑 기준 30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건강보험 급여치로 참여자

해당연도 전 2년내 급여치로 사업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하루 한갑 기준 30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검사항목	10% 본인부담 비용	대상자
문진 및 진찰, 상담	692원	만 54세~74세 해당 연령 남·여 고위험군
저선량 흉부CT 검사	8,458원	
검진결과와 사후상담	1,500원	

※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 수검자가 10%를 부담합니다. (본인부담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개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 국가암검진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 폐암 산정특례자는 대상에서 유예(단, 본인검진 희망시 대상등록 가능)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검진 사업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
 - ※ 단 1단계 검진 필수이며 암검진 방법의 절차를 준수해야 함
 - ※ 폐암환자는 국가암검진 수검여부와 상관없이 확인된 암환자
-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 C, E 해당자) 만18세 이상 암환자

대상자 선정기준

- ◎ **건강보험가입자**
 - 2020년도 국가암검진 대상자 중 당해연도 신규로 암을 확인 받은자
 - 2019년 이전에 국가암검진 절차에 따라 검진을 하고 암진단을 받은 자 중 1월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 2018년 또는 2019년 의료비 기 지원 대상자 중 **1월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 폐암환자는 1월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직장가입자 100,000원이하 (2020.1월)

지역가입자 97,000원이하 (2020.1월)

지원기간

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간

신청 및 지급기간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 또는 병원 내 사회사업실에 문의

지원대상 암

- ◎ **건강보험가입자**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 C, E 해당자) 모든 암종

의료비 지원 한도액

- ◎ **건강보험가입자** 1인당 연간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최대 200만원
-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 C, E 해당자) 1인당 연간 진료비 중 최대 220만원 (건강보험 적용안되는 100만원 포함)

718

장애인 검진기관 및 건강검진 활용 안내



장애 친화 검진기관 안내

※ 장애 친화 검진기관 이외에도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정보 공동활용을 통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지역	검진기관명	전화번호	검진 실시 여부							
			일반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 경부암	폐암	구강
서울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02) 2276-7160	○	○	○	○	○	○	○	○
대전	대청병원*	1899-6075	○	○	○	○	○	○	○	○
경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031) 888-0777	○	○	○	○	○	○	○	○
강원	강원도 원주의료원	033) 760-4550	○	○	○	○	○	○	○	○
경북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054) 850-6277~8	○	○	○	○	○	○	○	○
경남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055) 249-1234~6	○	○	○	○	○	○	○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055) 360-1280	○	○	○	○	○	○	○	○
제주	중앙병원*	064) 786-7282	○	○	○	○	○	○	○	○

※ 주) * 표시된 검진기관은 최적화된 장애인 자립서비스 제공을 위해 편의시설 개보수 중 이므로 이용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시험 응시·적성검사 시 **신체검사 (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 단, 검진기관에서 공단에 청구 장산 완료한 것에 한함.

◎ 신청방법

- 경찰서 또는 면허시험장에서 정보이용 동의
- 운전면허 적성검사 인터넷 신청시 활용가능

◎ 내용

- 1종 보통면허, 2종 면허 신체검사비 절약

**「적성검사 미필 시
과태료 부과 및 면허취소 가능」**

일상생활에서의 우울증 극복 방법

우울 증상이 있는 경우 **광역·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상담전화(1577-0199)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획된 생활

의욕저하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해 매 주를 기준으로 자신이 할 일을 계획(Schedule)을 세웁니다. 매일, 각 시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데, 식사, 식사 준비 등 일상적으로 해야 하는 것부터, 재미있는 취미나 운동까지 포함하여 계획을 세웁니다.

즐거운 활동

이전에 재미있고, 즐거웠던 활동들을 생각해 보고, 이를 일상생활 계획에 포함시켜 봅니다.

운동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운동(Exercise)을 합니다. 운동은 기분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고, 길게는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조깅, 자전거 타기, 에어로빅, 걷기 운동 등 모든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적극성

자신의 기분이나 의견을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나쁘게 볼까봐 걱정되어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으나 이러한 생각들도 우울증 증상의 하나이므로, 자신감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긍정적 사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한 카드에 자신에 대한 가장 부정적이고, 지속되고, 반복되는 한 가지 생각을 적고, 뒷면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3가지 긍정적인 생각을 적습니다. 이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주 긍정적인 생각을 확인합니다. 이는 부정적인 사고 형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9 | 10



건강검진표 이메일 신청방법



건강검진표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 건강검진표 발송방법 다양화를 통한 맞춤형 검진 안내를 위해,공단에서는 이메일 건강검진표 신청을 받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 앱)** 건강검진 ○ 나의 건강검진정보 ○ 검진대상조회 ○ 건강검진표 수령방법
- **건강보험공단 M건강보험 (앱)** 민원서비스 ○ 건강검진 ○ 건강검진표 수령방법 선택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성장 단계별 건강검진 프로그램입니다.

- **영유아가 건강한 미래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문진과 진찰, 키, 몸무게, 머리둘레 등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을 통해 영유아의 성장, 발달 사항을 꾸준히 점검하여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개인비용 부담없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검진 때마다 보호자에게 안전사고 예방, 영양교육 등 아이의 월령에 맞는 유용한 육아지침 및 건강교육을 포함한 육아상담을 제공합니다.
- **만족스런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발육지연, 과체중 등 발달지연 성장과 발달이상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진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조기치료 할 경우에는 완치율이 매우 높아 평생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1

h·well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20년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안내문입니다

**“최근 10년간
본인의 검진결과” 확인**

건강정보전문 포털사이트 건강IN
(<http://hi.nhis.or.kr/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 모바일 앱
(M건강보험/검진결과 조회)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늘 고마운 친구처럼** 함께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안내문 페이지를 보이스아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안내

암 검진과 함께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대상**으로 아래 검사항목 중 해당 연령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 시력, 청력은 운전면허 신체검사 수치로 활용되므로, 안경착용자는 교정시력으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66세이상 짝수연도 출생자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		
검사항목	검사 항목별 대상 연령	비고
진찰 및 상담	대상 전체	
신체계측 검사	대상 전체	
시력 · 청력 검사	대상 전체	
골밀도 검사	만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 검사	만 66세 이상(2년 주기)	만 66세, 68세, 70세...만 해당
정신건강(우울증) 검사	만 70세	
생활습관평가	만 70세	
노인신체기능 검사	만 66세, 70세, 80세	

※ 검진비용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 단,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이 불가한 검진종목이오니 금년내에 꼭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
알고 싶은 건강생활 정보
Healthy lifestyle information

2012년 6월 창간
2020년 9월 인쇄
2020년 9월 발행

발행인 김 용 익
발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Tel 033. 763. 2440~1

편집·인쇄_ 지성프린팅
Tel 033. 765. 2491

【 협조해 주신분 】

변형규 위원(건강보험통계자문단 /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김새롬 위원(건강보험통계자문단 / (사) 시민건강연구소 젠더와 건강연구센터장)
이희원 부장(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전략실)
김두환 센터장(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실)

이 책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2020 알고 싶은
건강생활 정보
Healthy lifestyle information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고객센터 : 국번없이1577-1000 | www.nhis.or.kr